內浦地方의 古代史와
洪州 周留城과 唐津 白村江 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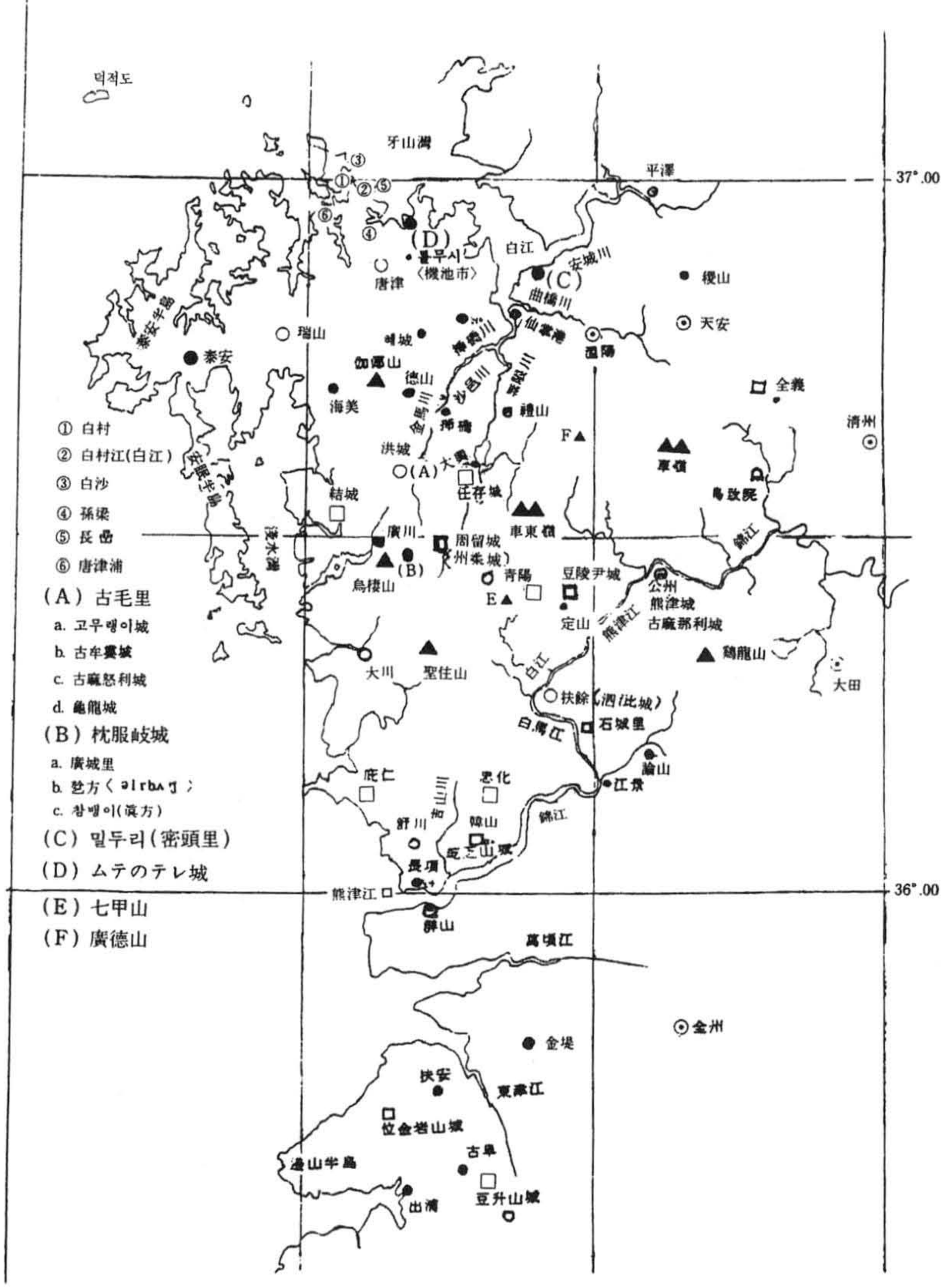
內浦地方古代文化研究所 朴 性 興 지음

內浦地方의 古代史와
洪州 周留城과 唐津 白村江 硏究

內浦地方古代文化硏究所 朴 性 興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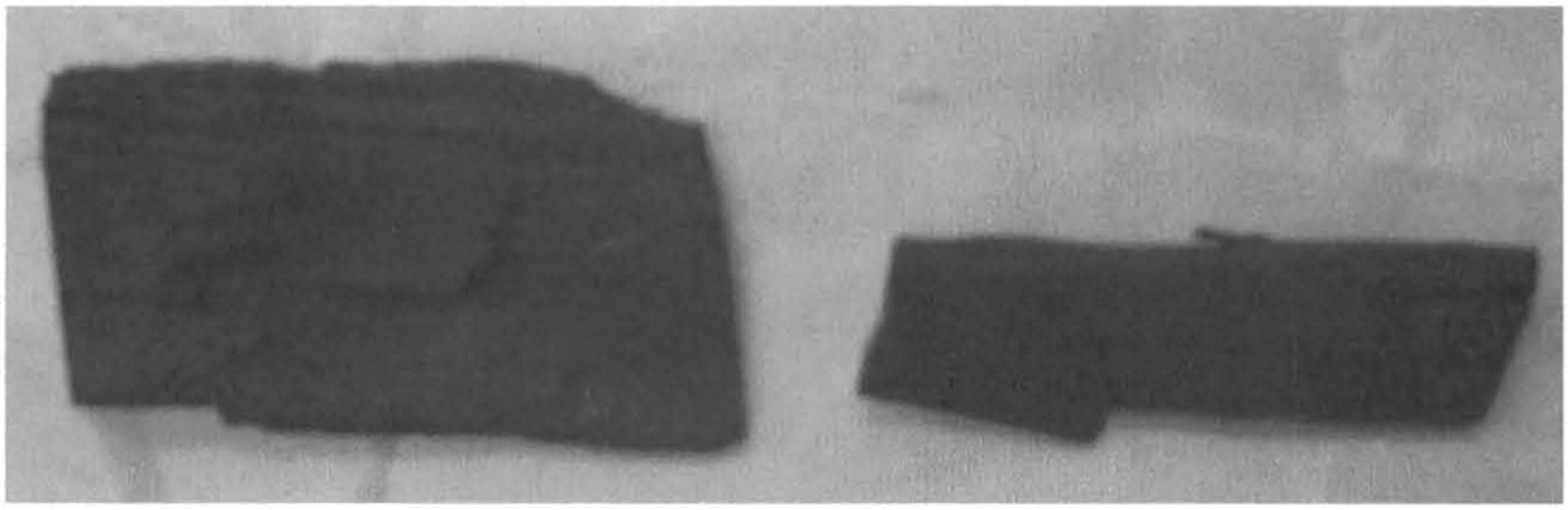
百濟末期의 忠淸南道 地方圖

(朴性興原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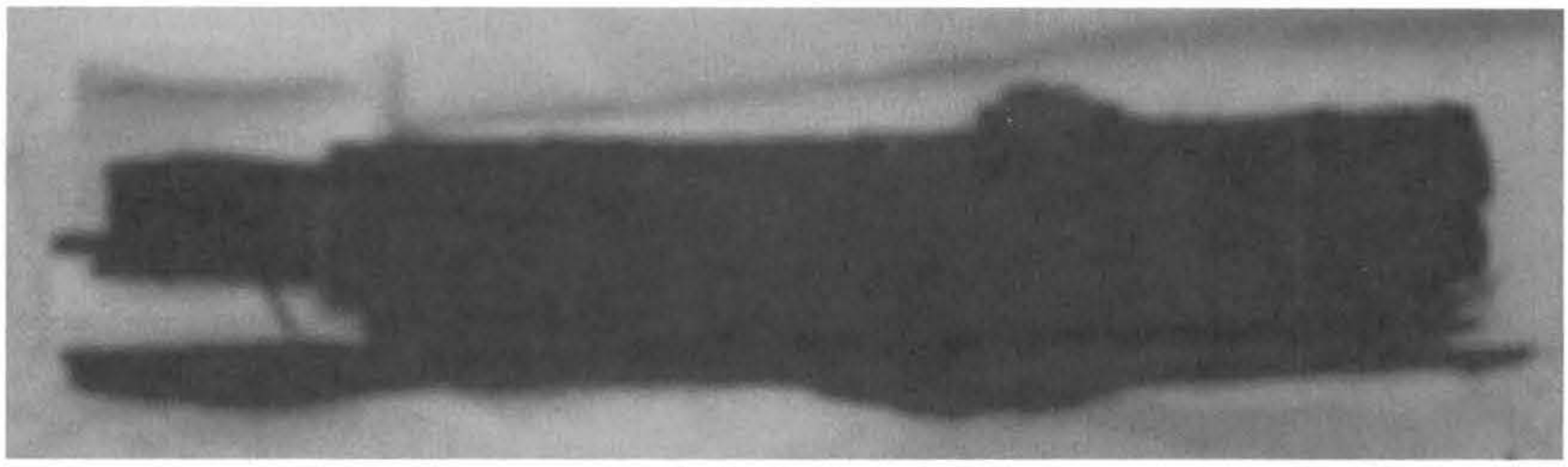


백제부흥전사관련 유적의 가설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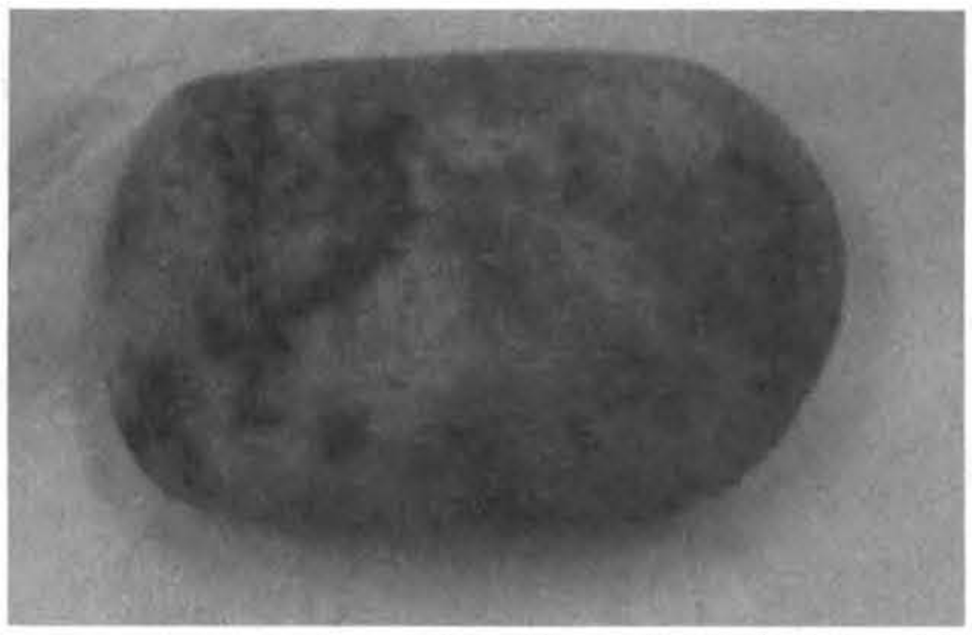
지 명	소 재 위 치
임 존 성	대흥(지삼촌) a) 대책:봉수산 꼭대기(예산군 대흥과 홍성군 금마 사이) b) 소책:상중리 봉수산 아래〈대흥중학교 옆 관록재(성)〉 c) 임나성:대흥면 장전리 토성
두 릉 윤 성	a) 두릉성:청양군 정산면 백곡리(금반양토성) b) 윤성:청양군 정산면 백곡리(계봉산성)
고 사 비 성	a) 문성리 토성:정산면 문성리 | 가소천ー까치내·작천리
두 솔 성	칠갑산 서남기슭 청양군 적곡면 적곡리 산꼭대기, 각산ー칠갑산
주 류 성 주유성ーシヌサツ 석성ーツヤタサツ	홍성군 장곡면 대현리·산성리의 학성산성과 〈얼방성=석성〉 및 대부동 분지
침 복 기 성	심복기사시ー참뱅이ー남성재토성(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골뜸)ーシムブクサシ
사 평 성	사평현성(당진군 신평면 운정리)
피 성 헤사시·ヘサシ	혜성=몽산성(당진군 면천면 성상리 재골)
백 촌 하구스기·ハクスキ	차돌배기마을(백석촌) (당진군 석문면 삼봉리 1구)
백 촌 강 ハワスキのエ	백석촌의 〈입강·이리에(イリエ)〉, 백석촌의 포구·웅포
백 강	아산만(손인사의 바다건너 온 원군의 상륙지점인 밀두리와 선장항 사이)
백 강 지 구 (= 백 촌 강)	당진군 석문면에서 고대면에 걸친 아산만 입구 부위의 연안(해)
백 사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의 4㎞에 달하는 백사장 어항 주변
장 암	당진군 석문면 삼봉리의 바다로 뻗은 100여미터 암맥
지 벌 포	당진군 고대면 장항리의 지섬 옛포구
손 량	당진군 고대면 장항리와 대촌리 중간에 위치한 좁은 지형의 옛포구(장항교 하류 500m)
복 신 굴	오서산 북동쪽 중턱 정곡면 광성리 내원사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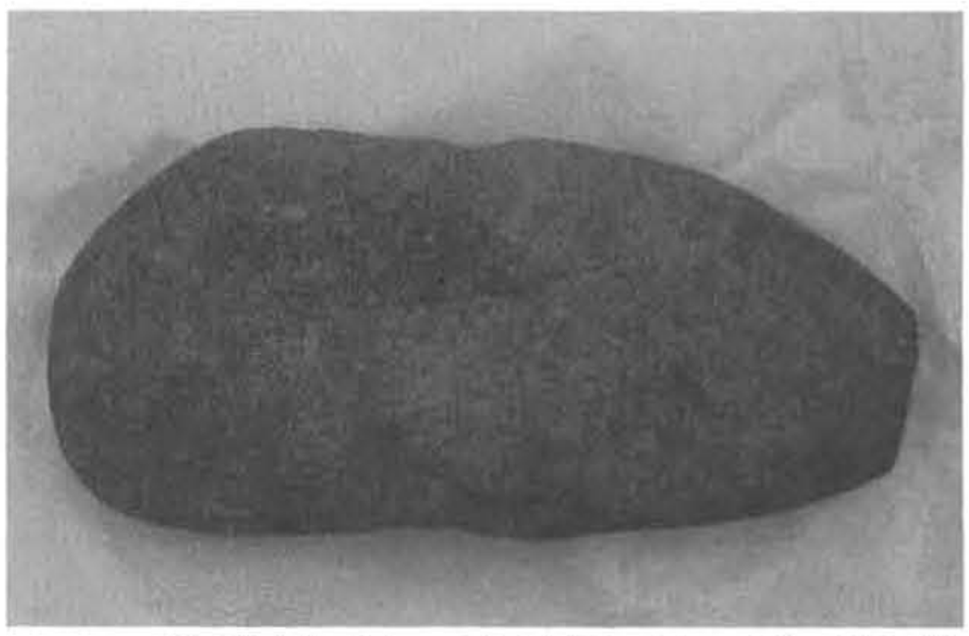
침향(출처 : 홍성군 홍북면 석택리[금마천])



침향(출처 : 예산군 삽교읍 수촌리 앞[금마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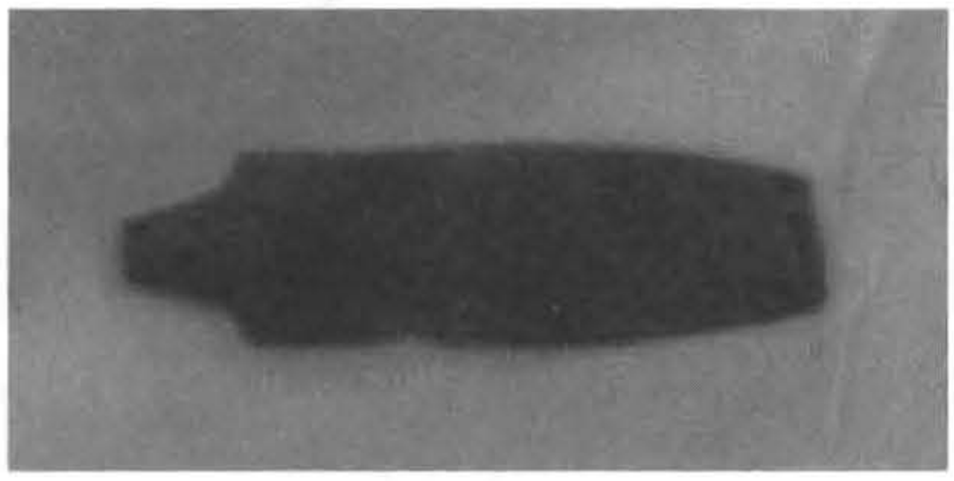
돌도끼(출처 : 예산군 삽교읍 수촌리[안다락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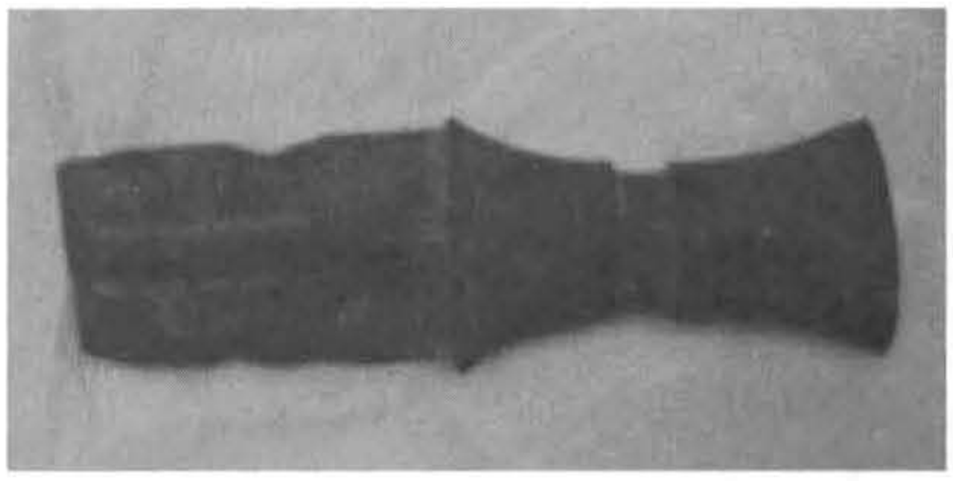
침향(출처 : 예산군 삽교읍 성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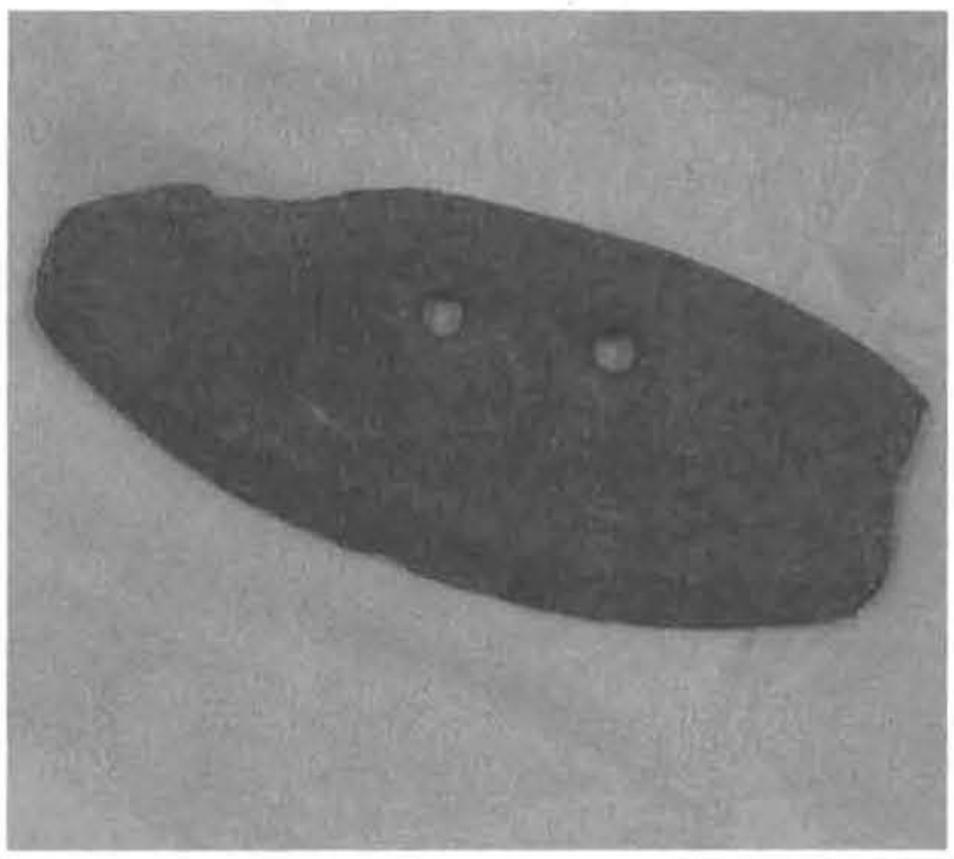
(출처 : 예산군 광시면 장전리)



돌화살촉(출처 :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신생원 뒷산)



석도(출처 :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반원형석도(출처 : 예산군 오가면 원천리)



청동마(출처 : 서산시 운산면 원평리)

目　　次

머릿말 ····· 15

가설적(假說的) 문제제기(問題提起) ····· 21

廣開土大王碑文解譯과 未詳城의 位置批正 ····· 29

제1편 내포지방(內浦地方)의 고대문화(古代文化) ····· 31

1장 내포지방(內浦地方) ····· 33

2장 내포지방(內浦地方)의 고대문화(古代文化) ····· 35

3장 내포지방(內浦地方) 출토(出土)의 청동기류 ····· 36

4장 예산군과 홍성군은 진번국(眞番國)의 고지(故地) ····· 39

제2편 진번(眞番)과 진번군(眞番郡) 문제 ····· 47

1장 진번(眞番)의 번국(藩國) ····· 49

2장 한사군(漢四郡)과 진번군(眞番郡) 문제(問題) ····· 52

1) 한사군(漢四郡) ····· 52

2) 진번군(眞番郡) 문제(問題)라 함은 ····· 53

3장 진번군(眞番郡) 북방설(北方說)과 남방설(南方說) ····· 54

4장 삽현(霅縣)의 필수적(必須的) 여건(與件) ····· 58

5장 진번군(眞番郡)은 대방군(帶方郡)의 남쪽 ····· 61

6장 진번국(眞番郡)과 (진국)辰國과 대방군(帶方郡) ····· 65

제3편 진번국(眞藩國)의 위치 ····· 69

1장 위치에 대한 제시 ····· 71

2장 반국은 진번군중의 남부 8현 지방 ····· 72

3장 반국(진번국)의 주부(主部)는 예산군 삽교지방 ····· 73

4장 진번국의 번성(潘城)과 한진번군(漢眞番郡)의 삽현(霅縣) ··· 79

제4편 목지국고(目支國考) ····· 85
1장 서(序) ····· 87
1장 목시토성(土城)-목지성(目支國) ····· 88
(석기시대의 "목시토성"에서 마한의 "목지국(目支國)"으로
2장 목지국은 진번의 정통－辰國(狹義)은 목지국(目支國)의 고지
(故地)인가?(이병도 학설에 대한 검토) ····· 96
3장 진국(辰國)의 진왕(辰王)과 목지국(目支國)의 진왕(辰王) ····· 103
1. 진국(辰國)과 진왕(辰王) ····· 103
2. 진국(辰國)의 위치(位置) ····· 105
3. 목지국의 등장 ····· 107
4. 목지국의 진왕(辰王)과 그 권위(權位) ····· 109

제5편 제학설(諸学說)에 대한 검토(檢討) ····· 119
1장 귀결(歸結)없는 진번군 연구(眞番郡 硏究) ····· 121
2장 금강(熊川-熊津江) 유역설(流域說) ····· 122
3장 무릉서(茂陵書)는 위서(僞書)인가? ····· 124
4장 충청남도의 옥토지대(沃土地帶)는 두 곳 ····· 129
- 이와기찌(稻葉岩吉) 박사의 [충청남도 옥토설]에 대하여
5장 삽현(霅縣)은 깊고 짧은 하천변(河川辺) ····· 130
- 양수경의 〈웅진강설〉과 이병도 박사의 반론에 대하여
6장 번국(藩國)의 해산물(海産物) ····· 135
- 이마니시(今西龍) 박사의 광역 금강유역설에 대하여
7장 거장안(去長安) 7,640里 ····· 138
1) 진번(眞番) 재북방설(在北方說) ····· 138
2) 남방설(南方說)의 주류(主流)는 금강(錦江)-웅진강 유역설
(熊津江 流域說) ····· 139

제6편 삽교지명고(揷橋地名考) —언음적(言音的)인 고찰(考察) …… 149
1장 삽교(揷橋) …… 151
2장 삽교천(揷橋川) …… 152
3장 삽(揷)자의 기인(基因)은 삽(霅) …… 155
— 사읍천(沙邑川)은 〈서내—삽〉에 대한 차음표기다. —

제7편 내포지방(內浦地方)과 고대일본(古代日本) …… 161
1장 대흥임성(大興任城) …… 163
2장 내포지방(內浦地方)과 고대일본(古代日本) …… 164

제8편 결어(結語) …… 175

■ 홍주주류성과 백촌강 연구 …… 187

머릿말

1940년전 지방에서의 교통수단(交通手段)으로는 자전거가 고작이던 무렵의 7~8년간을 예산군에서 근무(勤務)한 덕분에 관내(管內)를 두루 돌아볼 수 있었는데, 내포지방(內浦地方) 특히, 삽교천 유역이야 말로 고고학적(考古學的) 처녀지(處女地)라고 느껴왔다.

많은 토성(土城), 지석묘(支石墓), 선돌(menhir), 사찰유허(寺刹遺墟)와 약간의 고분(古墳). 게다가 근년(近年)들어 8~9건의 우수한 청동기(靑銅器)의 출토(出土)가 있었기에 더욱 그렇다.

신암면(新岩面)의 용산[龍山－94m 목시지방의 주봉(主峰)]에 올라 살펴보면 동(東)으로 차령산맥(車嶺山脈)과 오서산(烏棲山), 서(西)에는 가야산준맥(伽倻山峻脈). 이것들이 포괄(包括)하는 폭 7~80리, 길이 170~180리의 광활한 완구릉지대(緩丘陵地帶)와 예당(禮唐)의 비옥(肥沃)한 충적평야(冲積平野). 이를 적셔주는 두줄기 젖줄－ 삽교천(揷橋川)과 무한천(無限川)은 「삼협로강(三峽鷺江)」을 이루면서 북쪽 아산만(牙山灣)으로 흘러든다.

김추사(金秋史)의 「연강첩장(煙江疊嶂)」. 그 경관(景觀)속에 어찌 고대문명(古代文明)이 없었으랴.

나는 우리고장의 근원(根源)이 밝혀지기를 기대하였기에 그간 몇분 학자(學者)들에게 내포지방(內浦地方)의 고대문화(古代文化)에 유의(留意)할 것을 권유(勸誘)하여 보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아주는 이 없었다.

내포지방(內浦地方)을 소외 경시(疏外 輕視)하는 경향(傾向)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하다.

지석묘(支石墓) 연구(硏究)를 예로들면 미가미(三上次男) 박사의 「한국(韓國) 지석묘(支石墓) 집성표(集成表)」에서는 예산군(禮山郡) 것은 물론이고, 충남의 절반지역(折半地域)에 해당하는 내포

지방(內浦地方) 것은 실제로는 지석묘(支石墓)라고 보기 어려운-부락명(部落明)이 "지석리(支石里)"인-응봉면(應峰面)의 흔들바위 한 건(件)이 수록(收錄)되어 있을 뿐이고, 8년간에 걸쳐 남한의 지석묘(支石墓) 1,723기(基)를 실지(實地)답사(踏査) 하였다는 미스오까(光岡雅彦)씨의 큰 업적(業績)도 삽교천(揷橋川) 유역의 대상물(對象物)에 관한한 전무(全無)함은 이를 말한다.

또 지명채집(地名採集)을 예로들면 김성호(金聖昊)씨는 「비류백제(沸流百濟)와 일본(日本)의 국가기원(國家起源)」에서 여러 계통(系統)의 지명일람(地名一覽)을 수용(授用)하고 있는데, 내포지방(內浦地方)의 "웅계지명(熊系地名)"으로는 서산(瑞山)의 웅도(熊島)와 홍성(洪城)의 금마천(金馬川)을 채록(採錄)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예산(禮山) 주변지방의 것만을 살펴보아도

① 예산읍(禮山邑) 금오산(金烏山) 동록(東麓) 의 "거무실".

이곳 발연리(勃然里)에서 1940년대에 석관묘(石棺墓)를 10여기(基) 발굴(發掘)한 바 있었다.

② 대술면(大述面)의 "곰실". 이 곳에서 시산리(詩山里)와 불운리(不云里)지방에 걸쳐, 선돌(menhir)과 지석묘(支石墓)가 다수 산재(散在)하며, 석도류(石刀類)가 출토(出土)된다.

③ 합덕(合德) 옥금리(玉琴里) "거문들"

④ 고덕(古德) 상궁리(上宮里) "궁(宮)말" 앞을 "거문들"

⑤ 덕산(德山) 가야산(伽倻山)의 고명(古名)이 "거문산(山)"

⑥ 고덕지방(古德地方)의 고지명(古地名)이 백제때는 "금물현(今勿縣)". 당(唐)의 점령(占領)하에서는 "지심주(支潯州) 기문현(己汶縣)". 신라가 차지하고는 "금무현(今武縣)". 이 모두 "곰-웅(熊)"에 해당한다.

⑦ 상기 "금마천(金馬川)"은 현 삽교천(揷橋川)의 상류(上流)를 말함인데, 김정호(金正浩)의 대동여지도(大動與地圖)와 옛 덕산읍지(德山邑誌)에서는 동일(同一) 하천의 상류(남쪽)를 "금마천(金馬川)". 하류(북쪽)을 "사읍천(沙邑川)"이라 기재(記載)하였다.

이 사읍천(沙邑川)에 가설(架設)한 다리가 "사읍(沙邑)다리"→"삽다리"→"삽다리＋내"→"삽교천(揷橋川)"으로 변천(變遷)한 것이다.

"금마(金馬)"라는 지명(地名)은 홍성군 "금마면(金馬面)"과 삽교천(揷橋川) 상류에 "금마천(金馬川)"으로 남아있다.

⑧ 그러면 예산(禮山)의 삽교읍(揷橋邑)과 홍성(洪城)의 금마면(金馬面), 홍북면(洪北面), 홍성읍(洪城邑)이 하천을 중심으로 인접(隣接)하는 지대의 "금마(金馬)"라는 지명(地名)은 어디에서 연유(緣由)하는 것일까? 이는 현. 금마면과 홍성읍이 접경(接境)한 하천변(河川邊)인 "고무랭이"에서 비롯된다.

보령(保寧)에서 광천(廣川)→예산(禮山)길은 현 도로가 아니라 광천(廣川) 대흥(大興)→예산(禮山)이었는데, 그 옛 노순(路順)은 이곳 "선돌(menhir) 주막(酒幕)"[현재는 인가(人家)가 없음]에서 "오목내"를 건너게 된다.

성주산(聖住山)과 오서산(烏棲山)에서 발원(發源)하는 두줄기 하류(河流)는 이 "오목내"에서 합류하는데, 이 좁고 깊은 냇물이 김정호(金正浩)의 "금마천(金馬川)". 이병도(李丙燾) 박사의 "웅천(熊川)"인 것이다.

이곳 합류지점에 "고모랭이 이중토성(二重土城)"이 위치한다. 홍성역(洪城驛)에서 남쪽으로 지척간(咫尺間)에 바라다 보이는 고립된 이중단구(二重段丘)를 이루는 야산토성(野山土城)이다.

"고무랭이" 지방을 오만분지형도(五方分地形圖)에는「고모리(古毛里)」로 기재되어 있지만, 나는 이를 A.D. 396년 광개토왕의 공략(攻略)을 받은「고모루성(古牟婁城)」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위에서 例로 들은바와 같이 至今까지 사학계(史學界)에서 충남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중국대륙(中國大陸)과 가장 가까운 서해안(西海岸)의 내포지방(內浦地方)에 옥토지대(沃土地帶)가 존재함을 무관심하게 보와온 것은 아마도 이 지방이 근래까지 청동기(靑銅器)문화(文化)의 불모지(不毛地)로 인식(認識)되어 온 때문인것 같다.

드디어 청동기(青銅器)문화(文化)의 불모지(不毛地), 삽교천(揷橋川) 유역(流域)에서 청동기(青銅器)의 꽃이 피어났다.

신창(新昌) 남성리(南城里), 대흥(大興) 동서리(東西里)를 위시하여 학계에 소개되지 아니한 6~7건의 우수한 출토품(出土品)이 있었음을 제1장 2절에서 살피는 바와 같다.

1) 필자는 일찍이 이병도(李丙燾) 박사의 논문중에서 「안성천(安城川)－웅천(熊川)－유역인 직산(稷山)·평택(平沢)지방이 목지국(目支國)과 辰國의 故地」라는 대목에서, 그 분 스스로 고고학적(考古學的)으로나, 문헌학적(文獻學的)으로도 고증자료(考證資料)가 미흡함을 자인(自認)하면서도 대세론적(大勢論的)으로 이 「직산지방설(稷山地方說)」을 추정하였음에 의문을 느낀 적이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예산군 삽교읍 〈성리(城里)〉는

a) 속칭지명(俗秤地名)이 〈궁(宮)마루〉 혹은 〈목시〉인데, 이를 한자로 대응(對應)하면 「목지(目支)」이고,

b) 이 마을에 두 곳의 평지토성(平地土城)이 있었고,

c) 부락(部落)의 중앙부(中央部)에 위치하는 사당(祠堂)속에는 거대한 선돌(menhir)이 모셔져 있고, 부락주변에는 수기(數基)의 지석묘(支石墓)가 남아있다.

d) 이 부락(部落)의 배후지방(背後地方)인 〈피지기〉 부근에서는 석촉(石鏃)·석도(石刀) 등을 얼마든지 주울 수 있었다. 일제(日帝)때 이곳에서 청동기류(青銅器類)의 출토(出土)가 있은 후로는 자주 도굴(盜掘)이 있어 왔는데, 근년(近年)에 또 신암면(新岩面) 종경리(宗敬里) 등에서 7~8건의 출토가 있었다.

그러므로 이박사의 "직산지방(稷山地方)"보다는 삽교읍(揷橋邑) 성리(城里)－목시지방이 「목지국(目支國)」의 고지(故地)일 가능성이 크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2) 이미니시(今西龍)박사의 「진번군고(眞番郡考)」 중에서 교시(敎示)를 받은 것은 한진번군(漢眞番郡)이 파군(罷郡)된 다음 원주

(原主) 한족(韓族)의 자치국(自治國)으로 되돌아간 나라 이름이 〈번국(潘國)〉이라는 사실이었다.

A.D 121경에 저술된 허신(許愼)의 「설문(設文)」에 나타나는 〈낙랑(樂浪)·번국(潘國)〉 산(産)의 어류(魚類)에 관한 기록(記錄)인데, 이 〈번국(潘國)〉을 청(淸)의 학자(學者) 단옥재(段玉裁)는 〈진번국(眞番國)〉이라 고증(考證)한 것이다.

"낙랑(樂浪)"이 곧 한군설치(漢郡設置)후의 한반도를 말함이고, "藩國"은 한군(漢郡)이 철수한 다음 원주진번족[原住眞番族－한족(韓族)]이 재건(再建)한 나라에 대한 중국(中國)의 기록이라면 금마천[金馬川－삽교천(揷橋川)] 유역의 10여 평지토성지방(平地土城地方)의 중심부를 이루는 예산군(禮山郡) 삽교읍(揷橋邑) "수촌리(水村里)"의 속지명(俗地名)이 〈반챙이〉 혹은〈원반챙이〉 이기에 필자의 큰 관심을 끌었다. "－챙이"를 접미사(接尾詞)로 보면, 〈반－藩〉 혹은 〈원반－원반(原藩)·번(番)〉이 된다.

게다가 옛날 금마들(반챙이앞 평야)에 큰 도읍(都邑)이 있었는데, 대홍수(大洪水)로 폐도(廢都)가 되었다는 전설은 이 지방에 널리 알려져 있거니와 이 〈반챙이 부락〉에도 훌륭한 평지토성(平地土城)과 지석묘(支石墓)와 선돌(menhir)을 개각(改刻)한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입불(立佛)이 남아 있고, 부락뒤 능미－능묘(陵墓)－라는 구릉(丘陵)에는 4기(基)의 대형고분(大型古墳)까지 현존(現存)한다.

더구나 이 지방의 배후(背後)를 이루는 덕산(德山)과, 홍성(洪城) 및 대흥지방(大興地方)에서도 국보급(國寶級)인 청동기류(靑銅器類)가 출토(出土)된 바 있기 때문이다.

3) 한편 [진번군(眞番郡) 재남방설(再南方說)]의 발상자(發想者)인 청말(淸末)의 대지리학자(大地理學者) 양수경(楊守敬) 선생의 〈금강유역설(錦江流域說)〉에서는 금강[錦江－웅진강(熊津江)]만이 〈웅천(熊川)〉이냐? 하는 의문을 느꼈다.

삽교천(揷橋川)의 상류인 금마천(金馬川)이 〈삽현(霅縣)〉이 위치하던 〈웅천(熊川)〉일 수는 없는가? 말이다.

내포지방(內浦地方)이 진번(眞番)과 목지국(目支國)의 고토(故

土)일 수 있다는 필자의 추상(推想)에 격려(激勵)와 의욕(意慾)을 안겨 준 것은 고(故) 이현종(李鉉淙) 박사였다.

그 분은 필자에게 「통사(通史)에서의 진번군(眞番郡) 문제(問題)는 공백(空白)입니다. 공백(空白)으로 놓아둘 수가 없어 이병도(李丙燾) 박사」의 학설(學說)을 택(択)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후로 5년여. 나는 미흡한 지식(知識)을 무릅쓰고 이 문제에 관심을 쏟았다.

이에 한 향토인(鄕土人)의, 한 문외한(門外漢)의, 한 견해를 적어 두려 한다.

가설적(假說的) 문제제기(問題提起)

실학파이후(實学派以後)로 일제(日帝)때 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전문사가(專門史家)들이 내 나라 역사를 진보(進步)된 방법(方法)으로 자유로이 탐구(探究)할 수 있었던 40여년이 경과한 이 시점(時點)인데도, 아직껏 이설(異說)이 분분(紛紛)한 사항이 있음을 볼 때면 착잡한 감(感)을 느끼게 된다.

상고사(上古史)는 국사의 뿌리 부분이다. 이 분야에서의 정설(定說)이 어긋나 있을 경우 이를 기준(基準)으로 한 다음 연구(硏究)들이 혼미(混迷)를 거듭하게 될 것임은 필연적(必然的)이라 하겠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필자(筆者)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바로 각인각설(各人各設)을 이루고 있는 다음 사항(事項)들이다.

1) B.C 108년 한무제(漢武帝)가 위씨조선국(衛氏朝鮮國)을 침공(侵攻)하던 때 동시에 진번국(眞番國)도 점령(占領)을 함으로써 설치된 「진번군(眞番郡)과 그 치소(治所) 〈삽현－霅縣〉의 위치문제」와

－眞番郡治霅縣去長安 七千六百四十里五縣(茂陵書)－

2) A.D 121년경 삼한(三韓〈南韓〉) 전역(全域)을 영도한 것으로 기록(記錄)된 「마한목지국(馬韓目支國)의 위치와 그 진왕(辰王)에 관한 문제(問題)」 등이다.

－馬韓最大, 昔立其種爲辰王, 都目支國, 盡王三韓立地, (後漢書·韓伝)－

-辰王治月(目)支國 (三國志·魏書·韓伝)-

1) 진번군(眞番郡)의 位置에 関하여 통사(通史) 이병도(李丙燾)說에서 「자비령이남(慈悲嶺以南)의 황해도지방(黃海道地方)과 한강이북(漢江以北)의 경기도지방(京畿道地方)」으로 추정(推定)하였고, 군치(郡治) 삽현(霅縣)의 위치에 代하여는 〈삽현(霅縣)의 소재(所在)도 한강북안(漢江北岸)인 서울부근으로 보고 싶다〉하였다.

이에 관하여 학계(學界) 또한 이 說을 따르는 편이다.

그러나 한편

a) 북만주지방(北滿洲地方)인 할루빈(寧古塔)지방설

b) 압록강의 지류(支流)인 동가강유역설(冬佳江流域說)

c) 금강유역인 충청도·전북지방설

심지어

d) 영산강유역설(榮山江流域說)과 경북지방설(慶北地方說)까지 거론(擧論)된다.

다시 말하면 정설(定說)이 확립(確立) 안되는 분야(分野)라 하겠다.

2) 마한(馬韓) 54국중의 하나인 목지국(目支國)의 위치에 대(對)하여는 통사(通史－이병도說)에서 「천안·직산지방」 이라 추정(推定)하고, 「이는 진국(辰國)을 계승(繼承)한 것」이라고 까지 주장(主張)되었다.

그러나 이에 반(反)하는 연구(硏究)로

a) 인천지방설(仁川地方說)

b) 전북(全北) 익산(益山)·금마지방설(金馬地方說)

c) 황해도(黃海道) 자비령이남지방설(慈悲嶺以南地方說)

등이 이를 추궁(追窮)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이 두 문제에 대한 통사(通史)의 추정(推定)에는 수긍(首肯)키 어려운 결함(缺陷)이 내포되어 있음을 짐작케 된다.

필자가 근년(近年)들어 상고사(上古史)에 흥미를 느껴 고대사료(古代史料)들을 읽게 된 과정에서 위 두 문제에 접하면서 나름대로 다음과 같은 가상(假想)을 갖게 되었다.

1) 진번군(眞番郡)과 삽현(霅縣)의 위치문제에 대(對)하여는

a) 한(漢)의 침략군이 26년만에 철수(撤收)한 다음(B.C 82) 원주(原住)한족(韓族)이 재건(再建)한 나라 이름이 번국(藩國)인데,

이는 원반챙이(혹은 반챙이)토성지방(土城地方－현 삽교읍 수촌리)이 그 핵심체(核心體)였다. 〈제1가설〉

b) 번국(藩國)이라는 국호(國號)는 〈반챙이 성(城)〉의 "반(潘)"이라는 음(音)을, "번(番)" 혹은 "번(藩)"자로 차자(借字) 표기(表記)한 것이다. 〈제2가설〉

c) 행정구역명을 삽현(霅縣)이라 하였음은 군치소(郡治所)를 설치한 반챙이 혹은 원반챙이 성(城)이 〈삽내－사읍천(沙邑川)－삽교천(揷橋川)〉 변(辺)에 위치하며, 그 관할구역 또한 삽내 유역(流域)지방 이었음으로 이 지방 전례(傳來)의 하천명인 〈삽내〉의 "삽"이라는 음을 "霅－삽"이라는 한자로 차자(借字)하여 현명(縣名)을 삼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제3가설〉

이에서 간과(看過)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된다. 진번군(眞番郡)은 그 영역이 15현이었는데 이병도(李丙燾)박사가 통사(通史)에서 황해도 자비령이남지방에 고정(考証)을 한 것은 그 중의 북부 7현에 해당하는 부분뿐이다.

그러면서 남부8현(南部八縣)은 그 현명(縣名)이 전하여짐이 없음을 지적(指摘)하면서 대략 한강이북지방으로 추측하였고, 유일하게 현(縣)명이 알려진 치소(治所) 삽현(霅縣)에 대(對)하여는

남부의 잔여(殘餘) 7개현 명을 알 길이 없음은 필자(筆者) 또한 이박사(李博士)와 다를 바 없으니, 여기서 논급(論及)할 수 있음은 삽현(霅縣) 뿐이다.

그 삽현(霅縣)의 위치가 〈삽내－揷橋川〉 유역이었다는 것이 필자의 가상(假想)이고 보면, 북부 7현과 남부 8현 사이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결과가 된다.

이 광대한 구간(區間). 즉,

a) 경기도의 대부분과 삽교천유역 사이에 잔여 7개현(縣)이 배치되어 있었느냐?

b) 혹은 경기도지역의 대부분은 한(漢)의 직할(直轄)이 아닌 한족(韓族)에 속(屬)하는 다수 부족국(部族國)들이 복속(服屬)되어 있는 소위 「공지(空地)」였느냐?

c) 금강유역인 충남지방과 전북지방에 까지 미쳐 있었느냐? 또는

d) 내포지방(內浦地方) 자체(自體)가 남부 8현지방에 해당하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진번국(眞番國)은 전국(戰國) 연시대(燕時代)때(B.C 3C) 이미 중국의 교역대상이던 나라이긴 하지만 약 2000년전 문화단계에서 동(東)은 차령산맥(車嶺山脈)에 가로 막히고, 서(西)는 황해(黃海)에 끝하는 지정학적(地政學的) 여건으로 미루어 원주한족(原住韓族)중의 진번부족군(眞番部族群)의 영역은 "내포지방(內浦地方)"이라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남부8현은 한(漢)의 해군(海軍)이 진번제국(眞番諸國)의 핵심체도성(都城)인 "원반챙이 성(城)"을 점거(占據)하고, 이 곳에 군치소(郡治所)를 둔 직할군현(直轄郡縣)이니, 그 진번국(眞番國)의 영역인 내포지방(內浦地方)을 주로하는 지역이며 북부 7현과 유리(遊離)되어 있음은 그 점령주체(占領主體)가 한(漢)의 해군(海軍)이었기 때문이다. 〈제4가설〉

2) 목지국(目支國)의 위치문제에 관(關)하여는 통사(通史－이병도설)의 추론과정을 살펴보면 이(李)박사 스스로 「전거(典據)도, 유물(遺物)도, 유적(遺跡)도 발견할 수 없음」을 인정(認定)하면서도 오직 3~4개 궁(宮)자 붙은 지명(地名)이 이 지방에 있음을 논거(論據)삼아 이를 추정(推定)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내포지방(內浦地方)인 [예산군(禮山郡) 삽교읍(揷橋邑) 성리(城里)]는 속지명(俗地名)을 "궁(宮)마루" 혹은 "목시"라고 한다.

이 마을에는 수년전까지 평지토성유적(平地土城遺跡)이 남아 있었으며, 지석묘와 선돌(menhir)이 있고, 인근지방에서는 우수(優秀)한 청동기류(靑銅器類)가 출토(出土)된다.

뿐만아니라 후한서(後漢書)의 기록인 목지국(目支國)이라는 "지

(支)"자의 고대한음(古代漢音)이 〈si〉라는 발음(發音)이고 보면 이 지방 원주민의 도성(都城)인 〈목시성(城)〉을 중국사가(中國史家)가 한자(漢字)로 차음(借音)하여 〈목지(目支)〉라고 기술한 것임을 짐작케 된다.

그러므로 이 두 지방의 여건(與件)들을 비교하여 보면 「천안(天安)·직산(稷山)지방쪽 보다 예산(禮山)·목시(目支)지방」이 더 확연(確然)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 [목지국(目支國)의 영역은 삽교천(揷橋川) 유역(流域) 지방이고 목시성(목시城－현 삽교읍 성리)이 그 도성(都城)이다.]〈제5가설〉

이상 5개항의 가설(假說)을 종합하여 볼 때 [진번국(眞番國, 藩國)은 B.C 2C.～1C. 무렵 "삽내(揷橋川)"의 상류쪽 서안(西岸)인 현 삽교읍 수촌리를 핵심으로 하는 "반챙이(혹은 원반챙이)성(城)"을 중심으로 "안다락미"와 "밖다락미" "궁(宮)모루토성(土城)" 및 "용갈미토성(土城)"(현 삽교읍 2리·상성리및 홍성군 홍북면 석택리) 등에 인접한 "평지(平地) 위성(衛城)마을"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목지국(目支國)은 A.D 3C.～4C.무렵 동일(同一)하천의 6㎞ 하류 동안(東岸－현. 삽교읍 성리)인 "궁(宮)마루"에 도읍(都邑)한 것이니 마한(馬韓)의 목지국(目支國)은 진번국(眞番國, 潘國)을 계승(繼承)한 것이다.]〈제6가설〉

이에 본 논고(論考)에서 의도(意圖)하는 것은 위 문제에 대한 통사(通史)와 필자의 가설(假說)간의 큰 견해차이(見解差異)의 근원(根源)을 추구(推究)하여 봄에 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a) 우선 문헌(文獻)에 의한 고증(考証)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의거(依據)할 사료(史料)가 희소(稀少)함을 어찌하랴.

본고(本稿)에서 고찰(考察)하게 될 사항은 대략 2100년전～1600년전 사실들인데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래야 약

1100년전 저술(著述)이고, 그나마 진번(眞番)이나 목지국시대(目支國時代) 즉 B.C 2C.~A.D 4C. 무렵 일은 상세(詳細)치 않으니 부득이 사기(史記 B.C 99년), 후한서(後漢書 B.C 4C.), 위지(魏志 BC 3C) 등을 의지(依持)할 수 밖에 없지만 그나마도 내용이 간략하다. 그러니 기왕에 당(唐) 이후(以後)로 거론(擧論)되어 온 이외의 새 사료(史料) 발굴(發掘)이란 불가능한 일이라 하겠다.

b) 고고학적(考古學的) 자료를 수용(授用)하는 방법 또한 아쉽다.

지금까지 내포지방(內浦地方)의 고대유적(古代遺蹟)과 유물(遺物)들에 대한 학계(學界)의 관심은 불모(不毛)에 가까웠다. 불과 10여년전부터 수건(數件)의 피동적(被動的) 조사보고(調査報告) 등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내포지방(內浦地方)의 고대문화는 별개(別個)의 문화권(文化圈)으로 인식(認識)되지 못하고, 금강유역권(錦江流域圈)에 종속(從屬)시켜 해석(解析)되고 있다.

그러나 금강유역(錦江流域)과 내포지방(內浦地方) 사이에는 충남지방을 양분(兩分)하는 분수령(分水嶺), 차령산맥(車嶺山脈)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이 지정학적(地政學的) 여건(與件)으로 인하여 이 두지역간의 고대부족사회(古代部族社會)는 별개의 양상(樣相)으로 발전(發展)하고 있었으리라는 것은 고려(考慮)되어 마땅하다.

이토록 빈약(貧弱)한 자료(資料)를 가지고 내포지방(內浦地方)의 고대문명(古代文明)을 추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도 역사적(歷史的) 사항의 고증(考證)이란 어느 면에서건 수긍(首肯)될 수 있어야 함이 요구(要求)된다.

필자는 내포지방(內浦地方)의 중심부(中心部)인 예산지방(禮山地方)에서 평생(平生)을 보내 오면서 이 고장의 주변(周邊)에 관심을 가져왔다.

비록 아마추어인 처지(處地)라서 참고(參考)할 수 있는 전적(典

籍)이 한정(限定)되어 있고, 고고학적(考古學的) 자료(資料) 또한 부족함은 부득이 한 일이지만 선학(先學)들의 연구성과(硏究成果)를 참작(參酌)하고, 지명(地名)이나 유적(遺蹟), 유물(遺物)들도 탐색(探索)하면서, 위에서 제기(提起)한 "가설(假說)"과 대비(對比)하여 구명(究明)하여 보려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本稿)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내포지방(內浦地方)의 고대상(古代相)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광개토왕비문해역과 未詳城의 위치비정

No.	왕건군 판독	필자(박성흥) 판독	성곽 소재지
1	寧 八 城	일 팔 성	
2	臼模盧城	구 모 로 성	
3	各牟盧城	각 모 로 성	
4	幹氏利城	간 저 리 성	
5	□ □ 城	□ □ 성	
6	閣 彌 城	각 미 성	
7	模 盧 城	모 로 성	
8	彌 沙 城	미 사 성	
9	古舍蔦城	고 사 조 성	
10	阿 旦 城	아 단 성	
11	古 利 城	고 리 성	
12	於 利 城	어 리 성	
13	雜 珍 城	잡 진 성	
14	奧 利 城	오 리 성	
15	句 牟 城	구 모 성	
16	古模耶羅城	고모야라성	
17	須 鄒 城	頁 □ 성	
18	□ □ □	□ □ □	
19	口而耶羅城	芬而耶羅城	홍성군 결성면 琴谷里(부니티)
20	豫 城	豫 城	서산시 해미면 猪城里(돗토성)
21	於 利 城	於 利 城	서산시 해미면 雄梳城里(어리성)
22	農 賣 城	農 賣 城	
23	豆 奴 城	豆 奴 城	예산군 삽교읍 頭里(두루머리성)
24	沸 城	沸(緋) 城	서천군 웅천면 城東里(붉은뎅이토성, 말로국)
25	比 利 城	比 利 城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비리성)
26	彌 鄒 城	彌 鄒 城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金城) [김성호]
27	也 利 城	也 利 城	
28	大山韓城	大 山 韓 城	서산시 대산면 環城里(환성)
29	掃 加 城	掃 加 城	태안군 소원면 所斤里(한의산성) [김성호]
30	敦 抜 城	敦 抜 城	
31	□ □ □ □	□ □ □ □	
32	婁 賣 城	婁 賣 城	

No.	왕건군 판독	필자(박성흥) 판독	성곽 소재지
33	散 那 城	散 那 城	홍성군 홍성읍 신성리(新城巳城) [酒井]
34	那 旦 城	那 旦 城	
35	細 城	細 城	
36	牟 婁 城	牟 婁 城	예산군 고덕면 사리(말머리)
37	于 婁 城	于 婁 城	
38	蘇 灰 城	蘇 灰(赤) 城	당진군 합덕읍 素素里(退尾山城, 횟댓부락)
39	燕 婁 城	燕 婁 城	
40	析 支 利 城	析 支 利 城	
41	嚴 門 岑 城	巖 門 首 城	당진군 석문면 삼봉리(고산아래, 태산성)
42	林 城	林 城	예산군 대흥면 林(任)城
43	□ 城	□ □ □	
44	□ □	□ □ □ 城	
45	□ □	朱 利 城	
46	□ □ □ 성		
47	比 利 城		
48	就 鄒 城	就 鄒 城	
49	口 拔 城	口 拔 城	
50	古 牟 婁 城	古 牟 婁 城	홍성군 홍성읍 구룡리(고모랭이城, 古毛里)
51	閏 奴 城	閏 奴 城	당진군 순성면 [酒井, 井上]
52	貫 奴 城	貫 奴 城	
53	穰 城	彡 穰 城	
54	曾 拔 城	曾 拔 城	
55	宗 古 盧 城	宗 古 盧 城	
56	仇 天 城	仇 天 城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구터바위城, 古海美城)
57	□ □		
58	□ □ □		

제1편 내포지방(內浦地方)의 고대문화(古代文化)

1장 내포지방(內浦地方)
2장 내포지방(內浦地方)의 고대문화(古代文化)
3장 내포지방(內浦地方) 출토(出土)의 청동기류
4장 예산군과 홍성군은 진번국(眞番國)의 고지(故地)

제1편 내포지방(內浦地方)의 고대문화(古代文化)

제1장 내포지방(內浦地方)

충청남도(忠淸南道)는 차령산맥(車嶺山脈)에 의하여 양분(兩分)된다. 이 분수령(分水嶺)의 동남쪽은 금강유역(錦江流域)이자 내륙지방(內陸地方)이고, 서북쪽인 아산만(牙山灣)과 삽교천유역(揷橋川流域)을 중심으로 서해(西海)에 임(臨)한 곳이 《내포지방(內浦地方)》이다.

최남선(崔南善) 선생은 『내포(內浦)라 함은 아산만(牙山灣)에 주입(注入)하는 삽교천(揷橋川)·금마천(金馬川)의 이서제군(以西諸郡)이다.』 하였고, 원효대사(元曉大師)의 원효결(元曉訣)에서는 『오(烏棲山) 성(聖住山) 지간(之間)은 산모습, 물기운이 가장 뛰어나 나라땅의 내장부(內臟部)와도 같은지라 내포(內浦)라 한다.』 하였다.

1940년대까지도 예산·당진·서산·홍성·보령지방 노인들은 흔히 자기자신을 "내포사람(內浦人)", 그 사는 지방을 "내포지방(內浦地方)"이라 일컬었다.

그런데 노도양(盧道陽) 박사에 의하면 현재 한국과 일본의 일부 지리학계(地理學界)에서는 금강유역(金江流域)을 내포지방(內浦地方)이라고 호칭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일본지리학자(日本地理學者) 노구찌(野口保興)가 1910년경 제국지지(帝國地誌)를 저술(著述)하면서 범(犯)한 오류(誤謬)에 기인(起因)한 것이라 한다.

이중환(李重煥, 1690~1756)은 "택리지(択理志)"중에서 이 분수령(分水嶺)의 영향(影響)에 대하여 흥미있는 관찰을 하고 있다.

"남사고(南師古)의 십승기(十勝記)중에 '유마양수간(維麻兩水間)' 즉, 유구(維鳩)와 마곡(麻谷)의 두 하류가 포괄(包括)하는 지방이 병란(兵乱)을 피할만한 곳이라 하였는데, 이 유마지간(維麻地間)에서 서쪽으로 한 고개. 즉, 차동(車東)고개를 넘은 곳이 내포지방(內

浦地方)이다. 내포(內浦)는 목화재배는 잘 안되지만 개포와 어민(漁民)이 많아서 어획(漁獲)과 식염생산(食鹽生産)이 많다. 그러므로 공주(公州)·유구(維鳩)에서는 내포(內浦)로 목면(木綿)을 무역(貿易)하고, 내포(內浦)의 어염(魚鹽)을 무역(貿易)한다면 큰 이익을 얻는다." 하였다.

또 위 "택리지(択理志)"에서 「자공주서북가이백리(自公州西北可二百里) 유가야산(有伽倻山)…, 가야산전후(伽倻山前後) 유십현(有十縣) 구호위내포(俱號爲內浦) 운운(云云)」 하였지만, 역사지리적(歷史地理的) 견지(見地)에서는 덕산(德山) 가야산(伽倻山) 주변의 10縣(당진·서산·해미·예산·덕산·대흥·홍성·결성·보령·청양)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신창(新昌)·아산(牙山)·직산(稷山)·천안(天安)도 같은 아산만(牙山灣)의 인접된 연안지방(沿岸地方)인지라 공통적(共通的) 특징(特徵)을 지니고 있음으로, 이를 동일권시(同一圈視)하여 내포지방(內浦地方)의 범주(範疇)로 고찰(考察)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삽교천(揷橋川) 유역(流域)인 내포지방(內浦地方)과 금강(錦江) 유역(流域)인 내륙지방(內陸地方) 사이는 고작 5~600m급(級) 차령산맥(車嶺山脈)이 이를 가르고 있을 뿐이지만 노도양박사의 내포지방考에서 論하였듯이

기후(氣候)가 다르고,

언어(言語)가 다르고,

생활권(生活圈)도 다르다.

고대유적(古代遺蹟)들의 특성 또한 다르다.

이는 역사지리적(歷史地理的)으로는 크게 유의할 점이다.

그 특이성을 판별(判別)하자면 내포지방(內浦地方) 전역의 자료(資料)가 두루 정확하게 수집(蒐集) 되고서야 가능한 일이겠지만 전문사학가(專門史學家)도 아니고, 고고학(考古學)에도 어두운 필자로서는 우선 삽교천(揷橋川) 유역을 주(主)로하여 살펴보고자 하거

니와, 장차 고고학적(考古學的)인 연구성과(硏究成果)가 뒤따라 주리라 기대(期待)한다.

평생을 예산지방(禮山地方)에 살아온 나는 삽교천(揷橋川) 유역에 형성(形成)되었던 고대문화(古代文化)는 북방(北方)으로부터 전래(傳來)된 문화(文化)만이 아니고, 그 주류(主流)는 아산만(牙山灣)을 통하여 유입(流入)되고 발전한 것임을 감지(感知)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가 이들 문화(文化)의 본질(本質)을 규명(糾明)하여 볼 의욕(意慾)을 느낀 것은 삽교천(揷橋川) 유역(流域)을 중심으로 청동기류(靑銅器類)가 빈번(頻繁)히 출토(出土)되기 시작한 근년(近年)의 일이다.

제2장 내포지방(內浦地方)의 고대문화(古代文化)

모든 고대문명(古代文明)이 강하(江河)를 끼고 발상(發祥)하였듯이 내포지방(內浦地方)에서도 삽교천(揷橋川) 유역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것이 그 상하류(上下流), 좌우안(左右岸)에 현존(現存)하는 30여개소의 토성유허(土城遺墟)와 이들 주변에서 반출(伴出)되는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에서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로 이어지는 유적(遺跡), 유물(遺物), 지명(地名) 등과 백제의 초기불교(初期佛敎)의 유적(遺蹟)들이다.

于先 예산지방(禮山地方)을 중심(中心)으로 하는 토성(土城)·선돌(menhir)·지석묘(支石墓)와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 유물(遺物)들을 살피기로 한다.

청동기류(靑銅器類)의 출생상황(出生狀況)은 다음 절(節)에서 살피고, 번국문제(藩國問題)와 관련시켜 3장에서 재론(再論)키로 한다.

제3장 내포지방(內浦地方) 출토(出土)의 청동기류(靑銅器類)

종래 청동기문화(靑銅器文化)의 불모지로 인식(認識)되어 온 내포지방(內浦地方)에서 근년(近年)들어 계속 집중적(集中的)으로 우수한 유물(遺物)이 출토(出土)되었다.

1) 아산군(牙山郡) 신창면(新昌面) 남성리(南城里) 석관묘(石棺墓) 출토(出土)－일괄유물(一括遺物), 〈국립중앙박물관 소장(所藏) 보고서 제 호〉

남성리(南城里)란 부락명(部落名)은 "남(南)댕이형제(兄弟)방죽"의 「남(南)」자와 "두성리(斗城里)"의 「성(城)」자가 합자(合字)되어 이루어진 지명(地名)인데, 《두성리(斗城里)》에는 속칭(俗稱) "장군묘(將軍墓)"가 4~5기(基) 있었다.

높이 약 2m정도. 직경(直徑)은 약 10m쯤 되는 봉분(封墳)이었는데, 근년(近年) 농토(農土)·목장(牧場) 혹은 과수원 등으로 개간(開墾)되면서 평토(平土)가 되고 말았다. 과수원에서 우물을 파다 발견된 이 석관묘(石棺墓)도 그러한류의 하나가 아니였나 한다. 나머지 고분(古墳)들도 그 옛 위치를 아는 노인들의 생존(生存)중에 표식(表式)이라도 남겨둠이 바람직 하다.

그 출토품(出土品)의 우수함은 보고서(報告書)에서 찬양(讚揚)된 바와 같이 고대문화(古代文化)의 압권이다. 삽교지방(揷橋地方)과는 약 18km 상거(相距)가 된다.

2) 예산군(禮山郡) 대흥면(大興面) 동서리(東西里) 출토(出土)－일괄유물(一括遺物).

임존성(任存城)의 동북쪽 기슭에서 사방공사(砂防工事) 작업중 발견(發見)된 이 유물(遺物)은 부여박물관(扶餘博物館)에 보관중(保管中)이다. 〈박물관 신관 제○○호〉

무한천변(無限川邊)이기도한 동서리(東西里)는 "반챙이 토성(土城)"에서는 약 10km. "목지토성(目支土城)"까지는 약 14km가 된다.

3) 예산군(禮山郡) 덕산면(德山面) 상가리(上伽里) 출토(出土)－팔주령(八珠鈴)

서울 박준상(朴準祥)씨 소장(所藏). 국보급(國寶級)인 이 유물(遺物)은 일시(一時) 국립중앙박물관(國立中央博物館)에 전시(展示)된 바 있다.

그 우수한 제작기법(製作技法)에서 이 지방의 옛 문화수준(文化水準)을 엿볼 수 있다. "번(藩)챙이성(城)"과는 8㎞. "목지성(目支城)"까지는 11㎞ 상거(相距)가 된다.

한편 이 상가리(上伽里)에 있는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친산(親山)인 남연군묘(南延君墓)의 동쪽 지대를 "능(陵)골"이라고 하지만 능(陵)에 해당하는 유적(遺蹟)은 알아볼 수는 없다.

4) 예산군(禮山郡) 덕산면(德山面) 옥계리(玉溪里) 출토(出土)－세신동검(細身銅劍)

밤나무 식재(植栽)중 석곽묘(石槨墓)속에서 출토되었다. 손잡이에 정교(精巧)한 쌍두(雙頭)와 "고리"가 공주(共鑄)된 길이 약 30㎝, 폭 약 2.5㎝,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동검(銅劍)인데, 필자가 확인(確認)할 수 있었다. 출토위치에서 "번성(藩城)"까지는 6㎞, "목지성(目支城)"까지는 9㎞가 된다.

5) 예산군(禮山郡) 신암면(新岩面) 종경리(宗敬里) 출토(出土)－사주령(四珠鈴)과 이두령(二頭鈴)

과수원 작업중 큰단지(土器) 하나가 나왔다. 발로 툭 차니 속에 이 두개가 들어 있었다. 길이 약 30㎝의 십자형(十字形) 병끝에 방울이 있고, 방울속에 또 방울이 들어 있었다. 출토위치(出土位置)와 "목시토성(土城)"과의 상거(相距)는 불과 6.5㎞가 된다.

일제(日帝)때 이와 인접한 "피지기" 지대(地帶)에서도 청동기(青銅器)의 출토(出土)가 있었다 한다. "피지기"와 "목시토성(土城)"과의 상거(相距)는 6㎞가 된다.

6) 당진군(唐津郡) 합덕부근(合德附近)에서 개간공사중(開墾工事中) 출토된 이두검(二頭鈐)도 목격자에 의하면 "종경리(宗敬里)" 이두검(二頭鈐)과 흡사한것 같다.

7) 예산군(禮山郡) 대술면(大述面)에서 출토품이 있었고, 신양(新陽)·불운리(不云里) "잘푸개" 마을에서도 석도(石刀)등이 출토(出土)된다.

8) 서산군(瑞山郡) 해미면(海美面) 출토(出土)－도씨검(桃氏劍)을 위시(爲始)한 일괄유물(一括遺物). 현재 국립중앙박물관(國立中央博物館)에 전시(展示)중. 〈서울 박준상(朴準祥)씨 소장품〉. 해미 "석장(石葬)골"에는 도굴당한 석관묘(石棺墓)가 이십여기(基)가 있는데 아마도 그 곳 출토품(出土品)이 아닐까?

해미지방(海美地方)과 삽교지방(揷橋地方) 상거(相距)는 약 12㎞

9) 홍성읍(洪城邑) 월산리(月山里) 출토(出土)－동경(銅鏡)

홍성읍(洪城邑)의 진산(鎭山)인 월산(月山)의 동쪽 기슭인 이곳은 "해풍성지(海豊城址)"라 한다. 1950년경 돈사(豚舍)를 짓다가 출토(出土)되었다. 한자 "四"자가 새겨져 있었다. [홍성출신(洪城出身) 제헌의원(制憲議員) 손재학(孫在學)씨 증언(証言)]

10) 서산군(瑞山郡) 운산면(雲山面) 와우리(臥牛里) 출토(出土)－철마(鐵馬)2개(個)

원평리(院坪里) 국민학교 어린이에 의하여 채취(採取)된 이 명기(銘器)는 현재 예산(禮山)·임성중학교(任城中學校)에서 소장중(所藏中). 이 지방에는 상왕(象王)이 도읍(都邑)하였다는 전설(傳說)과 상왕(象王)이 인장[印章－옥쇄(玉碎)]를 감췄다는 "인(印)바위" 등 전설(傳說)이 있다.

제4장 예산군(禮山郡)과 홍성군(洪城郡)은 진번국(眞番國)의 고지(故地)

삽교천(揷橋川) 유역의 청동기문화(靑銅器文化)는 〈진번(眞番)〉의 문화였다.

상고대(上古代)의 유적(遺蹟)이 집중되어 있는 이곳 삽교천(揷橋川) 유역은 종래(從來) 청동기문화(靑銅器文化)의 불모지(不毛地)로 여겨져 왔다. 그러던 것이 근년(近年) 여러차례 정교(精巧)한 유물(遺物)이 출토(出土)되는 소식을 듣고, 나는 문득 우리나라 상고사(上古史)의 문제거리인 진번군(眞番郡) 문제(問題)와의 연관여부(聯關與否)에 관심을 갖게끔 되었다.

진번국(眞番國)은 한(漢) 진번군(眞番郡)의 전신(前身)이니 2,100년 이전에 있었던 여러개의 부족국(部族國)들이다.

충남의 서북부지방(西北部地方)－내포지방(內浦地方)－삽교천(揷橋川) 유역에 집중되어 있는 신석기문화(新石器文化)는 적어도 2,500년 이전의 유물들이고, 이 지방에서 출토되는 찬란한 청동기문화(靑銅器文化)는 약 2,500년 이후 2,100년전 사이의 문화(文化)이니, 진번국(眞番國)이 존재하던 연대(年代)와 걸맞는 문화(文化)다.

우리 예산과 홍성지방(禮山·洪城地方)에는 엄연(儼然)히 이러한 유적(遺蹟)과 유물(遺物)이 많이 존재(存在)하건만 우리국사(國史)에서 이를 납득할 만한 기록(記錄)을 찾을 길이 없다.

우리는 학계(學界)의 관심조차 끌 일이 없는 이 알려지지 않은 이 공백(空白)을 가려내야만 한다.

나는 충남인(忠南人)의 감각(感覺)으로 이 문화(文化)를 《진번(眞番)의 문화(文化)》였다고 추상(推想)을 하기에 이르렀다.

옛날의 중국사가(中國史家)들이 한반도의 여러 부족(部族)을 "이, 적, 예, 맥" 등 야번인(野番人)으로 표기(表記)하면서, 오직 조선(朝鮮)과 진번(眞番)과 진국(辰國)만은 나라이름으로 대접하였는데,

〈조선국(朝鮮國)〉이 대동강(大同江) 유역을 차지하고 있었음은 주지(周知)의 일이거니와, 그 어디인지 오늘날까지 알려지지 않은 〈진번국(眞番國)〉이 바로 우리 예산지방(禮山地方)이였다고 추상(推想)을 한 것이다.

나는 진번군(眞番郡)의 위치를

1) 현재의 국정교과서(國定敎科書)와 진단학회(震檀學會)의 「한국사(韓國史)」에서 추정(推定)하고 있는 『황해도 자비령이남(慈悲嶺以南)으로부터 한강이북(漢江以北)의 땅』에 있었다는 설(說)과

2) 일부 남방설학자(南方說學者)가 주장한
『충청도(忠淸道)의 금강유역설(錦江流域說)』이 아닌

3) 『진번국(眞番國)의 주부(主部)는 충남의 서북부지방 즉, 충남의 분수령(分水嶺)인 차령산맥(車嶺山脈)의 서쪽, 내포지방(內浦地方)ㅡ삽교천유역(揷橋川流域)』이라고 생각하면서,

과연 이 견해(見解)가 틀림없는 것이라면, 우리 예산지방(禮山地方)에 삽교천유역(揷橋川流域)에 《진번국(眞番國)》 혹은 그 후신(後身)인 《번국(藩國)》 등과 관계되는 지명(地名) 또는 유적(遺蹟) 등이라도 남아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때 머리에 떠오른 것이 《반챙이》 혹은 《원반챙이》라 불리우는 삽교천변(揷橋川邊)인 현 삽교읍(揷橋邑) 수촌리(水村里)였다. 리명(里名)노릇도 못하는 한 부락(部落)인 것이다.

나는 이 수촌리(水村里) 〈원번부락(元藩部落)〉을 조사하고 놀라움을 禁할 길이 없었다.

삽교평야(揷橋平野)를 가로막고, 홍성(洪城)에서 덕산(德山)으로 뻗어나간 용봉산(龍鳳山)ㅡ수암산맥(水庵山脈)의 기슭이 〈오성(五城)이펄〉, 즉 신리(新里)테뫼, 이리(二里)〈동무산토성(山土城)〉, 수촌리(水村里)〈반챙이ㅡ장성(長城)뜸토성(土城)〉, 홍북(洪北) 용산리

(龍山里) 〈용갈미토성〉, 〈싸래기내토성〉 등 다섯개 성(城)이 포괄하는 구릉지대를 배후(背後)로 삼고, 마을앞 금마천(金馬川) 건너서부터 전개되는 광활(廣濶)한 삽교평야(揷橋平野)를 눈앞에 놓고,

〈장성(長城)뜸〉의 거대한 토성(土城)에 둘러싸인 〈골(군ㅡ郡)뜸〉, 금마천(金馬川) 암벽(岩壁)에 남아있는 불당(佛堂)속 선돌(입석ㅡ立石).

사행호(蛇行湖)로 10여년전까지 남아있던 〈성기방죽〉의 위치는 분명 옛날 시가(市街)가 있어 마땅한 자리였다.

일제(日帝)때 이 지방에서 채금선(採金船)이 작업을 하던 때, 이 지대(地帶)에서 큰 침향(沈香)나무가 다수(多數) 발견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대홍수설(大洪水說)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지방에 전하는 "홍수설화(洪水說話)"는 실화(實話)임이 확실하다.

〈반챙이〉 혹은 〈원반챙이〉라는 마을이름은 〈ㅡ챙이〉를 애칭(愛稱)의 접미사(接尾祠)로 보면

〈반〉 혹은 〈원반〉이 된다.

〈원반〉이란 원래의 〈반〉, 옛날의 "반" 진(眞)짜 "반" 등으로 풀이할 수 있는 말이다.

중국 당(唐)나라때 학자(學者) 단옥재(段玉裁)는 『낙랑번국(樂浪藩國)이라 함은 진번(眞藩)을 말함이고, 번음(番音)이 번(藩)이다.』 하였다.

이로 미루어 석기시대이래(石器時代以來)의 많은 유적(遺蹟)을 간직하고 있는 이 삽교천변(揷橋川邊)의 마을이 〈진번국ㅡ번국〉의 고지(故地)임이 분명하다.

이로서 필자는 〈진번국(眞番國)〉과 그 후신(後身)인 〈번국(藩國)〉의 주부(主部)는 삽교천(揷橋川) 유역(流域)이었다는 확신(確信)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진번군(眞番郡) 문제는 지금까지 천여년에 걸쳐 여러 석학(碩学)들이 제각기 다른 견해(見解)를 피력(披瀝)한 중요한 문제

이니 만큼, 필자가 예산인(禮山人)의 직감(直感)만으로 이를 주장(主張)할 수 있는 성질(性質)이 못된다.

그러므로 여러모로 객관적인 뒷받침으로 이를 고증(考証)토록 하고자 한다.

1) 북방설(北方說)은 대체로 남방설학자(南方說学者)들이 이를 타파(打破)하였다고 본다.

2) 한편 다같이 남방설(南方說)이면서도 구암(久庵) 한백겸(韓百謙)의 설(說)과 양수경(楊守敬－청조(淸朝)말기의 학자), 이와기찌(稻葉)박사(조선총독부 수사관), 이마니시(今西龍)박사(경성제대 교수)등의 《충청도(忠淸道) 금강유역설(錦江流域說)》을 부인(否認)하고, 독자적인 남방설(南方說) 《황해도(黃海道) 자비령이남(慈悲嶺以南) 한강이북설(漢江以北說)》을 정립(定立)한 사학계(史學界)의 태두(泰斗) 이병도(李丙燾) 박사의 논거(論據)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무엇보다도 삽교천유역(揷橋川流域)이 〈번국(藩國)〉의 고지(故地)임이 객관적(客觀的)으로도 고증(考證)이 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확인이 이루어진다면 필연적으로 〈삽교－揷橋〉라는 지명의 〈삽〉은 진번군(眞番郡)의 치소(治所－군읍소재지)가 있던 〈삽현－霅縣〉의 〈삽－霅〉에 기인(基因)한다고 귀결(帰結)될 수 있게 될 것이다.

4) 동시에 삽교천유역(揷橋川流域)의 문화(文化)는 〈진번(眞番)의 문화〉였다는 귀결(歸結)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상고사(上古史)는 낙랑(樂浪)이라는 또하나의 기준점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보여진다.

"진번(眞番)찾기"를 위하여 고금(古今)의 수많은 석학(碩學)들이 전적(轉籍)을 살피며 추론(推論)을 거듭하였다.

또 일부학자는 한진번군(漢眞番郡) 창치(創置)보다 약 300년후에 낙랑군(樂浪郡) 남부도위(南部者尉)로 부터 분립(分立))한 대방군(帶方郡)을 추적(追跡)하기도 하였다.

이는 구진번군(舊眞番郡)의 위치는 옛 사료(史料)로 미루어 대방군(帶方郡)의 남부(南部)에 위치(位置)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병도(李丙燾) 박사도 진번군(眞番郡)을 찾느라 대방군(帶方郡)을 추구(推究)하였지만 그 남쪽 한계(限界)는 가려내지는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박사는 〈진번군고(眞番郡考)〉에서

대방군(帶方郡)과 구진번국(舊眞番國)이 합쳐진 범위(範圍)였을 진번군(眞番郡)의 남한(南限)을, 『그러나 추측이긴 하지만 그 남경(南境)은 지금의 한강부근에까지 미쳤던 것이 아닐까』 하였다.

대방군(帶方郡)의 북계(北界)가 낙랑(樂浪)의 남한(南限)과 일치(一致)됨은 당연(當然)하지만, 대방군(帶方郡)의 남한(南限)이 확정(確定)되지 못하는 이상, 그 남방(南方)에 위치(位置)하였던 진번국(眞番國)의 위치(位置)는 유동적(有動的)일 수 밖에 없다.

대방군(帶方郡)의 영역(領域)이 협소(狹小)한 것이었다면 진번군(眞番郡) 15현(縣)은 이박사의 주장대로 한강이북(漢江以北)에 수용(收容)될 수도 있다.

반면 그것이 넓은 것이였던가, "대수(帶水)"가 "한강(漢江)"이였다면, 진번군(眞番郡)의 위치는 이와기찌(稻葉)박사나 이마니시(今西) 박사의 견해(見解)대로 충청도(忠淸道) 혹은 그보다도 남방(南方)일수도 있다.

이로 미루어 희소(稀少)한 사료(史料)를 바탕으로 진번(眞番)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에 일것 삽교천변(揷橋川邊)에서 몇가지 유적(遺蹟), 유물(遺物), 지명(地名) 등 실마리를 얻었다.

a) 대덕산면(大德山面) 수촌리(水村里)－현. 삽교읍 수촌리 〈반챙이토성〉과 불당(佛堂)속의 선돌－입석(立石)

b) 양촌면(楊村面) 목리(木里)－목시(目支)－현. 삽교읍 성리

사당(祠堂)속에 모셔진 거대한 선돌－입석(立石)과 지석묘와 두 군대 토성지(土城址).

이곳 동명(洞名)이 〈목시〉니 이 토성지(土城址)를 〈목지성(目支城)〉으로 보아 마땅하다.

c) 거등면(居等面) 궁리(宮里), 하리(下里), 포리(浦里)－현. 삽교읍 하포리

이곳 토성지(土城址)를 〈삽양장－霅陽障〉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다.

d) 〈궁리(宮里)〉라는 기록에 큰 관심이 가는데, 불과 20여호(戶)(德山邑誌)가 살던 이 마을의 위치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상을 고증함과 동시에 연관사료(聯關史料)를 살펴서 예산군(禮山郡)이 진번군(眞番郡)－번국(藩國)의 고지(故地)임이 고증(考證)되어야만 하겠다.

이 글에서 학술적(學術的)인 사론(史論)을 펼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것은 광범위(廣範圍)한 진번군(眞番郡) 문제가 아니고 우리고장의 〈삽－삽교〉란 지명(地名)의 연유(緣由)를 살피기 위하여 한나라 무제(武帝)에게 공멸(攻滅)당한 한인(韓人)의 부족국가(部族國家)인 〈진번국(眞番國)〉에 국한(局限)하여 논하고자 한다.

여기서 논급(論及)하게 될 것을 간략히 설명(說明)하면,

a) 약 2,100년 이전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와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로부터 이어지는 한족(韓族)의 부족국가(部族國家)이던《진번국(眞番國)》

b) 한무제(漢武帝)가 이 진번국(眞番國)을 공략함과 동시에 그 자리에 세운 한군(漢郡)으로서, 26년간 중국인의 직할통치(直轄統治)를 받던《진번군(眞番郡)》(B.C 108～B.C 82)

c) 원주한인(原主韓人)이 침략자 한(漢)인(중국인)을 물리치고 26년만에 재차한족(再次韓族)의 자치국(自治國)으로 되돌아간《藩國－반국》(B.C 82년이후 전기마한(前期馬韓)의 형성때까지)

d) 〈목지국(目支國)〉과 〈감계비리국(甘奚卑離國)〉은 전기마한(前期馬韓)이 형성될 때 〈번국(藩國)〉의 고지(故地)를 계승(繼承)한 나라다.

목지국(目支國)이 마한(馬韓) 54개국의 정치적 영도역할(領導役割)을 하였다는 시대는 마한전기(馬韓前期)로서, 북방(北方)의 부여족(夫餘族)이 남으로 팽창하기 직전, 즉 백제(百濟)로 통합(統合)되기 이전(以前)일 것이다.

삽교천유역(揷橋川流域)에 꽃피었던 청동기문화시대(青銅器文化時代)는 공주(公州)의 백제문화(무령왕)보다도 약 620년이 앞서는 연대(年代)니 삽교천유역(揷橋川流域)의 진번문화(眞番文化)가 백제(百濟)로 이어져 갔음을 새삼 알게된다.

후일, 아산만(牙山灣)인 삽교천유역(揷橋川流域)에 상륙한 불교문화(佛教文化)가 삽교천(揷橋川)에서 공주(公州)까지, 차동(車東)고개를 넘으면 약 50㎞, 청양(青陽) 정산(定山)의 소리길로 지나면 불과 40㎞인 통로를 거쳐 내륙지방(공주)과 신라(新羅)쪽으로 전파(傳播)되었음과 같은 경로(經路)다.

백제(百濟)의 웅진천도(熊津遷都)는 22대 문주왕(A.D 475) 때니 삽교천유역(揷橋川流域)의 진번문화(眞番文化)보다 약 600년 후세(後世)의 일이건만 금일의 학계에서는 〈백제문화(百濟文化)〉하면 공주(公州), 부여(扶餘)를 말할 뿐, 그 발상지(發祥地)인 삽교천유역(揷橋川流域) 내포지방(內浦地方)에 꽃피었던 문화(文化)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우리 충남지방인(忠南地方人)은 스스로 이를 찾고 보존(保存)하여야만 할 것이다.

제2편 진번(眞番)과 진번군(眞番郡) 문제

1장 진번(眞番)의 번국(藩國)
2장 한사군(漢四郡)과 진번군(眞番郡) 문제(問題)
1) 한사군(漢四郡)
2) 진번군(眞番郡) 문제(問題)라 함은
3장 진번군(眞番郡) 북방설(北方說)과 남방설(南方說)
4장 삽현(霅縣)의 필수적(必須的) 여건(與件)
5장 진번군(眞番郡)은 대방군(帶方郡)의 남쪽
6장 진번국(眞番郡)과 (진국)辰國과 대방군(帶方郡)

제2편 진번(眞番)과 진번군(眞番郡) 문제

제1장 진번(眞番)의 번국(藩國)

우리는 "상고시대(上古時代)"하면 모든 역사기록(歷史記錄)이 북방(北方)을 무대(舞台)로 전개된 것 뿐이고, 삼한(三韓)까지도 부족이동(部族移動)에 의한 것이라는 설(說)을 들을때, 2000년도 못되는 연대(年代)까지 우리반도(半島) 남부지방(南部地方)에는 문화부재(文化不在)는 고사하고, 주민(住民)조차 없었던 것 같은 착각을 느끼곤 한다.

그러나 한반도남부(韓半島 南部) 도처에는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 유적(遺跡)뿐 아니라, 구석기시대(舊石器時代) 유적(遺跡)까지도 발견되니, 우리 강토(彊土)내에는 옛부터 고루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음은 엄연한 사실이며, 이들이 원주한족(原住韓族)임은 물론이다. 그러함에도 주민부재(住民不在)로까지 느끼게 됨은, 옛 중국사가(中國史家)들이 남겨준 사료(史料)가 자기네들과 이해관계(利害關係)가 깊던 인접지(隣接地)의 침략적(侵略的)이던 후말지배족(後末支配族)에 관한 기록(記錄)뿐이기 때문이다.

충남(忠南)의 서북부지방(西北部地方)인 아산만(牙山灣)·삽교천유역(揷橋川流域)에도 우수한 청동기문화(青銅器文化)를 가진 원주한족(原住韓族)인 진번부족(眞番部族)의 집단이 30여 토성(土城)을 중심으로 평화적인 번영(繁榮)을 누리고 있었다.

사기(史記) 화식전(貨殖傳)과 한서(漢書) 식화지(食貨志)에 의하여 연(燕)나라 상인(商人)들이 조선(朝鮮)뿐 아니라, 진번(眞番)과도 교역(交易)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니 진번(眞番)은 대동강유역(大同江流域)을 차지하던 고조선(기씨에서 위씨를 걸치는)과 동일시대(同一時代)인 옛 나라다.

B.C 108년 한무제(漢武帝)가 우리 강토(疆土)에 침입하여, 위씨조선(衛氏朝鮮)을 정복(征服)하고 직할(直轄) 사군(四郡)을 설치하던 때 진번제국(眞番諸國)도 정복(征服)하고, 이 구국(舊國)의 이름을

따서 《진번군(眞番郡)》이라 하였고, 그 治所ㅡ(그 관할이 15현이었으니 금일의 개념으로는 도청 소재지)를 《삽현》에 두었다.

그러나 진번(眞番) 30여성(城)은 단합된 힘으로 26년만에 한군현(漢郡縣)을 몰아내는데 성공하고는 그들 한족(韓族)의 나라를 재건(B.C 82)하였다.

이 나라를 후한(後漢)의 허신(許愼)은 《설문해자(說文解字)》(A.D 121경에 저술) 중에서 『번국(藩國)』이라 기재하였고, 이를 청(淸)나라 단옥재(段玉裁)는 『낙랑번국(樂浪藩國)이라 함은 진번(眞番)을 말함이고, 번음(番音)이 번(藩)이다.』 하였다.

즉, 중국사가(中國史家)들은 26년간의 한진번군(漢眞番郡)을 거친 다음의 진번부족제국(眞番部族諸國)의 대표국(代表國)을 《번국(藩國)》이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서 『번국(藩國)』은 적어도 200년(B.C 82~A.D 121)이상 존속(存續)하고 있었음이 확증(確証)되는데, 같은 해ㅡB.C 108에 설치된 낙랑군(樂浪郡)이 A.D 313년 고구려(高句麗)에 밀려나던 때까지 420여년간 중국인(中國人)의 직할령(直轄領)으로 존속(存續)하였음에 반(反)하여 진번군(眞番郡)은 창치(創置) 30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군(廢郡)되어, 원주한족(原住韓族)의 자치국(自治國)으로 복귀(復歸)할 수 있었음은 여러가지 시사를 남긴다.

한편 A.D 280년경에 저술(著述)된 진수(陳壽)의 《삼국지(三國誌)·위지(魏志)·동이전(東夷傳)》에서는 『번국(藩國)』 칭호(稱號)는 사라지고, 대신 《마한(馬韓)의 목지국(目支國)》이 두드러지게 등장함을 볼 수 있다.

동일지역내(현. 삽교읍 관내)에 진번국시대(眞番國時代)의 《번성(藩城)ㅡ반챙이토성(土城)》과 그 약 2~300년 후(後)인 마한시대(馬韓時代)의 《목지성(目支城)ㅡ"궁(宮)마루"의 목시토성(土城)》이 소재(所在)함은 위 A.D 121년에서 A.D 280년사이, 즉 약 160년 사이ㅡ공손씨(公孫氏)의 연(燕)에서 조위(曹魏)사이에 『번국(藩國)』의 정통(正統)이 『목지국(目支國)』으로 계승되었음을 실증(實証)하

는 것이다.

이로서 필자는 내포지방(內浦地方)의 고대문화(古代文化)는 진번(眞番)의 『번국(藩國)』에서 마한(馬韓)의 『목지국(目支國)』으로 이어진 문화였다고 추상(推想)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우리 통사(通史)중 위씨조선(衛氏朝鮮)에서 삼한(三韓)에 이르는 한 시대(時代)는

a) 낙랑(樂浪):대동강유역설(大同江流域說)

b) 진번(眞番):황해도(黃海道) 자비령이남(慈悲嶺以南), 한강이북설(漢江以北說)

c) 진국(辰國):직산지방설[稷山地方－안성천유역(安城川流域)]

d) 마한(馬韓)의 목지국(目支國):위 진국(辰國)의 정통(正統)을 계승

e) 진한(辰韓):경기도남부(京畿道南部)와 강원도(江原道) 일부 지방설 등. 이병도(李丙燾) 박사의 학설(學說)이 그 기간(基幹)을 구성(構成)하고 있음은 이미 오래된 일이며, 특히 진번(眞番)의 위치 문제는 그러한 줄로 알면 그만인 것을 (천관우(千寬宇):고대사(古代史)의 쟁점(爭点) p.197)

이기동(李基東):韓國史 講座 古代篇 p.67

김성호(金聖昊):비류백제와 일본의 국가기원 p.115

이에 필자가 새삼 과거 어느 사가(史家)도 피력(披歷)한바 없는 이단적(異端的)인 견해를 제기함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진번군문제(眞番郡問題)는 지금까지 천여년에 걸쳐 여러 석학(碩學)들이 제각기 다른 견해를 피력한 중요한 과제(課題)이니 만큼 필자가 예산인(禮山人)의 직감만으로 이러한 이단적(異端的)인 추측을 학계(學界)에 내세울 수도 없는 일이다.

제2장 한사군(漢四郡)과 진번군(眞番郡) 문제

1) 한사군(漢四郡)

기씨조선(箕氏朝鮮)은 대동강유역(大同江流域)인 평양지방(平壤地方)에 있었다.

2200~2300년전 중국대륙(中國大陸)이 전국시대(戰國時代)로 접어들자 난(亂)을 피하여 연(燕)으로부터 도망온 《위만一衛滿》(조선계)은 조선(朝鮮)으로 들어와서 조선국(朝鮮國) 준왕(準王)의 신임(信任)을 받으며 신하로 있었는데, 마침내 많은 중국인 피난민들을 규합(糾合)하여 반란(反亂)을 일으키니, 하루밤 사이에 기자조선국(箕子朝鮮國)을 가로채기에 이르렀다.(B.C 194)

위씨(衛氏)의 나라로 변한 조선국(朝鮮國)은 한반도(韓半島)의 서북쪽지방(평안도지방)에서 세력(勢力)을 떨치고 있었는데, 만왕(滿王)의 손자인 우거왕(右渠王))때에 이르러, 한(漢)나라와의 협약(協約)을 어기고, 진번국(眞番國)과 그 이웃인 진국(辰國)이 한(漢)나라 천자(天子)에게 조공(朝貢)을 바치는 것을 중간에서 방해하는 등 불손한 태도를 취(取)하자 화가난 한무제(漢武帝)는 육군(陸軍) 5만과 해군 7천을 동원하여 침공(侵攻)을 하기에 이르렀다.

육군(陸軍)은 압록강(鴨綠江)을 건너서 진격(進擊)하였고, 해군(海軍)은 대동강(大同江)을 거슬러 올라와서 협공(挾攻)을 하였다.

한무제(漢武帝)가 조선침략(朝鮮侵略)을 도모(圖謀)한 것은 단순히 감정적(感情的)이고, 즉흥적인 출병(出兵)이 아니고, 중국천하(中國天下)를 통일함에 있어, 후방(後方)의 위협세력(威脅勢力)을 제거하려는 근본적(根本的)인 경륜(經綸)이 있었던 것이다.

한무제(漢武帝)는 17세에 즉위(卽位)하여 54년간을 재위(在位)하였는데, 그중 50년간 전쟁을 일삼아 북(北)은 현재의 고비砂漠(구노一句奴)에서 남(南)은 현 월남(越南)에 이르는 약 3,000km. 서(西)로는 감룡(甘庸)에서 동(東)으로는 한반도(韓半島)의 북부(北部)에 이르는 약 3,000km의 영토를 개척(開拓)한 이름 그대로의 황제(皇

帝)였다.

조선(朝鮮)을 침공(侵攻)하기 직전 그는 대 구노전(對 勾奴戰)에서 실패를 한 때였다.

이러한 시기에 위씨조선(衛氏朝鮮)의 우거왕(右渠王)이 불손(不遜)한 행동을 취하자 후고(後顧)의 위협을 없애기 위하여 조선(朝鮮)을 친 것이다.

한군(漢軍)은 초전(初戰)에서는 도리어 참패(慘敗)를 하였지만, 많은 증원군(增援軍)을 투입하고, 많은 금품으로 조선국(朝鮮國)의 중신들을 매수(買收)하여 내홍(內訌)을 일으키니, 마침내 조선국(朝鮮國)은 멸망(滅亡)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는 직할령(直轄領) 4개군을 창치(創置)하니 이것이 소위 한사군(漢四郡)이다.

2) 진번군문제(眞番郡問題)라 함은

한사군(漢四郡)중 낙랑(樂浪), 임둔(臨屯), 현토(玄菟) 삼군(三郡)은 옛 기록(記錄) 혹은 출토(出土)된 유물(遺物) 등이 있어 대략 그 위치가 확정되어 있지만, 유독 26년간 존속(存續)된 진번군(眞番郡)의 위치(位置)만은 사료(史料)가 희소(稀少)하여, 수백년간을 두고 한국(韓國)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등의 많은 석학(碩學)들까지도 연구(硏究)와 논쟁(論爭)을 벌여왔지만, 현재까지도 그 위치를 확정짓지 못한 채 동양사(東洋史)의 미결(迷決)로 남아 있음을 말한다.

현재 통사(通史)에서는 이병도(李丙燾) 박사의 학설(學說)을 따라 진번군(眞番郡)을 「황해도(黃海道) 자비령이남(慈悲嶺以南)에서 한강이북(漢江以北)의 땅」에 위치시키고 있지만 일부 논자(論者)들은 이를 확론(確論)으로 받아 들이지 않고 있는 실정(實情)이다.

제3장 진번군(眞番郡) 북방설(北方說)과 남방설(南方說)

진번군(眞番郡)의 방위(方位)에 대한 쟁점(爭点)의 대략을 살펴보면 북방설(北方說)과 남방설(南方說)이 있다.

본래의 조선국(기씨 및 위씨)이 있던 곳ㅡ대동강유역(大同江流域)ㅡ을 중심으로 그 북방(北方)에 위치한다고 주장하는 학설(學說)이 "북방설(北方說)"이고, 그 남방(南方)에 있다고 논함을 "남방설(南方說)"이라 한다.

"재북방설(在北方說)"중에는

중국 요동지방(遼東地方)에서도 더 먼 동북방(東北方) 「영고탑(寧古塔)」지방에 추정(推定)하는 설(說)이 있는가 하면,

"남방설(南方說)"중에는 전라도(全羅道) 영산강구(榮山江口)에까지 위치시키는 학설(學說)이 있으니 그 간격이 7천리가 넘을 정도로 그야말로 각인각론(各人各論)으로서 어느 한사람 같은 결론(結論)에 도달한 것이 없다.

이토록 심한 학자간(學者間)의 견해차이(見解差異)는 어찌하여 일어나는 것일까?

우선 2,100년전이라는 옛날에 있었던 사실인데다가 구체적(具體的)인 사료(史料)래야 창치(創置) 26년 만에 폐군(廢郡)이 된 진번군치(眞番郡治)에 관한 《무릉서(茂陵書)ㅡ한무제(漢武帝)의 능기(陵記)》의 『진번군치(眞番郡治) 삽현(霅縣) 거장안(去長安) 7천6백4십리 15현(縣)』이란 19자가 남아있을 뿐이다.

여러 논설(論說)중

가) 북방설(北方說)을 편 학자(學者) 혹은 전적(典籍)을 적어보면,

1)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2) 삼국유사(三國遺事)를 전용(轉用)한 동국통감(東國通鑑), 동국사략(東國史略),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3) 정극준(鄭克俊)의 역년통고(歷年通考)

4) 성호(星湖) 이익(李瀷) 삼한정통론(三韓正統論) (1681~1763)

5)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

6) 이세구(李世龜) 동국삼한사군고금강역설(東國三韓四郡古今疆域說) (1646~1700)

7) 약천(藥泉) 남구만(南九萬) 동사변(東史辨)

8) 순암(順庵) 안정복(安鼎福) 동사강목(東史綱目) (1712~1791)

9) 영제(冷齋) 유득공(柳得恭) 사군지(四郡志)

10) 단제(丹齋) 신채호(申采浩) 상고사(上古史)

일본학자(日本學者)로는 미찌오(那珂通世)·히라도리(白鳥庫吉博士) 박사 등과 중국학자(中國學者)로는 서광(徐廣)과 응소(應劭)등 여러분이 있다.

이상 여러 전적(典籍)과 여러 석학(碩學)들이 편 북방설(北方說)의 결론을 살펴보면

a) 그 추정(推定)하는 위치가 각인각론(各人各論)에 그쳤으며,

b) 특히 아무도 그 치읍(治邑) 삽현(霅縣)의 당처(當處)를 지적(指摘)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남방설(南方說)을 편 대표적(代表的)인 학자로는

1) 구암(久庵) 한백겸(韓百謙) (1552~1615) 동국지리지(東國地理誌)

2) 청말(淸末)의 지리학자(地理學者) 양수경(楊守敬) 회명헌고(晦明軒稿).

3) 이마니시(今西龍) 박사 진번군고(眞番郡考)

4) 이와기찌(稻葉岩吉) 박사 한사군문제(漢四郡問題)의 고찰(考察). 眞番郡(진번군)의 位置

5) 이병도(李丙燾) 박사 진번군고(眞番郡考). 삼한문제(三韓問題)의 신고찰(新考察) 한국고대사연구(韓國古代史硏究)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일본학자(日本學者)로

6) 스에마스(末松保和) 박사 진번군치고(眞番郡治考)

7) 이게우찌(池內宏) 박사 진번군(眞番郡)의 위치(位置)에 관해서 등 연구(硏究)가 있는데 위 여러분의 논지(論旨)는 제5장에서 약론(略論)키로 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같이 진번군문제(眞番郡問題)는 진작 문제거리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함에도 현금(現今)의 사학계(史學界)가 이에 대한 접근을 경원(敬遠)하고 있는 듯한 감을 느끼게 됨은 웬일인가?

이병도(李丙燾) 박사의 설(說)이 완벽(完璧)한 것이어서 인가? 또는 이 분야(分野)를 연구(硏究)하여 보아도 새 진전(進展)을 기대할 가망이 없어서 인가?

어쨌든 한무제(漢武帝)가 진번(眞番)을 점거(占據)한 기간은 26년간에 불과하지만, 조선(朝鮮)·개국(蓋國)·진국(辰國)과 더불어 우리 상고사(上古史)의 기원문제(起源問題)이자 동양사(東洋史)에 속하는 문제(問題)인 것이다.

이에 남방설(南方說)에 관한 초기논문(初期論文)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선조(宣祖)때의 구암(久庵) 한백겸(韓百謙)은 "한사군(漢四郡)은 북방(北方)에 있었다."는 설(說)과 "호서(湖西－충청도) 호남(湖南－전라도)이 합쳐서 마한(馬韓)이 되고, 영남(嶺南－경상도)는 갈라져서 진한(辰韓)과 변한(卞韓)이 되었다."는 설(說)을 정립(定立)한 분인데, 《진번(眞番)은 조선(朝鮮)과 임둔(臨屯)과 진국(辰國)사이의 땅에 있었다.》는 추론(推論), 즉 남방설(南方說)을 폈다.

바꾸어 풀이하면 진번(眞番)의 북쪽에 조선(朝鮮)이 있었고, 그 동쪽이 임둔(臨屯)이고, 진국(辰國)은 진번(眞番)의 남쪽에 위치한다는 견해인데, 이병도(李丙燾) 박사는 진번군(眞番郡)을 「황해도(黃海道) 자비령이남(慈悲嶺以南) 한강이북(漢江以北)」에 위치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구암(韓久庵)의 논리(論理)는 옳았지만, 그 위치 지적(指摘)에는 실패하였다고 비판(批判)하고 있다.

2) 청국말기(淸國末期)의 저명(著名)한 지리학자(地理學者) 양수경(楊守敬)은 그의 문집《회명헌고(晦明軒稿)》중에서 「진번(眞番)의 霅縣－삽현－은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진번(眞番)은 「북지패하(北至浿河) 남한(南限) 웅천(熊川－금강)」이라 하고, 《일통지(一統志)》에서 「대수(帶水)는 웅진강(熊津江)」이라 하였으니, 「合(今)資縣－합(금)자현)」은 웅진강(熊津江) 좌우안(左右岸)에 있었다.」고 추론하였다.

3) 이와기찌(稻葉岩吉)박사는 양수경(楊守敬)의 설(說)을 부연(敷衍)하여 『진번(眞番)의 구국(舊國)은 충청도인 금강유역(錦江流域)의 沃土地帶(옥토지대)』라면서 북방설(北方說)을 편 히라도리(白鳥庫吉) 박사의 주장에 심한 반론(反論)을 벌이기도 하였다.

4) 이마니시(今西龍) 박사는

『진번군(眞番郡)은 충청도(忠淸道)와 전라북도(全羅北道)에 창치(創置)되었던 것으로 추정(推定)하며, 이 나라를 한민족(韓民族)의 나라라고 생각한다. 그 땅은 반도(半島)중에서도 비옥(肥沃)하고, 해산물(海産物)도 많았다.

황해(黃海)에 면(面)하여 제(齊)·연(燕)과의 교통(交通)도 어렵지 않았다. 생각컨대, 삽현(霅縣)은 금강유역(錦江流域)에 있었던 것 같다.』 하였다.

이상 양수경(楊守敬), 이와기찌(稻葉)·이마니시(今西)박사의 공통점(共通点)은《충청도(忠淸道) 금강유역설(錦江流域說)》인 것이다.

5) 사학계(史學界)의 태두(泰斗) 이병도(李丙燾)박사는 상기《충청도(忠淸道) 금강(錦江－웅천)유역설(流域說)》과 한백겸(韓白謙)의 설(說)을 부인(否認)하면서, 독자적(獨自的)인 남방설(南方說) 즉, 《황해도(黃楷道) 자비령이남(慈悲嶺以南) 한강이북설(漢江以北說)》을 폈다.

제4장《雲縣－삽현》의 필수적(必須的) 여건(與件)

북방설(北方說), 남방설(南方說)을 막론하고 한국(韓國)은 물론, 당이말(唐以末)의 중국학자(中國學者)와 현대의 일본학자(日本學者)들까지 한정(限定)된 사료(史料)와 전적(典籍)을 참교(參較)하며 정공론법(正攻論法)을 펴 왔지만 결과(結果)는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각인각론(各人各論)에 그쳤다.

더구나 《번국(藩國)》의 고토(故土)인 진번국(眞番國)의 위치를 고증(考証)하는데 관건(關鍵)이 될, 치소(治所) 삽현(雲縣)의 위치는 아무도 지적한 이 없었다.

이렇듯 동일사료(同一史料)에 의한 논구(論究)이면서도 그 논단(論斷)은 각자의 선견지식(先見知識)과 사관(史觀)에 따라 상이(相異)한 해석(解析)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미루어 이제는 그 어느 전문사가(專門史家)라 하더라도 새 사료(史料), 2천년간의 새기록이 발굴(發堀)되지 않는 한 현재까지 알려진 문헌(文獻)을 토대로 또다시 정면추론(正面推論)을 펴본들 역시 "코끼리를 더듬는 맹인(盲人)"의 소견(所見) 정도만을 피력할 도리밖에 없을성 싶다.

그러나 여러 논고(論考)들을 살펴보면 비록 그 논단(論斷)은 동일결론(同一結論)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진번(眞番)과 삽현(雲縣)》이 갖추고 있을 필수여건(必須與件)들이 추출(抽出)된다.

1) 하천유역(河川流域)의 옥토지대(沃土地帶)인가?

2) 외항선(外航船)의 기착(奇着)이 가능한가?

3) 진번국(眞番國)의 후신(後身)은 《번국(藩國)》인데, 이 지방이 그에 해당하는가?

4) 무릉서(茂陵書)의 『거장안(去長安) 7,640리』를 충족시키는가?

5) 한진번군(漢眞番郡) 남부 8현(縣)중 유일하게 그 현명(縣名)이 알려져 있는 군읍소재지(郡邑所在地) 《雲縣－삽현》의 위치는 고증(考證)될 수 있는가?

6) 초기고전(初期古典)중에 나타나는 조선(朝鮮)·진국(辰國)·진

한(辰韓)등과의 연관관계(聯關關係)도 정립(定立)이 되는가?

7) 후한(後漢)의 허신(許愼)은 그의 저(著)《설문(設文)》에 "낙랑번국(樂浪番國)" 소산(所産)의 어류(魚類) 6종(種)을 기재(記載)하고 있는데, 이 지방에서 그 전부가 어획(漁獲)되는가?

8) 전기마한(前期馬韓)의 영도국(領導國)은 《목지국(目支國)》이었다. 이는 목지국(目支國)이 선진(先進)《진번(眞番)－번국(藩國)》의 정통(正統)을 계승(繼承)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지방이 약 200여년 후인 목지국(目支國)에 해당(該當)하는가?

9) 한무제(漢武帝)가 한반도(韓半島)를 침(侵)한 것은 B.C 108년이었으니, 이 무렵의 한반도(韓半島)의 문화단계(文化段階)는 청동기시대(青銅器時代)의 말기(末期), 동(銅)·철문화(鉄文化)의 교체기(交替期)에 해당한다.

대동강유역(大同江流域)에서는 청동기류(青銅器類)가 출토(出土)되어 고조선(기씨·위씨)시대의 유적(遺蹟)임을 뒷 받침하는데, 진번(眞番)－번국지방(藩國地方)에서도 별개의 청동기문화권(青銅器文化圈)이 존재하였음이 고증(考證)되는가?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필수적여건(必須的與件)들을 부분적으로 감지한들, 과연 나라안 어느 지방, 어느 위치에 그 주부(主部)나, 치소(治所)의 당처(當處)를 배정할 수 있을 것이냐?

이리하여 고금(古今)의 여러 논고(論考)가 각인각론(各人各論)에 그친 것이리라.

이병도(李丙燾) 박사는 진번군(眞番捃)의 영역(領域)을 『북(北)자비령이남(慈悲嶺以南)의 황해도(黃海道)의 대부분과 남한강이북(南漢江以北)의 경기도(京畿道)의 일부분』이라 하고, 『진번군치(眞番郡治)인《雪縣－삽현》의 위치는 물론 명확치는 않지만 아마도 예성강이남(禮成江以南) 한강이북(漢江以北)의 땅이었을 것』이라 추정(推定)하였다.

이 학설(學說)이 오늘날 국정교과서(國定教科書)의 정설(定說)인 것이다.

이박사의 학설(學說)도 진번군(眞番郡)을 조선국(朝鮮國)－대동

강유역(大同江流域)의 남방(南方)에 위치시키는 학설(學說)이니 〈남방설(南方說)〉임에 틀림이 없다.

이박사는 그의 〈황해도(黃海道) 자비령이남(慈悲嶺以南) 한강이북설(漢江以北說)〉인

① 구암(久庵) 한백겸(韓百謙)의 설(說)은 물론이고,

② 청국학자(淸國學者) 양수경(楊守敬)의 〈대수(帶水)－웅진강(熊津江)－금강유역설(錦江流域說)〉

③ 이와기찌(稻葉) 박사의 〈충청도(忠淸道) 금강유역(錦江流域) 옥토설(沃土說)〉

④ 이마니시(今西)박사의 〈충청도(忠淸道) 및 전라북도설(全羅北道說)〉을 한결같이 부정(否定)하였다.

필자가 주장하는 "진번국(眞番國)의 주부(主部)"도 《충청도의 서북부(내포)지방 즉, 충남의 분수령(分水嶺)인 차령산맥(車嶺山脈)의 이서(以西), 삽교천유역(揷橋川流域)》이니, 그 주부(主部)의 당처(當處)가 "금강유역(錦江流域)"이냐 "삽교천유역(揷橋川流域)"이냐 하는 당처(當処)에 對한 견해가 다를뿐, "충청도설(忠淸道說))"의 범주(範疇)임에 틀림이 없다.

그럼으로 필자의 견해도 이박사의 견해와 상충(相衝)되는 것임이 분명한 이상 필자의 견해를 확증(確証) 지으려면

a) 우선 이박사의 "진번군고(眞番郡考)"를 주대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b) 필자가 《진번국(眞番國) 삽교천유역설(揷橋川流域說)》을 펴는 것은, 상기 남방설학자(南方說學者)들처럼 사료(史料)를 추론한 결과 남방설(南方說)로 연역(演繹)된 것이 아니고, 충남인(忠南人)－예산인(禮山人)의 느낌으로 추상(推想)한 것이니, 상기한바 古今의 여러 연구에서 부각(浮刻)된 진번국(眞番國)이 갖추고 있을 필수적(必須的) 여건(與件)들과 부합(附合)되는가를 역(逆)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역(逆)도 진(眞)에 이를수 있으리니 말이다.

c) 동시에 삽교천유역(揷橋川流域)을 중심으로 이곳에 남아있

는 유적(遺蹟), 유물(遺物), 지명(地名) 등이 이를 뒷받침 하는 가도 검토(檢討)하여 볼 것이다.

d) 또 어음적인 고찰도 가져 봄으로서 삽현(霅縣)의 기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제5장 진번국(眞番國)은 대방군(帶方郡)의 남쪽

우리는 《무릉서(茂陵書)》에 의하여 한진번군(漢眞番郡)의 속현(屬縣)이 『15縣』이었음을 알 수 있다.

B.C 108년 한진번군(漢眞番郡)과 같은 해에 설치된 낙랑군(樂浪郡)은 A.D 313년까지 421년간 지속(持續)되었음에 반(反)하여 진번군(眞番郡)은 26년 후에 폐군(廢郡)이 되고 말았다.

이때 그 남부 8현(縣)은 구진번국(舊眞番國) 원주민(原住民)의 자치국(自治國)으로 되돌아 갔는데, 이를 중국사가(中國史家)는 "藩國－반국"이라 적고 있다.

나머지 북부 7현(縣)은 낙랑군(樂浪郡)에 병합(倂合)되어 남부도위(南部都尉)가 다스리다가 약 300년 후(後)인(A.D 206) 위(魏)의 공손강(公孫康)때 〈대방군(帶方郡)〉으로 분립(分立)하였다. 이 중국인(中國人)의 대방군(帶方郡) 역(亦) A.D 313년까지 존속(存續)되다가, 같은 年代에 낙랑군은 고구려에 대방군은 백제에 흡수당하고 말았다. 다시 말하여 낙랑군(樂浪郡)과 대방군(帶方郡)이 소멸(消滅)된 것은 진번군(眞番郡)이 창치(創置)된 때로부터는 420년 후이고, 원주한족《藩國》으로 되돌아 간 때로부터는 395년이 된다.

이 약 400년 사이에 삼한(三韓)이 형성(形成)되고 진국(辰國)이란 칭호(稱號)는 사라지고 마한 54개국이 굳어졌다.

그런다음 북방에서는 고구려(高句麗)가 확장(擴張)되고 마한은 목지국(目支國) 중심(中心)에서 백제(百濟)로 변천(變遷)한다.

한(漢)나라는 강대(強大)한 국력과 속방(屬邦)을 감화(感化)시킬 수 있는 문화(文化)와 발달(發達)된 철기무기(鐵器武器)를 갖고 있었음에도, 유독 진번군(眞番郡)에서는 창군(創郡) 30년을 넘기지 못

하고 "왜 철수(徹收)하였느냐?"하는 의문(疑問)을 남기게 된다.

이에서 중요한 사실을 감득(感得)할 수가 있다.

a) 그 하나는 원주한족(原住韓族)의 강한 저항(抵抗)이 있었을 것이고,

b) 또 하나는 중국이민(中國移民)의 분포가 희박(稀薄)하여 직할령(直轄領)을 유지할 수가 없었으리라는 점이다.

이는 중국(中國)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이민(移民)이 도중(途中) 대동강유역(大同江流域)의 옥토지대(沃土地帶－낙랑군), 한강유역(漢江流域)의 옥토지대(沃土地帶)등 살기좋은 곳에 먼저 정착을 하니 낙랑(樂浪)에서 더 멀리 떨어진 남부 8현(縣)지방(충청도의 삽교천유역) 즉 구 진번국영역(舊眞番國領域)에서는 후속식민(後続植民)이 부진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로서도 한군이전(漢郡以前)의 진번국(眞番國)은 대방군(帶方郡) 위치보다도 먼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병도(李丙燾)는 진번군(眞番郡)의 전강역(全疆域)을 낙랑군(樂浪郡)과 인접한 부위로부터 한강이북(漢江以北)의 땅에 한정하면서, 즉 후일(後日)의 대방군(帶方郡)과 일치시키면서 〈진번군고(眞番郡考)〉의 결론부분에서

『진번(眞番)의 북경(北境)은 물론 대방군(帶方郡)의 그것과 일치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지만, 그 남경(南境)은 대방군(帶方郡) 그것보다는 조금앞에까지 미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그 무릉서(茂陵書)에 진번군(眞番郡)의 속현(屬縣)이 15현(縣)이나 있었다고 전하며 또 진번군치(眞番郡治)인 삽현(霅縣)은 실제 진번군(眞番郡)을 병합한 다음의 낙랑군현(樂浪郡縣)중에도 들어있지 않고, 그런가 하면 낙랑군(樂浪郡)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대방군현(帶方郡縣)중에도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면, 진번군(眞番郡)의 영역은 겨우 7현(縣)만을 포함(包含)한(300년후의) 대방군(帶方郡)보다는 다소 큰 것으로 보지 않으면 안된다.

추측이긴 하지만 그 남경(南境)은 지금의 한강부근(漢江附近)에까지 미쳤던 것이 아닐까? 그러고 보면,

〈진번군(眞番郡)의 영역은 북(北) 자비령이남(慈悲嶺以南)의 황해도(黃海道)의 대부분과 남(南) 한강이북(漢江以北)인 경기도(京畿道)의 일부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진번군치(眞番郡治)인《삽현(霅縣)의 위치는 물론 명확치는 않지만 아마도 예성강이남(禮成江以南) 한강이북(漢江以北)의 땅이었을 것》으로 무릉서(茂陵書)의 소위(所謂)

「삽현거장안(霅縣去長安) 7천6백4십리」의 리수(里數)는 기술(技術)한대로 6천운운의 오(誤)가 아닐까」 -중략-

『요컨대, 진번군치(眞番郡治)는 한민족(漢民族)과의 교계(交界)의 땅에 두어졌고 낙랑군치(樂浪郡治)와 임둔군치(臨屯郡治])로부터 떨어진 남방(南方)에 있었는데, 그 개치후(開置後) 30년을 넘기지 못하는 사이 삽현(霅縣) 등 남반분(南半分)은 폐지(廢止)되어 접양지(接壤地)인 진국(辰國)에 들어가고, 其 북반분(北半分)만이 낙랑(樂浪)에 병합되어서 其의 남부도위(南部都尉)가 관할하는 바 되고, 그후로는 대방군(帶方郡)의 영역이 된 것일 것이다.』하였다.

이는 진국(辰國)은 한족(韓族)으로 진번국(眞番國)은 조선족(朝鮮族)으로 전제(前提)함으로서 추론(推論)이라고 생각(生覺)된다.

이마니시(今西龍) 박사는 『진번국(眞番國)은 한민족(韓民族)의 나라』라 전제(前提)한다.

그러나 이병도(李丙燾)박사는 진번국(眞番國)의 구성부족(構成部族)을 명시한 바는 없지만 삽현(霅縣)의 위치를 『예성강(禮成江)이남(以南) 한강이북(漢江以北)의 땅』이라 추상(推想)하면서, 이곳이 『한민족(韓民族)과의 교계(交界)가 되는 땅』이라 하였으므로 미루어 조선족계통(朝鮮族系統)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진번군(眞番郡)의 최남경(最南境)은 한강유역지방(漢江流域地方)』이고, 이곳을 삽현(霅縣)으로 보고 있다.

또 이박사는 이 논고(論考)에서

진번군치(眞番郡治) 삽현(霅縣)을 『예성강(禮成江) 이남(以南) 한강이북(漢江以北)의 땅』으로 보면서 『삽현(霅縣)등 남반분(南半分)은 폐지(廢止)되어 접양지(接壤地)인 진국(辰國)에 들어갔다.』는

주장이고,
삽현(雪縣)이 「낙랑(樂浪)의 남부도위(南部都尉)의 관할에도 대방군(帶方郡)의 강역(疆域)에도 들지 않은 것을 보면 《진번군(眞番郡)의 남경(南境)은 대방군(帶方郡)의 그것보다는 조금 앞에까지 미쳤던 것》」이라 하였는데, 한강(漢江)까지가 진번군(眞番郡)이었다는 것인지, 『다소 큰 것』이라 함은 삽현이남(雪縣以南) 즉, 한강이남(漢江以南)에도 진번군중(眞番郡中)의 남부 8현(縣)의 일부가 조금 있었다는 것인지 짐작하기 어렵다.

이박사는 이 남부 8현(縣)도 한강이북(漢江以北)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더러, 조선족(朝鮮族)으로 보고 있음이 분명하다. 즉, 진번군(眞番郡) 15현(縣)은 한강이북(漢江以北)에 있었다.

그러면서 『삽현(雪縣)등 남반분(南半分)은 폐지(廢止)되어 접양지(接壤地)인 진국(辰國)에 들어갔다.』는 결론(結論)이다.

26년간의 한(漢)의 강점(强占)에서 벗어나자 진국(辰國)도 한족(韓族)이고, 진번국(眞番國)도 한족(韓族)이라면, 중국사료(中國史料)에 〈번국(藩國)〉이라 기록된 중간과정을 거쳐서, 그후 마한 54개국의 형성(形成)과 더불어 「마한지방(馬韓地方)의 주체(主體)인 〈진국(辰國)〉」으로 들어갔다 함은 당연히 성립(成立)이 된다.

그러나 2,050년후인 폐군(廢郡) 당시와 대세(大勢)로, 강북(江北)에 있던 조선족(朝鮮族)인 진번국(眞番國)이(이박사의 所論), 강남(江南)에 있는 이질적(異質的)인 〈진국(辰國)－마한(馬韓)〉으로 들어갔다는 것인지, 혹은 강북(江北)에서도 한족(韓族)인 진국(辰國)의 세력이 커서, 폐군(廢郡)이 되자 8개현(縣)의 영역에 해당하는 구(舊) 진번국지역(眞番國地域)의 조선족(朝鮮族)이 진국[辰國－한족(韓族)]에 들어갔다는 것인지 알길이 없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2천년전의 한강이남(漢江以南)은 한족(韓族)의 세력권(勢力圈)이고, 그중 역사기록(歷史記錄)에 나타나는 "진번국(眞番國)"의 주부(主部)는 삽교천유역(揷橋川流域)이었으며, 당시의 "진국(辰國)"은 충남의 분수령(分水嶺)인 차령산맥(車嶺山脈)의 동쪽, 즉 금강유역

(錦江流域)인 충청도땅이었다고 보는 바다.

한족(韓族)인 구(舊)진번국(眞番國)이 26년간의 한군(漢郡)을 거쳐 자립하자 〈번국(藩國)〉이란 칭호(称呼)를 받았고, 이 번국(藩國)을 계승(繼承)한 것이 〈목지국(目支國)〉이라면 이것이 마한(馬韓)에 들어갔다 함은 당연하다.

이로서 진번국(眞番國) 〈번국(藩國)－목지국(目支國)〉과 진국(辰國)은 다같은 한족(韓族)이며, 충남의 분수령(分水嶺)인 차령산맥(車嶺山脈)의 서와 동에 위치하고 있었을 뿐, 동일한 충청도땅에 있었으며, 이박사가 진번군(眞番郡)의 위치를 가리기 위하여 추구(追求)하던 300년후의 대방군(帶方郡)보다도 남쪽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제6장 진번군(眞番郡)과 진국(辰國)과 대방군(帶放郡)

진번국(眞番國)의 위치를 가리는데 있어, 먼저 대방군(帶方郡)의 위치가 확정이 된다면 일은 간단(簡單)하다.

대방군(帶方郡)은 진번군(眞番郡)의 북반분(北半分)에 해당하는 곳이니, 그 나머지 남반분(南半分)인 진번국(眞番國)의 고지(故地)는 자동적(自動的)으로 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사가(史家)들이 옛 사료(史料)에 의하여 추론(推論)을 거듭하여 보았지만 그 남한(南限)은 알아내지 못하였다.

이제 필자는 전술(前述)한 바 삽교천변(揷橋川辺)의 유적(遺蹟)과 유물(遺物)과 지명(地名)을 바탕으로 《진번국(眞番國)》의 위치를 《안성천이남(安城川以南), 현 천안, 아산, 예산, 당진, 서산, 홍성 등 충남의 분수령인 차령산맥(車嶺山脈) 이서지방(以西地方)－內浦地方－이고, 그 주부(主部)는 "삽교천유역(揷橋川流域"이었다.》고 추정을 한다.

대방(帶方) 7현(縣)이 진번국(眞番國)의 북방이자 낙랑(樂浪)의 남방에 있었다면, 대략 안성천(安城川)과 한강(漢江)사이가 원주한

족(原住韓族)과 이주한인(移住漢人)의 교계(交界)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대방군(帶方郡)의 강역(疆域)은 한강이북(漢江以北), 낙랑(樂浪)의 남경(南境)까지로 추측할 수 있게 된다.

한강이남(漢江以南)으로부터 안성천(安城川)까지는 역사기록(歷史記錄)에 남을 정도의 중심체(국가)는 없었지만 한족(韓族)의 영역이었고, 그 남으로는 차령산맥(車嶺山脈)의 서북쪽 "삽교천유역(揷橋川流域)"이 〈진번국(眞番國)〉이고, 이 분수령(分水嶺)의 동남쪽 "금강유역(錦江流域)"이 〈진국(辰國)〉이라고 추상(推想)할 수 있게 된다. 진번국시대(眞番國時代)의 진국(辰國)은

1) 그토록 영토확장을 좋아하던 한무제(漢武帝)의 침략군도 『진번방진국(眞番傍辰國)』에는 미치지 못하였음을 보면, 진번국(眞番國)보다도 먼곳이고, 그 중간에는 천연의 장해물(障害物)－산맥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2) 한군(漢軍)이 침입하였을 때, 진번국(眞番國)은 아산만(牙山灣) 연안국(沿岸國)이었기에, 한(漢)의 해군(海軍)에 의하여 침공을 당하였지만, 진국(辰國)은 분수령(分水嶺－車嶺山脈) 너머였기에, 수군(水軍)의 화를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우거왕(右渠王)에게 간언(諫言)을 하다 실패한 조선국(朝鮮國)의 대신(大臣) 역계향(歷谿卿)이 『동지진국(東之辰國)』할 때, 그를 따르던 2천호(戶) 백성과 더불어 간 곳이 차령산맥(車嶺山脈) 넘어라면, 생활권(生活圈)이 다른 분수령(分水嶺) 넘어니 『조선진번(朝鮮眞番)과는 불상왕래(不相往來)』하였다 함은 당연하다.

이것으로도 진국(辰國)은 진번(眞番)의 동남쪽 인접지(隣接地)이긴 하지만 생활권(生活圈)이 다른 분수령(分水嶺)을 격(隔)하여 위치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진번국(眞番國)과 진국(辰國)은 분수령(分水嶺)을 격(隔)하였을 뿐, 다같은 충청도땅에 위치하던 한족(韓族)의 나라였으니, 후일 마한 54개국(國)이 형성되던 때 하등 마찰은 없었을 것이다.

남으로 이동하는 부족(部族) 혹은 난민(難民)이 경기도서부(京畿

道西部) 평탄한 지세(地勢)를 따라 안성천변(安成川邊)에 도달하였을 때, 동남으로 뻗어내린 차령산맥(車嶺山脈)이 앞을 가로막는다.

이 때 산맥을 피하여 서향(西向)을 한 곳이 "진번국(眞番國)"이다.

한편 천안삼거리(天安三距離)에서 분수령(分水嶺)의 가장 얕은 곳을 동(고속도로)쪽으로 넘으면 진천(鎭川), 청주(淸州), 미호천평야(美湖川平野－금강의 지류)고, 남서(국도)쪽으로 넘으면 전의공주(全義公州)쪽 금강유역(錦江流域)에 다다른다.

이 분수령(分水嶺)을 넘은 남쪽 충청도를 "진국(辰國)"으로 보는 것이다.

이 시대 한인(漢人)들의 치현(置縣)은 벽돌을 쌓듯이 차례차례 지역(地域)을 구획(區劃)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곳에 듬성듬성 설치한 것이 아닐까?

가상(假想)컨대, 진번군(眞番郡)의 남쪽 8현(縣)은 해군이 점령(占領)한 진번국(眞番國)의 부속(附屬) 8국(國)을 현(縣)으로 삼은 것이고, 북쪽 7현(縣)은 육병(陸兵)이 낙랑(樂浪)의 접경지대(接境地帶)로부터 이미 유입(流入)된 중국난민(中國亂民)의 이주지를 중심으로 치현(置縣)을 한 것이라면, 그 중간지대(中間地帶)에는 "공지(空地)"(중국인의 거주가 없는 지방)와 "황지(荒地)" (사람이 살지 않는 지방)도 많았을 것이다.

이 중간지대(경기도지방)의 "공지(空地)"와 "황지(荒地)"를 격(隔)하고 보니, 진번군(眞番郡)의 최남방(충남의 서북부)은 후속식민(後續植民)도 부진하고, 원주한인[原住韓人－진번군인(眞番郡人)]은 거센 반항을 하고, 이리하여 군현(郡縣)을 유지(維持)할 수가 없어, 그 남부 8현(縣)은 한(漢)에 순종(順從)할 것을 조건(條件)으로 "번국(藩國)"을 중심으로 하는 원주한인(原住韓人)의 자치(自治)로 되돌려 주고, 군설치(郡設置) 30년을 넘기지 못하고 기(棄)한 것이리라.

이리하여 한인(漢人)의 세력권(勢力圈)에 가까운 북부 7현(縣)만을 수습(收拾)하여 낙랑군(樂浪郡)에 합병(合倂)하고, 그 남부도위

(南部都尉)가 통치(統治)하여 오다가, 폐군후(廢郡後) 약 300년이 경과하는 사이 중국인(中國人)의 세력(勢力)이 차차 굳어지자, 재차 중국인(中國人)의 대방군(帶方郡)으로 분립(分立)한 것이리라.(A.D 207)

그 후 강성(强盛)하여진 백제(百濟)가 이를 흡수(吸收)하기에 이르렀다고 보는 바다.

제3편 진번국(眞藩國)의 위치(位置)

1장 위치에 대한 제시
2장 반국은 진번군중의 남부 8현 지방
3장 반국(진번국)의 주부(主部)는 예산군 삽교지방
4장 진번국의 번성(潘城)과 한진번군(漢眞番郡)의 삽현(霅縣)

제3편 진번국[眞番國－번국(藩國)]의 위치(位置)

제1장 위치(位置)에 대한 제시(提示)

거연(鉅燕)이 조선(朝鮮)·진번(眞番)과 교역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한무제(漢武帝)가 위씨조선(衛氏朝鮮)을 공략(攻略)할제 오만육군(五万陸軍)을 동원(動員)하면서, 7천 수군(水軍)을 병용(倂用)하였음은 조선항로(朝鮮航路－대동강)는 이미 활용되고 있었음을 증(證)하는 것인즉, 진번항로(眞番航路－아산만) 또한 이미 개척(開拓)되어 있었음을 추측케 함으로, 진번제국(眞番諸國)과 그 주부(主部)인 번국(藩國)의 위치를 고찰(考察)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상정적(想定的) 전제(前提)를 갖는다.

한(漢) 진번군(眞番郡) 15현(縣) 중

1) 《북부 7현(縣)》은 왕검성(王儉城－평양)을 정복한 그 육군이 대동강이남지방(大同江以南地方)까지 진격(進擊)하면서 점령(占領)한 지역이고,

2) 《남부 8현(縣)》은 대동강을 소항(遡航)하여 "평양성(城)"을 협공(挾攻)하던 한(漢)의 수군병력(水軍兵力)의 일부가 대동강구(大同江口)인 "남포(南浦)"로 부터는 범선(帆船)으로 불과 3~4일 거리인 아산만(牙山灣)－사읍[沙邑－삽교천의 고명(古名)]으로 항진(航進)하면서 점거(占據)한 구(舊) 진번제국(眞番諸國)의 강토(疆土) 즉, 내포지방(內浦地方)이라.

3) 그렇기에 진번군(眞番郡) 남부 8현(縣)과 북부 7현(縣)의 중간지대(中間地帶) 즉, 한강유역(漢江流域)과 안성천이북(安城川以北)인 경기도(京畿道) 남부지방(南部地方) 사이에는 한군(漢軍)이 점령(占領)하지 못한 토착(土着) 한족(韓族)의 개국(蓋國－?)이 있었다.

후일 이 지방에서

a) 왕개(王芥)·지황연간(地皇年間) (A.D 20~23)에 진한(辰韓)의 『벌목사화(伐木史話)』가 발생하였고,

b) 위(魏)의 경초(景初) (A.D 246) 때에는 "기리영(崎離營)"에서의 반란(反亂)으로 대방태수(帶方太守) 궁준(弓遵)의 전사사건(戰死事件)이 있었고,

c) 정시(正始) 7년(A.D 246)에는 한(韓)의 『군해등수십국(郡奚等數十國) 각률종번강(各率種藩降)』하는 사태(事態)등이 발생(發生)하였다고 본다.

4) 진번군(眞番郡)의 치소(治所)가 있던 《雪縣－삽현》은 피침당시(被侵當時) 진번(眞番)의 중심지(中心地)이던 삽교천유역(揷橋川流域) 즉, 현(現) 예산군(禮山郡) 일원(一圓)과, 홍성군(洪城郡)의 금마평야(金馬平野)와 당진군(唐津郡)의 합덕지방(合德地方)이었다.

그러니 한진번군(漢眞番郡)의 치소(治所)－읍성(邑城)은 고래(古來)의 목지성(目支城)의 10리쯤 상류쪽으로서, 진번제국(眞番諸國)의 대표적(代表的) 도성(都城)인 《반챙이성(城)－번성(藩城)》을 26년간 점거(占據)하였던 것으로 상정(想定)한다.

제2장《번국(藩國)》은 진번군중(眞番郡中)의 남부 8현(縣) 지방

진번(眞番)과 목지국(目支國)의 위치에 관하여 상기(上記)와 같은 이단적(異端的)인 가정(假定)을 제기함에 있어 큰 애로(隘路)가 되는 것은, 정설(定說)을 이루고 있는 이병도(李丙燾) 박사의 『진번군(眞番郡)과 목지국(目支國)의 위치에 관한 학설(學說)』과 "남방설(南方說)"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否定)하는 신채호(申采浩) 선생의 주장과 이를 승계(承繼)한 안동준(安東濬)·임승국(林承國) 양씨(兩氏)의 「무릉서(戊陵書) 위서론(僞書論)」(한국고대사관견(韓國古代史管見) p113.)이라 하겠다.

무릉서(戊陵書)에 의하면 『진번군(眞番郡)은 15현(縣)이었고 그 치소(治所)는 삽현(雪縣)에 있었으며, 그 삽현(雪縣)은 전한(前漢)의 수도(首都) 장안(長安－현재의 서안)으로부터 7,640리 거리』라 하였다.

이병도(李丙燾) 박사는 그 15현(縣)중의 "북부 7현(縣)"지방을 후

일(後日)(약 300년 후)의 대방군(帶方郡) 7현(縣)지방으로 보고, 이를 「자비령이남(慈悲嶺以南)의 황해도(黃海道) 남부지방(南部地方)」이라고 고증(考證)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남부 8현(縣)의 위치는 사료(史料)에 현명(縣名)이 전하지 않음을 들어 이를 지적(指摘)하지 못하였는데, 유일하게 현명(縣名)이 알려져 있는 치소[治所－군현(郡縣)] "《삽현－雪縣》"의 위치 또한 추정(推定)을 못하였지만 이러할 경우에도 문제점(問題点)은 그 남부 8현(縣) 또한 필연적(必然的)으로 그분이 고증(考證)한 북부 7현(縣)과 인접(隣接)된 한강이북(漢江以北)지방이 아니었겠느냐고 추상(推想)하게 될 가능성(可能性)에 있다.

그럼으로 본 논고(論考)에서는 상기(上記)한 《반챙이토성(土城)－藩城》과 《궁(宮)마루부락(部落)인 목시토성(土城)－목지성(目支城)》의 유적(遺蹟) 제시와 곁드려 정설(定說)을 이루고 있는 두계(斗溪)의 논거(論據)와 이 반대입장(反對立場)인 주제(主題)의 견해(見解)와 기타 연관논설(聯關論說)도 이를 검토(檢討)하고, 아울러 일본학계(日本學界)의 연구도 가능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술(論述)이 목표(目標)하는 바는 위 가정(假定)으로 제시한 《번국(藩國)》과 《목지국(目支國)》의 위치를 고증(考證)한 다음, 그 바탕위에서 《진국(辰國)》과 《진한(辰韓)》과의 연관성(聯關性)도 고찰(考察)함에 있다.

제3장 번국[藩國－진번국(眞番國)]의 주부(主部)는 예산군(禮山郡) 삽교지방(揷橋地方)

이에 필자는 기다려도 출현(出現)될 리 없는 2천년전의 새 문헌사료(文獻史料) 대신 아산만(牙山灣)·삽교천(揷橋川)·무한천(無限川) 유역에 위치하는 30여 토성(土城)중 특히 세 곳의 평야토성(平野土城)

1) 삽교읍(揷橋邑) 수촌리(水村里). 《반챙이－藩챙이》 마을을 둘러싼 광대한 토성(土城)

2) 삽교읍(揷橋邑) 성리(城里). 前에는 노인들이 흔히 〈궁(宮)마루〉라고 부르던 〈안목시 쪽〉《목시－목지토성(目支土城)》

3) 같은 목지부락(目支部落)의 〈서내〉쪽 하천변(河川邊) 중간지점에 있던 토성(土城)

이들 유허(遺墟)와 지명(地名)과 전설(傳說) 등을 제시하면서 이를

1)은 진번(眞番)의 후신(後身) 인《번국(藩國)》의 도성(都城)

2)는 목지국의《목지성(目支城)》이라 전제(前提)하면서

3)은 한무제(漢武帝)의 해군(海軍)이 머물던《삽양장－霅陽鄣》의 유허(遺墟)였다고 상상하여 본다.

예산군(禮山郡) 삽교읍(揷橋邑) 수촌리(水村里)

이 부락(部落)의 구(舊) 지명(地名)은《반챙이》혹은《원반챙이》라 한다.

"－챙이"를 접미사(接尾詞)로 보면 "반－번(藩)" 혹은 "원반－원번(原番)"이 된다.

"원반"이란 "원래의 반", "옛날의 반", "진(眞)짜 반－진번(眞番)" 등으로 느낄 수 있는 지명(地名)인 것이다.

특히 유의(留意)될 일은 마을전역(全域)－〈골뜸과 장성(長城)뜸〉을 에워싸는 광대한 평지토성(平地土城)의 유허(遺墟)가 남아 있다는 사실과 부락(部落)의 주부(主部)인 〈골 뜸〉에서 서쪽 500m 내지 1㎞쯤 되는 곳에 위치하는 얕은 두 구릉명(丘陵名)이《큰릉(陵)뫼》와《작은릉(陵)뫼》라는 사실이다. [이 토성(土城)의 자취는 금년(今年) 정월경(正月頃) 개간(開墾)으로 인하여 완전 훼손 되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이 지방이《번국(番國)》의 수도(首都)이자 한 진번군(漢 眞番郡)의 치읍(治邑)이던 무렵의 왕릉(王陵)의 자취가 아닐까 한다. 2기(基)의 큰 고분(古墳)과 개간(開墾)으로 인하여 평토(平土)가 된 두 분묘(墳墓)의 자취는 장래 고고학적(考古學的)으로 규명(糾明)되리라 기대(期待)한다.

이 부락(部落)은 동남향으로 완경사(緩傾斜)를 이룬다.

배후지방(背後地方)인《오성(五城)이벌》즉

① 신리(新里)의 테뫼.
② 2리(里)의 안다락뫼·밖다락뫼.
③ 반챙이토성(土城).
④ 용갈미토성(土城).
⑤ 싸레기내토성(土城)이 포괄(抱括)하는 구릉지대(丘陵地帶)가 금마천(삽교천의 상류)에 임하는 곳에 넓은 평지토성(平地土城)을 이루는 데, 남동쪽에 백호봉(白虎峰)인 "꽃산(山)"이 북서쪽에 청용(靑龍)날인 "장성(長城)"이 하천변(下川邊)까지 뻗어 반월토성세(半月土城勢)를 이룬다.

그 현(鉉)을 이루는 곳을 금마천(金馬川)이 스쳐 흐르는데, 이 금마천(金馬川) 건너가 바로 홍성(洪城)에서 예산(禮山)·당진(唐津)으로 이어지는 예당평야(禮唐平野)중의 "금마(金馬)들", 즉 "반챙이 앞들"인 것이다.

50~60년전까지도 "반챙이"에서 그 대안(對岸)인 홍성군(洪城郡) 금마면(金馬面)쪽으로 건너가자면 "반챙이나루"를 배로 건너야만 했다.

이 나루터 부근에 형성(形成)되었던 삽교천(揷橋川)의 사행호(蛇行湖)를 "성기방죽"이라 하였는데, 그간의 심한 토사퇴적작용(土沙堆積作用)으로 하상(河床)이 높아지고, 중기시대(重機時代)가 되면서 현재는 하류를 바로잡고, 제방(堤防)을 쌓고, 안전답(安全畓)이 되었다.

하류의 침식(浸蝕)으로 사행호(蛇行湖)가 형성(形成)되기 이전이었다면, 성(城)의 동쪽인 이 자리까지도 백성(百姓)들의 시가(市街)가 있어 마땅한 위치인 것이다.

옛날 이 지방에 큰 도읍(都邑)이 있었는데, 대홍수(大洪水)로 폐도(廢都)가 되었다는 전설(傳說)을 위시(爲始)하여, 여러가지 전설(傳說)이 남아있다.

[전설(傳說)－A]

"금마(金馬)들"에 대도시(大都市)가 있었다. 외지(外地)에서 온 장사하는 아낙네가 이 도읍(都邑)엘 왔다가, 마을이 하도 커서 외부(外部)로 빠져 나가는 길을 잃고, 밤이 새도록 고생하며 헤매었다.

[전설(傳說) -B]

금마(金馬)들은 큰 섬(島)이었다. 거대한 참나무 숲으로 뒤덮여 있었는데 대홍수(大洪水)로 매몰(埋沒)되었다.

이는 태고(太古) 이래(以來)의 하류(河流)의 변천(變遷)을 말한다.

[전설(傳說) -C]

"반챙이"들 속에 큰 부자(富者)가 살고 있었다. 워낙 대농(大農)이라서 그 가족(家族)들의 고역(苦役)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어느날 노도사(老道士)가 동냥을 왔는데, 수전노(守錢奴)인 주인은 시주(施主) 대신, 여물 바가지에다 짚여물을 담아서 내밀었다. 그 집 자부(子婦)가 보다못해, 시아버지 몰래 쌀을 담뿍 퍼서 시주(施主)를 하면서 고생이 좀 덜되게 하여 달라고 소청(所請)을 하였다.

노도사(老道士)는 「이길로 나를 따라 오시요. 무슨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면 안됩니다.」하고 일렀다.

얼마도 안가는 사이, 천지가 뒤집힐 듯 뇌성(雷聲)과 함께 폭우가 쏟아진다. 그러나 상류로부터 집채같은 물줄기가 닥쳐온다. 집걱정이 된 그 여인은 노도사(老道士)의 말을 잊고, 자기집 쪽을 뒤돌아보았다. 그 순간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로 화하여 부처님이 되었다.

〈반챙이〉 금마천(金馬川) 단애(斷涯)위 불당(佛堂)속에 모셔져 있는 이 석불(石佛)은 여성이 화한 부처님이라서, 옛부터 자식없는 부인(婦人)들의 기원불(祈願佛)로 그 효험(效驗)이 대단하다.」한다.

이 불당(佛堂)속 석불(石佛)은 선돌(menhir)을 개각(改刻)한 것으로 보이는 큰 입불(立佛)이다.

이 지방에는 이와 유사(類似)한 석불(石佛)이 여럿 있다.

a) 홍북면 용(龍)갈미에는 석불(石佛)과 토성(土城).

b) 덕산읍내(德山邑內) 천주교회 남쪽

c) 덕산(德山) 사동리(社洞里) 덕산온천(德山溫泉) 입구 부근 등에도 있는데,

d) "용(龍)갈미"에도 토성(土城)이 남아있고,

e) 덕산읍내(德山邑內)에도 "돗토성(土城)"과

지석묘(현. 덕산면사무소의 동쪽 200m 하천속)가 동반(同伴)되고 있음으로 미루어, 위 "반챙이 불당(佛堂)"의 석불(石佛)도 한흥수(韓興洙)씨의 학론(學論) 대로 옛 선돌(menhir)을 후세(後世)에 개각(改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반챙이" 하천가에도 "넓은 바위-지석묘(支石墓)"가 있었는데, 제방축조(堤防築造)때 흙속에 묻히고 말았다 한다.

또 "반(藩)챙이"마을 외곽(外廓)인 "학(鶴)재"에 있던 지석묘(支石墓) 여러개는 30여년전에 새마을 사업(事業)의 일환(一環)으로 깨뜨려서 시설물(施設物)로 이용(利用)하였다 한다. 「안다락뫼」 목은 이색영정(影亭)옆 토성(土城)변에도 지석묘(支石墓)가 하나 보인다.

일제(日帝)때 금마평야(金馬平野)에서 채금선(採金船)이 작업을 하던 때, 많은 침향(沈香)이 나온 사실과 홍북면(洪北面) 용봉산(龍鳳山) 아래 계곡에 미탄화(未炭化)의 토탄(土炭)이 다량 매장(埋葬)되어 있음은, 대홍수(大洪水)로 인한 지변(地變)이 있었음을 입증(立證)하는 것이다.

[전설(傳說)-D]

옛날 덕산지방(德山地方)의 무속(巫俗)으로 "왕신(王神)단지"를 내버릴 때는 《반챙이불당(佛堂)》에 가서 우선 치성(致誠)을 드린 다음, 「꽃가마(인형으로 만든 것)」에 태워서 홍주(洪州)〈동메기〉〈범패고개〉의 불당(佛堂) 부근에 내버렸다.

이상으로 전설(傳說) 몇가지를 적었거니와 "오성(五城)이벌". 그 오성(五城)중의 하나인 삽교읍(揷橋邑) 신리(新里)의 "테뫼산(山)"의 토성(土城)아래에는 선돌이 있고, 상당히 큰 방죽이 있다. "퇴뫼방죽"이라 한다. 옛날 수암산(秀岩山)에서 산제(山祭)를 올릴 때 돼지를 잡아 씻는 못이라 한다.

그러나 "반챙이토성(土城)" 부근의 방죽산 아래에도 방죽이 있고, 합덕(合德) "성동리토성(城東里土城)" 아래에는 합덕(合德)방죽이 있으니, 청동기(靑銅器) 출토(出土)로 유명하여진 남성리(南城里)의

"형제(兄弟)방죽"등은 수렵(狩獵)과 농경(農耕)이 병행(倂行)되던 무렵부터의 방죽인듯 하다.

"반(藩)챙이토성(土城)" 주변에는 위성토성(衛星土城)인 오성(五城)뿐이 아니라 여기서 직접바라다 보이는 여러 토성(土城)이 있으니,

a) 홍성(洪城)·금마(金馬)·"고무랭이 이중토성(二重土城)"이는 광개토왕(廣開土王)이 침략(侵略)했던 "고무루성(古牟婁城)"일 것이다.

b) 홍성(洪城)·금마(金馬)·테뫼산(山)의 "당(唐)골성(城)"[백제(百濟) 와편(瓦片)이 출토(出土)된다.]

c) 홍성(洪城)·월산(月山)아래·"해풍성(海豊城)"에서는 漢字 四字가 들어있는 동경(銅鏡)이 출토(出土)된바 있다.

d) 삽교(揷橋)·"꽃산(山)의 토성(土城)" 석촉(石鏃)이 출토(出土)된 바 있다.

e) 삽교(揷橋)·상성리(上城里)의 "궁(宮)모루토성(土城)" 부근에는 선돌(石佛)이 남아 있다.

f) 삽교(揷橋)·성리(城里)·"목시(目支)의 평지토성(平地土城)"별도상론(別途詳論)하겠지만 선돌(menhir)과 지석묘(支石墓)와 청동기류(靑銅器類)가 출토(出土)된다.

g) 덕산(德山)·읍내(邑內)·"돗토성(土城)". 지석묘(支石墓)와 입석(석불)이 있고, 옥계리(玉溪里)에서 청동기류(靑銅器類)가 출토(出土)되었다. [국보급(國寶級) 팔주령(八珠鈴)과 청동단검(靑銅短劍)

이 외에도

h) 삽교(揷橋)·2리(里)의 "안다락뫼" "밖다락뫼"의 토성(土城)과 지석묘(支石墓)

i) 홍북(洪北)·싸래기내의 토성(土城)

j) 홍북(洪北)·"용(龍)갈미토성(土城)"에는 선돌[석불(石佛)]이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반챙이ㅡ번성(藩城)"을 중심으로 위성성(衛星城)을 거느리고 있었거나, 부족들의 연립체제(聯立體制)를 이루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제4장 진번(眞番)의 번성(藩城)과 한진번군(漢眞番郡)의 삽현(霅縣)

우리는 아쉽게도 2,000년전의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우리의 기록(記錄)을 갖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진번(眞番)에 관하여는《무릉서(戊陵書)》중의 19자(字)로, 군치소(郡治所)〈삽현－霅縣〉의 존재(存在)와 전한(前漢)의 수도(首都)「장안(長安)」으로 부터 진번군(眞番郡)의 치읍(治邑) 삽현(霅縣)사이가 7,640리(里)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옛 사료(史料)는 이토록 희소(稀少)하다.

이에 필자는 과거 수백년간에 걸친 문헌사료(文獻史料) 추구(推求)로도 이루지 못한 결과(結果)에 대한 해결책(解決策)으로 상술(上述)한 바〈반챙이토성(土城)〉 및〈원(原)반챙이〉라는 지명(地名)과 이〈번성(藩城)〉을 중심으로 하는 내포지방(內浦地方)의 30여 토성(土城)중 특히 그 위성성(衛星城)인 "오성(五城)이벌" 지대(地帶)의 여러 유적(遺蹟)들과 이에 얼킨 전설(傳說)등을 제시(提示)함으로서, 이곳《반챙이성(城)》지방을《번국(藩國)의 도성(都城)》이자,《한진번군(漢眞番郡)의 치소(治所)》였다고 상정(想定)하여 보았다. 그러나 이로서 2,100년 전후(前後) 무렵의 사실이 완전히 고증(考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를 보완(補完)하는 방도(方途)로는

ⓐ 선학(先學)들의 연구성과(硏究成果)를 검토(檢討)하는 방법.

ⓑ 고고학적(考古學的) 자료(資料)의 제시(提示)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에 관하여는 제5편에서 약론(略論)하겠고, 우선 2,000년 전 후 시대(前 後時代)의 유물(遺物)이라 할 수 있는 이 지방 출토(出土) 청동기유물류(靑銅器遺物類)와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1편 3장에서 언급(言及)된 청동기류(靑銅器類)는 필자의 좁은 견문(見聞)속에서 확인(確認)할 수 있었던 것일 뿐 이므로 이것만으로 그 성격(性格)을 가름하기는 어렵지만, "반챙이토성(土城)－번

성(藩城)"지방 혹은 "목시토성(土城)－목지성(目支城)"지방을 중심으로 그 거리를 살펴보면,

1) 신창면(新昌眄) 남성리(南城里) 일괄유물(一括遺物)－18㎞

2) 대흥면(大興面) 동서리(東西里) 일괄유물(一括遺物)－10㎞

3) 덕산면(德山面) 상가리(上伽里) 팔주령(八珠鈴) －8㎞

4) 덕산면(德山面) 옥계리(玉溪里) 세신동검(細身銅劍)－7㎞

5) 신암면(新岩面) 종경리(宗敬里) 사주령(四珠鈴)과 이두령(二頭鈴)－6.5㎞

6) 합덕읍(合德邑) 순성면(順城面) 접경(接境) 이두령(二頭鈴)－14㎞

7) 대술면(大述面) 화천리(花川里)와 불운리(不云里)－15㎞

8) 해미면(海美面) 석장골(石葬골) 도씨검(桃氏劍)等 일괄출토품(一括出土品)－12㎞

9) 홍성읍(洪城邑) 오관리(五官里) 해풍성지(海豊城址) 동경(銅鏡)－10㎞

10) 서산(瑞山)·운산면(雲山面) 와우리(臥牛里) 병기(兵器)·철마(鐵馬)－12㎞

11) 예산읍(禮山邑) 거무실 석관묘(石棺墓) 출토(出土) 철검(鐵劍)－7.5㎞

등은 모두 삽교천유역(揷橋川流域)에 집중(集中)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계(學界)에서는 한국(韓國)의 청동기류(靑銅器類)의 출토권(出土圈)을 북부의 평양지방(平壤地方), 중부의 금강유역(錦江流域), 남부의 경주(慶州)·김해지방(金海地方)으로 대분(大分)하는 듯 하다. 한편 과거의 상고사연구(上古史硏究)는 문헌고증위주(文獻考證爲主)였지만 근래로는 고고학적(考古學的) 성과(成果)를 수용(授用)하고 있는데, 대략 북부권(北部圈)의 것을 낙랑문화(樂浪文化)로, 남부권(南部圈)의 것은 이를 가야문화(伽倻文化)로 보며, 중부권(中部圈)의－대전(大田)·괴정리(槐亭里) 출토(出土), 부여(扶餘)·송국리(松菊里) 출토(出土), 금마(金馬)의 청동기문화, 도씨검(桃氏

劍)등 일괄유물(一括遺物) 등ㅡ은 이를 금강문화(錦江文化)로
천관우(千寬宇)위원은
김정배(金貞培)교수는
김영래(金榮來)씨는 로 추정(推定)하고
있다. 한편
김성호(金聖昊)씨는
이병도(李丙燾) 박사는

그렇다면 위에서 살핀, 내포지방(삽교천유역)에 형성(形成)되었던 청동기문화(青銅器文化)는 어느 권역(圈域)에 예속(隸屬)된다고 볼 것인가?

학자(學者)에 따라 견해(見解)도 다르고, 지역(地域)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B.C 2세기경(頃)에서 A.D 2세기경(頃) 사이의 고고학적(考古學的) 유물(遺物)로는 석기류(石器類)·청동기류(青銅器類)·철기류(鐵器類)등이 혼용(混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학계(學界)의 무관심(無關心)속에 방치(放置)되었던 내포지방(內浦地方)의 청동기문화(青銅器文化)를 차령산맥(車嶺山脈) 너머인 금강유역권(錦江流域圈)과는 별개(別個)의 문화(文化), 즉, 《진번(眞番)과 목지(目支)의 문화(文化)》였다고 추정(推定)하는 바다.

본 논고(論考)에서 주로 거론(擧論)되는 연대(年代)는 위씨조선(衛氏朝鮮)과 진국(辰國)과 맞먹는 진번국(眞番國). 한사군(漢四郡)중의 진번군(眞番郡ㅡB.C 108). 이를 계승(繼承)한 진번지방(眞番地方) 원주민(原住民)의 나라 번국(藩國ㅡB.C 82~A.D 121). 마한(馬韓)·"목지국(目支國)의 진왕(辰王)"시대[위지(魏志)·A.D 280경(頃)]에 해당하는 연대(年代)니, 삽교천유역(揷橋川流域)의 고대문화(古代文化)는 《진번국(眞番國)에서 목지국(目支國)으로 이어진 문화(文化)》였다고 추정(推定)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대전(大田)·부여(扶餘)·익산지방(益山地方) 등 차령산맥(車嶺山脈)의 동남쪽의 고대문화(古代文化)는 이를《진국권(辰國

圈)의 문화(文化)》였다고 생각하면서 그 역사적(歷史的) 배경(背景)을 살펴본다.

강대한 수군병력(水軍兵力)을 병용(倂用)하던 한무제(漢武帝)의 침략군(侵略軍)이 아산만(牙山灣)·삽교천(揷橋川)을 통하여 침입(浸入)할 수 있음은 상식적(常識的)인 것이며, 피점령국(被占領國)의 고지명(故地名)을 따서 "진번군(眞番郡)"이라 하고, 진번제국(眞番諸國)중의 대표적(代表的) 도성(都城)인 "반챙이성(城)－번성(藩城)"을 치소(治所)로 점거(占據)하면서, 지리적(地理的) 특성(特性)을 담아 희귀(稀貴)한 용례(用例)인 "삽(霅)"자로서 현명(縣名)을 삼은 것으로 본다.

동일년도(同一年度)에 창치(創置)된 한낙랑군(漢樂浪郡)이 A.D 313 고구려(高句麗)의 강성(强盛)에 밀려날 때까지 420년간이나 식민지(植民地)를 유지(維持)하였음에 반하여, 진번군(眞番郡)은 불과 26년만에 파군(罷郡)이 되었음은 낙랑(樂浪)에서도 원격(遠隔)한 수군(水軍)에 의한 점령지(占領地)였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필자는 위에서 실존(實存)의 유적(遺蹟)과 실재(實在)의 지명(地名)과 주변의 정황(情況)과 이 시대에 부합(符合)되는 유물(遺物)－청동기류(靑銅器類)의 이 지방 출토사례(出土事例)를 제시(提示)하였다.

이로서 본 장의 전제(前提)에 대한 고증(考證)이 되기를 기(期)하는 것이지만, 만고(萬苦) 미흡(未洽)한 것이라면 제4편 3장『진국(辰國)의 진왕(辰王)과 목지국(目支國)의 진왕(辰王)』이 방증(傍證)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왜냐하면 후일 위(魏)의 시대가 되면서「위지(魏志)」와「후한서(後漢書)」에 등장하는『목지국(目支國)의 목지왕(目支王)』이 아닌『목지국(目支國)의 진왕(辰王)』이 삼한(三韓) 전체의 영도자(領導者)로 기록(記錄)된 이해(理解)하기 곤란(困難)한 사실은 삽교천변(揷橋川邊)을 무대로 하는《번국(藩國)》과 그 후 200여년 사이에 이를 계승(繼承)한〈목지국(目支國)〉

이 아니고서는 해명(解明)될 수 없는 기록(記錄)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번국(藩國)이 200년간 이상(B.C 82~A.D 121) 선진문명국(先進文明國)의 지위(地位)를 유지(維持)할 수 있었던 사유(事由)와 그 정통(正統)이 위시대(魏時代)가 되기 이전에 마한제국(馬韓諸國)이 형성(形成)될 때, 동일지방(同一地方)을 계승(繼承)한 〈목지국(目支國)〉으로 계승(繼承)되었고, 위시대(魏時代)가 된 후에 (A.D) 위(魏)의 대리(對夷) 통치책(統治策)으로, 삼한(三韓) 78국(國)의 동격(同格)인 모든 장수(長帥)중 유독 〈목지국(目支國)의 신지(臣智)〉만이 〈진왕(辰王)〉으로 호칭(呼稱)되며, 삼한전역(三韓全域)을 영도(領導)하게 되는 필연성(必然性)을 살핀 다음, 과거 千餘年間에 걸쳐 문헌사료(文獻史料)에만 의존(依存)하여 〈진번군(眞番郡)〉을 추구(推求)하여 온 내외(內外) 여러 학자(學者)들의 연구성과(硏究成果)를 검토(檢討)함으로서, 그분들의 주안점(主眼點)과도 부합(符合)되는가를 확인(確認)함도 또한 방증(傍證)이 되리라 생각한다.

제4편 목지국고(目支國考)

1. 서(序)
2. 목시토성(土城)－목지국(目支國)
3. 목지국(目支國)은 진번(眞番)의 정통(正統)
   －이병도(李丙燾) 학설(學說)에 대한 검토(檢討)－
4. 진국(辰國)의 진왕(辰王)과 목지국(目支國)의 진왕(辰王)
   (1) 진왕(辰王)과 진왕(辰王)
   (2) 진국(辰國)의 위치(位置)
   (3) 목지국(目支國)의 등장(登場)
   (4) 목지국(目支國)의 진왕(辰王)과 그 권위(權威)

제4편 목지국고(目支國考)

제1장 서(序)

목지국(目支國)은 마한(馬韓) 54국(國)중의 한 나라다.

한편 진국(辰國)의 존재(存在)는 진번국(眞番國)·임둔국(臨屯國)과 맞먹는 위씨조선시대(衛氏朝鮮時代)의 나라니 약 2,100년전 무렵이 된다.

사기(史記)에 의하면 진국(辰國)은 진번국(眞番國)의 곁에 위치하던 나라였고, 진국(辰國)에서 중국(中國)으로 통하는 길목은 위씨조선(衛氏朝鮮)이 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위치(位置)였다.

그런데도 우리 상고사(上古史)에서는 아직껏 진국(辰國)과 진번국(眞番國)의 위치문제(位置問題)가 정립(定立)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형편이다. 이 진국(辰國)을 거론(擧論)한 논술(論述)만큼이나 그 추정(推定)한 위치 또한 다양(多樣)하니 말이다.

진번[眞番－번국(藩國)]과 진국(辰國)의 존재가 역사기록(歷史記錄)에서 사라지는 A.D 120년경으로 부터 약 100여년 사이에, 삼한(三韓)은 78국(國)으로 분립형성(分立形成)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그 삼한사(三韓史)인 위지(魏志)·동이전(東夷傳)의 기록중에 『목지국(目支國)의 진왕(辰王)』이라는 구절(句節)이 있다.

목지국(目支國)의 통치자(統治者)를 말함이라면 응당 『목지국(目支國)의 목지왕(目支王)』이라 하였음이 마땅하거늘, 하필이면 『목지국(目支國)의 진왕(辰王)』이라 기술(記述)되어 있는 것이다.

이래서 『목지국(目支國)의 진왕(辰王)』에 관한 여러 견해(見解)가 등장(登場)하게 된 것 같다. 근년(近年)의 이에 관한 학설(學說)에서만도,

a) 이병도(李丙燾) 박사는 「기술(記述)의 착오(錯誤)」:목지국(目支國)의 위치와 그 지리(地理). p.244.

b) 미시나(三品彰英)박사는 『전혀 불가능한 사태(事態)』:「史實と考證 (魏志·東夷傳の 辰國と辰王)」1の p.81

c) 천관우(千寬宇) 선생은『절충(折衷) 될 수 없는 것』:사학연구(史學硏究) 26호(號) p.40. 등으로 얻갈려 있다.

아마추어인 필자로서 이러한 난제(難題)에 뛰어들 처지는 아니다. 다만 위에서 진번국(眞番國)과 목지국(目支國)의 위치문제(位置問題)를 논하면서『진번국[眞番國－번국(藩國)]의 주부(主部)는 내포지방(內浦地方)의 삽교천유역(揷橋川流域)이고, 목지국(目支國)은 이를 계승(繼承)한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披瀝)한 입장인데, 통사(通史)에서는『목지국(目支國)의 위치는 천안(天安)·직산지방(稷山地方)이고, 이는 진국(辰國)을 계승(繼承)한 것.(이병도설)』이라 하였고, 다른 분들도 혹은 인천지방(仁川地方), 혹은 전북지방(全北地方) 또는 금강중류지방(錦江中流地方) 등에 이를 추정(推定)하고 있는 터임으로, 목지국(目支國)과 진번(眞番)을 연계(連係)시켜 논(論)한 입장(入場)에서 부득이 딛고 넘어야 할 항목(項目)이 되었음으로 이에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 목시토성(土城)－목지국(目支國)

《석기시대(石器時代)의 "목시토성(土城)"에서 마한(馬韓)의 "목지국(目支國)"으로》

1) 삽교읍(揷橋邑) 성리(城里)의 "목지성(目支城)"

예산군(禮山郡) 삽교읍(揷橋邑) 성리(城里)의 구(舊) 지명(地名)이《궁(宮)마루》또는《목시－목지(目支)》인지라 예산인(禮山人)인 필자로서는 이 목시토성(土城)이 "마한(馬韓)의 목지성(目支城)"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추상(推想)을 하게 된다.

이러한 추상(推想)을 할 수 있음은 그 지명(地名)뿐만이 아니고, 마을 안에 선돌(menhir)과 지석묘(dolmen)가 현존(現存)함은 물론, 청동기류(靑銅器類)가 빈번히 출토(出土)되는 지방이고, 일제초(日帝初) 행정구역(行政區域)이 통합(統合)되어 삽교면사무소(揷橋面事務所)가 한낱 초원이던 현(現) 삽교역전(揷橋驛前)으로 이전하던

때까지, 덕산현(德山縣) 장촌면사무소(場村面事務所)의 소재지였고, 장(市場)이 서던 마을이었으니,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 후기(後期)부터 현대(現代)로 이어지는 유적(遺跡)과 유물(遺物)을 간직하고 있는 특이한 지방(地方)이기 때문이다.

삽교읍(揷橋邑) 성리(城里)－목시토성(土城)지방은

a) 서쪽 금마(金馬)·삽교평야(揷橋平野)속을 사읍천[沙邑川－삽교천(揷橋川)의 고명(古名)]이 흐르고, 동쪽으로는 오가면(吾可面) 구릉(丘陵) 너머로 무한천(無限川)이 흐르니, 평야(平野)속 이면서도 그 하류(河流)와 지형(地形)으로 인하여 천참(天塹)를 이루는 곳이다.

b) 삽교읍(揷橋邑) 수촌리(水村里)인 전술(前述) 《반챙이토성(土城)－번성(藩城)》의 10리 하류(下流)에 위치하는, 평야(平野)속 潮水가 드나드는 깊은 하천변(河川邊)이다.

사읍천류(沙邑川流)의 "성리(城里)" 근처를 "서내"라고 하는데, 여러 하천(河川) 즉,

㉠ 응봉면(應峰面)·팔봉산(八峰山)에서 흘러오는 "성리천(城里川)"

㉡ 가야산(伽倻山)에서 시작되는 "덕산천(德山川)"

㉢ 고덕(古德)에서 흘러드는 "대천(大川)－한내"

㉣ 봉산(鳳山)에서 내려오는 "효교천(孝橋川)"등이 홍성(洪城) 오서산(烏棲山)에서 발원(發源)하는 본류(本流)와 합류(合流)되어, 수량(水量)이 풍부하고, 수심(水深)이 깊어지는 곳이다.

c) 외항선(外航船)의 기착편의(奇着便宜)가 좋은 곳이었음은, 덕산(德山) 가야산(伽倻山)에 있는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친산(親山)을 굴총(掘塚)한 "오페르트 사건"때, 120명 병력(兵力)을 실은 60톤짜리 증기선(蒸氣船) "그레타호"가 접안(接岸)한 예산군(禮山郡) 고덕면(古德面) 구만리(九万里)의 대안(對岸)이며, 일제초기(日帝初期)까지 어항[漁港－중선(中船)의 기지(基地)]이던 "도리(島里)"－당진(唐津) 합덕(合德)과 예산(禮山) 고덕(古德)의 접경接

境)의 2㎞ 상류(上流)이고, 백제(百濟)의 초기불교(初期佛敎) 또한 중국대륙(中國大陸)에서 이곳 아산만(牙山灣)·삽교천(揷橋川)을 통하여 직접 들어 왔음도 예산(禮山) 봉산면(鳳山面) 화전리(花田里)의 "사면석불(四面石佛)", 서산(瑞山) 운산면(雲山面) 강당(講堂)골의 "미소(微笑) 짓는 삼존불(三尊佛)"등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2) 목지지방(目支地方)에 평지토성(平地土城)터가 두 곳이 있었는데

ⓐ 그 하나는《안목시－성리(城里)》쪽이고,

ⓑ 또 한 곳은 성리(城里)와《하포리(下浦里)－포내》와의 중간지점이다.

ⓐ 삽교읍(揷橋邑) 성리(城里)의 주부(主部)마을－선돌 사당인 보자암(普慈庵)이 있는 마을－을 옛 노인들은 흔히《궁(宮)마루》라고 불렀지만, 현재는 그저《목시》라고 부른다.

《목시－목지(目支)》의 동쪽, 성리천(城里川) 건너 부락을《거룻들(오가면 분천리)》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이 내(河川)가 폭은 좁았지만 깊어서, 거룻배(渡船)로 건넜기 때문에《거룻들》이라고 한다.

이 성리천변(城里川邊)인《안목시》에 목시토성(土城)의 유허(遺墟)가 위치한다.

바닥폭 약 15m, 높이 약 2m, 길이 약 40~50m쯤 되는 토제(土堤)가 남아 있어, 안목시 부락(部落)에서는 매년 정초(正初)에 1회씩《노선제》라는 부락제(部落祭)를 이 토제(土堤)위에서 풍물(농악－農樂)을 갖추고 부락(部落)의 안녕(安寧)과 풍년(豊年)을 비는 무당굿을 이어 왔건만, 약 20년전 성리천(城里川)에 호안제방(護岸堤防)이 축조(築造)되던 때 성토용(盛土用)으로 반출(搬出)되어 토성벽(土城壁)의 자취는 사라지고, 부락제(部落祭) 지내던 유풍(遺風)도 중단되었다.

한편 선돌－입석(立石)을 보자암(普慈庵)에 모셔놓은 "궁(宮)마루"쪽 부락민은 "노선제"라는 별도의 부락제(部落祭)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부락에 기독교회(基督敎會)가 서면서 이 또한 중단되고 말

았다.

옛 유풍(遺風)으로 하여 성리(城里) 부락의 농악솜씨는 오늘까지도 예산군내(禮山郡內)로서는 으뜸으로 전승(傳承)되고 있다.

ⓑ 지대(地帶)는 40여년전까지 겨울철이 되면 기러기(雁)는 물론, 학[원정학(円頂鶴)과 재두르미], 고니(白鳥), 황(黃)오리 등이 날아오는 곳이었다. 필자도 1950년대후 경(頃), 엽총(獵銃)을 들고 백조에 접근(接近)하느라고 이 높이 2m이상되는 흙 언덕을 은폐물(隱蔽物)로 이용(利用)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는 "이상(異常)한 흙언덕" 정도로 느낀 일이 있었다. 왜냐하면 하안(河岸)의 홍수피해(洪水被害)를 벗어나는 위치니 제방(堤防) 흔적도 아니고, 저수(貯水)방죽 자리도 아니고, 사읍천류(沙邑川流)가 흙을 몰아다 부친 것도 아닌 그 생성과정(生成過程)을 이해(理解)할 수 없었던 이들 유허(遺墟). 40~70m 가량 되는 5~6개의 단절(短切)된 흙언덕 둘레가 남아 있었다.

이 유허(遺墟) 또한 약 30여년전 삽교천(揷橋川)과 성리천(城里川) 호안제방(護岸堤防)이 축조(築造)되던 때, 성토용(盛土用)으로 반출(搬出)되고, 그 후 경지정리공사(耕地整理工事)가 겹쳐 현재는 흔적(痕迹)도 없다.

위 두가지 사실은 이 공사(工事) 추진(推進)에 직접 관여(關與)가 있었던 삽교읍(揷橋邑) 하포리(下浦里) 출신(出身) 토건업자(土建業者) 김선태(金善泰)씨가 밝혀 준 것으로서 사라져 버린 유허(遺墟)이지만 기록(記錄)되야 할 일이다.

필자는 선돌(menhir)과 지석묘(支石墓)가 남아있는 "안(내ー內)목시" 쪽의 ⓐ토성(土城)터가 "원주민(原住民)의 본래의 목지성(目支城)"이고, ⓑ지대(地帶)ー조석(潮汐)물 드나드는 《서내》쪽 토성유적(土城遺跡)은 한(漢)의 수군(水軍)이 머물던 『삽양장ー霅陽障』 유허(遺墟)가 아니였을까? 추측하는 바다.

이곳 하포리(下浦里)쪽에 "궁(宮)논"이라는 지대(地帶)도 있으니 말이다.

2) 사학계(史學界)에서는 지금까지 내포지방(內浦地方)에서 석기류(石器類)와 청동기류(靑銅器類)가 출토되는 사실(事實)에 별로 관심(關心)이 없었다. 또한 이곳 《목시토성(土城)》이 《목지성(目支城)》일 수 있음에 유의(留意)한 일도 없었고, 《목시》를 《목지(目支)》라고 전기(傳記)한 예(例)도 없었다.

그러나 에 의하면 《목지(目支)》의 고대(古代) 한음(漢音) 발음(發音)은 [moksi]였다.

그러니 마한(馬韓)의 《목지국(目支國)》을 《목시》의 전기(傳記)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3) 이 부락(部落)의 중앙부에는 큰 "선돌－menhir"이 보자암(普慈庵)이라는 사당(祠堂)속에 모셔져 있다. 마을 주변(周邊)에는 「4~5기(基)의 지석묘(支石墓)가 있었는데, 연자방아 틀도 만들고, "바위논"에 있던 것은 깨쳐 버리고, 현재 노출(露出)된 것은 한 기(基)뿐이다.

또 큰 "말무덤"이 3~4기(基) 있었는데, 개간(開墾)으로 없어져 버렸다.그 중의 하나는『이 무덤을 건드리면 재앙을 당한다』는 전설(傳說) 때문에 30여년전까지 논 속에 봉분(封墳)만 보전(保全)되어 오더니, 이 또한 평토(平土)가 되었지만, 아직도 그 위치를 기억하는 이가 있으니 표지(表識)라도 남겨둠이 바람직하다.

4) 〈목시－목지부락(目支部落)〉[삽교읍(揷橋邑) 성리(城里)]의 인접부락(隣接部落)은 〈두루머리의 떼말〉[삽교읍(揷橋邑) 두리(頭里)]이다. "떼말" 즉 "호촌(胡村)"인 것이다.

삽교천(揷橋川)－사읍천변(沙邑川邊)의 저지대(低地帶)이긴 하지만, 홍수피해지(洪水被害地)를 벗어나는 안전부위(安全部位)인데, "호(胡)" 즉, 중국인(中國人)의 거류지(居留地)였다고 추측한다면 그 시기(時期)를

a) 한진번군(漢眞番郡)의 치소(治所). 삽현(霅縣)의(B.C 108~B.C 82)－삽읍(霅邑)→사읍(沙邑)

b) 그보다 약 300년후인 마한(馬韓)·"목지국(目支國)의 진왕(辰

王)" 시대－조위시대(曹魏時代)의 거류지(居留地).

c) 당(唐) 자래현시대(子耒縣時代)(A.D 660)의 점령지(占領地) 등을 가상(假想)할 수가 있는데,

c)의 경우 당(唐)이 신라(新羅)와 연합(聯合)으로 백제(百濟)를 침략(侵略)한 시대(A.D 660～663)라면, 당(唐)은 금마천(金馬川－삽교천의 상류) 유역에 지심주(支潯州－홍성지방)를 두면서 그 속현(屬縣)으로

㉠ 예산지방에는 마진현(馬津縣)을 두었다.

예산지방은 백제(百濟)의 고산현(孤山縣)인데 "고산(孤山)"이란 현. 예산읍(禮山邑) 산성리(山城里)의 "무한산성(無限山城)"을 말한다.

아산만(牙山灣)·무한천(無限川)의 조석(潮汐)물은 "고산(孤山)"까지 올라온다. 그러니 무한산성(無限山城) 부근－현. "예산읍(禮山邑) 주교리(舟橋里)" 부근이 군선(軍船)의 선착장(船着場)이 된다.

이 지방의 현재지명(現在地名)중 예산중학교(禮山中學校) 부근의 〈마상굴〉. 철교부근의 〈베룩부리〉. 무한산성(無限山城)의 대안(對岸)은 〈원벌〉. 주교리(舟橋里)를 〈배나다리〉 등으로 미루어 당군(唐軍)이 〈마진(馬津)〉이라 개명(改名)한 연유(緣由)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고덕지방(古德地方)의 백제(百濟)때 지명(地名)은 〈금물현(今勿縣)〉이다. 가야산(伽倻山)을 〈거문산〉. 고덕(古德)·합덕(合德)쪽 평야를 〈거문들〉이라 함은 모두 이를 말함이다.

당(唐)은 이를 〈기문현(己汶縣)〉이라 개명(改名)하였고, 후일 신라(新羅)는 〈금무현(今武縣)〉이라 다시 고쳤다.

당(唐)의 기문현(己汶縣)이란 이 지방의 본래의 지명(地名) "거문"을 한자음(漢字音)으로 표기(表記)한 것이다.

㉢ 당(唐) 자래현(子來縣)은 어디인가?

〈자래(子來)〉의 한시대(漢時代) 고음(高音)은 [julæ] 즉, "주래"인 것이다.

당(唐) 자래현(子來縣)의 위치가 덕산(德山) 부근이냐? 당진지방(唐津地方)이냐? 하는 양설(兩說)이 있는데, 김정호(金正浩), 안정

복 등 여러 석학(碩學)들은 당진설(唐津說)을 택하고, 필자는 덕산지방설(德山地方說)을 택하고 있다.

아산만(牙山灣)·사읍천[沙邑川－삽교천의 고명(古名)]의 조석(潮汐)물은 〈서내〉지대까지 올라온다. 즉, 이 부근이 외항선(外航船)의 선착지(船着地)가 된다.

"서내"의 서안(西岸)은 《주래부락(자래－子來)》로서, 현 삽교읍(揷橋邑) 상성리(上城里)인데, 이는 옛 덕산현(德山縣) 대조지면(大鳥旨面) 성산리(城山里)에 해당한다. 이곳에는 토성유적(土城遺跡)과 절단(切斷)된 선돌 한토막과, "군모루"[군(軍)모루 혹은 궁(宮)모루－궁촌(宮村)]이라는 지명도 갖고 있다.

한편 그 동안(東岸)은 《목시부락－궁(宮)마루－(목지－目支)》인 현 삽교읍(揷橋邑) 성리(城里)와 《떼말－호촌(胡村)》 현 삽교읍(揷橋邑) 두리(頭里)에 해당한다.

그러니 자래현(子來縣)의 지명(地名)의 유래(由來)를 상징하는 "주래부락"은 현. 당진군(唐津郡) 합덕지방(合德地方－합덕읍 성동리 궁말)과 구(舊) 덕산현(德山縣) 거등면(居等面) 궁리(宮里)[고덕면 상궁리]와도 인접한 지방이니, 합덕에서는 사읍천(沙邑川)따라 그 상류(上流) 남쪽 8㎞지점이고, 덕산면(德山面)에서는 덕산천(德山川)따라 동으로 4㎞ 하류(下流)되는 합류지점(合流地點)인 덕산현(德山晛) 관내(管內)니, 위 양론(兩論)은 결국 동일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 견해(見解)에 대한 논거(論據)로서, 삽교역(揷橋驛)의 동남쪽, "꽃산(山)"아래에 있는 "사직(社稷)골"이라는 지명(地名)을 살펴보고자 한다.

삽교지방(揷橋地方)에는 신라(新羅)·고려(高麗)·이조(李朝)를 통하여 군현(郡縣)이 설치(設置)되었던 사실(事實)이 없다.

그러니 "사직(社稷)골"이라는 지명(地名)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함에도 삽교지방(揷橋地方)에서는 가장 높은 산인 "꽃산토성(土城)"의 서록(西麓)에 사직단(社稷壇)이 있었던 것이라면, 이는 당(唐) 자래현(子來縣)과의 연관(聯關) 이외(以外)에는 상상할 수 없

는 일이기 때문이다.

《떼말》과 《사직(社稷)골》과의 상거(相距)는 약 1.5㎞쯤 된다.

5) 여기 딛고 넘어야할 문제(問題)가 있다.

옛 덕산읍지(德山邑誌)에 나타나는 《사읍천(沙邑川)》에 관하여서다.

고지명(古地名)에 있어 [사(沙)=새=신(新)]으로 보는 예가 많다.

그러나 《사읍천(沙邑川-삽교천)》의 경우는 [사읍(沙邑)]을 [삽읍(霅邑)]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본 논술(論述)의 핵심(核心)이다.

그러나 사(沙)를 신(新)으로 본다면 〈사읍(沙邑)〉이란 곳 〈신읍(新邑)〉이 된다. 《목시-목지성(目支城)》 혹은 《주래[주래(子來)]가 "신읍(新邑)"》이라면 "구읍(舊邑)"은 어디인가?

전장(前章)에서 고찰(考察)한 바, 응당 《목시-목지(目支)》에서 5㎞ 상류(上流)인 금마천[金馬川-사읍천(沙邑川)의 상류(上流)]변의 《반챙이토성[마한의 목지국(目支國)보다 약 300년 앞서는]-번성(藩城)》을 들지 아니할 수 없다.

이 견해(見解)가 타당한 것이라면, 한군(漢軍)이 26년간 머문 진번군(眞番郡)의 치소(治所)『삽현-霅縣』의 읍(邑) 또한 《반챙이토성》지방이었을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제4장에서 《목지국(目支國)의 진왕(辰王)》을 구명(究明)하면서 재론(再論)키로 한다.

6) 삽교읍(揷橋邑) 성리(城里)-목시토성부락의 2㎞쯤 배후지방인 《용산(龍山)-오석산(烏石山)》 일대(행정구역으로는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에는 30여기(基)의 지석묘(支石墓)를 위시하여, 석기류(石器類)와 청동기류(靑銅器類)는 물론 고려자기류(高麗磁器類)에 이르기까지, 옛 유물(遺物)이 무진장 출토(出土)되는 지방이기도 하다.

"호리꾼" 사정(事情)에 밝은 김모씨에 의하면 광활한 구릉지대(丘陵地帶)이면서도 인가(人家)가 극히 희소(稀少))하던 이 지방에서는 안심(安心)하고, 도굴(盜掘)을 할 수가 있었던 때문에, 일제(日帝)때부터 외지로 반출(搬出)된 유물(遺物)들은 대형트럭 한대 분은 넘으리라 한다. 게다가 일제(日帝)때에도 청동기(靑銅器)가 출토

(出土)된 일이 있어, 이에 자극받아 도굴(盜掘)이 성행(盛行)된 일이 있었다 한다.

현재도 삽교천호(揷橋川湖)의 완성에 따르는 수로개설(水路開設)과 대규모(大規模) 개간공사(開墾工事)에 동원되는 중기작업(重機作業)으로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 유물(遺物)들이 파괴(破壞)된 상태로 자주 출토(出土)되지만 신고(申告)되는 일은 전무(全無)하다.

이렇듯 삽교지방(揷橋地方) 일원(一圓)은 적어도 2천년 이전부터 이어 내려온 여러 여건(與件)들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리(城里)》는 그 지명(地名) 자체가 《궁(宮)마루》 이자 《목시》이고, 《목시》는 『목지(目支)』로 전사(傳寫)할 수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

이로서 예산군(禮山郡) 삽교읍(揷橋邑) 성리지방(城里地方)을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에서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로 이어지고, 진번[眞番－번국(藩國)]의 〈목시성(城)〉, 한(漢) 진번군(眞番郡) 때에는 그 치소(治所)『삽현－霅縣』의 외항(外港)인 『삽양장(霅陽障)』 시대를 거쳐, 그후 2백여년 사이에 마한(馬韓)의 『목지국(目支國)』으로 이어진 지방으로 보아 마땅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3장 목지국(目支國)은 진번(眞番)의 정통(正統)

辰国[협의(狹義)]은 목지국(目支國)의 고지(故地)인가?
－이병도(李丙燾)학설에 대한 검토－

제3장에서 번국[藩國－진번국(眞番國)]의 고도(故都)는 현 예산군 삽교읍 수촌리인 《반챙이토성지방－번성(藩城)》이라고 추정(推定)한 바 있다.

번성(藩城)과 목지성(目支城)은 삽교천〈동일하천이면서 상류는 금마천(金馬川)·하류의 고호(古號)는 사읍천(沙邑川)〉의 상·하류 약 5㎞ 상거(相距)에 위치(位置)한다.

이러할 경우 B.C 108년 이전부터 존재하던 금마천(金馬川)쪽 《번국(藩國)》과 그 약 200년 이후에 하류(下流)인 사읍천(沙邑川) 쪽

에서 도읍(都邑)한 마한(馬韓)의 《목지국(目支國)》은 선·후(先·後)하여 동일(同一) 하천(河川)의 동일지역(현재의 삽교읍 관내)을 영유(領有)하고 있었다는 결과가 된다.

즉, 마한(馬韓)의 《목지국(目支國)》은 진번제국(眞番諸國) 중의 대표적 나라인 번국(藩國)의 강역(疆域)을 A.D 121년 이후에 계습(繼襲)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이다.

이로서 석기시대(石器時代) 이래의 《목시지방(地方)》이 목지국(目支國)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국사(國史)에서 통설(通說)을 이루고 있는 『목지국(目支國)은 진국(辰國)의 정통(正統)을 계승(繼承)한 나라이고, 그 고도(故都)는 현 천안군(天安郡) 직산지방(稷山地方)』이라는 이병도(李丙燾) 박사의 학설(學說)은 발표된지 이미 오래이므로, 이제 와서는 아무도 이견(異見)을 제기하는 이 없다. [천관우「한국고대사의 쟁점」]

이에 반(反)하여 필자는 위에서,

마한(馬韓)의 목지국(目支國)은 번국[藩國－진번(眞番)]의 외항(外港)이던 《목시성(城)》을 계승한 것이고, 현 예산군(禮山郡) 삽교읍(揷橋邑) 성리(城里)·〈궁(宮)마루〉부락의 〈목시성(城)－목지성(目支城)〉이 이에 해당하며, 번국(藩國)의 도성(都城)이자, 한(漢) 진번군(眞番郡)의 치소(治所)이던 삽현(霅縣)의 읍성(邑城)은 목지성(目支城)의 10리(里) 상류(上流)인 〈반챙이토성(土城)－번성(藩城)〉, 즉 현 삽교읍(揷橋邑) 수촌리(水村里)와 그 금마천(金馬川) 대안(對岸)인 〈금마(金馬)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추정하였다.

이 甚한 견해차이(見解差異)를 규명(糾明)하기 위하여는 우선 통설(通說)의 추론과정(推論過程)을 살펴보지 아니할 수 없다.

이병도(李丙燾) 박사는 『삼한문제(三韓問題)의 신고찰(新考察)』에서

『하남[河南－한강 이남] 제1의 고국(古國)을 든다면 저 진국[辰國－마한(馬韓)의 고국(故國)]에 우(右)할 자 없으니 직산지방(稷山地方)은 고진국(古辰國)의 정치적 중심지[마한(馬韓) 전기(前期)의 수도(首都)]로 추정함이 가장 적당한 곳이라고 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진국(辰國)의 도성(都城)이 직산지방(稷山地方)의 어느 지점에 당할가 함에 있어서도 고찰(考察)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 관하여는 더욱 가거(可據)할 문헌(文獻)도 없고, 또 그럴듯 한 유적(遺跡)도 발견하지 못하여 분명히 어디라고 당처(當處)를 지정(指定)하기 어려우나ㅡ물론 성거산(聖居山)에는 세전(世傳) 소위 "위례성(慰禮城)"의 유지(遺址)가 있고, 직산구읍(稷山舊邑)에는 "사산성(蛇山城)"의 유적(遺跡)이 있으나, 다 이들은 삼국시대(三國時代) 혹은 나말(羅末), 여초(麗初)의 소축(所築)에 계(係)한듯 할 뿐더러, 이들은 확실히 난시소용(亂時所用)의 산성(山城)이요, 평시상거(平時常居)의 도성(都城)이 아니므로 지금 고려(考慮)하는 문제의 대상(對像)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직산읍(稷山邑)에서 직북(直北) 약 8~9리(里)되는 곳에 〈도하리(都下里)〉라는 리(里)명과 도하리(都下里)에서 서북 약 6리(里)되는 곳, 즉 안성천(安城川) 합류처(合流處)에 〈안궁리(安宮里)〉란 리(里)명과, 그외 동천(同川) 유역인 진위군(振威郡) 부용면(芙蓉面)의 〈평궁리(平宮里)〉〈신궁리(新宮里)〉등의 리(里)명이 있는 것은 크게 주의(注意)할 필요가 있다.

이들 동리(洞里)에서 그럴듯한 유적(遺跡)과 유물(遺物)은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그 리(里)명은 필연 심상치 않은 구원(久遠)한 유래(由來)와 역사(歷史)를 가지고 있는 듯하니, 속히 말하면, 직산구읍(稷山舊邑)의 북쪽 안성천(安城川) 유역은 이 等地를 국도(國都)로 삼던 어느 시대 즉, 진국시대(辰國時代) 내지 그 정통(正統)인 마한시대(馬韓時代)의 궁궐도시(宮闕都市)가 있던 곳이 아닌가. 그리하여 그러한 도(都)자, 궁(宮)자 붙은 리(里)명이 전래(傳來)되어 오는 것이 아닌가』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중추원촉탁(中樞院囑託) 오모도(大原利武)씨도 일찌기 그 지명(地名)에 주의(注意)를 불(拂)하여 동지역(同地域)을 마한시대(馬韓時代)의 도읍(都邑) 소재지(所在地)로 추정(推定)한 일이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나의 의견과 전혀 일치(一致)하며, 오직 나는 마한시대(馬韓時代)뿐만 아니라 그 이전

진국시대(辰國時代)로 부터의 목지국(目支國)의 중심처(中心處)로 보고 있다.

이와같이 직산(稷山) 등지를 고진국(古辰國) 및 그 후신(後身)인 마한[馬韓－전기(前期)]의 국도소재지(國都所在地)로 인정(認定)함이 거의 의심(疑心)이 없다.』 하였다.

협의(狹義)의 〈진국(辰國)〉은 분명 진번(眞番)과 인접(隣接)한 나라였다.

사기(史記)『

한서(漢書)『

후한서(後漢書)『

그런즉 한(漢)진번군(眞番郡)의 위치를 한강이북(漢江以北)에 추정(推定)하는 것이 이박사의 인식(認識)이고 보면, 진국(辰國)을 한강(漢江) 곧바로 남방(南方)에 배정(配定)함은 당연한 추론(推論)이며, 한강이남(漢江以南)에서 그 중심지(中心地)－국도(國都)되는 곳을 추구(追求)하다 보니 「궁(宮)」자가 붙은 지명(地名)이 빈발(頻發)하는 지방(地方)」 즉, 직산지방(稷山地方)에 이를 추정(推定)하게 됨도 있을 수 있는 일일 것이다.

한편 이박사는 목지국(目支國)의 위치를 직산지방(稷山地方)에 추정하면서, 목지국(目支國)보다도 근 2~300년전에 존재(存在)한 진국(辰國)의 위치 또한 이곳이라 주장(主張)하였다.

만일 동일 위치에 2~300년 전인 진국(辰國)과 2~300년후인 목지국(目支國)이 존재(存在)하였던 것이라면, 목지국(目支國)이 진국(辰國)의 정통(正統)을 계승한 것으로 인식(認識)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마한(馬韓)·목지국(目支國)〉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아니한 채 『오직 나는 마한시대(馬韓時代)뿐 아니라 그 이전인 진국시대(辰國時代)로 부터의 도궐소재지(都闕所在地)로 보고 싶다.』 하였을 뿐, 진국(辰國)도 이곳일 수 있는 구체적인 논거(論據) 또한 명시(明示)함이 없다.

그러면 이박사가 진국(辰國)이 또한 이곳이라 추정(推定)하면서,

그 마탕으로 삼은 〈마한시대(馬韓時代)의 목지국(目支國)〉의 위치 추정 논거(論據)는 어떠한가? 그분 스스로 『진국(辰國)의 도성(都城)이… 어느 지점(地點)에 당(當)할가 함에는… 가거(可據)할 문헌(文獻)도 없고, 유적(遺蹟)도 발견(發見)됨이 없다.』고 전제(前提)하면서도 오직 안성천(安城川)유역인 직산지방(稷山地方)에 『도하리(都下里)·안궁리(安宮里)·평궁리(平宮里)·신궁리(新宮里)·웅교[熊橋－고무다리－곰]』등 지명(地名)이 전래(傳來)되어 옴을 들어, 『이들 동리(洞里)에서 아직 그럴듯한 유적(遺跡)과 유물(遺物)은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심상하지 않은 구원(久遠)한 유래(由來)와 역사(歷史)를 가지고 있는 듯』하니, 그것이 『옛날에 유명(有明)하였든 〈목지국(目支國)과 진국(辰國)〉의 도읍소재지(都邑所在地)』라 하였다.

이들 동리명(洞里名)으로 미루어 사기(史記)의 『진번방중국(眞番旁衆國)』중의 하나 또는 한서(漢書)의 마한(馬韓) 54국(國)중의 하나, 혹은 일부학자(一部學者)가 논급(論及)한 초기백제(初期百濟)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지만 구체적인 논증(論證)없이 그 나라가 《진국(辰國)과 목지국(目支國)》이었다고 단론(斷論)하였음은 이 또한 추상적(抽象的)인 추정(推定)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이박사는 이러한 추정을 하면서 오모도(大原利武)씨의 논문(論文)중에도 자기의 견해(見解)와 일치하는 점이 있음을 거론(擧論)하였는데, 그렇다면 오모도(大原)씨의 논술(論述)에서는 직산지방(稷山地方)이 고(故) 진국(辰國)과 마한(馬韓)의 목지국(目支國)의 고도(故都)됨을 확정(確定)한 바 있었던가?

오모도(大原)氏의 논지(論旨)를 살펴보면 그는 마한(馬韓)의 위치를 논(論)하면서

『백제(百濟)가 마한(馬韓)을 멸(滅)하던 때, 마한(馬韓)의 근방(近方)에 있던 성(城). 즉, 《원산(圓山)·금현(錦峴)·이성(二城)과 우곡성(牛谷城)》 명(名)과 흡사한 지명(地名)은 안성천(安城川)의 지류(支流)인 진위천(振威川)의 하반(河畔)에 "궁(宮)"명(名) 부친

지명(地名)이 많은 것은 동지방(同地方)이 마한(馬韓)의 강역(疆域)이었음을 증명(証明)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 하였을 뿐이다.

오모도(大原)氏의 논문(論文)에서 거론(擧論)된 마한(馬韓)은 삼국사기(三國史記)중 백제시조(百濟始祖) 온조왕(溫祚王) 26년(A.D 8)경의 일이고, 본 논고(論考)에 거론(擧論)되는 [목지국(目支國)의 진왕(辰王)이 삼한(三韓)을 영도(領導)한 시대(時代)]는 조위(曹魏)가 연(燕)－공손(公孫)씨를 제압(制壓)하고(A.D 238) 연(燕) 대신 한반도(韓半島)를 지배(支配)하던 시대니, 목지국(目支國)이 마한(馬韓) 54국(國)중의 하나이던 A.D 121년 무렵 이후부터[A.D 121년경에 저술(著述)된 허신(許愼)의 "설문(說文)"에서는 아직도《번국(藩國)》이 기록된다] 낙랑군(樂浪郡)과 대방군(帶方郡)이 고구려(高句麗)와 백제(百濟)에 멸망(滅亡) 당하는 A.D 313년 사이의 일이다.

그러니 시대도, 정황(情況)도, 다르거니와 직산지방(稷山地方)에 전승(傳承)되어 오는 구체성(具體性)도 띠지 못한 4~5개 부락명(部落名)만으로 이곳이 〈진국(辰國)과 목지국(目支國)의 고도(故都)〉라고 논단(論斷)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 문제에서 유의(留意)될 일은 이병도(李丙燾)박사가 아직도《한(韓)》이란 칭호(稱號)가 사료(史料)에 보이기 이전시대(以前時代)인《진국(辰國)》과 그 약 300년후인 〈마한(馬韓)의 목지국(目支國)〉과의 관계를 논(論)하면서 관념적(觀念的)으로《협의(狹義)의 진국(辰國)》과 〈목지국(目支國)〉을 직결(直結)시키게 된 경위(經緯)에 관해서다.

추측컨대, 이박사가 관념적(觀念的)인 목지국(目支國)의 위치위에 또다시 겹쳐서 추상적(抽象的)으로 진국(辰國)의위치를 직결(直結)시키게 된 것은 위지(魏志)·한서(漢書)·후한서(後漢書) 등에서의 『목지국(目支國)의 진왕(辰王)』이라는 구절(句節)에서 그 관련성(關聯性)을 추상(推想)하게 된 것이 아니었을까 느껴진다.

만약 그런 점도 있었던 것이라면, 이는 김성호(金聖浩)씨의 「목지

국(目支國)의 진왕(辰王)은 진한(辰韓)의 진왕(辰王)」에서 유래(由來)한다는 견해(見解)와도 흡사하다 하겠다.

〈진국(辰國)·진왕(辰王)·진한(辰韓)〉 등으로 인하여 〈진국(辰國)을 다스린 진왕(辰王)〉 혹은 〈진왕(辰王)이 다스린 진국(辰國)〉 또는 〈진한(辰韓)의 진왕(辰王)〉 등을 추상(推想)할 수 있는 일이지만

고대 중국사가(中國史家)들이 한반도(韓半島) 남부지방을 「진국(辰國)」 혹은 「진번방진국(眞番傍辰國)」이라 서술(敍述)한 문화단계(文化段階)에서는 남한전역(南韓全域) 혹은 삼한(三韓)중의 어느 전역(全域)을 통합한 광역국가(廣域國家)와 이를 통치한 권력적(權力的) 「진왕(辰王)」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일 뿐 아니라, 미시나(三品彰英)氏 고문헌(古文獻)에서도 〈진국(辰國)의 진왕(辰王)〉을 말한 구체적인 기술(記述)은 찾아볼 수가 없다. (金貞培교수)

그러나 唯獨 목지국(目支國)의경우에서만 삼한(三韓) 78국(國)중 다같은 장수(長帥)이면서 고대(古代) 중국사가(中國史家)에 의하여 〈신지(臣智)〉 혹은 〈읍군(邑君)〉으로 서술(敍述)되지 않고, 『진왕(辰王)〉이란 칭호(稱號)로 기술(記述)된 『목지국(目支國)의 진왕(辰王)』이기에 이병도(李丙燾) 박사는 목지국(目支國)을 300년間 이어온 진국(辰國)의 정통(正統)으로 추상(推想)하게 된 것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전술(前述)한 대로 사기(史記)를 위시한 어느 고문헌(古文獻)에서도 "진왕(辰王)이 통치한 진국(辰國)"을 말한 서술(敍述)은 찾아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고지진국(古支辰國)〉시대에는 통치자로서의 『진왕(辰王)』은 실존(實存)하지 않는다.

그러니 후일 목지국(目支國)과 삼한(三韓)을 다스린 왕(王)의 칭호(稱號)가 〈진왕(辰王)〉이었다 할지라도 목지국(目支國)이 옛《협의(狹義)의 진국(辰國)》과 직결(直結)된다고 볼 수는 없다.

〈진왕(辰王)〉이란 칭호(稱號)는 위지(魏志)와 후한서(後漢書)에 기록된 목지국(目支國)에서 비로서 나타나는 것으로 「고지진국(古之辰國)」의 통치자와는 관련(關聯)이 없는 별개의 한족(韓族)의 상징적(象徵的) 대표자(代表者)에 대한 관념적(觀念的)인 호칭(呼稱).

예컨대, 『한(韓)』이란 칭호(稱號)가 항용(恒用)하기 이전인 시대의 중국사가(中國史家)들이 남한지방(南韓地方)의 원주한족(原住韓族)을 "진족(辰族)"으로 인식(認識)한 시대. 현재와 같은 개념(槪念)의 국가(國家)가 형성(形成)되기 이전인 시대에 《진족[辰族－한족(韓族)]사회의 상징적(象徵的) 대표자(代表者)－예컨대, 사제자(司祭者)－에 대한 관념적(觀念的) 한자적(漢字的) 호칭(呼稱)》 이었다고 본다.

그럼으로 필자는 이병도(李丙燾) 박사의 학설(學說)이나, 김성호(金聖昊)씨의 인식과는 견해(見解)를 달리함으로 본편 제3장[진국(辰國)의 진왕(辰王)과 목지국(目支國)의 진왕(辰王)]에서 재론(再論)키로 한다.

목지국(目支國)의 위치문제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는 이병도(李丙燾) 박사 외에도 이를 현 인천지방(仁川地方)으로 추정(推定)한 천관우(千寬宇)선생, 대전(大田)·부여(扶餘)에서 논산지방(論山地方)에 걸친 충남(忠南)의 내륙지방(內陸地方)으로 추정(推定)하는 김정배(金貞培)교수[高大教授]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도 제3장에서 언급(言及)하겠다.

제4장 진국(辰國)의 진왕(辰王)과 목지국(目支國)의 진왕(辰王)

1. 진국(辰國)과 진왕(辰王)

진국(辰國)은 이를 광(廣)·협(狹) 두 입장에서 고찰(考察)할 수 있을 것이다.

1) [광의(廣義)로는]

옛 사료(史料)에서 한반도(韓半島) 남부의 본 주민(住民)을 "한족(韓族)"이라 호칭(呼稱)하기 이전인 시대. 중국사가(中國史家)들이 이곳 원주한족(原住韓族)을 "진족(辰族)"이라 인식(認識)한 입장에서의 "진국(辰國)"은 "진족(辰族)이 사는 지방(地方)"을 말한 광범위한 관념적(觀念的)인 칭호(稱號)였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마한(馬韓) 54개 부족국(部族國)들이 구성(構成)되기 약

300년전인 문화단계(文化段階)에서 진국[辰國－남한전체(南韓全體)]를 통치한 정치적(政治的) 실체(實體)는 실존(實存)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진왕(辰王)" 또한 그렇다.

진국(辰國)이 실존(實存)할 수 없는 관념적(觀念的)인 것일진대, 진왕(辰王)이라는 호칭이 이 시대에도 있었던 것이라면 이는 금일과 같은 개념(槪念)의 "통치자(統治者)로서의 왕(王)"이 아니고 "진족[辰族－한족(韓族)]의 상징적(象徵的) 대표자(代表者)". 즉, 여러 부족들이 연합적(聯合的)으로, 거족적(擧族的)으로 거행하는 대행사(大行事)등에서 제례(祭禮)등 대의례(大儀禮)를 주재(主宰) 또는 사제(司祭)하는 진족(辰族)의 대표자(代表者)에 대한 전통적(傳統的) 존칭(尊稱)－"임금님". 그러한 성격의 말을 한어(漢語)로 표현하자니 진족[辰族－한족(韓族)]의 대표자라는 뜻으로 "진왕(辰王)"이 된 것이리라.

다시 말하면 광의(廣義)의 경우

《진국(辰國)》을 통치한 《진왕(辰王)》이나, 진왕(辰王)이 통치한 《진국(辰國)》은 실존(實存)할 리가 없다.

즉, 진국(辰國)은 "진족(辰族)이 사는 지방(地方)"을 말한 관념적(觀念的)인 칭호(稱號)이지, 그 실체(實體)는 존재(存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광의(廣義)의 진국(辰國)으로는〉

위지(魏志) : 진한자고지진국(辰韓者古之辰國)

후한서(後漢書) : [삼한자(三漢者)] 개고지진국야(皆古之辰國也)

2) [협의(狹義)로는]

한반도(韓半島) 중부이남의 본주민(本住民)이 전부 동일한 진족[辰族－한족(韓族)]이었다 할지라도, 송첨본사기(宋槧本史記)의 찬자(撰者)나, 위략(魏略)의 저자(著者) 어환(魚豢)의 인식(認識)으로는 그 중에서도 대부족(大部族), 혹은 대표적(代表的) 집단(集團)으

로 인식(認識)되는 부족군(部族群)이 있었을 것인즉, 그 지정부족(指定部族)의 근거지(根據地)를 《진국(辰國)》이라 기록(記錄)하였을 것이다.

〈협의(狹義)로의 진국(辰國)으로는〉

사기[史記－송본(宋本)]:진번방진국욕상서견천자우옹연불통(眞番旁辰國欲上書見天子又擁閼不通)

한서(漢書):진번방진국욕상서견천자우옹연불통(眞番旁辰國欲上書見天子又擁閼不通)

위략(魏略):조선상역계향이간우거불용동지진국(朝鮮相歷谿鄕以諫右渠不用東之辰國)

2. 진국(辰國)의 위치(位置)

진국[辰國－협의(狹義)]의 위치를 가림에 위씨조선(衛氏朝鮮)과 진번(眞番)을 기준으로 이를 추정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된다. 조선(朝鮮)과 진국(辰國)과 진번(眞番)은 인접(隣接)한 나라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삼각적(三角的) 기준이 될 진번(眞番)의 위치가 현재와 같이 불확정적(不確定的)인 단계(段階)에서는 옛 사료(史料)에서 진국(辰國)의 필수여건(必須與件)들을 가려내서 이에 해당하는 장소를 물색해 낼 도리밖에 없다. 이러할 경우 위씨조선시대(衛氏朝鮮時代)·진번국시대(眞番國時代)의 진국(辰國)은

(1) 그토록 영토확장을 좋아하던 한무제(漢武帝)의 침략군(侵略軍)도 『진번방진국(眞番旁辰國)』에는 미치지 못하였음을 보면, 진번(眞番)보다도 먼 곳이고, 그 중간에는 천연의 장해물(障害物)－산맥(山脈) 등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2) 한군(漢軍)이 침입(侵入)하던 때, 진번국(眞番國)은 아산만(牙山灣) 연안국(沿岸國)이었기에 낙랑(樂浪)에서 원격(遠隔)한 위치면서도 그 해군(海軍)에 의하여 침공(侵攻)을 당하였지만, 진국(辰國)은 분수령(分水嶺)－차령산맥(車嶺山脈) 너머였기에 수군(水軍)의 화(禍)를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우거왕(右渠王)의 무모함을 간(諫)하다가 실패한 조선국(朝

鮮國)의 대신(大臣) 역계향(歷谿鄕)이 「동지진국(東之辰國)」할 때, 그를 따르던 2천호(戶) 백성과 더불어 간 곳이 차령산맥(車嶺山脈) 넘어라면, 생활권(生活圈)이 다른 분수령(分水嶺) 넘어니 『조선(朝鮮)·진번(眞番)과 불상왕래(不相往來)』하였다 함은 당연한 기록이다.

충남(忠南)의 분수령(分水嶺)인 차령산맥(車嶺山脈). 이 5~600m급(級)의 령(嶺)이 내륙쪽 금강유역(錦江流域)과 해안(海岸)쪽 내포지방(內浦地方)에 미치는 인문지리적(人文地理的)·역사지리적(歷史地理的) 영향(影響)은 제2편 6장에서 살핀바와 같다.

이것으로도 《진국(辰國)－협의(狹義)》은 진번(眞番)의 동남쪽으로서 서로 인접지(隣接地)이긴 하지만, 분수령(分水嶺)이 이를 격(隔)하고 있어 필연적(必然的)으로 생활권(生活圈)이 다를 수 밖에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진번국(眞番國)과 진국(辰國)은 분수령(分水嶺)을 격(隔)하고 있었을 뿐, 다같이 충청도(忠淸道) 이남(以南)에 위치하던 원주한족(原住韓族)의 집단(集團)이었으니, 후일 마한(馬韓) 54개국(國)이 형성(形成)되던 때, 하등(何等) 마찰은 없었을 것이다.

(5) 남쪽으로 이동하는 부족(部族) 혹은 난민(難民)이 한강(漢江)의 서남부(西南部) 평탄한 지세(地勢)를 따라 안성천변(安成川邊)에 도달(到達)하였을 때, 동남(東南)으로 뻗어내린 차령산맥(車嶺山脈)이 앞을 가로 막는다.

여기서 산맥(山脈)을 피하여 서진(西進)을 한 곳 충남(忠南)의 서부해안지방(西部海岸地方)－내포지방(內浦地方)이 《진번국(眞番國)》이다.

한편 천안삼거리(天安三巨里)에서 분수령(分水嶺)의 가장 얕은 곳을 동(고속도로)쪽으로 넘으면 진천(鎭川)·청주(淸州)·미호천평야(美湖川平野－금강의 지류)고, 남서(국도)쪽으로 차령산맥(車嶺山脈)을 넘으면 역시 전의(全義)·공주(公州)쪽 금강유역(錦江流域)에 다다른다.

삼한(三韓)도 형성되기 이전(以前)인 시대. 이 금강유역(錦江流域)인 대전(大田)·부여(扶餘)·익산(益山) 금마지방(金馬地方)에 형

성된 청동기문화권(青銅器文化圈)의 주인공들이 《협의(狹義)의 진국(辰國)》이라고 필자는 보는 것이다. 그러나 상고대(上古代)의 중국사가(中國史家)들은 전라(全羅)·경상도(慶尙道)까지도 진족[辰族－한족(韓族)]의 거주지(居住地)라 하여 "진국[眞國－광의(廣義)]"이라 통칭(通稱)한 것으로 본다.

3. 목지국(目支國)의 등장(登場)

살피건대, 진번(眞番)의 부족군(部族群)들은 結束된 힘으로 한(漢) 군현(郡縣)을 26년만에 몰아 내는데 성공(成功)하자 그 결과로 부족간의 연립체제(聯立體制)는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고, 번국(藩國)은 여전히 그 중심체(中心體)였다.

한(漢)의 진번점령(眞番占領) BC 108년. 그 태수(太守)가 머물던 치소(治所)가 진번국(眞番國)의 도성(都城)인 "반챙이성(城)"(현. 예산군 삽교읍 수촌리 반챙이부락의 평지토성)이었다면,

a) 한진번군(漢眞番郡)의 통치체제(統治體制)는 삽현(霅縣)－번성(藩城)－을 중심으로 인접 8현(縣)－진번제국(眞番諸國)－을 통치하는 체제(體制)였을 것이니, 한군(漢郡) 파군(罷郡) 후에도 그들이 확립(確立)한 진보(進步)된 체제(體制)는 재건(再建)된 번국(藩國)으로 답습(踏襲)되어 여전하였을 것이다.

b) 원래 금마(金馬)·익산권(益山圈)과는 별개의 우수한 청동기문화(青銅器文化)를 보유(保有)하던 이 내포지방(內浦地方)에 한(漢)의 선진문명(先進文明)까지 접착(接着)되니, 〈번국(藩國)〉이 남한제일(南韓第一)의 문화의 중심지(中心地)로 화(化)하게 되었음은 필연적(必然的) 귀추(歸趨)라 하겠다.

c) 여기에 한(漢)이 점령(占領) 26년간에 구축(構築)한 교통망(交通網) 즉, 선편(船便)에 의한 중국대륙(中國大陸) 또는 낙랑(樂浪)과 교류(交流)하는 방법(方法) 또한 계승(繼承)되니, 번국(藩國)은 사읍천[沙邑川－삽교천(揷橋川)의 고명(古名)]의 역사지리적(歷史地理的) 특수성(特殊性) 즉, 중국대륙(中國大陸)과의 "일의대수(一衣帶水)"적 위치 덕분에 한반도내(韓半島內)의 어느지방보다도

유리(有利)한 중국문화(中國文化)의 섭취창구(攝取窓口)였음으로, 200년간 이상(B.C 82~A.D 121) 선진문명국(先進文明國)으로서 분수령(分水嶺)-차령산맥(車嶺山脈) 너머인 금강유역(錦江流域)의 진국(辰國)뿐 아니라, 남한전역(南韓全域)에까지 영향(影響)을 미치는 영도국역할(領導國役割)을 유지(維持)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는 후일(後日) 내포지방(內浦地方)에 상륙(上陸)한 백제불교(百濟佛敎)가 신라(新羅)쪽으로 전파되었음과, 일제(日帝)때 인천항(仁川港)과 군산항(群山港)이 조선(朝鮮) 제2위, 제3위의 항구(港口)였음으로도 추측되는 일이다.

하물며 범선시대(帆船時代)일 경우 대륙문화(大陸文化)의 중심부(中心部)·양자강유역(揚子江流域)과 교류(交流)함에 아산만(牙山灣)이 더욱 유리한 여건(與件)을 갖추고 있음은 자명(自明)하다. 현재까지도 아산만(牙山灣) 입구지방(入口地方)에 〈한진포(漢津浦)〉와 〈당진포(唐津浦)〉가 남아있는 터다.

한편 후한(後漢)의 헌제(獻帝)때 연(燕)의 공손강(公孫康)은《요동왕(遼東王)》을 칭(稱)하면서(A.D 204) 고구려(高句麗)를 치고는, 낙랑군(樂浪郡)까지도 차지하였다.

남쪽으로 팽창(膨脹)하기 시작한 공손씨(公孫氏)의 거연(鉅燕)은 구(舊) 진번군(眞番郡)의 북부(北部) 7현(縣)에 해당(該當)하는 남부도위(南部都尉)의 관할지역(管轄地域)까지도 점령(占領)하고, 그곳에 대방군(大方郡) 7현(縣)을 분치(分置)하였다.(A.D 207)

이무렵 「삼국지(三國志)」의 주인공들은 아직도 패권(霸權)을 다투는데,

오왕(吳王) 손권(孫權)은 황제(皇帝)가 되면서[황초원년(黃初元年) A.D 229) 선편(船便)으로 공손씨연(公孫氏燕)에 사신(使臣)을 보내어 위(魏)를 협공(挾攻)할 것을 두차례나 도모(圖謀)하였지만 공손씨(公孫氏)는 응(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왕(吳王)의 사신(使臣)을 죽이고, 인접(隣接)한 위(魏)에 아부(阿附)를 하였다. 그러나 위(魏)는 변경(邊境)의 공손씨(公孫氏)가 강성(强盛)하여짐을

두려워한 나머지 제(帝)는 A.D 234년 사마(司馬)로 하여금 이를 공격(攻擊)하였지만 실패(失敗)하였다. 위(魏)는 또다시(A.D 238) 사마의(司馬懿)로 하여금 이를 공략(攻略)하니, 요동(遼東)과 한반도(韓半島)에 있던 공손씨[公孫氏－연(燕)]의 영토(領土)는 전부 위(魏)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위(魏)는 이 침공(侵攻)때 낙랑(樂浪)·대방양군(帶方兩郡)은 해군(海軍)으로서 배후(背後)에서 수습(收拾)하였다.

동이전(東夷傳):경초중(景初中), 대흥사족(大興師族), 주연(誅淵) 우잠군부해(又潛軍浮海) 수낙랑(收樂浪)·대방지군(帶方之郡):경초중(景初中) 월해정이군(越海定二郡)

번국(藩國)에서는 이무렵(A.D 121에서 약 100년 사이) 傳說이 전하는 바(제3편 3장) 대홍수가 있어 그 터전인 "금마(金馬)들"(홍성에서 삽교로 이어지는 평야)이 큰 피해(被害)를 입자, 그 정통(正統)이 〈번성(藩城)〉의 약 5㎞ 하류이자, 근 200년간 중국문물(中國文物)의 섭취창구(攝取窓口)이던 〈목지성(目支城)－목시토성(土城)〉쪽으로 계승(繼承)되니, 이때부터 "마한(馬韓)의 목지국(目支國)"은 번국(藩國) 대신 역사(歷史) 무대(舞台)에 두드러지게 부각(浮刻)되는 것이다.

설혹 홍수(洪水)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약 2백년 사이에 상류쪽 번성(藩城)의 주권(主權)이 선항(船航) 편의(便宜)가 좋아 중국문물(中國文物)을 흡수(吸收)하여 온 5㎞ 하류의 목지성(目支城)－선착장(船着場)·삽양장(霅陽障)－쪽으로 그 주체(主體)가 이동하게 됨은 필연적(必然的)이다.

이리하여 《설문(設問)》(A.D 121)에 기록(記錄)을 남기고 있는 『낙랑(樂浪)·번국(藩國)』은 《위지(魏志) A.D 280頃》에 역사(歷史) 무대(舞台)에서 사라지고, 대신 삼한제국(三韓諸國)이 나타난다.

4. 목지국(目支國)의 진왕(辰王)과 그 권위(權威)

조위시대(曹魏時代)가 되면서 돌연 위지(魏志)·동이전(東夷傳)의 기록(記錄)은 마한(馬韓)의 목지국(目支國)을 통치한 "신지(臣智)"

가 《진왕(辰王)》이고, 이 진왕(辰王)이 現實인 「진한(辰韓) 12국(國)」까지도 통치(統治)하였다 하고,

위지(魏志) 東夷傳(동이전):진왕치목지국(辰王治目支國),…기[其ㅡ진한(辰韓)] 12국(國) 속진왕(屬辰王) 진왕상용마한인작지(辰王常用馬韓人作之) 세세상계(世世相繼) 진왕부득자립위왕(辰王不得自立爲王)

더구나 후한서(後漢書)에서는 삼한전체(三韓全體)의 영도자(領導者)로 부각(浮刻)된다.

후한서(後漢書):마한최대(馬韓最大) 공립기종위진왕(共立其種爲辰王) 도목지국(都目支國) 진지삼한지지(盡至三韓之地) 기제국왕선(其諸國王先) 개시마한종인언(皆是馬韓種人焉)

…[마한(馬韓) 54국(國) 형성(形成)보다도 약 200여년전인 "진국(辰國)" 그 실존(實存)일 수 없는 관념적(觀念的)인 "진국(辰國)"의 상징적(象徵的)인 "진왕(辰王)"]…… 그러한 진왕(辰王)이 아닌 실존(實存)의 진왕(辰王)이 약 200년 후 현실의 목지국(目支國)에 실존(實存)하고 있음을 위지(魏志)와 후한서(後漢書)는 기록(記錄)하고 있는 것이다.

번국산어류(藩國産魚類) 6종(種)이 등재(登載)된 "설문(說文)"때(A.D 121)부터, "번국(藩國)" 칭호(稱號)가 사라지고 "마한(馬韓)목지국(目支國)"이 등장하는 위지(魏志)경(頃)(A.D 280)까지의 약 160년 사이에 마한(馬韓) 54국(國)과 진한(辰韓)·변한(弁韓) 각 12국(國), 한반도(韓半島) 남부가 총 78국(國)으로 분열(分裂) 구성(構成)되는 시기(時期)에ㅡ물론 허다한 군소(群少) 부족(部族)들은 이 대표적(代表的)인 78국(國)에 예속(隸屬)된다.ㅡ유독 "목지국(目支國)의 〈장수(長帥)〉인 〈신지(臣智)〉"만이 현실의 〈진왕(辰王)〉즉, 한족[韓族ㅡ진족(辰族)] 전체의 영도자(領導者)로 부각(浮刻)되는 것이다.

어이하여 목지국(目支國)의 신지(臣智)만이 《진왕(辰王)》의 권위(權威)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

"진국(辰國)" 존재를 처음 기술(記述)한 것은 「한서(漢書) A.D 60~80 저술」에서다.

이보다 앞서는 「사기(史記) B.C 108~93 사이에 저술」에서는 「진번방중국(眞番旁衆國)」으로 기재(記載)되어 있다.

그러나 송나라때 판각(板刻)된 "사기(史記)"에서는 「진번방진국(眞番旁辰國)」 즉, 중국(衆國)중의 하나가 "진국(辰國)"이었음을 말하고,

「위략(魏略)」에서는 「동지진국(東之辰國)-조선(위씨)」의 동쪽인 진국(辰國)으로 갔다」고 그 방위(方位)까지 말하였으니, 중국사가(中國史家)들이 뒷 연대(年代)가 될수록 진국(辰國)에 관한 실상(實相)을 자세히 파악(把握)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던 것이 「위지(魏志) A.D 280경(頃)」는 목지국(目支國)의 "신지(臣智)"를 "진왕(辰王)"이라 기술(記述)하면서, 「진한(辰韓) 12국(國)까지도 통치(統治)하였다」 하고,

「후한서(後漢書)」에서는 「목지국(目支國)의 신지(臣智)인 《진왕(辰王)》이 삼한전역(三韓全域)의 영도자(領導者)」라고 기술(記述)하였다.

얼핏 생각에 자의(字義)대로 라면,

진국(辰國)은 진왕(辰王)이 다스린 나라. 진왕(辰王)은 진국(辰國)을 다스린 왕(王). 이렇게 추론(推論)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약 2,100년전 "한족(韓族)"이라는 칭호(稱號)가 아직 발생하기 이전인 시대(時代).

중국사가(中國史家)들이 원주한족(原住韓族)을 "진족(辰族)"이라 인식(認識)하던 시대(時代).

삼한(三韓) 78국(國)도 구성(構成)되기 약 2~300년전인 문화단계(文化段階)에서 今日과 같은 개념(槪念)의 "나라-국(國)"즉, 남한전역(南韓全域)-전(全) 삼한(三韓)을 통합통치한 「진국(辰國)」이란 것은 존재할 수 없는 일인즉, [미시나(三品) 氏의 주장] 사기

(史記)나 한서(漢書)에 기록된 진국(辰國)은 실존(實存)의 나라ㅡ국(國)일수도 없고, 다만 진족(辰族)이 사는 지방(地方)을 말한 관념적(觀念的)인 칭호(稱號)였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런즉 전술(前述)한대로 "관념적(觀念的)인 진국(辰國)"을 통치한 "실존(實存)의 진왕(辰王)"은 존재할 리가 없다.

가사(假斯) 사기시대(史記時代)에도 "진왕(辰王)"이라는 칭호(稱號)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진족[辰族ㅡ한족(韓族)]의 상징적(象徵的)인 대표자(代表者) 즉, 거족적(擧族的) 행사(行事) 등을 주재(主宰) 혹은 사제(司祭)하는 대표자(代表者)에 대한 상징적(象徵的)인 전통적(傳統的) 존칭(尊稱)ㅡ"임금님"ㅡ의 한자적(漢字的) 표현이었다고 봄이 마땅하다.

설혹 "협의(狹義)의 진국(辰國)"의 통치자에 대한 칭호(稱號)였다고 보고자 한다면 이 진국(辰國)은 B.C 2세기~A.D 2세기의 나라고 〈진왕(辰王)〉이 등장하는 목지국(目支國)은 A.D 200년 무렵의 삼한(三韓) 78국(國)중의 한낱 부족국(部族國)에 불과한 것이니, 위지(魏志)와 후한서(後漢書)에서 유독 목지국(目支國)의 신지(臣智)만을 〈진왕(辰王)〉이라 칭하며, 진한(辰韓) 12국(國) 혹은 삼한(三韓) 78국(國)을 영도(領導)하였다고 기술(記述)하였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된다.

그런즉 《진국(辰國)의 진왕(辰王)》은 실재의 통치자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진족[辰族ㅡ한족(韓族)]의 상징적(象徵的) 대표자(代表者)에 대한 존칭(尊稱)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고문헌(古文獻)에서는 「진국(辰國)의 진왕(辰王)」이라는 기록(記錄)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 "진국시대(辰國時代)의 진왕(辰王)"은 고려(考慮)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한편 중국(中國)의 정사(正史)에서는 《마한(馬韓)의 목지국(目支國)》이 그 통치자라는 《진왕(辰王)》과 더불어 돌연 두드러지게 등장(登場)하는 것이다.

그러면 「진한(辰韓) 12국(國)ㅡ위지(魏志)」 혹은 「삼한(三韓 78

국(國)－후한서(後漢書)」을 영도(領導)하였다는 《목지국(目支國)의 진왕(辰王)》은 어디에서 유래(由來)하는 것인가?

또한 삼한(三韓) 78국(國)의 각 장수(長帥)중 「목지국(目支國)의 신지(臣智)만이 세세상계(世世相繼)」 진족[辰族－한족(韓族)] 전체의 상징적(象徵的) 대표자에 대한 존칭(尊稱)이던 〈진왕(辰王)〉으로 호칭(呼稱)된 까닭은 무엇이며, 그러한 권력(權力)은 어디에서 유래(由來)한 것일까?

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록(記錄)을 해결할 길은 오직 이 난제(難題)를 제기(提起)한 위지(魏志)에서 찾아볼 수 밖에 없다.

위(魏)는 A.D 238년 요동(遼東)의 공손씨(公孫氏)·연(燕)을 공멸(攻滅)시킴으로서, 한반도(韓半島)의 낙랑(樂浪)·대방양군(帶方兩郡)까지도 장악(掌握)하게 되었는데, 위지(魏志)가 저술(著述)된 것은 A.D 280년경(頃)이니 이 무렵의 시대상(時代相) 중에서 간과(看過)할 수 없는 중요문제(重要問題)가 바로 위(魏)의 대(對) 한반도(韓半島) 통치책(統治策)과의 연관성(聯關性)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燕)이 통치하던 중국(中國)에 보다 가까운 별도(別途)로 해군(海軍)이 점령한 한무제(漢武帝) 이래의 중국(中國) 통치령(統治領)인 낙랑군(樂浪郡)과 대방군(帶方郡)은 이를 여전히 직할(直轄)하려니와 먼 변경(邊境)의 골치아픈 삼한지역(三韓地域)의 군소제국(群少諸國)은 위(魏)의 안전을 도모(圖謀)하여 이를 분열(分裂)시킨 채, 간접적(間接的)으로 지배하려는 정책(政策)이었으므로 현지(現地)에서 유력국(有力國)을 선임(撰任)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때

(a) 한반도(韓半島)의 중남부(中南部)에서 한군(漢郡)이전부터 선진문명국(先進文明國)이던 진번국(眞番國). 한(漢)의 직할(直轄) 26년간 그 문화(文化)와 그 정치제도(政治制度)를 수용(收容)한 치읍(治邑)이던 번국(藩國). 그 후신(後身)이면서 여전히 중국문화(中國文化)의 흡수(吸收) 문호(門戶)이던 목지국(目支國).

(b) 선편(船便)에 의한 교통편의(交通便宜) 또한 가장 유리한 아산만(牙山灣)·삽교천(揷橋川) 유역.

(c) 한무제(漢武帝) 이래 직접 연고관계(緣故關係)가 맺어진 진번(眞番)의 목지국(目支國)은 이 지역 최선진국(最先進國)이다.

그러니 그 위치(位置)와 그 문화(文化)와 그 전통(傳統)을 계승하고 있는 〈목지국(目支國)의 신지(臣智)〉는 이미 삼한제국(三韓諸國)의 구심적(求心的) 역할(役割)을 담당하고 있었으니, 위(魏)가 그 대리역(代理役)을 선임(選任)함에 있어 목지국(目支國)을 지목하게 되었음은 필연적(必然的)이다.

이리하여 목지국(目支國)의 신지(臣智)에게 각별한 벼슬-관호(官號)와 특별한 권익(權益)을 제수(提授)하고는 그로 하여금 삼한제국(三韓諸國)에 대한 통제(統制)와 조공(朝貢)을 관장(管掌)하는 권한 등을 일괄(一括) 대행처리(代行處理)토록 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이 위지(魏志)와 후한서(後漢書)의 동이(東夷)·한전(韓傳)에 기술(記述)된 《목지국(目支國)의 진왕(辰王)》인 것이다.

위지(魏志)의 동이전(東夷傳)에 의하면 목지국(目支國)의 신지(臣智)는 그 호(號)를 「우호신운유지보안사축지분신리아불예구사진지염(優呼臣雲遣支報安邪踧支濆臣離兒不例拘邪秦支廉)」이라 하였고, 그에 속(屬)하는 관(官)으로는 「솔선읍군(率善邑君)·귀의후(歸義侯)·중랑장(中郎將)·도위(都尉)·백장(伯長)」 등이 있었다.

목지국(目支國)의 신지(臣智) 《진왕(辰王)》이 사용한 여러나라 이름이 곁드려진 이들 관호(官號)가 실질적(實質的)으로 어떠한 권한(權限)을 갖는 것인지는 알 길이 없다.

또한 위 관제(官制)로 미루어 옛 한(漢) 진번(眞番郡)의 치소(治所)이던 이곳 목지국(目支國)에는 한군치(漢郡治) 이래의 행정체제(行政體制)가 남아 있었을런지 모른다. 또는 목지국(目支國) 진왕솔하(辰王傘下)의 제(諸) 신지(臣智)들은 위(魏)의 회유책(懷柔策)에 다른 상기(上記) 관호(官號)를 받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혹은 위 관칭(官稱)을 가진 관리들이 있어 위(魏)를 위한 업무(業務)를 수행(遂行)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천관우(千寬宇)씨는 동이전(東夷傳)의 삼한(三韓) 78국명(國名)의 기재순서(記載順序)는 지역별(地域別) 집단(集團)으로 되어 있어, 이는 조공기록(朝貢記錄)을 활용한 것으로 보았다.

목지국(目支國)의 신지(臣支)가 한반도(韓半島)에 대한 절대지배권(絶對支配權)을 장악한 위(魏)의 위촉(委囑)으로, 삼한제국(三韓諸國)에 대하여 내정(內政)까지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외교면(外交面)에서는 삼한(三韓) 전역(全域)을 대표하고 통어(統御)할 수 있게 되니, 제국(諸國)으로 부터는 진족[辰族－한족(韓族)]의 상징적(象徵的) 대표자(代表者)에 대한 전통적(傳統的) 존칭(尊稱)이던《임금님》이라 호칭(呼稱)되었을 것이다.

위(魏) 역시 이를 선용(善用)할 필요가 절실하였을 것이니 적극 그 권위(權威)를 비호(庇護)하였을 것임은 외이통치책략(外夷統治策略)의 일환(一還)으로 당연한 것인즉, 혹시 단기간(短期間)이지만 위(魏)의 "봉왕(封王)"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지 아니 하였다 할지라도 목지국(目支國)의 신지(臣智)는 삼한(三韓) 78개국(國)의 장수(長帥)중 위(魏)의 특별한 위촉(委囑)을 받은 유일한 존재일 뿐 아니라, 삼한제국(三韓諸國)의 구심체(求心體)였으니, 진족[辰族－한족(韓族)]중의 제1인자임이 분명하다.

이를 중국사가(中國史家)들이 한자어휘(漢字語彙)로 기술(記述)하면서 그 민족명(民族名)인『진(辰)』이라 적고 보면, 그 개념(槪念)과 인식(認識) 또한 변하게 마련이다.

위지(魏志)와 후한서(後漢書)의 동이전(東夷傳)에서 「목지국(目支國)의 신지(臣智)」를 「목지국(目支國)의 읍군(邑君)」이라 기술(記述)하지 아니하고, 「목지국(目支國)의 진왕(辰王)」이라 기술(記述)되고 보면 후세에 와서 이해하기 어려운『진왕(辰王)』이 되고 만 것이 아닐까.

목지국(目支國)의 전신(前身)은 진번(眞番)의 번국(藩國)이다.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이던 연(燕)때 이미 중국(中國)의 교

역대상(交易對象)이던 진번제국(眞番諸國)은 그 역사지리적(歷史地理的) 위치와 그 선진문화(先進文化)와 중국대륙(中國大陸)에 널리 알려진 경제적(經濟的) 여건(與件) 때문에 한무제(漢武帝)의 해군(海軍)의 침략(侵略)을 받아, 진번군(眞番郡)은 창치(創置)되었다.

그러나 진번제국(眞番諸國)의 원주(原住) 한족(韓族)은 이를 26년만에 물리쳤다.(B.C 82)

A.D 121년에 저술(著述)된 "설문(說文)"에서 허신(許愼)은 진번군(眞番郡) 당시 그 치소(治所)로 점령당했다가 26년후 한족(韓族)의 자주국(自主國)으로 되돌아간 나라를 『번국(藩國)』이라고 기술(記述)하고 있다.

필자는 이 번국(藩國)의 주부(主部)를 현 예산군(禮山郡) 삽교읍(揷橋邑) 『반챙이 평지토성(平地土城)부락-수촌리』과 이와 인접한 『안다락미·밖다락미』 두 평지토성부락(삽교읍 2리)이라고 추정(推定)하였다.

번국(藩國)은 이 수난(受難)으로 도리어 중국대륙(中國大陸)의 선진문화(先進文化)와 진보(進步)된 한(漢)의 행정체제(行政體制)와 항해술(航海術)등을 수용(收容)할 수가 있었다.

그럼으로 번국(藩國)을 계승한 목지국(目支國)은 이 덕분에 삼한제국(三韓諸國)의 영도국(領導國)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한제국(韓諸國)은 3세기 중엽에 접어들면서 한족(韓族)에 의한 통일국가(統一國家)로 발전될 기운(機運)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화북(華北)의 위(魏)가 요동(遼東)의 공손씨(公孫氏) 연(燕)을 공멸(攻滅)하니(A.D 238), 한반도(韓半島)의 정치정세(政治情勢)는 크게 바뀌고 말았다.

다행히 목지국(目支國)은 연(燕)을 대신하여 한반도(韓半島)를 지배하게 된 위(魏)에 발탁(發擢)되어, 필연적(必然的)으로 삼한제국(三韓諸國)을 대표하는 나라가 되니 한제국(韓諸國)은 「목지국(目支國)의 진왕(辰王)」을 중심으로 통일국가(統一國家)로 발전되

는가 하였지만, 위(魏)의 분할지배정책(分割支配政策)은 이를 용납치 아니 하였다.

더욱이 대방군(帶方郡)이 새 행정체제(行政體制)를 시행하려 하자 대방군역(帶方郡域) 이남(以南)인 한강유역(漢江流域)의 한(韓) 방해국(邦奚國)등 수십국(國)이 단합되어 "기리영(奇離營)"을 공격한 대반란(大叛亂)이 있어 진압(鎭壓)차 출동한 대방태수(帶方太守) 궁준(弓遵)은 전사(戰死)를 하였고, 이들 한제국(韓諸國) 또한 낙랑태수(樂浪太守)에 의하여 토멸(討滅) 당하고 말았다.

그 이후로는 더더욱 한제국(漢諸國)의 단합을 강력(强力) 제압(制壓)하였으므로 삼한제국(三韓諸國)의 발전은 큰 제약(制約)을 받아 여전히 삼한(三韓) 78국(國)으로 분할(分割)된 채 「목지국(目支國)의 진왕(辰王)」의 관장하에 머물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정황(情況)속에서 위(魏)는 고구려(高句麗)와 백제(百濟)에 의하여 패퇴(敗退)하니(A.D 313) 종래(從來) 삼한제국(三韓諸國)의 구심체(求心體) 역할을 담당(擔當)하던 내포지방(內浦地方)의『목지국(目支國)의 진왕(辰王)』또한 이 후래족(後來族)에게 밀려나고, 마한제국(馬韓諸國)은 이 부여족(扶餘族)에 의하여 백제(百濟)로 통합(統合)되고 혼주상태(混住狀態)이던 진한(辰韓)과 변·진한제국(弁·辰韓諸國)은 신라(新羅)를 형성(形成)하였다.

이리하여 3세기말·4세기초 무렵, 중남부지방에서 이루어 질 수 있었던 한족(韓族)에 의한 통일국가(統一國家) 성립(成立)은 좌절되고 말았다.

이에 위씨조선(衛氏朝鮮)의 주부(主部)를 대동강유역(大同江流域)에 진번(眞番)－번국(藩國)과 이를 계습(繼襲)한 목지국(目支國)의 위치를 삽교천유역(揷橋川流域)－내포지방(內浦地方)에 추정(推定)하고, 협의(狹義)의 진국(辰國)의 위치는 이를 금강유역지방(錦江流域地方)에 추정(推定)하고는 이로서 「진번방진국(眞番旁辰國)」을 위시한 제 고문헌(諸 古文獻)의 기록(記錄)을 살필 때 진국(辰國)의 필수여건들과 어긋남이 없음은 진국[辰國－협의(狹義)]과 진번(眞番)의 지리상(地理上)의 위치에서 오는 필연적(必然的)인

결과인즉, 위지(魏志)와 후한서(後漢書)의 「목지국(目支國)의 진왕(辰王)」에 관한 기술(記述)을 「착오(錯誤)－이병도(李丙燾) 박사」, 「전혀 불가능(不可能)한 사태(事態)－미시나(三品彰英) 박사」 혹은 「절충(折衷)될 수 없는 것－천관우(千寬宇)씨」등 견해(見解)는 이로서 해명(解明)이 되는 것이며, 진번[眞番－번국(蕃國)]의 위치가 상기 추정(推定)과 같이 내포지방[內浦地方－삽교천유역(揷橋川流域)]일 경우, "무릉서(茂陵書)"의 「진번군치(眞番郡治) 삽현(霅縣) 거장안(去長安) 7천6백4십리 15현(縣)」이라는 기술(記述)을 「와기(訛記)」 혹은 「오기(誤記)」 [이병도(李丙燾)박사와 미찌오(邦珂通世) 박사]라 한다던가 「무릉서(茂陵書)는 위서(僞書)－신채호·임승국 선생」라고 할 사유(事由)도 없다.

그러니 이로서 "진번(眞番)의 번국(藩國)"과 이를 계승(繼承)한 "목지국(目支國)"의 위치는 내포지방(內浦地方)이었다는 방증(傍証)이 된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제5편 제학설(諸學說)에 대한 검토(檢討)

1장 귀결(歸結)없는 진번군 연구(眞番郡 硏究)
2장 금강(熊川-熊津江) 유역설(流域說)
3장 무릉서(茂陵書)는 위서(僞書)인가?
4장 충청남도의 옥토지대(沃土地帶)는 두 곳
- 稻葉岩吉(이와기찌) 박사의 [충청남도 옥토설]에 대하여
5장 삽현(霅縣)은 깊고 짧은 하천변(河川辺)
- 양수경의 〈웅진강설〉과 이병도 박사의 반론에 대하여
6장 번국(藩國)의 해산물(海産物)
- 이마니시(今西龍) 박사의 광역 금강유역설에 대하여
7장 거장안(去長安) 7,640里
1) 진번(眞番) 재북방설(在北方說)
2) 남방설(南方說)의 주류(主流)는 금강(錦江)-웅진강 유역설(熊津江 流域說)

제5편 제학설(諸學說)에 대한 검토(檢討)

제1장 귀결(歸結)없는 진번(眞番) 연구(硏究)

위에서 내포지방(內浦地方)의 실존자료(實存資料)를 바탕으로 〈진번(眞番)과 번국(藩國)〉과 〈마한(馬韓)의 목지국(目支國)〉의 위치문제(位置問題)를 고찰(考察)하여 보았는데, 통설(通說)과는 크게 다르다.

이는 선학(先學)들이 천여년간의 추론과정(推論過程)이 모두 국한된 문헌(文獻)을 위주로한 고증(考證)임에 反하여 필자의 고찰(考察)은 지금까지 학계(學界)의 관심밖에 있었던 두 곳의 평지토성(平地土城)과 이 지방에서 출토(出土)되는 청동유물(靑銅遺物)과 지명(地名) 즉, 삽교읍(揷橋邑) 수촌리(水村里)의 〈반챙이토성(土城)〉을 〈번성(藩城)〉으로, 삽교읍(揷橋邑) 성리(城里)·〈궁(宮)마루부락)의 〈목시토성(土城)〉을 〈목지성(目支城)〉이라 전제(前提)하면서 이곳이 [진번(眞番)의 주부(主部)인 번국(藩國)]과 이를 계승한 [마한(馬韓)의 목지국(目支國)]에 해당하는가를 역(逆)으로 추구(推究)하여 본 결과다.

내가 알기로는 이제까지의 진번문제(眞番問題) 연구(硏究)에 있어 실존(實存)의 유물(遺物), 유적(遺蹟), 지명(地名) 등을 거론(擧論)한 예는 없었던 것 같다.

다만 천관우(千寬宇) 선생은 목지국문제(目支國問題)를 논하면서 김정배(金貞培)교수(高大)도 전북(全北) 익산지방(益山地方)의 청동기류(靑銅器類) 출토상황(出土狀況)을 수용(授容)하여 [준왕계(準王系)의 진국설(辰國說)]과 [마한목지국(馬韓目支國) 익산지방설(益山地方說)]을 편바 있지만, 아무도 삽교천(揷橋川) 유역(流域) 출토(出土)의 청동기(靑銅器) 유물류(遺物類)와 지석묘(支石墓)·토성(土城) 등을 수용(授容)하여 진번문제(眞番問題)를 다룬 일은 없었다.

과거 수백년간 내외(內外) 석학(碩學)들이 개진(開陳)한 진번(眞

番)의 위치 추정(推定)은 어느하나 동일한 결론(結論)에 도달(到達)한 것이 없었는데, 필자의 성과 또한 그것들과 비교(比較)하면 가히 이단적(異端的)이라고 하리 만큼 차이가 있다.

본 논고(論考)도 대별(大別)하면 [재남방설(在南方說)]에 속하고, 소분(小分)하면 [내포지방설(內浦地方說)－삽교천(揷橋川) 유역설(流域說)]이니, 지금까지 발표된 주요 남방설(南方說)의 논지(論旨)와의 이동점(異同点)을 간략히 살펴 보기로 한다.

제2장 금강(錦江) [웅천(熊川)－웅진강(熊津江)] 유역설

1. 청말(淸末)의 지리학자(地理學者) 양수경(楊守敬)은 그의 문집 〈회명헌고(晦明軒稿)〉중의 「왕사탁한지석지박의(汪士鋐漢志釋地駁議」에서 「진번(眞番)의 삽현(霅縣)은 알 수 없다」면서 「연(然)이나

」이라 하였다.

이것이 「진번재남방설(眞番在南方說)」의 실마리가 된다.

2. 이와기찌(稻葉岩吉)박사는 양수경(楊守敬)의 웅천유역설(熊川流域說)을 부연(敷衍)하면서 《금강유역(錦江流域) 옥토설(沃土說)》을 폈다.

3. 이마니시(今西龍)박사는 진번(眞番)의 강역(疆域)을 양(楊) 선생이나 이와기찌(稻葉) 박사 보다도 더 남쪽으로 확대인식(擴壙大認識)하고, 《충청도(남·북도)와 전라북도설》을 펴면서 「진번(眞番)은 한족(韓族)의 나라고, 삽현(霅縣)은 금강유역(錦江流域)에 있었던 것 같다」 하였다.

4. 이병도(李丙燾)박사는 이들 〈금강유역설(錦江流域說)〉에 대하여

a) 「진번군(眞番郡)이 위치하던 대수[帶水－웅천(熊川)]은 한리

(漢里)로 450리(里)가 못되는 짧은 강이어야 하니, 700리(里)가 넘는 금강[錦江－웅진강(熊津江)]일 수 없고,

b) 〈무릉서(茂陵書)〉의 「거장안(去長安) 7,640리」의 "7자"는 "6자"의 오기(誤記). 즉, 6,640리가 옳다 주장(主張)하고는,

c) 진번군(眞番郡) 15현(縣)의 북부 7현 지방을 「황해도 자비령(慈悲嶺) 이남지방」에 고증(考証)하면서 [금강유역설(錦江流域說)]을 부정(否定)하고는,

d) 독자적인 남방설(南方說) 즉, [북계(北界)는 황해도 자비령(慈悲嶺)이남의 황해도의 대부분(大部分)과 남계(南界)는 한강이북의 경기도 일부지방(一部地方)]이라는 설(說)을 추정(推定)하였다.

이박사의 이 논문(論文) 발표가 있은 후로 우리 사학계(史學界)에서는

a) 천관우(千寬宇) 선생이 《한국고대사(韓國古代史)의 쟁점(爭点)》에서

b) 이기동(李基東) 교수(동국대)가 〈한국사론(韓國史論)〉에서 하였듯이 진번(眞番) 문제에 대한한 격별(格別)한 거론(擧論)이 없었다.

c) 비류백제(沸流百濟)를 다룬 김성호(金聖昊)씨의 독특(獨特)한 논문(論文)에서도 진번(眞番)의 위치는 이병도학설(李丙燾學說)인 재령강(載寧江)유역으로 인정(認定)하였다.

그러나 일본학계(日本學界)에서는 여러 연구발표(硏究發表)가 있었는데,

5. 미시나(三品彰英)박사는 [사실(史實)과 고증(考証)]에서 주목할 견해(見解)를 제시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제4편 "목지국고(目支國考)"에서 수용(授容)하였거니와 제8편 "결론(結論)"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6. 스에마스(末松保和) 박사는 무릉서(茂陵書)중의 문제의 구절

『7,640리』를 철저하게 취급(取扱)하면서, 진번군(眞番郡) 치소(治所) 〈삽현－霅縣〉을 「영산강 하구(河口)지방」에 추정(推定)하였다. 이 견해(見解)에 대하여는 본편 7장에서 수용(授容)하겠다.

7. 이게우찌(池內宏) 박사는

진번군(眞番郡)의 위치를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지방〉이라고 추정(推定)하면서 그 중심지(中心地)로 백제부흥군(百濟復興軍)이 활약한 임존성(任存城)지방. 즉, 예산·홍성·청양지방에 주목(注目)하였다.

이러하듯 당(唐)나라 이래의 진번(眞番)의위치에 대한 이견(異見)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임으로 이들을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제3장 무릉서(戊陵書)는 위서(僞書)인가?

남방설(南方說)과는 대조적으로 신채호(申采浩) 선생의 「무릉서(茂陵書) 위서설(僞書說)」을 앞세워 남방설(南方說)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主張)이 있다.

민족사관학자(民族史觀學者)인 안동준(安東濬)·임승국(林承國) [한국고대사 관견 P113)씨는 「무릉서(茂陵書)의 저자(著者)라고 전하는 사마상여(司馬相如)는 한사군(漢四郡)이 설치되기 10년전(B.C 118)에 죽은 자이다.」「상여(相如)가 그의 사후(死後) 10년 만에 설치될 예정(豫定? 인 한사군(漢四郡)의 강역(疆域) 위치를 미리 말했다면 그는 예언자(豫言者)일 것이요, 무릉서(茂陵書)는 묵시록(默示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단재(丹齋) 선생의 말씀처럼 요괴담(妖怪談)이랄 수 밖에 없다」. 「『…무릉서(茂陵書)에 의하면…』 하고, 이 주서(注書)를 금과옥조(金科玉條)로 들고 나서는 현역사서(現役史書)들이 많다」면서, 무릉서(茂陵書)를 「유령서(幽靈書)」라고 단언(斷言)하고, 이로서 "진번군(眞番郡) 재남방설(在南方說)"을 부정하는 논거(論據)로 하고 있다.

이 주장(主張)은 무릉서(茂陵書)의 저자(著者)가 사마상여(司馬相如)일 경우에만 성립(成立)될 수 있는 것이다.

무릉서(茂陵書)는 서진시대(西晋時代－A.D 300경)에 이미 망질(亡佚)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신찬(臣瓚)"이 한서(漢書)에 주(註)를 쓰면서 〈한록질령(漢祿秩令)〉과 〈무릉서(茂陵書)〉를 인용(引用)하였고, 청(淸)의 홍신훤(洪頤煊)은 사기(史記)·한서(漢書)·수경주(水經注)·통전(通典) 등의 주(註)에서 〈무릉서(茂陵書)의 일문(逸文) 18조(條)〉를 채집(採集)하여 이를 〈경전집체(經典集體)〉에 수록(收錄)하였는데, 그 무릉서(茂陵書)중의 한사군(漢四郡) 관계(關係) 일문(逸文)인 『임둔군(臨屯郡) 치동이현(治東暆縣) 거장안(去長安) 6천1백3십8리 15현(縣). 진번군(眞番郡) 치삽현(治霅縣) 거장안(去長安) 7천6백4십리 15현(縣)』. 이 40자는 고금(古今)·내외(內外)를 막론하고, 한사군(漢四郡)을 연구(硏究)한 학자라면 누구나 거론(擧論)한 구절(句節)이다.

〈무릉(茂陵)〉이란 한무제(漢武帝)의 능호(陵號)임으로 고금(古今)의 여러 학자들은 무릉서(茂陵書) 중의 진번(眞番)과 임둔군(臨屯郡)에 관한 이 40자를 무제(武帝)의 능기(陵記)의 한 구절(句節)로 대하여 왔고, 진번(眞番)과 임둔(臨屯)에 관한 사료(史料)가 워낙 희소(稀少)한지라 소중히 여겨오는 사료(史料)다.

B.C 108년에서 107년사이. 한무제(漢武帝)의 침략(侵略)으로 한사군(漢四郡)은 설치(設置) 되었다.

그 중 낙랑군(樂浪郡)과 그 후의 대방군(帶方郡)은 A.D 313년 고구려(高句麗)와 백제(百濟)에 패퇴(敗退) 당할 때까지 420여년간 중국세(中國勢)의 식민지(植民地)로 존속(存續)하였음에 반하여, 진번군(眞番郡)은 원주한족(原住韓族)의 거센 저항에 견디지 못하고 26년만에 철군(撤郡)하였는데, 그 진번군(眞番郡) 15현(縣) 중 북부 7현(縣)은 낙랑군(樂浪郡)의 남부도위(南部都尉)의 관할(管轄)로

옮겨졌다가(B.C 83) 약 300년 후 연(燕)의 공손강(公孫康) 때(A.D 207) 대방군(帶方郡)으로 분립(分立) 되었음으로 그 현명(縣名)이나마 알려져 있지만, 원주한족(原住韓族)의 자주국(自主國－번국(藩國)－으로 되돌아간 남부 8현(縣) 지방은 현명(縣名)조차 알 길이 없는데 오직 그 군치(郡治) 소재지(所在地)가 《삽현－雪縣》이었음을 알게됨도 이 "40자" 덕분이다.

본장은 위에서 삽현(雪縣)의 위치가 삽교천(揷橋川)유역 지방(내포지방)일 수 있음을 검토(檢討)하였으므로 그 성과(成果)를『전한(前漢)의 수도(首都) 장안(長安)으로부터 진번군(眞番郡)의 치소(治所)이던 삽현(雪縣)까지의 거리가 7,640리』였다는 무릉서(茂陵書)의 기록과 대비하여 보려는 것이다.

그럼으로 무릉서(茂陵書)가 신채호(申采浩) 선생 등 주장(主張)대로 위서(僞書)라고 한다면, 여기 피력(披瀝)하려는 논지(論旨)도 〈재남방설(在南方說)〉의 범주(範疇)임으로, 필연적으로 시정(是正)되어야 하거나, 아예 논급(論及)할 필요도 없다는 것인즉, 필자로서는 그 진위 여부를 나름대로 딛고 넘어가야 할 입장(立場)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判斷)의 필요는 우선 무릉서(茂陵書)의 저자가 사마상여(司馬相如)였다는 확정(確定)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안동준(安東濬)씨등은 전기(前記)한바『사마상여(司馬相如)가 기술(記述)했다는 무릉서(茂陵書)』혹은『무릉서(茂陵書)의 저자(著者)라고 전하는 사마상여(司馬相如)』등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이토록 불확정적인 대상(對象)임으로 새삼 고찰(考察)을 할 필요를 느끼지는 않는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무릉서(茂陵書)라는 유령서(幽靈書)』라 단언(斷言)하였고, 이로서 〈재남방설(在南方說)〉을 부정(否定)하는 결정적(決定的)·논거(論據)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고금의 여러 연구(硏究)중에는 "신찬(臣讚)"에 대한 논급(論及)은 많았다. 그러나 원천적(源泉的)으로「그 저자(著者)는 능기(陵記)가 아니다」라고 주장(主張)된 일은 없었다. 유독 신채호(申采浩) 선생

만이 「그 저자(著者)가 사마상여(司馬相如)니 무릉서(茂陵書)는 위서(僞書)」라는 주장(主張)이다.

〈무릉(茂陵)〉은 본시 한무제(漢武帝)의 수릉(壽陵)이었다.

수릉(壽陵)이라 함은 고대(古代)의 제왕(帝王)들이 《동양에서 뿐 아니라, 이집트의 피라밋의 예(例)로도》 사후(死後) 저승에서의 영생(永生)들을 준비(準備)하느라, 생전에 스스로의 능묘(陵墓)를 조영(造營)하여 둠을 말한다.

한무제(漢武帝)는 17세에 즉위(卽位)하자, 다음해에 벌써 그의 어머니의 고향인 황토물 유유히 흐르는 "위수(渭水)"의 북안(北岸). 수도(首都) 장안[長安－현(現) 서안(西岸)]의 서북쪽 40㎞에 위치하는 지방에다 수릉(壽陵)을 택하고, 〈향(鄕)〉을 〈현(縣)〉으로 승격시키면서 〈무릉현(茂陵縣)〉이라 하고, 국고(國庫)를 기울여 새 수릉(壽陵)을 조영(造營)하기 시작하였고, 54년간 재위(在位)한 그는 수릉(壽陵) 조영(造營)을 기도(企圖)한지 52년후 자신이 명명(命名)한 그 〈무릉(茂陵)〉에 묻힌 것이다.

무릉(茂陵)을 중심으로 "원읍(園邑)"이 조성(造成)되었는데, 이릉(陵) 호위(護衛)를 겸한 기획도시(企劃都市)에는 천하의 부호(富豪)들과 특수층(特殊層)의 인사(人士)들을 수백호(戶) 정책적(政策的)으로 이주(移住)시켰다.

이것이 전한(前漢)의 말년(末年) 무릉현(茂陵縣)은 61,877호(戶) 인구 277,277명의 대도시로 발전되었다.

사마상여(司馬相如)가 무릉지방(茂陵地方)에서 살았다 함은 사료(史料)의 기록(記錄)이니 사실(事實)이다.

그러나 책 제목이 "무릉서(茂陵書)"라 하여 무릉지방(茂陵地方)에서 산적(生活)이 있는 사마상여(司馬相如)의 제작(製作)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일까?

신채호(申采浩) 선생의 뜻대로라면 사마상여(司馬相如)는 무릉지방(茂陵地方)을 상징(象徵)하는 인물(人物)임으로 무릉인(茂陵人)

으로서 혹은 능기(陵記)의 저자로서 황제보다도 31년전에 사망(死亡))한 사마상여(司馬相如)를 내세워 이로서 〈진번(眞番) 재남방설(在南方說)〉을 부정(否定)하는 착각을 한 것 같다.

대대(代代)로 사관직(史官職)을 계승(繼承)하여온 가문출신(家門出身)인 사마천(司馬遷 B.C 140~86)은 38세에 태사령(太史令)이 된 후 망부(亡父)의 유지(遺志)를 받들어 약 16년에 걸려 〈사기(史記) 130권〉의 대저술(大著述)을 남긴 중국사가(中國史家)의 비조(鼻祖)인데, 6세때 역시 태사공(太史公)이던 아버지 사마담(司馬談)이 무릉(茂陵)의 호위도시(護衛都市)인 "원읍(園邑)"으로 이사(移徙)를 하였으므로 13년간을 무릉(茂陵)에서 살은 적이 있다.

태사령(太史令)이던 그는 49세때 한제국(漢帝國)을 위하여 자진하여 흉노정벌(匈奴征伐)에 출정(出征)한 이릉(李陵)장군이 패전(敗戰)을 겪게 되면서, 억울한 입장에 몰리게 됨을 보고 의로운 진언(進言)을 하려다 황제[皇帝－무제(武帝)]의 오해를 사, 궁형(宮形)을 받아 불구(不具)의 몸이 되었지만, 곧 황제(皇帝)의노여움이 풀려, 환관(宦官)으로서 〈중서알자령〈中書謁者令)〉이 되어 내궁(內宮)에서 황제(皇帝)를 보필하는 최고급 관리(官吏)로 있었다.

무제(武帝)가 사망하였을 때(B.C 87) 사관(史官)이라 〈중서령(中書令)〉이던 사마천(司馬遷)은 59세였고 황제(皇帝)보다 1년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연 한무제(漢茂帝)의 능기(陵記)인 〈무릉서(茂陵書)〉를 누가 썼을까?

무릉서(茂陵書)의 저자(著者)가 누구이던, 고금(古今)의 대다수 학자(學者)들은 이 진번군(眞番郡)에 관한 19자 인용문(引用文)을 능기(陵記)의 한 구절(句節)로 인식(認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무릉서(茂陵書)〉란 무릉지방(茂陵地方)에서 살은 적이 있는 사마상여(司馬相如)로 연유(緣由)한 책 제목이 아니고, 분명

〈무릉(茂陵)〉과 그 당사자인 〈한무제(漢武帝)〉에 관한 기록일진대, 사마상여(司馬相如)의 사망연대(B.C 118)와 무릉서(茂陵書)와는 연관이 있을 수 없다.

이에 필자는 [진번군(眞番郡)의 치읍(治邑) 삽현(霅縣)의 존재와 전한(前漢)의 수도(首都) 장안(長安)으로부터 삽현(霅縣)까지의 거리는 7,640리에 달한다]는 무릉서(茂陵書)의 19자도 인용하면서 이 고찰(考察)을 계속하려 한다.

제4장 충청남도(忠淸南道)의 옥토지대(沃土地帶)는 두 곳

— 이와기찌(稻葉岩吉) 박사의 [충청도(忠淸道) 옥토설(沃土說)]에 대하여 —

양수경(楊守敬) 선생의 [금강유역설(錦江流域說)]을 부연(敷衍)한 이와기찌(稻葉) 박사는 『충청도가 이 구국[舊國—진번국(眞番國)]의 주부(主部)』라고 비정(比定)하였다.

그는 여러 논거(論據)를 들어 북방설(北方說)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는 한편 충청도를 지시(指示)하는 소이(所以)를 『조선반도(朝鮮半島)에 있어서의 옥토(沃土)는 평안도(平安道)인 대동강유역(大同江流域), 경기도(京畿道)인 한강유역(漢江流域)과 충청도(忠淸道)인 금강유역(錦江流域) 및 전라도(全羅道)인 낙동강유역(洛東江流域)을 들 수 있는데, 전이자[前二者—대동강·한강]는 위씨조선(衛氏朝鮮)에 할취(割取) 당하고, 최후의 유역(낙동강)은 삼한(三韓)에 점거(占據) 당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진번(眞番)은 자동적으로 이것이 금강유역(錦江流域)에 비정(比定)되는 것이며, 삼국(三國) 위시대(魏時代)에 전개한 마한(馬韓)은 틀림없이 진번국(眞番國)의 고지(古地)를 영유(領有)한 것이리라.

〈마한(馬韓)〉 그것을 가리켜 전한(前漢)의 초기부터 충청도에 의거(依據)하고 있었다는 관측(觀測)은 확증(確證)이 없다』 하였다.

고대문명(古代文明)이 강하(江河)를 끼고 옥토지대(沃土地帶)에

서 발전하였음은 필연적(必然的)이다. 과연 그렇다면 충청(남)도의 옥토지대(沃土地帶)는 금강유역(錦江流域)뿐이며, 충청도의 하천은 금강(錦江) 뿐인가?

전술(前述)한 바 차령산맥(車嶺山脈)은 충남을 양분(兩分)한다. 차령산맥(車嶺山脈)의 동남쪽을 흐르는 금강(錦江)－웅진강(熊津江)－웅천(熊川)은 충남의 옥토(沃土)의 2분지 1을 차지할 뿐 나머지 절반은 분수령(分水嶺)의 서북쪽인 내포지방(內浦地方) 즉, 아산만(牙山灣)·삽교천(揷橋川) 주변에 위치한다.

이와기찌(稻葉) 박사는 차령산맥(車嶺山脈)이 미치는 역사지리적(歷史地理的) 영향에 대한 인식(認識)이 부족하였던 것 같다. 게다가 「전라도인 낙동강」이라고 하리만큼 논법(論法) 또한 무리하였다.

이리하여 청말(淸末)의 지리학자(地理學者) 양(楊) 선생이 웅천(熊川)－금강유역(錦江流域)에서 삽현(霅縣)과 합자현(合資縣) 등을 찾으려 노력하였듯이 그 역시 충청남도의 절반만을 차지할 뿐인 금강유역(錦江流域)에다 [진번국(眞番國)]을 비정(比定)한 것이다.

양수경(楊守敬)의 발상(發想)을 부연(敷衍)시킨 그가 논리적(論理的)으로 〈진번(眞番) 재북방설(在北方說)〉을 배제(排除)하고, 충청도의 옥토지대(沃土地帶)라는 좁은 범위(範圍)까지 몰고 오면서도 삽교천유역(揷橋川流域)에 유의(留意)하지 못하였음은 아쉬운 일이다.

제5장 삽현(霅縣)은 깊고 짧은 하천변

－ 양수경(楊守敬)의 〈웅진강설〉과 이병도(李丙燾) 박사의 반론(反論)에 대하여－

양수경(楊守敬)과 그 학설(學說)을 부연(敷衍)한 이와기찌(稻葉岩吉)·이마니시(今西龍) 박사 등은 진번국(眞番國)을 〈충청도 금강유역〉에 추정(推定)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병도(李丙燾) 박사는 『한서지리지(漢書地理志)의

기술법(記述法)으로 미루어, 삽현(霅縣)이 위치하던 〈대수(大水)〉는 한리(漢里) 450리가 못되는 짧은 강이어야 한다. 그런데 금강은 700리가 넘는 장강(長江)이니, 삽현(霅縣)을 이 장강(금강)변에 위치시킬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서 〈금강유역설〉을 부인(否認)하고, 독자적인 남방설－황해도 자비령(慈悲嶺) 이남·한강이북설－을 펴면서 『재령강(載寧江)이야 말로 200리가 못되는 짧은 강(江) 이자,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박사의 이 〈짧은 강변〉이어야 한다는 주장(主張)은 그가 〈진번(眞番) 재(在)금강유역설〉을 부정(否定)하는 몇가지 논거(論據)중 특히 강조한 점이었다.

양수경(楊守敬)은 『일통지(一統志)에서 〈대수(帶水)는 웅진강〉이라 하였다.』 하여 금강유역(錦江流域)에 진번군(眞番郡)과 삽현(霅縣)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대수(帶水)〉라는 지명만큼 유동적(流動的)이고, 상대적(相對的)이고, 애매한 고유명사(固有名詞)는 드문것이 아닐까.

"일의대수(一依帶水)"라는 기분적(氣分的)인 말때문이다.

한국사(韓國史)에 나타나는 〈대수(帶水)〉는 고유하천명(固有河川名)이라고 볼 수 없으리 만큼 시대에 따라 다양하다.

한(漢)과 낙랑(樂浪)과의 관계에서는 대동강을 〈대수(帶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대방군시대(帶方郡時代)에는 한강(漢江)을 〈대수(帶水)〉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당(唐)의 전기(前期)에는 아산만(牙山灣) 그리고 백제도읍(百濟都邑)이 부여(扶餘)이던 무렵에는 금강＝웅진강＝웅천을 〈대수(帶水)〉라고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웅천〉 또한 그렇다.

〈고마족(族)－한족(漢族)〉과 연고(緣故)가 깊은 남한지방(南韓地方)에는 도처에 〈웅천〉이 있다.

김성호(金聖昊)씨는 하면서

개처(個處)의 『웅천』을 거론(擧論)하였을 정도다.

그렇지만 충남에서는 〈웅천〉하면 누구나 〈공주(公州)의 곰나루－고마나루〉에 얽힌 전설 때문에 〈웅진강＝금강〉을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이병도(李丙燾)박사와 오모도(大原利武)씨는 안성천변(安城川邊)에 있는 〈고무다리〉라는 지명(地名)을 〈웅교(熊橋)〉로 보고, 〈곰개－웅천(熊川)〉이라 하고, 이 〈웅천〉이 진국(辰國)과 진한(辰韓)을 경계(境界)하던 하천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한편 이병도(李丙燾)박사는 을 논하면서 홍성(洪城)의 금마천(삽교천) 또한 "곰개·웅천(熊川)"이라 하였다. 지방노인들이 이곳을 〈곰개〉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지명(地名)으로서 〈곰개〉＝웅천→금마천이라는 변천(變遷)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면 삽교천유역(揷橋川流域)의 지명(地名)으로서 "곰"이란 지명(地名)으로서 "곰"이란 지명(地名)의 기인(基因)이 된 곳은 어디인가?

(1) 우선 홍성읍〈고모리(古毛里)〉 즉, 〈고무랭이토성(土城)〉을 들 수 있다. 즉, "고모→고ㅁ→곰".

이곳은 옛 〈선돌(menhir)－현재는 부근에 인가가 없음.〉 주막 부근으로서 〈오목내〉를 중심으로 금마면 구룡산의 〈고무랭이 이중토성－고모루성(古牟婁城)〉, 금마면 장성리 만경산 〈당(唐)골의 테뫼〉, 테뫼산의 테뫼성(城)이 인접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반챙이성(城)〉을 중심으로 하는 〈오성(於城)이벌〉과도 연결되는 곳이다.

(2) 삽교천(揷橋川) 주변을 〈금마(金馬)〉 혹은 〈금마천(金馬川)〉이라고 지명(地名)하게 된 기인(基因)을 넓게 가려보면,

(a) 예산의 〈금오산(金烏山)－금오〉과 그 북록(北麓)이자 무한성천(無限城川) 부근인 〈거무실〉.

이 마을에서 일제(日帝)때로부터 6.25때에 걸쳐 고대고분[古代古墳－석곽묘(石廓墓)] 10여기(基)를 발굴(發掘)한 일이 있었는데, 철검(鐵劍)과 토기(土器)등이 출토(出土)되었다. 물론 기대하였던 청

동기가 아니었기에 호리꾼들은 이를 모두 버렸다.

발연리(勃然里)에도 큰 "말무덤"이 있다.

(b) 고덕(古德)과 합덕지방(合德地方)인 삽교천변 평야를 〈거문들〉. 합덕 〈거문들〉을 옥금리(玉琴里)

(c) 덕산 가야산을 〈거문산〉

(d) 고덕지방(古德地方)의 고지명(古地名)이 백제(百濟)때 금물현(今勿縣)－〈금물〉, 당(唐)이 점령하였을 때 기문현(己汶縣)－〈기문〉, 신라(新羅)가 차지하자 금무현(今武縣)－〈금무〉, 고덕국민학교 뒤산이 금후산(金後山)－〈금후〉, 이곳에 도읍(都邑)한 것이 마한(馬韓)의 …－〈감계〉. 이것들은 모두 "곰－웅(熊)－금마(金馬)"와 음통(音通)한다.

(e) 현재 〈삽현(霅縣)－충의대교(忠義大橋)〉의 북쪽인 하류를 〈삽교천〉. 이남인 상류를 〈금마천〉이라 하지만, 고산자(古山子) 김정호(金正浩)는 동국여지도(東國輿地圖)에서 그 상류를 〈금마천〉. 하류쪽을 〈사읍천〉이라 하였고, 옛 덕산읍지(德山邑志)에서는 이를 모두 〈사읍천〉이라 하였다.

그러니 〈사읍천〉 또한 금마천(金馬川)＝웅천(熊川)임이 분명하다.

이에 필자는 청국말기(淸國末期)의 대지리학자(大地理學者) 양수경(楊守敬)이 〈대수(帶水)＝웅천(熊川)＝웅진강(熊津江)＝금강(金江)〉으로 인식하고, 금강변(錦江邊)에서 찾으려던 〈진번군(眞番郡)과 그 치읍(治邑) 삽현(霅縣)〉을 다른 또하나의 〈웅천(熊川)〉. 즉 〈금마천(金馬川)＝웅천(熊川)＝사읍천(沙邑川)＝삽교천(揷橋川)〉 유역에서 찾아보려는 것이 본 장에서 의도(意圖)하는 바다.

필자로서는 [삽(霅)→삽(揷)]의 변천(變遷)을 두가지 입장에서 살필 수 있다고 본다.

그 하나는 [雲－雷→亩→挿]으로 추측하는 경우인데, 이에 관하여는 제6편 〈3장 挿字의 基因은 雲〉에서 상론(詳論)하겠다.

또하나는 [사읍(沙邑)]을 沙－사－새－신(新), 즉 "신읍(新邑)"으로 볼 수 있고, 진번(眞番)·번국(藩國)을 계습(繼襲)한 마한(馬韓)·목지국(目支國)의 새新 도성(都城) 〈목시성(城)－목지성(目支城)〉을 〈사읍(沙邑)〉으로 추측하는 경우다. 이에 대해서도 제6절 3장에서 재론(再論)하겠다.

2,090년전 위씨조선(衛氏朝鮮)의 왕검성(王儉城－평양성)을 함락(陷落)시킨 한(漢)의 육·해군.

그 7,000 수군(水軍)중의 일부 병력(兵力)이 이미 중국대륙(中國大陸)에 널리 알려져 있던 진번제국(眞番諸國)을 향하여 대동강구(大同江口)로부터 범선(帆船)으로 3~4일 거리에 不過한 아산만(牙山灣)으로 들어와 내포지방(內浦地方)의 진번제국(眞番諸國)을 정복(征服)하였다고 볼 대, 그 치소(治所)의 위치는 우선 선항(船航)의 편의(便宜)가 좋은 깊은 하천 연안(沿岸)이어야 한다.

게다가 삽현(雲縣)에 머물면서 진번군(眞番郡)을 통치하던 한(漢)의 관리와 군인이 한본국(漢本國)이나, 낙랑군(樂浪郡)과 교통(交通)을 함에는 선편(船便)을 이용함이 가장 편리하였을 것임으로, 치소(治所) 삽현(雲縣)은 외항(外航)의 편의(便宜)가 좋고, 수심이 깊은 연안(沿岸)이어야 한다. 이점 〈번성(藩城)〉의 외항(外港)이자 목지성(目支城)의 선착장(船着場)이 되는 현. 삽교읍 하포리와 그 대안(對岸) 고덕면 구만리의 경황(景況)을 제4편 1장에서 상술(詳述)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수경(楊守敬)과 이와기찌(稻葉)·이마니시(今西) 박사는 〈대수(帶水)〉=웅천(熊川)=웅진강(熊津江)=금강연안(錦江沿岸)에 삽현(雲縣)을 지목(指目)하였지만 그 누구도 당처(當處)는 끝내 지적(指摘)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본 논고(論考)에서 진번제국(眞番諸國) 중의 대표국이자 그 후신(後身)인 《번국(藩國)》과 그 후 1~2백년 사이에 이를 계승

한 《목지국(目支國)》의 주부(主部)였다고 제시하는 삽교천(揷橋川)은 60㎞ 남짓한 짧은 강이지만 서해안(西海岸)의 심한 干滿差 관계도 있어 전술(前述)한 바 짧고, 깊고, 외항(外航)의 편의(便宜)도 좋고, 충남 옥토(沃土)의 절반을 차지하며, 중국대륙(中國大陸)의 중심부와도 최단거리(最短距離)에 위치하니 일의대수적(一衣帶水的)으로 연계될 뿐더러, 이 하천의 상하류 연안지방(沿岸地方)은 석기시대(石器時代) 유물(遺物)과 청동기시대(青銅器時代) 유물(遺物)이 자주 출토(出土)되는 근(近) 30개소의 토성(土城)과 많은 지석묘(支石墓)가 있는 곳이니, 양수경(楊守敬)과 이와기찌(稻葉)·이마니시(今西) 박사뿐 아니라, 이병도(李丙燾) 박사의 주장(主張)까지도 충족시켜 주는 하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로서 웅천(熊川)＝금마천(金馬川)＝사읍천(沙邑川)＝삽교천(揷橋川)의 유역인 내포지방(內浦地方)을 진번(眞番)의 번국(藩國)과 한(漢)의 삽현(霅縣)과 마한(馬韓)·목지국(目支國)의 고지(故地)라고 추정하는 논거(論據)로 제시하는 바다.

제6장 번국(藩國)의 해산물(海産物)

— 이마니시(今西龍) 박사의 광역(廣域) 금강유역설에 대하여 —

한진번군(漢眞番郡)이 창치(創置) 30년을 넘기지 못하고 철수(撤收)하던 때, 원주한족(原住韓族)의 자치국(自治國)으로 되돌아간 남부 8현(縣)을 중국(中國)의 고대문헌(古代文獻)인 [설문(設問)]에서 『번국(藩國)』이라 하였다.

[설문(設問)]에서 『노어야출낙랑번국(鱸魚也出樂浪藩國)』이라한 "번국(藩國)"이 이것인데, 청(淸)의 단옥재(段玉裁)는 주왈(注曰) 『낙랑번국진번번음번(樂浪藩國眞番番音藩)』이라 하였다.

번국(藩國)은 "설문(設問)"에서 거론(擧論)한 100종의 어류(魚類) 중 노어(鱸魚)－농어, 접(鰈)－가재미·광어·홍어, 鰤－삼치·마어, 국(鮭)－청어, 사(鯊)－상어·모래무지, 역(鰈)－범치 등 6종의 명산지(名産地)라 하였다.

진번제국(眞番諸國)의 중심체인 번국(藩國)의 위치가 필자의 추상대로 충남의 서북부지방－아산만(牙山灣)의 상류인 삽교천유역(揷橋川流域)이라면 진번군(眞番郡) 15현(縣) 중의 남부 8현(縣)의 영역에 해당하는 구(舊) 진번국(眞番國)이니, 그 해안선(海岸線)은 아산만(牙山灣)에서 당진(唐津)·서산(瑞山)·태안(泰安)을 거쳐 천수만(淺水灣)인 홍성(洪城)·보령(保寧)에 이른다.

그러니 이곳이 상기 6종(種) 어류(魚類)의 명산지(名産地)어야만 한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의하여 소출(所出)의 명산어물(名産魚物)을 살펴보면,

이중 역어(鰈魚－범치)의 산출기록(産出記錄)이 없음은 "범치"의

군현명(郡縣名)	어류(魚類)					
	농어(鱸)	가재미(鮭)	삼치(鯖)	청어(鯖)	모래무지(鯊)	범치(鰈)
당진현(唐津縣)	○	○				
서산군(瑞山郡)	○		○	○	○	
태안군(泰安郡)	○		○	○	○	
홍주목(洪州牧)	○	○	○	○	○	
결성현(結城縣)	○		○	○	○	
보령현(保寧縣)	○	○	○	○	○	

지느러미에 손이 다면, 담수어(淡水魚)인 "쏘가리" 모양 살이 찢겨서 출혈이 심하므로 어부들은 "재수없는 고기"라 하여 그물에서 떼는 즉시 바다에 버리기 때문에 한국(韓國)에서는 옛날에는 먹을 기회가 없었다. 근년에서야 서산(瑞山)·대천(大川)·홍성시장(洪城市場)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로서도 삽교천(揷橋川) 유역이 번국(藩國)의 고지(故地)와 부합(符合)됨을 알 수 있다.

이마니시(今西龍) 박사는 번국(藩國)이 상기 6종(種) 어류(魚類)의 명산지(名産地)여야 함에 깊은 관심을 갖고 논급(論及)하면서도,

구체적(具體的)으로 이를 논증(論證)하지 못한 것은 진번국(眞番國)의 주부(主部)를 청(淸)의 양수경(楊守敬)이나, 이와기찌(稻葉) 박사와 마찬가지로 충남의 분수령(分水嶺)인 차령산맥(車嶺山脈)의 동쪽 내륙지방(금강유역)에 추정하였기 때문이다.

충남도 넓다. 이마니시(今西) 박사가 진번(眞番)의 강역(疆域)을 양(楊) 선생이나, 이와기찌(稻葉) 박사 보다도 더 넓게 남방(南方) 전북지방에까지 확대 추정(推定)한 것은 형세론적(形勢論的)으로는 타당한 추측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는 『진번국(眞番國)은 한족(韓族)의 나라』라는 견해였고, 게다가 금강(錦江)의 역사지리적(歷史地理的) 성격(性格)은 『남한웅천(南限熊川)』일 수 없기 때문이다.

웅진강(熊津江)은 연기(燕岐) 대평리(大平里)에서 공주땅으로 흘러들면서 불출세(不出世)인 천하절경(天下絶景) 《창벽(蒼壁)》을 이룬다.

이곳의 대안(對岸)들이 손보기(孫寶基)박사의 "석장리(石壯里)" 발굴유적이다.

백제고도(百濟古都) 공산성(公山城)의 북족 절벽을 스친 다음, 그 하류 2㎞도 못되는 연미산(燕尾山)에 부딛치면서 90도각(度角)으로 남선회(南旋回)를 한다.

"공주(公州)·고마나루ㅡ웅진(熊津)"이 바로 이곳이다.

여기서 머지않은 공주(公州)의 서쪽 대안(對岸), 청양(靑陽)·부여(扶餘)에 이르면 그 좌우안(左右岸), 동서안(東西岸)은 부족(部族)이나, "나라"의 경계(境界)일 수 없는 지세(地勢)를 이룬다.

더구나 백마강(白馬江)을 지나 강경(江景)으로 부터 군산(群山)에 이르는 남·북안(岸)은 이질적(異質的)일 수 없는 지리적(地理的) 여건(與件)이고, 후일(後日)의 백제문화권(百濟文化圈)의 중심부 또한 금마(金馬)·익산(益山)까지 넓혀져 있을 뿐 아니라, 고대유물(古代遺物) 또한 특수한 양상(樣相)을 보인다.

게다가 선항(船航)의 편의여부(便宜與否), 6종(種)의 어류(魚類)가 출산(出産)되는 연안(沿岸)의 추정에까지 유의하다 보면, 필연적

(必然的)으로 진번(眞番)을 금강하류와 전북지방의 해안(海岸)에까지 확대(擴大)·추정(推定)하기에 이른 것이리라.

이렇게 되고보면 대세적(大勢的)으로 전북지방에 까지 확장된 이마니시(今西) 박사의 위치추정(位置推定)의 불합리성(不合理性)이 노정((露呈)된다.

더구나 삼인학자(三人學者)는 모두 구체적(具體的)으로 군치(郡治) 《삽현(霅縣)》의 당처(當處)를 금강유역에서 고증(考證)하지 못한 약점(弱点)을 지녔다.

이리하여 이병도(李丙燾) 박사는 한 구암(韓 久庵)을 포함한 네 분 학자가 북방설(北方說)을 격파(擊破)한 논리(論理)의 바탕위에서서 독자적(獨自的)으로 《자비령(慈悲嶺)이남 한강이북》 땅에서 진번(眞番)을 추구(追求)하기에 이르른 것이 아닌가 한다. 이박사도 이 6종(種)의 어류(魚類)를 논급(論及)하였다.

제7장 거장안(去長安) 7,640리

『임둔군치동이현거장안(臨屯郡治東暆縣去長安) 6천1백3십리 15현(縣). 진번군치삽현거장안(眞番郡治霅縣去長安) 7천6백4십리 15현(縣)』.

무릉서(茂陵書)의 일문(逸文)인 이 간단한 40자의 기록(記錄) 중 「전한(前漢)의 수도(首都) 장안(長安)으로 부터, 진번군(眞番郡)의 치소(治所) 삽현(霅縣)까지의 거리는 7,640리(里)」라고 한 《진번(眞番)에 관한 19자(字)》 만큼 사학자(史學者)간의 견해(見解)가 엇갈린 구절(句節)도 드물 것이다.

이 거리(距離) 문제를 다룬 견해(見解) 중 특징있는 몇가지를 살펴보면

1. 진번(眞番) 재북방설(在北方說)로는

1) 김륜(金侖)은 임둔(臨屯)을 강릉지방(江陵地方)으로 보고, 진

번(眞番)은 이보다도 1,500여리(里)가 먼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 있을 수 없음으로 만주(滿洲)의 영고탑(寧古塔) 근처(할루빈 지방)가 아닐까 하였다.

2) 남구만(南九萬)은 『삽현(霅縣)은 동이현(東暆縣)에 비하면 더 멀기가 1,500여리(里)다. 동이(東暆)는 금일(今日)의 강릉(江陵)이니, 이로 미루어 볼 때 진번(眞番)은 요동(遼東)에서도 동북쪽으로 먼곳에 있었던 것 같다. 우리나라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하였다.

3) 신채호(申采浩)선생과 그 주장(主張)을 계승(繼承)한 안동준(安東濬)씨 등은 아예 『무릉서(茂陵書)는 위서(僞書)』라 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본편 3장에서 상술(詳述)한 바 있다.

4) 일본(日本)의 미찌오(那珂通世)박사는 진번군(眞番郡)을 압록강(鴨綠江)의 상류·만주(滿洲)땅인 동가강(佟佳江) 유역에 위치시키면서 『7,640리는 너무 멀다. 「7」자는 「5」자의 오기(誤記)일 것이다.』 하면서 원전(原典)보다 2,000리를 줄여, 즉 5,640리로서 자기(自己) 논술(論述)의 합리화(合理化)를 기도(企圖)하였다.

5) 일본(日本)에 있어서의 북방설학자(北方說學者)의 대표격(代表格)인 히라도리(白鳥庫吉)박사도 〈장안(長安)과 삽현간(霅縣間)의 거리문제(距離問題)〉에 있어서는 미찌오(那珂)박사의 견해(見解)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마니시(今西)박사에 의하면, 미찌오(那珂)박사의 북방설(北方說)은 한국(韓國)의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를 근거한 것이라 한다.

2. 〈남방설(南方說)〉의 주류(主流)는 금강(錦江)ㅡ웅진강유역설(熊津江流域說)로서

1) 청말(淸末)의 지리학자(地理學者) 양수경(楊守敬) 선생이 "회명헌고(晦明軒稿)"의 「왕사탁한지석지박의(汪士鋐漢志釋地駁議) 중에서 이를 처음 주장(主張)하였다.

2) 이와기찌(稻葉岩吉)박사「〈진번군의 위치〉. 역사지리 제24권 제6호 대정 3년 12월」는 양(楊)선생의 설(說)을 부연(敷衍)하여, 진번군(眞番郡)의 위치를『충청도 금강유역(錦江流域)의 옥토지대(沃土地帶)』라 하면서, 미찌오(那珂)박사의 설(說)에 대하여는『후한서(後漢書) 군국지(郡國志)에서 조선(평양)까지를「거낙양(去洛陽) 5천리」라 하였으니, 장안(長安)을 기점(基點)으로 한다면 5,950리는 될 것이다. 미찌오(那珂)박사가 진번(眞番)을 압록강(鴨綠江) 유역에 비정(比定)하자니 이러한 기우(杞憂)가 생기는 것이지 만약 더 남쪽에 둔다면 하등(何等) 심히 멀다고 의심(疑心)할 것이 없을 것이다.』『오인(吾人)은 한대(漢代)에 있어 반도(半島)로 통하는 도정(道程)의 정세(情細)를 아는 바 없다. 그러나 무릉서(茂陵書)에 따르면, 진번(眞番)은 임둔(臨屯)보다도, 조선보다도, 훨씬 남쪽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하였다.

3) 이마니시(今西)박사「〈사림 제1권 제1호 대정 5년 1월〉 진번군고」는『무릉서(茂陵書)는 —(중략)— 가장 귀중(貴重)히 할 것으로서, 임둔군(臨屯郡)이 동이(東暆)에 치(治)하였음도 이 단편(斷片)에 의하여 비로서 알 수 있게 된 것이며, 따라서 임둔(臨屯)의 위치를 확정(確定)지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에 의하면 임둔군치(臨屯郡治) 동이현(東暆縣)은 장안(長安)에서 부터 6,130리(里) 거리이고, 진번군치(眞番郡治)인 삽현(霅縣)은 7,640리 거리이다.』

진번군(眞番郡) 치소(治所)는 임둔군(臨屯郡) 치소(治所)보다 멀기가 실로 1,510리다. 동이(東暆)는 금일의 함경도 안변(安邊) 부근보다 북쪽일 수는 없다.

장안(長安)으로부터 이군(二郡)여의 통로는 요동(遼東)을 경유(經由)한 것인즉 삽현(霅縣)은 안변(安邊) 부근보다도 요동(遼東)

에 가까운 동가강유역(佟佳江流域)에 위치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삽현(霅縣)은 평양(平壤)에서 안변(安邊)에 이르는 것보다도 더 먼 평양(平壤)의 남쪽에 있었던 것이다.』 하였다.

4) 그러나 이병도(李丙燾) 박사는 같은 남방설(南方說)이면서도,

『무릉서(茂陵書)의 기사(記事)와 같은 단간(短簡)한 것이 전하는 리수(里數)에 구니(拘泥)되어서는 안된다.』『삽현거장안(霅縣去長安) 7,640리』 운운의 리수(里數)는 전언(前言)한 바와 같이 실은 생각해 볼 거리로서 그대로 신용(信用)을 했다가는 상술(上述)의 근본재료(根本材料)의 기사(記事) 모든 것을 부정(否定)하지 않으면 안되는 꼴이 되니까, 이 리수(里數)는 전사(轉寫)의 오(誤)거나, 무엇인가 잘못이 있는 것이라 봄이 옳다.

선진학자(先進學者)중에는 「7천」을 5천의 오사(誤寫)가 아니겠느냐라는 설(說)을 편 사람도 있었지만, 여(余)는 「7천」은 6천의 와(訛)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한 단간영묵(斷簡零墨)에는 잘못이 있기 쉽다. 요컨데 이러한 불안심(不安心)한 영세(零細)한 숫자를 유일한 근거(根據)로 삼아서는』 안된다.

『무릉서(茂陵書)의 소위 「삽현거장안(霅縣去長安) 7천육백4십리」의 리수(里數)는 기술(旣述)한 바와 같이 6천 운운의 오기(誤記)가 아닐까』 하였다.

그분은 이러한 관념적(觀念的)인 논리(論理)를 전개함으로써 「거장안(去長安) 7,640리」를 중요논거(重要論據)로 삼거나, 혹은 이를 시인(是認)함으로서 《진번(眞番) 충청도(忠淸道) 금강유역설(錦江流域說)》을 편 양(楊)·이와기찌(稻葉)·이마니시(今西) 세분 학자의 주장(主張)을 극구 부정(否定)함과 동시에, 장안(長安)과 삽현간(霅縣間)의 거리를 1,000리 정자단축(訂字短縮) 시킴으로서 《황해도 자비령(慈悲嶺)이남 한강이북설》을 추정(推定)하였다.

5) 이게우찌(池內宏) 박사〈史學雜誌 제57편. 제203호 소화 23년 3월〉는

진번군(眞番郡)의 강역(疆域)을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지방」이라고 추정(推定)하면서, 치소(治所) 삽현(霅縣)의 위치는 이마니시(今西) 박사의 견해(見解)와 마찬가지로 「아마도 금강(錦江)의 유역에 있었던 것일거라고 상상(想像)한다.」 하였다. 그러나 그 고거(考據)는 제시(提示)함이 없다.

또 그는 신찬(臣瓚)이 무릉서(茂陵書)에서 인용(引用)한 『거장안(去長安) 7,640리』가 진번(眞番)의 위치를 가리는데 지원(支援)이 됨을 말하면서도 이를 추구(推求)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학설(學說)은 이마니시(今西) 교수의 주장(主張)과 흡사(洽似)하지만 충청도 중에서 충청북도지방을 제외 축소(縮少)하는 견해(見解)인데, 특기(特記)될 일은 그 주부(主部)로 후일 귀실복신(鬼室福臣) 등 백제부흥(百濟復興)이 활약(活躍)한 지방을 주목(注目)한 점이다.

백제패망(百濟敗亡) 당시 그 부흥군(復興軍)의 항전지(抗戰地)는 넓게는 충남지방과 전북지방이다. 그러나 최종항전지(最終抗戰地)는 임존성[任存城－봉수산(鳳首山)]을 중심(中心)으로 하는 지방이었으니 현 예산·홍성·청양군 지방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지역(地域)을 진번(眞番)의 주부(主部)라고 추정(推定)한다면 이게우찌(池內) 박사의 견해(見解)와 필자의 추정은 일부분은 합치(合致)한다.

그러나 진번(眞番)의 강역(疆域)을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전역으로 인식(認識)하는 이게우찌(池內)박사의 견해(見解)와 충청남도 중의 약 2의 1 면적에 해당(該當)하는 내포지방(內浦地方)에 진번군(眞番郡)의 남부 8현(縣)만을 배치(配置)하는 필자의 견해사이에는 큰 차이(差異)가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게우찌(池內)박사와 이마니시(今西)박사가 진번(眞番)의 영역(領域)이라고 추정하는 충남과 전북지방 중 차령산맥(車嶺山脈)의 동남쪽인 금강유역(錦江流域)의 충남내륙지방(忠南內陸地方)과 금강(錦江)의 하류, 그 남과 북. 그 좌우안(左右岸)이면

서도 행정구역(行政區域)을 달리할 뿐인 전북지방을 《진번방진국(眞番旁辰國)》인 진국(辰國)으로 지목하는 바다. 이에 대하여는 제7편에서 재론(再論)하겠다.

6) 스에마스(末松保和) 박사〈古代学 제1권 제3호 소화27년 7월 39년 5월 訂正〉의 영산강유역설

진번군재남방설(眞番郡在南方說)의 대부분이 충청도를 그 중심으로 인식(認識)하는 견해임에 반하여 스에마스(末松)박사는 한반도(韓半島)의 최서남단(最西南端)을 진번군치(眞番郡治)의 후보지(候補地)로 내세운다.

그는 『만약 진번군(眞番郡)의 군치(郡治)가 영산강 하류지방에 있었다고 한다면, 군(郡)의 영역(領域)은 그 곳으로 부터 북방과 동방으로 확장(擴張)되어 북은 낙랑군(樂浪郡)의 남경(南境)과 접하고, 동은 척량산맥(脊梁山脈)에 가로막히는 범위(範圍)였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 사이에 15현(縣)이 배치(配置)되고 척량산맥(脊梁山脈)의 넘어쪽이 소위 『진번방진국(眞番旁辰國)』이 된다.』는 독특(独特)한 남방설을 폈다.

그러면서 진번(眞番)에 관한 사료(史料)로는 무릉서(茂陵書)의 〈일문(逸文) 19자〉가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인식(認識)이었기 때문에 그 〈거장안(去長安) 7,640리〉를 철저하게 추구(推究)하였다.

동시에 고금(古今)의 제학설(諸學說) 중 이 일문(逸文)을 인용(引用)한 모든 연구성과(研究成果)도 비판(批判)하였다.

그는 「지금까지의 재남방설(在南方說)은 비교적 문헌고증(文獻考證)의 결과이긴 하지만, 아직도 대세론(大勢論)과 형세론(形勢論)이 혼재(混在)되어 있음으로 이를 배제(排除)하여야만 치소(治所) 삽현(霅縣)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방법론(方法論)이다.

한대(漢代)의 1리(里)는 주척(周尺) 300보이고, 이조시대(李朝時代)의 1리(里)는 중국명대(中國明代)의 1리(里)와 같은 주척(周尺) 360보 이니, 이조(李朝)때의 1리(里)는 한리(漢里)보다 2할(割)이 길다.

스에마스(末松) 박사는 이를 기준(基準)으로 여러 문헌(文獻)에서 가려낸 지역간(地域間)의 이정(里程)을 한리(漢里)로 환산하는 수고(手苦)를 거듭하고, 이로서 대상지역간(對象地域間)을 비정(比定)하고 있지만 전한리(前漢里)와 후한리(後漢里) 사이에도 거리차(距離差)가 있다하니－전한리(前漢里) 497.7m, 후한리(後漢里) 414.72m－, 그 분 스스로『그것이 어느 때의 측정(測定)에 의한 것인가가 문제(問題)』라고 한 것처럼 이에 의한 거리도 대체(大體)의 기준(基準)은 될지언정 정확(正確)한 비정(比定)의 기준(基準)이 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보다도 더 큰 문제(問題)가 있다.

장안(長安－현. 서안)으로부터 7,640리라는 무릉서(茂陵書)의 이정(里程)이 2,000년전 어느 노순(路順)을 경유(經由)한 거리냐 함은 그 누구도 확언(確言)할 수 없는 난제(難題)를 안고 있는 것이다.

여하튼 스에마스(末松) 박사는 이병도(李丙燾) 박사가 실학자(實學者) 이래의 〈임둔군치(臨屯郡治) 강릉지방설〉을 버리고, 새로이 추론(推論)한 〈함남(咸南)·덕원군(德原郡)지방설〉을 기준(基準)으로 이 〈덕원(德原)－원산(元山)지방〉으로부터 1,500리가 더 먼 위치인 경주(慶州)지방이 진번군치(眞番郡治)의 후보지(候補地)가 될 수도 있다 한다. 그러나 그보다는 서해안쪽의 낙랑(樂浪)으로부터 1,500리가 더 먼 곳인 영산강하구(榮山江河口)지방이 더 유리한 후보지(候補地)라고 제시(提示)하였다. 또 그는 미찌오(那珂) 박사와 이병도(李丙燾) 박사가 무릉서(茂陵書)의 「7,640리」를 2,000리 혹은 1,000리 감축정정(減縮訂正)하려는 태도를 못마땅하여,『50보(步)로 100보(步)』라고 평을 할이 만큼 〈무릉서(茂陵書)의 19자〉를 절대기록(絶對記錄)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 무릉서(茂陵書)의 「7,640리」라는 기록에 대한 선학(先學) 여러분의 학설을 살피면서 알게 되는 것은, 장안(長安)에서 삽현(霅縣)에 이르는 노순(路順)이 어디를 경유(經由)한 것인지 기록상으로는 알 길이 없다는 사실(事實)이다.

그러나 번국[藩國－진번국(眞番國)]의 위치가 필자의 소견대로

충남의 서북부인 내포지방[內浦地方－주부(主部)가 삽교천(揷橋川) 유역]이었다면,

a) 그 도성(都城)은 현. 예산군 삽교읍 수촌리인 〈반챙이토성－번성(藩城)〉부락이고, 이 도성(都城)은 〈안다락미〉와 〈밖다락미〉의 두 평지토성(平地土城)을 위성(衛城)으로 거느리고 있었다.(현. 삽교읍) 또 여기에는 〈능(陵)미〉라는 큰 분묘(墳墓) 3, 4기(基)도 남아있다.

b) 그러니 한진번군(漢眞番郡)의 치소(治所) 삽현(霅縣)의 읍성(邑城)은 진번제국(眞番諸國)의 대표적도성(代表的都城)인 이 〈반챙이성(城)〉을 26년간 강점(强占) 사용(使用)한 것이고,

c) 그 외항(外港)은 번성(藩城)의 북방 약 15리(6㎞) 즉, 삽교천의 하류인 현. 삽교읍 성리. 즉, 〈목시부락의 평지토성(平地土城)－목지성(目支城)〉이었고,

d) 이 〈번국(藩國)의 목지성(目支城)〉이 그 후 A.D 2~3세기 사이에 마한(馬韓)의 목지국(目支國)의 수도(首都)－새읍－〈사읍(沙邑)〉으로 계승(繼承) 발전(發展)된 것이라면,

북방설쪽인 미찌오(那珂通世) 박사와 히라도리(白鳥庫吉) 박사가 추정하는 위치. 즉, [압록강(鴨綠江)의 상류·동가강변(佟佳江邊)인 만주(滿洲)땅]으로부터 이곳 삽교천변(揷橋川邊)까지는 약 2천백여 한리(漢里) 거리이고,

남방설중의 이병도(李丙燾) 박사가 추정(推定)하는 재령강변(載寧江邊)으로 부터, 삽교천변(揷橋川邊)까지는 약 8백 한리(漢里)는 되는 것이니, 미찌오(那珂)박사의 견해(見解)처럼 무릉서(茂陵書) 중의 『7천』은 「5천」의 오사(誤寫)라 하며, 고문헌(古文獻)의 기록(記錄)을 〈2천리〉 줄이려 한다던가, 이병도(李丙燾) 박사의 견해와 같이 「7자」는 「6자」의 「전기(轉記)의 와(訛)」라 하며, 희귀한 고문헌(古文獻)의 기록을 천리 단축(短縮)키 위하여 정자(訂字)를 할 필요(必要) 또한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필자로서 〈거장안(去長安) 7,640리〉의 노정(路程)이 어느 지

점(地點)을 경유(經由)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사실(事實)에 힘입어 자유로운 추상(推想)이 용납된다면 이병도(李丙燾) 박사와 스에마스(末松)박사의 연구성과를 수용(授容)하며, 고절(考節)을 다음과 같이 결론지으려 한다.

이병도(李丙燾) 박사는 임둔군치(臨屯郡治) 동이현(東暆縣)을 고증(考証)하면서 실학자(實學者) 이래의 전설적(傳說的)인 위치 〈강릉지방설〉을 배격(排擊)하고, 함남(咸南)·덕원군(德原郡)지방(원산지방)에 이를 논증(論証)하였다.

이에 대하여 스에마스(末松) 박사는 이병도(李丙燾) 박사가 임둔(臨屯)을 함남(咸南) 원산(元山)지방에 추정한 것은 무릉서(茂陵書)의 「거장안(去長安) 6,130리」라는 거리 기록과 대체로 부합(符合)되는 것이니, 이(李)박사의 이 새 고증(考證)은 타당한 것이라고 동조(同調)하는 동시에, 임둔(臨屯)에 관한 무릉서(茂陵書)의 〈6,130리〉를 기본사료(基本史料)로 택한 실증적(實證的) 연구(硏究)는 연구법상의 진보(進步)라고 찬양(讚揚)하였다.

한편 이와기찌(稻葉)박사는 일찌기 요동(遼東)~낙랑노순(樂浪路順)을 위원(渭原)에서 압록강(鴨綠江)을 건너, 평양(平壤)으로 향하는 것으로 추측한 논문(論文)이 있었다.

이는 "명도전(明刀錢)"이 출토되는 지점(地點)의 연결(連結)을 한대(漢代)의 교통로로 보는 추측과 도강(渡江)위치로서 의주(義州) 부근의 넓은 하구지대(河口地帶)를 피하는 견해였다. 일리(一理)가 있다고 생각된다.

필자도 요동(遼東)에서 진번(眞番)으로 통하는 노순(路順)을 동가강[佟佳江－혼강(渾江)] 유역인 제2현토군(玄菟郡)의 치읍(治邑) "흥경로성(興京老城)"을 거쳐 동가강(佟佳江)이 압록강(鴨綠江)과 합류되는 지점(地點)에서 초산(楚山)으로 건너 위원(渭原)과 강계(江界)땅을 거쳐, 안주(安州)와 낙랑(樂浪)을 지나는 것으로 추측한다.

필자가 초산(楚山)을 도강지점(渡江地點)으로 택하는 이유는 이지방교통로에 밝은 이문현(李文鉉)옹의 설명에 따르는 것이다. ―이(李)옹은 이조(李朝) 말 초산군수(楚山郡守)를 역임(歷任)한 분으로 본댁은 서울 명륜동, 6.25 당시 70여세였으며, 예산·덕산지방에 와서 피난생활을 하였다.

「압록강(鴨綠江)은 초산(楚山) 하류 10리쯤 되는 곳에서 만주(滿洲)에서 흘러오는 큰 강(동가강)과 합류한다. 이 합류점(合流點)에서 부터 하류(下流)는 수량이 많고, 깊어서 건널 수가 없다.

그래서 옛부터 도강(渡江)위치로는 초산지방(楚山地方)을 택하는 것이 순로(順路)다. 초산(楚山)의 수심은 홍수때를 제외(除外)하고는 젓가슴을 넘지 않으며, 잔잔함으로 옷을 벗어 머리에 이고, 알몸으로 건너면 위험(危險)이 없다.

그래서 중국인(中國人)이나 한국인(韓國人)을 막론하고 넘나들며 서로 장사를 한다. 강에 낚시를 담그면 이어(鯉魚―잉어)와 쏘가리가 잘 잡힌다.」는 것이었다.

또한 40자 한구절로 된 무릉서(茂陵書)의 임둔(臨屯)과 진번(眞番)에 관한 일문(逸文)은 임둔(臨屯)길과 진번(眞番)길은 한반도에 들어와서도 동일 노선(路線)을 가다가 어느 지점(地點)에선가 갈라지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또 스에마스(末松) 박사도 임둔군치(臨屯郡治)로 통해서 고증(考證)하였음에서다.

이 분들이 기준(基準)으로 삼은 이정(里程)을 수용(授容)하면, 압록강(鴨綠江) 중류역(中流域)에서 평양(平野)으로 통하는 길은

a) 만포(滿浦)에서 강계(江界)를 거쳐 평양(平壤) 약 900리

b) 위원(渭原)에서는 약 700리

c) 초산(楚山)에서는 약 760리

d) 벽동(碧潼)에서는 약 550리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c)노순(路順)을 택하면『현토(玄菟)의 흥경노성(興京老城)에서 동가강(佟佳江)을 끼고 내려와 초산(楚山)에서 강을 건너고, 위원(渭原)을 지나, 강계(江界) 부근에서 함경도로 가는 길(임둔로―臨屯路)과 갈라

서서』《어천도(魚川道)》를 따라 낙랑(평양)에 도달하는 것으로 추측하면,

a) 현토(玄菟)-초산(楚山) 450명리(明里) ……(540漢里)
b) 초산(楚山)－평양(平壤) 760한리(韓里) ……(912漢里)
c) 평양(平壤)－서울 600한리(韓里) ……(720漢里)
d) 서울－삽교(揷橋) 350한리(韓里) ……(420漢里)

계 2,160리. 즉, 한리(漢里)로 2,590리가 된다.

여기에 장안(長安)에서 현토군치(玄菟郡治)까지의 4,950 한리(漢里)를 더하면《7,540리》에 달한다.

필자도 스에마스(末松)박사가 기준으로 한 리정(里程)과 그 연구를 수용(授用)하였다. 그런데도 요동(遼東) 낙랑(樂浪)간의 거리에 큰 차이가 있음은 스에마스(末松)박사의 노순(路順)은 요동(遼東)에서 의주(義州)로 의주(義州)에서 평양(平壤)사이는《대동도(大東道)》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진번군치(眞番郡治) 삽현(霅縣)의 위치를 가림에 있어 신찬(臣瓚)이 한서(漢書)에 주(註)를 쓰면서 인용(引用)한『무릉서(茂陵書)의 19자－진번군치삽현(眞番郡治霅縣) 거장안(去長安) 7천6백4십리 15현』은 고금(古今)의 연구가(硏究家) 누구나가 관심(關心)한 전거(典據)였다. 그 때문에 자신들이 추정(推定)한 위치를 이 거리기록(距離記錄)과 대조(對照)하면서 「영고탑(寧古塔)지방설」 혹은 「고문헌(古文獻)의 오기(誤記)」라고 말하기까지 되는 것이다.

필자가 위에서 집계(集計)한 장안(長安)과 삽교간(揷橋間)의 거리《7,540리》는 무릉서(茂陵書)의《7,640리》와 대략 부합(附合)된다.

이로서 삽교천유역(揷橋川流域)인 내포지방(內浦地方)을『진번(眞番)의 번국(藩國)』이자,『한(漢) 진번군(眞番郡)의 삽현(霅縣)』의 고지(故地)라고 단론(斷論)하는 바다.

제6편 삽교지명고(揷橋地名考)ㅡ
언음적(言音的)인 고찰(考察)

1장 삽교(揷橋)

2장 삽교천(揷橋川)

3장 삽(揷)자의 기인(基因)은 삽(霅)

ㅡ 사읍천(沙邑川)은 〈서내ㅡ삽〉에 대한 차음표기다. ㅡ

제6편 삽교지명고(揷橋地名考)

— 어음적(語音的)인 고찰(考察) —

제1장 삽교(揷橋)

삽교면(揷橋面)은 1914년 일제때 구(舊) 예산군(禮山郡)·대흥군(大興郡)·덕산군(德山郡)을 통합하여 새로이 예산군(禮山郡)으로 개편하던때 옛 덕산군(德山郡) 중의

a) 대덕산면(大德山面) [1리·3리·수촌리(반챙이지방)·2리·목욕리(沐浴里)]

b) 대조지면(大鳥旨面) [상돌리·상리·하리·하돌리·역중리·평리·성산리·상룡두·가마소·하룡두·창정리]

c) 장촌면(場村面) [가좌동·두리·목리(현 성리·목시ㅡ목지)·석곡리·현대리·하촌]

d) 거등면(居等面) [상리·궁리·하리·포리]의 일부등 4개면을 통합하여 신설된 면명(面名)인데 1973년 읍(邑)으로 승격(昇格)하였다.

옛 덕산읍지(德山邑志)에 〈사읍천ㅡ沙邑川〉이 보이고, 그 후의 예산군지(禮山郡志)에 〈삽천교〉가 보이니, 옛날 〈삽〉 혹은 〈사읍〉이란 지명이 있었거나, 냇물 이름이 〈삽내〉·〈삽천〉 혹은 〈사읍천〉 등으로 불렀음이 분명하다.

다시 말하여 〈삽교천〉이라 함은 〈삽다리ㅡ삽교〉가 있어서 얻어진 내 이름이 아니고, 원래 〈사읍천(沙邑川)ㅡ삽천ㅡ삽내〉라는 이름의 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삽교읍 하포리와 성리 부근의 삽교천을 《서내》라고 함이 이것일 것이다.

그러니 이 〈삽〉을 가릴 수 있다면 곳 〈삽교〉란 지명의 근원(根源)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옛 기록에서는 이를 발견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 지명중 〈삽(霅)〉자는 고사하고, 〈삽〉이란 음을 가진 지명은 참으로 희소(稀少)하다.

전국의 전화국이 있는 정도(程度)의 마을 지명으로는 오직 예산군의 〈삽교ㅡ霅橋〉 하나가 있을 뿐이다.

우랄알타이어계에서 ㅅ, ㅈ, ㅊ은 공용되는 음(音)이라기에 〈삽〉, 〈잡〉, 〈참〉 음(音)을 가진 지명은 없을까 하고, 찾아 보았지만 이런 음의 지명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토록 희소한 음(音)의 〈삽〉이란 지명을 우리예산의 〈삽다리〉는 어이하여 갖게된 것일까?

제2장 삽교천(揷橋川)

삽교천(揷橋川)은 충남의 분수령(分水嶺)인 차령산맥(車嶺山脈)의 서쪽, 예산·청양·홍성에서 발원(發源)하여 아산만(牙山灣)으로 흘러드는 60㎞ 남짓한 간만의 차가 6m나 되는 짧은 강이다.

그러나 특색있는 서해의 조석(潮汐)물은 삽교천에서는 "삽다리ㅡ충의대교(忠義大橋)" 부근인 〈배나다리〉까지, 그 지류(支流)인 성리천(城里川)에서는 응봉면(鷹峰面) 〈선배〉부근까지 무한천에서는 무한산성 아래까지 거슬러 올라온다.

강 길이가 짧은 지라, 예나 지금이나 지리학자(地理學者)나 사학자(史學者)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지만 홍성·청양·예산·당진·아산의 넓은 평야. 즉, 충남도내 옥토(沃土)의 절반을 적셔주는 중요한 하천이건만, 근년들어 아산만땜과 삽교천땜이 완성되고 서야 각광(脚光)을 받게 되었다.

이 내는 아산만으로 흘러든다. 아산만의 어구(於口)에는 한진포(漢津浦)와 당진포(唐津浦)가 있어 중국대륙(中國大陸)과의 옛 관계를 암시(暗示)한다.

아산만으로 흘러드는 하천으로는 삽교천(揷橋川)과 무한천(無限川)뿐 아니라, 아산군(牙山郡)을 흐르는 곡교천(曲橋川)과 평택평야(平澤平野)를 흐르는 안성천(安城川)도 있음은 주목할 일이다.

고산자(孤山子) 김정호(金正浩)는 대동여지도에서 삽교천의 상류를 "금마천(金馬川)", 그 하류를 "사읍천(沙邑川)"이라 기재하였고, 옛 덕산읍지(德山邑志)에서는 그 전류(全流)를 「사읍천(沙邑川)」이라 기술(記述)하고 있다.

또한 그 후의 예산군지(禮山郡志)에서는 「삽천교(霅川橋)」가 보이고, 현재는 삽교천의 "삽교(揷橋)－충의대교(忠義大橋)"로부터 상류부분을 "금마천(金馬川)"이라고 한다. 홍성군 금마면과 예산군 삽교읍의 경계(境界)를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미루어 "삽교천(揷橋川)"이라 함은 다리(교량)가 있어서 얻어진 내 이름이 아니고, 원래 [삽내·서내·사읍천(沙邑川)·삽천(霅川)·揷川] 등으로 불려지다가, 후일 이에 다리가 놓여짐 으로서 [삽내다리·삽천교(霅川橋)·삽교(揷橋)·삽교천(揷橋川)]이러한 변천(變遷)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금마천지방(金馬川地方)인 〈원반챙이지방〉에 태고적 큰 마을이 있었는데, 큰 홍수로 폐촌(廢村)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음은 제1편에서 언급(言及) 하였거니와, 50~60년전 〈원반챙이부락〉의 대안 부근에서 사금(砂金)을 채취한 적이 있었다. 이때 현재의 하상(河床)보다 대략 5m쯤 깊이 위치에서 입목상태(立木狀態)인 아름드리 침향(沈香) 여러구를 캐낸 일이 있었다.

그 근간(根幹) 위치가 옛 평지(平地)에 해당할 것이고, 당시의 하류가 이보다 3~4m 깊었다고 가상(假想)할 때, 약 2,100년전인 한군(漢軍)의 침입(侵入) 때, 혹은 약 1,400년전인 당군(唐軍)의 침입(侵入)때에는 이 지점까지 선항(船航)이 가능하였을 것임이 추측된다.

이 지방의 지질(地質)은 노쇄기(老衰期)에 속한다. 그러니 매년 2㎝ 정도의 토사퇴적(土沙堆積)이 있었다고만 가상(假想)하더라도

1,000년간이면 하상(河床)이 20m는 높아질 수 있다는 계산이 된다.

30~40년전까지도 삽교천 부근에는 크고, 깊은 사행호(蛇行湖)가 여러곳 남아 있었다.

〈원반챙이부락(삽교읍 수촌리)〉앞 금마천(삽교천)의 수심이 명(明)꼬리 하나가 풀려 들어 간다는 전설이 있음도 제3편에서 기술(記述)한 바 있거니와,

1984년 이 부락의 양수장(揚水場)·집수지공사(集水池工事)때 지하 약 10m 깊이의 깨끗한 황토속에서 큰 소나무 둥치가 출토(出土)되었음에도 토사(土砂)의 심한 퇴적현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약 60년전까지도 이 부락에서 대안(對岸)인 〈금마들〉로 건너가자면 "거룻배"를 타야 했다는 사실과 현금(現今)의 이곳 하천상황을 대비할 때, 어린 세대들은 꿈같은 이야기라고 말할 것이다.

고구려(高句麗)의 광개토왕이 휩쓸고 지나간(A.D 396) 고모루성(古牟婁城)이 이곳 〈원반챙이성(城)〉에서 상류쪽으로 4㎞쯤 되는 곳에 있다.

〈오목내〉에 둘러싸인 멋진 〈고무랭이 이중토성〉이 그곳이다.

〈고무랭이성(城)〉의 지세(地勢)가 이 지방을 침공(侵攻)한 당병(唐兵)으로 하여금 「지심(支潯)」이란 주명(州名)을 갖게 하였고, 〈고무랭이성(고모루성)〉의 "고무"라는 음(音)이 [고무-곰-금마(金馬)-고모리(古牟里)]로 변천(變遷)한 것임을 제5편 5장에서 살핀 바 있다.

〈금마(金馬)〉와 〈곰-웅(熊)〉과를 연관시키는 학설(學說)이 타당한 것이라면, 삽교천의 상류인 금마천(金馬川)도 〈웅천(熊川〉)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이병도(李丙燾)박사는 홍성 금마천의 속명(俗名)은 「곰개」이고, 안성천(安城川) 또한 〈웅천(熊川)〉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아산만의 상류인 안성천이 〈웅천〉이고, 같은 아산만의 또하나의 상류인 삽교천이 또한 금마천 즉 〈웅천〉이라면, 공주의 웅

진강(熊津江), 전북 익산(益山)의 금마(金馬)가 모두 "곰"과 통음(通音)하니, 평택평야(平澤平野)·예당평야(禮唐平野)·금강평야(錦江平野)·전북평야(全北平野)가 모두 동일한 "고마족(族)" 즉 "한ㅡ한족(韓族)"의 분포지역 이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 삽교천 유역에는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 이래의 수많은 유적. 즉, 30여 토성, 정교한 청동기류(青銅器類)가 다수(多數) 출토되며, 백제사찰(百濟寺刹)의 유허(遺墟)가 집중되어 있음도 제4편 1장에서 언급(言及)하였다.

이것들중 본편과 연관하여 유의(留意)될 일은 〈원반챙이(혹은 반챙이)〉 부락에는 넓은 평지토성과 선돌(menhir)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보이는 큰 석불(石佛)과 지석묘(支石墓)가 있다. 또 〈안다락미〉와 〈밖다락미〉 두 부락에는 평지토성(平地土城)과 지석묘(支石墓) 그리고 "능(陵)미"라는 큰 분묘(墳墓)가 3, 4기(基) 남아있고, 〈용갈미토성〉 마을에도 선돌을 개각(改刻)한 것으로 보이는 큰 입불(立佛)이 있다.

또한 이 지방에서는 백제이전(百濟以前) 시대 것으로 보이는 토기파편(土器破片)들도 많이 보인다는 사실이다.

제3장 〈삽(揷)〉자의 기인(基因)은 〈삽(雪)〉

ㅡ 사읍천(沙邑川)은 〈서내ㅡ삽내〉에 대한 차음(借音) 표기다. ㅡ

2년간(B.C 108~107)에 걸친 침략전쟁(侵略戰爭) 끝에 위씨조선국(衛氏朝鮮國)을 정복(征服)한 한무제(漢武帝)의 해군(海軍)은 대동강구(大同江口)로 부터 범선(帆船)으로 불과 3~4일 거리인 아산만(牙山灣)으로 들어와 조석(潮汐)물 따라 〈삽내〉를 거슬러 올라와 〈반챙이성〉을 위시한 내포지방(內浦地方)의 군소(群少) 부락국(部落國)들을 정복함으로서 한(漢)의 직할군현(直轄郡縣)인 진번군(眞番郡)은 설치되었다.

고사료(古史料)인 무능서에 의하면 「그 치소(治所)를 삽현(雪縣)

에 두었고, 전한(前漢)의 수도(首都) 장안(長安)으로부터 삽현(霅縣)까지는 7,640리」라고 기록(記錄)되어 있다.

필자는 위에서 침입한군(侵入漢軍)이 26년간 치소(治所)로 점거(占據)하였던 곳은 이 지방 한부족제국(韓部族諸國)의 핵심체이던 〈원반챙이성－현. 삽교읍 수촌리〉을 중심으로, 이와 인접한 세 위성부락(衛星部落). 즉, 〈안다락미〉와 〈밖다락미〉인 두 평지토성부락(삽교읍 2리)과 용갈(龍葛)미산성부락(홍북면 석택리)이었다고 추정(推定)하였다.

그러므로 한군(漢軍)이 『진번(眞番)』이라고 명명(命名)한 군명(郡名)은 본래의 이 지방 한족(韓族)의 나라이름인 〈원반챙이성〉의 "원반"이란 음(音)을 한자로 차음(借音)한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바다.

이는 한(漢)의 진번군현(眞番郡縣)이 원주(原住) 진번제국(眞番諸國)의 항거(抗拒)에 견디지 못하고, 26년만에 철군(撤郡)한 다음, 이 곳 원주한족(原住韓族)이 재건(再建)한 나라이름을 후한(後漢)의 허신(許愼)은 「번국(藩國)」이라 기록(記錄)하였고, (A.D 121)이에 주(註)를 슨 청(淸)의 양수경는 하였음에서도 확인(確認)이 되는 것이다.

한군(漢軍)은 진번군성(眞番郡城) 15현중 군치(郡治)가 있는 지방의 행정구역(行政區域)을 『삽현(霅縣)』이라 명명하였다.

『삽(霅)』은 〈빗소리·삽〉 혹은 〈빗소리·잡〉자(字) 다. 이 〈삽－霅〉자는 한자(漢字)를 창조(創造)한 중국인(中國人)으로서도 용례(用例)드문 글자다.

그들은 왜 이 가상(假想)치도 못한 글자로 현명(縣名)을 삼았을까?

아마도 치소(治所)로 점령(占領)한 〈원반챙이성(城)〉이 〈삽내〉 하안(河岸)에 위치하고, 그 현역(縣域) 또한 주(主)로 이 하천의 유

역지방(流域地方)이었기에 이 지방주민의 전래(傳來)의 하천명(河川名)인 〈삽내〉의 "삽"이라는 음(音)을 「삽(霅)」이라는 한자(漢字)로 차음(借音)하여 현명(縣名)을 삼은 것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즉, 군명(郡名)을 택한 경위와 같았다고 보여진다.

정복자(征服者)가 남긴 〈삽－霅〉이라는 글자는 한자문화(漢字文化)가 없었던 당시의 피정복자(被征服者)로서는 한낱 〈삽〉이란 음(音)이었을 뿐이지만, 그들이 의거한 〈삽내〉라는 전래의 고유하천명(固有河川名)에는 뜻이 있었다.

〈삽〉이란 붉은 색상을 말한다. 즉, 홍수진 붉은 흙탕물이 범람(汎濫)하는 하천(河川)을 뜻한다.

〈삽〉이라는 음(音)은 변음(變音)이 잘 안되는 음(音)이다. 그러므로 고대(古代)의 이 내(川) 이름은 현재와 같은 〈삽〉이었을 것이다.

또한 고산자(孤山子) 김정호(金正浩)의 대동여지도, 혹은 옛 덕산읍지(德山邑志)에서 이 하천명(河川名)을 「사읍천(沙邑川)」이라 기술(記述) 하였음도 역시 〈삽내－사읍내〉를 〈사읍천(沙邑川)〉이라 차음 전기(轉記)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삽교－충의대교〉의 하류쪽 부근 지명을 〈서내〉라고 함은 〈삽내〉가 오랜 기간에 변음(變音)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군(漢軍)이 이 하천의 전래(傳來)의 고유명칭(固有名稱)인 〈삽〉이라는 음을 차자(借字)함에 있어 같은 음의 한자(漢字)가 허다한데 왜 하필이면 이토록 희귀(稀貴)한 글자인 〈삽－霅〉을 택한 것일까. 아마도 그들이 침입(侵入)한 계절이 강우(降雨)가 심하던 장마철이었던 모양이다.

삽교천연안의 우기(雨期)!!

수리시설(水利施設)이나 치수사업(治水事業)이 불완(不完)하던 5~60년전까지도 우리나라 농촌에는 "물쌈", "보쌈"이라는 불상사(不祥事)가 자주 있었다. 이는 한재(旱災)가 계속될 때 일어나는 농민들의 관개용수(灌溉用水)를 확보하려는 집단적(集團的)인 물다툼이었는데, 유독 삽교천 유역에서는 타지방과는 반대로 비가 많이 내

리면 수해의 책임(責任)을 묻는 연안부락간(沿岸部落間)의 생명을 건 투쟁(鬪爭)이 일어나곤 하였다.

또한 예산군 신암의 구양교(九陽橋) 건너 〈삽교천 건너〉인 〈구양섬 지대〉는 예산군(禮山郡) 영역이었고, 천주교가 이 지방에 상륙(上陸)하던 무렵까지도 이 〈구양섬〉에서 구(舊) 합덕 사이의 현(現) 합덕평야는 1,000m 이상의 강폭을 이루는 갈대밭 범람지대(氾濫地帶)였다.

그러므로 예산·당진의 옛 연안주민이라면, 붉은 황토물 도도히 흐르는 洪水철, 옛 조상들이 이 하천을 〈삽내〉라 이름하고 혹은 이곳을 침략(侵略)한 중국인(中國人)이 〈삽현(霅縣)〉이라 명명(命名)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

이상에서 동일하천인 〈삽교천〉이 [삽내·삽천(霅川)·사읍천(沙邑川)·삽천(揷川)·삽교천(揷橋川)·금마천(金馬川)] 등 다양하게 표기(表記)되어 왔지만, 〈삽〉이란 음(音)은 변음(變音)이 잘 안되는 음이기에 2,000여년간이나 원음(原音)대로 존속(存續)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한인(漢人)이 남긴 [진번군(眞番郡)의 치소(治所) 삽현(霅縣)]이라는 한자 지명(地名)은 2,000여년 사이에 어떠한 변천을 하였을까를 논구(論究)하여 보기로 한다.

〈삽(霅)〉은 〈비(雨)소리·삽〉자(字)다.

비(雨)가 말(言)을 하니 〈빗소리·삽〉이란다.

이와 동일한 뜻의 글자로는 〈삽(霎)－[가랑비－세우(細雨－소리·삽]〉과 〈霤(찹)(큰 빗소리·찹)〉자(字)가 있다.

절구(臿)를 공이(干)로 찧는 듯한 큰소리가 나는 빗소리가 〈霤(찹)〉자인 것이다.

우랄알타이어계에서 ㅅ·ㅈ·ㅊ은 혼용(混用)되는 것이라 하니 〈삽(霅)－삽·잡〉과 〈찹－霤〉은 동일한 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霅〉의 강한 표현이 〈霤〉인데, 찹(霤)자에서 우관(雨冠)을 떼서 간략화(簡略化)하면 〈臿〉자이고, 이음 또한 〈삽〉이다.

이와 비슷한 글자이자, 동일한 음인 글자가 〈揷〉자이고, 이도 〈삽〉이라는 음으로서 〈揷〉자의 고자(古字)인 것이다.

과거 2천년사이에, 雲→雷→畬→插→揷으로 변천(變遷)한 것이라고 추측함은 지나친 탐색(探索)이며, 불합리한 추리(推理)일까.

이에 필자는 〈삽－揷〉자의 기인(基因)은 진번군치소(眞番郡治所)가 있던 〈雲縣－삽현〉의 〈雲〉에 연유(緣由)하고, 이 〈雲〉은 이 지방 전래의 고유 하천명(河川名)인 〈삽내〉의 〈삽〉에 연유(緣由)한다고 추정하는 바다.

진번군(眞番郡)의 치소(治所)로 점거당했던 〈삽현(원반챙이성)〉은 인근제국(隣近諸國)의 항거(抗拒)와 중국인(中國人)의 본거지이던 낙랑군(현재의 평양지방)으로부터 너무 유리(遊離)되고 말았다.

그 자리에 재건(再建)된 원주(原住) 한족(韓族)의 나라가 『번국(藩國)』이고, 그후 2~300년 사이에 이를 계승(繼承)한 것이 마한(馬韓)의 목지국(目支國)이다.

한군(漢軍)의 점령기간(占領期間)은 짧았지만, 그들은 이곳 내포지방(內浦地方)에 한자문화(漢字文化)와 중국식 정치체제(政治體制)와 항해술 등 중국대륙(中國大陸)의 선진문명(先進文明)의 자취를 남기고 떠나갔다.

번국(藩國)은 이 중국(中國)의 선진문화(先進文化)를 수용함으로서 유일하게, 중국사료(中國史料)에 진번지방(眞番地方)을 대표하는 나라로서 기록(記錄)을 남겼고,(A.D 121년경에 저술된 허신의 「설문」) 번국(藩國)을 계승(繼承)한 목지국(目支國) 또한 위(魏)가 한반도(韓半島)의 북역(北域)을 지배하던 무렵(A.D 220~313), 그 「목지국(目支國)의 진왕(辰王)」은 한반도(韓半島)의 중서부와 남부지방(삼한전역)을 영도(領導)하는 세력(위지와 후한서)으로 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봄이 본 논고(論考)의 주지(主旨)

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본 장에서는 〈삽내(揷橋川) 유역〉인 현. 삽교읍 일원(구. 덕산현지방) 이야말로 고대(古代) 내포지방(內浦地方) 군소제국(群少諸國)의 중심체(中心體)이던 〈번국(藩國)〉의 고지(故地)이자, 이를 계습(繼襲)한 마한(馬韓) 목지국(目支國)의 고지(故地)임을 어음적(語音的)으로 구명(究明)하여 보았다.

제7편 내포지방(內浦地方)과 고대일본(古代日本)

1장 대흥임성(大興任城)

2장 내포지방(內浦地方)과 고대일본(古代日本)

제7편 내포지방(內浦地方)과 고대일본(古代日本)

제1장 대흥임성(大興任城)

대흥(大興) 동서리에서 유명한 농경문청동기가 출토(出土)된바 있다.

김원용 박사는 삼족토기가 중국계임을 언명(言明)한 바 있다.

농경문청동기로 미루어 그 왕자는 중국계 농경민이 분명하다.

대흥면 신속리에서 삼족토기가 출토되었음을 미루어 중국계 농경민임이 더욱 확실하다 하겠다. 일본학자 아유가이(鮎貝房之進)씨는 임존성은 대흥 상중리에 있다 하였다. 그래서 임존성을 대흥에 있는 백제성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임존성이 역사에 나타나는 초기에는 임존산의 木柵이라 하였으니 백제시대를 통하여 존재한 것은 아니다. 당나라 소정방의 13만 대군과 신라 5만 대군의 침공으로 사비성이 함락된 후 백제 복신장군과 도침스님, 흑치상지장군이 임존산에서 조국부흥을 위하여 거병하자 10여일 사이에 3만 이상의 의병이 모였다 하니 임존산에 석성을 구축한 것은 660년 부흥군의 거병 이후의 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저명한 사학자 에가미나미오(江上波夫)씨는 유명한 기마민족설을 폈다.

경상남도 김해지방에 있던 진왕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을 1차 건국하였다 했는데, 이것이 일본의 스징천왕이라 하였다.

아유가이(鮎貝房之進)씨가 말하는 임성은 현 예산군 대흥면 장전리와 신속리 토성 즉, 무한천변인 미마기궁(任城)에 살고 있던 스징계는 〈북지계－漢系〉의 왕이었다. A.D 313년 기마 민족계인 고구려계에 의해서 한·위인 중국계 세력 한사군을 한반도로부터 축출당하니 대흥의 임성에 있던 스징은 1차적으로 경상남도 남해안인 김해지방으로 이동하였고 거기서 다시 일본의 구주지방으로 이동한 것으로 생각한다.

스징이 떠난 공지에는 북방으로 부터 이동하여 들어온 기마민족계인 오징계였다.

그 정착지는 스징왕이 떠난 대흥면 신속리 쪽이 아니고, 그 북쪽 12㎞ 가량 떨어진 삽교천 변의 목지국의 삽양장 쪽이었다.

이 마을에는 B.C 108년 한무제가 한사군의 하나인 진번군의 치성으로 구축한 삽현의 치성이 있기 때문이다.

에가미나미오(江上波夫)씨는 기마민족인 스징왕이 만주의 부여지방으로 부터 직접 한반도의 중앙부를 남하해서 경상도의 남해안 김해지방에 머물러 있으면서 일본으로 건너갈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점 필자의 생각과 크게 차이가 있다.

우선 스징왕은 북지계라고 본다. A.D 313년의 80년 후인 오징왕은 동북지방에서 온 기마계다.

그리고 광개토왕의 A.D 396년 남침이 있자 목지지방으로 부터 직접 구주지방으로 건너간 것으로 본다.

후일 일본으로 옮겨간 일본의 왕조가 일본으로 이동하기 이전의 내포지방의 고지의 연고를 주장한 것을 이해가 간다.(중국진서)

에가미(江上波夫)씨는 구주지방에 있던 응신청왕이 야마토지방으로 이동하여 2차 건국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필자는 A.D 313년 기마민족의 침입으로 대흥지방이 공백이 된 다음 기마민족인 목지국의 진왕이 삽교지방의 목지지방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A.D 396년 광개토왕이 스스로 수군을 거느리고 남침하자 목지국의 진왕은 海路를 통하여 일본구주지방으로 망명하여 가야국을 세우고 다음 야마도지방으로 이동한 것이 오징천왕이라고 생각된다.

제2장 내포지방과 고대일본

백촌강과 주류성의 홍주주류성과 당진백촌강 연구에서 위치문제를 살펴 보겠지만 양해하기 어려운 미스테리가 있다.

백제가 신라와 당나라 18만 대군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한 것은 660년 7월이었다.

그후 3년이 경과한 663년 8월의 시점에서 천지조는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인 당나라를 상대로 출병을 하였다.

그리하여 백촌강에서 참패하였다. 출병이유는 무엇인가? 정설이 없다. 이것을 추구하여 보고자 한다. 일본의 사학계에서도 이점 관심이 큰 모양이다.

필자가 일본사를 배운 것은 중학시절 교과서로 배운 것이 전부인데, 고대일본 운운함은 지나친 일이지만 백촌강 출병 이유와 관련해서 고대일본사를 언급하여 보고자 한다.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최재석씨가 일본의 저명한 사학자 13인의 견해를 정리한 것에 의하면(한국학보·제90호 1998. 봄)

그 이유가 각각 다르다고 한다. 필자는 이를 일본의 국가기원 문제. 즉, 에가미(江上波夫)씨가 말하는 스징과 오징의 出自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전기임나와 전기가야가 경남의 김해지방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충남의 내포지방에 소재하였던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수년전 경상남도 김해시가 주최한 가야사 관련 세미나가 있었다.

이때 명치대학교의 오스까(大塚)교수의 한마디에 필자는 큰 감명과 자극을 받았다.

「전기가야의 연구가 진전하지 못하는 한 일본의 국가기원 문제와 한국의 고대사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기실, 가야의 시조 김수로왕의 건국은 1세기 중엽이고, 그 왕비는 인도계라고 말하는데, 지금 사학계에서 연구되고 있는 가야사는 그 전부가 4~6세기의 가야쪽의 일이니까 1~4세기의 가야사 즉, 전기임나와 전기가야사의 연구는 공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고대사에 흥미를 갖게된 초기인 30여년전 주로 연구한 분야가 마한사와 임나·가야사 쪽이었다.

필자가 연구한 분야가 일본사와도 중요한 관련이 있음을 오스까(大塚)선생으로 부터 새삼 깨닫게 된 것이다.

지금 가야라 말하면 경상남도 지방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지만 필자는 그와는 별개로 전기임나와 전기가야가 있었고 그것이 충남의 내포지방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충청남도의 서북부지방을 내포지방이라 한다.

400~700m급의 차령산맥은 충남의 동북부인 안성·천안지방으로부터 서남부인 보령·서천지방까지 대각선으로 달려서 충남도지방을 대략 양분하는 분수령인데 그 서북부에 해당하는 지방이 내포지방이다.

에가미나미오(江上波夫)씨가 기마민족 국가론을 발표한 것은 1948년인데 아마추어인 필자가 중공문고의 〈기마민족 국가〉를 읽은 것은 십여년전의 일로서 비상한 감명을 받았다.

에가미(江上波夫)씨는 그 중에서 일본의 제1차 건국자는 스징천왕이고, 제2차 건국자는 오징천왕이라 하였다.

스징천왕은 한국의 미마끼노미아(任城). 즉, 임성에 살고 있던 천왕으로서 김해의 [진국의 진왕계]이다.

제2차 건국자인 응신(오징) 천왕은 구주지방으로 부터 [기내지방으로 진출해서 통일국가를 시작한 천왕]이라고 말하고 있다.

필자는 이 점에 의문이 있다고 느꼈다.

에가미씨설의 전체의 흐름에 대하여는 완전히 동조하지만 [진국의 진왕]과 [진왕의 기지가 김해지방이다.]라고 말한 점에 의념이 있는 것이다. 중국의 사료에 의하면 4세기의 남한에는 「진국의 진왕」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한 50여개국과 변한·진한 24국의 절반을 지배하고 있던 것은 「目支國의 辰王」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목지국은 어디인가?

필자는 이것을 내포지방인 현재의 예산군 삽교읍 성리의 목지부락을 중심으로 한 지방이라고 생각한다.

즉, 한의 무제가 진번군의 治所로 하고 있던 「삽현—삽양장 토성」의 마을이라고 생각한다.

진국은 한 무제의 진번 점령時点에서(B.C 108년) 이미 「고지진

왕」이라고 되어 있다.

辰王은 辰王이지만 目支国의 辰王이라고 되어 있다. 辰国의 辰王이 아니다.

역사적 대사건의 배경에는 이를 유발한 대사건이 있다. 당시의 대사건으로는,

a) A.D 313년 기마민족인 고구려가 한반도로부터 한·위의 중국 세력을 축출하였다.

이 사건으로서 임나지방「아유가이(鮎貝房之進)씨가 연구한 대흥지방의 임성」에 근거하고 있던 스징계가 1차적으로 경상남도의 남해안지방(김해지방)으로 이동하고 2차적으로 일본으로 이동하였다.

b) 스징계가 이동한 지방에는 기마민족계가 이동하여 왔다. 그러나 대흥의 임성이 아니고 삽교의 목지지방이었다.

c) 그 약 80년 후인 A.D 396년 고구려의 광개토왕이 스스로 수군을 거느리고 마한 지방의 38개성을 석권하였다.

이때 목지국의 진왕이던 오징왕이 구주지방으로 이동하였다.

그것이「구야왕－가야왕」이다. 그곳으로부터 다시 기내지방으로 이동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개의 아마추어가 감히 일본을 뒤흔든 석학의 기마민족 국가론과 틀리는 의견을 말함은 에가미(江上波夫)씨가 한국의 지리에 어두웠던 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느끼기 때문이다.

이 경우 두 유적(대흥과 삽교지방)의 지명과 유물로 미루어 스징계는 북지계의 농경계이고, 가야계의 오징계는 기마민족계였다고 생각된다.

대흥면 동서리 출토 농경문청동기와 대흥신속리 출토 삼족토기로 미루어 생각된다.

에가미씨의「스징(숭신)의 임성궁은 김해의 진국이다.」라는 견해는 무리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미마기노미야(任城) 즉, 임성은 어디인가?

아유가이씨가 언급한 예산의 임성쪽이라고 본다.

아유가이씨의 저서 [잡고 제7집 하권－일본서기 조선지명고 천지

기 p231쪽, 임존성급 p234쪽 북임검리산]

이 경우 대흥 동서리에서 출토된 유명한 청동기는 농경문이고, 신속리 토성에서 출토된 북지계의 삼족토기 등으로 미루어 스징계의 문화는 북방중국계의 농경계문화였다고 생각을 안할 수 없다.

필자는 A.D 313년 기마민족인 부여족에 의해서 한·위의 중국세력이 한반도에서 축출당하니 대흥임나의 스징계는 일단 경상남도의 남해(김해) 지방으로 이동한 다음 다시 김해지방으로 부터 일본으로 이동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즉 전기임나는 대흥지방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a) 아유가이씨가 말하는 대흥지방의 임나성으로부터 에가미씨가 말하는 경상도의 미마기성 즉, 후기임나로 이동한 후 그 약 80년 후인 396년 공백을 계승한 세력이 기마민족인 응신계였다.

그러나 그들의 거점은 직접 스징의 임나성이 아니고, 그 북쪽 12㎞ 거리인 한무제의 삽현쪽이다.

b) 396년 광개토왕이 남침하던 때 응신(오징)은 선편으로 일본 구주지방으로 망명하였다.

그 망명에는 목지국(전기가야) 지방의 조선술과 항해술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한다.

목지국 지방에는 가야라는 지명이 집중적으로 남아있다. 스징이 경상남도의 남해안 지방으로 이동하므로서 공백인 대흥지방으로 이동하여와서 정착한 것은 북방 기마민족계인 응신계였다.

그러나 그 위치는 스징(숭신)이 살고 있던 대흥면 신속리의 임성자리가 아니고, 그 북방 약 12㎞ 떨어진 목지지방이었다.

즉, 마한의 목지국 자리였다. 한나라 무제가 진번군의 治城으로 축조한 雲陽鄣土城이 있는 마을이다.

이 지방은 원래 마한지방으로서 전기가야의 중심지였다.

그 범위는 넓다.

a) 유명한 가야산의 기슭이다.

b) 거성은 개성이다.(서산시 운산면 거성리) 길이 9천척의 토성이었다.

c) 가야고성(예산군 봉산면 봉림리)

d) 개머리(고덕면 대천리)

e) 개골(덕산면 옥계리·상가리)

f) 거성리(홍성군 결성면 거성리)

g) 가마시토성(삽교읍 가리)

h) 감개비리(예산군 고덕면)

충적토인 광대한 평야속이면서도 거대한 입석(선돌), 3기의 지석묘와 거대한 분묘(말무덤) 자리가 있다.

부근에서 8주령(신암면 종경리), 청동단검(덕산면 옥계리)이 출토되었다.

전기 임나지방(대흥면 동서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에 유명한 농경문청동기가 있다.

김원용박사가 북지계라고 말하는 삼족토기를 필자는 직접 대흥면 신속리의 토성안에서 채취하였다.

아유가이씨가 임성이라고 말하는 토성이다.

미루어 스징천왕의 출자가 대흥지방의 임성이라고 한다면 스징계는 북지계의 농경계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약 80년후인 응신의 입장은 다르다.

313년 고구려계에 의해서 한·위의 중국세력이 한반도로부터 축출되고 스징이 경상도의 남해안(김해) 지방으로 이동하고 나니 그 뒤를 점유한 오징계는 스징의 임성이 아니고 그 북방 약 12㎞인 삽교천변의 〈가야-목지국〉쪽이었다.

그러니까 오징계는 기마민족계이다.

한나라 무제의 진번군의 삽현쪽이다.

이 지방은 B.D 108년부터 26년간 진번군의 치소가 있던 마을이니까 한의 문화, 한의 행정기구, 한의 문자, 조선술과 항해술 등이 전하고 있었으니 북방에서 이동하여 온 응신계는 마한제국뿐 아니라 변한, 진한 24개국 중의 반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강대한 선진국가가 되었다.

이것을 중국의 사료는 「목지국의 "진왕"」이라고 말하고 있다.

진왕이란 한반도의 왕자를 말한다. 이리하여, 기마민족계인 오징계가 목지지방에 정착하여 발전을 거듭하고 있던 때, 숭신이 임나를 떠난 약 80년 후인 A.D 396년 고구려의 광개토왕이 스스로 수군을 이끌고 마한지방의 38개성을 석권한 것이다.

이 대침략이 내포지방에 미쳤음을 제기한 것은 사까이가이소(酒井)교수였다.

이에 동조한 것이 이노우에히데오(井上秀雄)교수, 김성호씨, 박성봉 교수가 있다.

필자도 동조하지만 그 현지 비정에는 이견이 있다.

에가미씨는 구주지방에 있던 오징이 기내지방으로 진출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필자는 A.D 396년의 광개토왕의 침공을 당한 목지국의 진왕인 오징이 직접 구주지방으로이동하였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구주지방의 가야왕이었다고 생각한다.

〈목지국의 진왕－오징〉이 직접 일본 구주지방으로 망명하였음에는 목지지방의 한(漢)이래의 선진 항해술이 큰 공헌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가야왕＝구누왕〉이 기내지방으로 간것도 목지국의 선박과 항해술이 작용하였다고 생각한다.

한국측에서 보면 에가미씨의 연구도 그렇지만 아유가이씨의 조선지명고는 일본학자가 일본서기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지만 놀라운 노력으로 노작을 남겼다고 생각된다.

한국입장에서는 그 이름조차 모르는 사라진 유적의 재발견이다.

그러나 그 귀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연령층은 이미 늙어 버렸다.

필자도 이 책을 친지(親知)로부터 받은 것이 수년전 일이다.

그러나 아유가이씨도 역시 한국의 지리에는 어둡다.

그 모두가 고문헌과 고지도에 의존하고 있음에 한계가 있다.

아유가이씨의 눈에 보이지 않은 지명이 많은 것은 필연적이다.

한국의 일개 아마추어가 일본을 뒤흔드는 석학의 견해에 의념을 느끼는 것은 스징과 오징이 출발한 기지에 관해서 한국의 지리사정에 어두운 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이다.

내포지방은 확실히 古代日本의 古地라고 느껴진다.

내포지방에는 "머리"계의 지명이 10여개소 있다.

모두 토성이 있고, 청동기도 출토된다.

a) 두루머리(예산군 삽교읍 두리)

b) 용머리(예산군 삽교읍 용두리)

c) 성머리(삽교읍 상성리)

d) 말머리(고덕면 사리)

e) 개머리(고덕면 대천리)

f) 덕머리(당진군 합덕읍 성동리)

g) 소머리(당진군 당진읍 우두리)

그중 당진의 소머리(소시머리)의 토성은 주목할 만 하다.

지금까지 일본학자들은 춘천의 우두산, 부산의 용두산, 서울부근의 토성들을 우두산이라고 연구하였지만, 당진의 우두성은 연구한 바 없다.

당진군 우두리에는 토성이 두 곳이 있다. 거북산에 있는 토성을 태성 혹은 우두산성 봉우리를 구(귀=龜)旨峰이라 하고, 가성산에 있는 토성을 가성산성이라 한다.

우두산의 구지봉은 김해가야(김해지방)의 구지봉과 김수로왕의 출현과 연관지어 연구할 가치가 있어 기록을 남겨두고져 한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스사노오노미고도의 부자가 한반도에서 살던 성이라 하였으니, 일본학자들이 이를 추구하였지만 아무도 당진군 당진읍 우두리의 소머리산(소시머리산·牛頭山)을 주목한 이는 없었다.

1. 스징의 유적

아유가이씨가 제시한 예산군 대흥면의 임성이 전기임나라고 본다. 임나의 지명은 예산의 대흥지방에만 있을 뿐이다.

2. 오징의 유적

예산군 삽교읍 목리

3. 가야지명

a) 유명한 가야산의 기슭

b) 거성은 개성이다. (서산시 운산면 거성리) 길이 9천척의 토성이 있었다.

c) 가야고성(예산군 봉산면 봉림리)

d) 개머리(고덕면 대천리)

e) 개골(덕산면 옥계리·상가리)

f) 거성리(홍성군 결성면 거성리)

g) 가마시토성(삽교읍 가리)

h) 감개비리(예산군 고덕면)

4. 아유가이씨가 말한 — 지산

홍성역전 앞의 고모리토성

미림성

5. 게이다이기ー哆利国

a) 상다리(上哆利國)(예산군 삽교읍 수촌리)

b) 하다리(正哆利國)(예산군 삽교읍 수촌리)

c) 금물, 기문, 금무(덕풍의 고명)

d) 소나라(소구니) (홍성군 장곡면 행정리)

6. 흠명기

a) 마진성(예산읍 산성리·주교리)

b) 미림성(임성)(대흥면 신속리)

7. 천지기

a) 소유성(연기군 전의면 송성리)

b) 주유(주유성)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대현리)

c) 避城(橇城＝蒙山城)

당진군 면천면 성상리 재골

d) 고연단경 당진군 면천면 구룡리(승전목)

e) 석성(주유성)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

f) 북임검리산＝임존산

g) 구마누리성(홍성군 홍성읍 고모리·고모리산성)

제8편 결어(結語)

제8편 결어(結語)

내포지방(內浦地方)은 충청남도를 양분(兩分)하는 분수령(分水嶺)인 차령산맥의 서북부로서 황해연안의 독립된 평야지대가 그 중심을 이룬다.

번국(藩國)－진번국(眞番國)－이 존재한 기간은 한(漢)의 진번철군(眞番撤軍)(B.C 82) 이후로부터 후한(後漢)의 허신이 『설문(說文)』을 저술한 년대(A.D 121) 이후에 이르는 약 200년 이상이 되는 것이니, 마한 54국의 형성은 한진번군 무렵보다도 적어도 200~300년 이후, 즉 A.D 100~200무렵일 것이다.

그러니 2,000년전의 문화단계에서 분수령－차령산맥의 양측. 즉, 금강유역과 내포지방, 다시말하면 충청남도의 넓은 전역이 통합된 국가－진번국을 구성하고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삽교천유역에도

1) 대전·부여·익산지방 못지않은 별개의 청동기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2) 지석묘의 특성도 전라지방과는 판이하고,

3) 언어 또한 전라도 사투리와 내포지방의 특이한 어조와의 차이는 주지의 일이다.

그러니 B.C 200~A.D 200 무렵의 금강유역권과 내포지방권의 문화는 판이한 것임으로, 이 두 권역이 통합된 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다.

이에 필자는 금강유역을 진국(협의의)으로, 내포지방(주로 삽교천유역)을 진번(번국)에서 목지국으로 이어진 곳이라 추정하였다.

여기서 몇가지 관련사를 요약하면

a) 진번군의 북부 7현 지방은 군현 철폐시(B.C 82) 낙랑군의 남부도위의 관할로 편입된 7현이 이에 해당한다.

이병도 박사는 이를 황해도 자비령이남지방에 고증한바 있다. 그러면서도 "남부 8현"의 위치는 이를 고증하지 못하면서, 사료에 현명이 전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였지만, 그렇다면 유일하게 현명이 알려져 있는 치읍 "삽현"의 소재지는 어디인가? 그러나 어느 사가(史家)도 그 당처를 지적한 일이 없었다.

진번군강역의 절반인 "북부 7현"의 위치가 재령강유역이었다고 고증되면서(이병도설) 그 인접지역에서 "남부 8현"을 추정할 수 없음에서도 그 직할영역의 일부는 유리되어 있었음이 짐작된다.

2) 그러고 보면 이박사가 추정한 "북부 7현"과, 본고(本稿)에서 추정하는 "남부 8현"사이의 공간지대. 즉, 현 경기도의 대부분은 한(漢)의 직접점거에서 벗어나 있었음이 추상되는데—혹은 남부 8현중의 일부가 이곳에 까지 분포되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치읍 삽현의 위치는 사읍천(삽교천) 유역이었다—. 이러한 결과의 초래는 남부 8현지방을 점령한 주체가 한(漢)의 해군이었기 때문이며, 동일년대에 설치된 낙랑군이 魏時代에 이르기까지 420여년간 中国勢의 직할령으로 유지되었음에 반하여, 진번인 남부 8현지방에서는 30년을 넘기지 못하고 철수하지 아니할 수 없었음은 진번족의 반항도 있었으려니와, 낙랑에서 遠隔한 위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3) 대체로 이 空間地와 충북지방에는 이 시대의 유물인 지석묘가 희소할 뿐 더러 북방식과 남방식의 교계라는 점도 관심이 간다.

4) 이 공간지대는 한족(韓族)의 원주영역이면서도 사료에 남긴 구체적 기록은 적지만

a)「初期辰韓」의 流移民이 寄留하였고,

b) 1세기초에는「벌목사화」를 남겼고,

c) 부여족(백제) 또한 이곳에 이동정착하여 백제로 발전되었다.

d) 魏가 공손씨의 낙랑과 대방군을 점거한 이후로는 그에게 복속되더니 A.D 240년경 중국세의 압박(壓迫)에 항거(抗拒)한 한족제국은 기리영을 공격하기 이르렀다.

이를 진압차 낙랑태수 유무(劉茂)와 대방태수 궁준(弓遵)이 출동하였는데, 이 전투에서 궁준은 전사(AD 246)를 하였지만, 한족제국은 낙랑태수에 의하여 도리어 패하니, 이들 군소국들은 사상(史上)에 나라이름 조차 전하지 못한채 멸망당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다같은 한족의 지역이면서도 마한이라 지칭(指稱)되는 54개 국명의 분포가 이 지방에서는 유난히 희소함은 기리영의 반란사건으로 멸망된 나라가 많아서 위에 조공을 바치는 주체(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e) 차령산맥의 성주산과 오서산에서 발원하는 삽교천. 그 6.2㎞의 하류가 홍성 고모리의 "古牟婁(고무랭이)성"과 금마면 장성리·당골의 "테뫼성"이 面·里界를 이루는 곳을 "고무랭이"의 "오목내"라고 한다. 凹(오목할 요)자 형으로 "움푹 팽긴 냇물"로서, 하안(河岸)에 완경사의 모래밭이나, 풀밭도 없는 단애로서 물에 빠지면 기어나올 방도가 없는 흙으로 된 안벽이니, 한자로 표현하면《潯(깊은 물언덕·심)》자에 해당하는 해안이다. 이곳이『고무랭이』즉「곰」. 이병도 박사의 "웅천". 김정호 선생의 "금마천"의 어원을 이룬다.

나당군이 백제를 공멸한 다음(A.D 660), 당(唐)은 그 오도독부(五都督府)의 하나로《지심주(支潯州)》를 두었는데, 그《심(潯)》자에 해당하는 지세를 이곳 홍성에서 발견하게 된다.

2090년전 한무제의 수군은 이 지방을 점령하고, 진번군을 설치하던 때 삽교천 수계(水系)의 양계(雨季)의 특징을 담아《雪－빗소리·삽》이란 희귀한 글자로 현명(縣名)을 삼았거니와, 그 약 760년후 같은 항로를 통하여 같은 내포지방을 침략한 당군 또한 그 하천, 그 연안《고무랭이성》부근의 하안(河岸)의 특징으로 주명(州名)을 삼아『지심(支潯)』이라 하였음은 흥미로운 일이다.

조선말 일청전쟁(日淸戰爭) 때, 청군이 상륙한 지점 또한 이곳 아산만의 삽교천 하구였음은 역사지리적(歷史地理的) 여건(與件)에 따라 유사한 역사적(歷史的) 사태가 되풀이 유발됨을 엿볼 수 있다.

f) 김정호(金正浩)는 동국여지도(東國輿地圖)에서 이 삽교천의 상류를 《금마천》. 그 하류를 《사읍천》이라 기록하고 있고, 이병도 박사는 이 금마천을 《웅천》이라 하였다.

필자는 이 《웅천》-금마천변인 [반챙이지방](예산군 삽교읍 수촌리)이 진번제국의 대표적 도성-[번성(藩城)]인 동시에 한진번군(漢眞番郡) 당시의 치읍 [삽현(霅縣)]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러면서 동일하천의 6㎞ 하류인 사읍천변의 "궁(宮)모루"라고도 부르는 [목시토성지방-삽교읍 성리] 은 이를 마한(馬韓)·목지국(目支國)의 도성(都城)이라 추정하였다.

즉 위씨조선(衛氏朝鮮)과 동일시대인 진번국(眞番國)과 그 2~300년후에 형성된 마한(馬韓)의 목지국(目支國)은 동일하천-삽교천 연안평야의 상·하류 지방에 선후(先後)하여 존속하였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진번제국(眞番諸國)을 한무제(漢武帝)의 해군이 점거한 것이 한진번군(漢眞番郡)의 남부 8현지방이고, 원주(原住) 한족(韓族)이 이를 26년만에 물리치고, 다시 세운 나라를 허신(A.D 121)은 [번국(藩國)]이라 기록하였고, 그후 이를 100~200여년 사이에 계습한 것이 마한의 [목지국(目支國)]이라고 추정(推定)을 하였다.

7) 이리하여 A.D 100~200 사이에 한반도의 남부가 삼한(三韓) 70여 소국형태(小國形態)로 분립(分立)되어 있는 상황(狀況)에서, 위(魏)는 요동(遼東)의 공손씨(公孫氏)를 멸(滅)하면서, 한반도에 뻗어있던 공손씨(公孫氏)의 낙랑과 대방 양군(兩郡)은 이를 해군으로서 강점(强占)하고 여전히 중국세의 직할령(直轄領)으로 유지하니, 그 이남지방인 삼한 70여국은 필연적으로 복속(服屬)당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위(魏)는 이들 군소국(群小國)들을 제어(制御)함에 있어 각국의

장수인 "신지(臣智)"에게 "읍군(邑君)" 혹은 "읍장(邑長)"이란 벼슬을 주어 회유책(懷柔策)을 씀과 동시에 그들의 정치 형태, 상호간의 견제관계 등은 존속시키면서 어느 한 대표국의 "신지(臣智)"에게 특별한 관직을 제수(提授)하고는 그에게 특권을 위촉(委囑)하여 70여 제국(諸國)을 분할 지배함으로써 조공(朝貢)을 바치게 하는 등 순종(順從)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로 선임된 것이 "목지국(目支國)의 신지(臣智)"였고, 그를 『진왕(辰王)』이라 호칭하였다.

위(魏)가 그 대표국을 선택함에 있어

a) 청동기문화(青銅器文化) 이래의 선진국이며,

b) 중국대륙과는 최단(最短) 최안전 항로이고,

c) 한진번군(漢眞番郡) 이래의 인연(因緣)과 남한제국(南韓諸國)에 미쳐온 정치적 역량등을 감안할 때 목지국(目支國)이 발탁(發擢)되었음은 당연한 일이다.

이리하여 辰族 (韓이란 칭호가 발생하기 以後의 廣義의 韓族) 사회의 유일한 대표자로서 위지(魏志)와 후한서(後漢書)의 동이(東夷)·한전(韓傳)에 등장하는 것이 『목지국(目支國)의 진왕(辰王)』이다.

한민족(漢民族)의 발전과 통합의 기운(機運)을 분할지배정책(分割支配政策)으로서 제압하던 위(魏)가 고구려(高句麗)와 백제(百濟)에 의하여 패퇴(敗退)하니, 삽교천 유역인 「목지국(目支國)의 진왕(辰王)」 또한 이 후래(後來) 부여족에 의하여 밀려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이 「목지국(目支國)의 진왕(辰王)」의 권위(權威)는 삼국의 형성이 굳어지면서, 실질적(實質的)으로는 부여족인 백제(伯濟)의 팽창(膨張)과 더불어 약화되다가 위(魏)의 패퇴와 동시에 소멸(消滅)된 것으로 추측하였다.

8) 제4장과 제5장에서는 무릉서(茂陵書)의 『삽현거장안(霅縣去長安) 7,640리』와 동이전(東夷傳)의 미궁적(迷宮的) 기술(記述)인 『목지국(目支國)의 진왕(辰王)』은 「진번군(眞番郡)의 삽현(霅縣)」과 「목지국(目支國)」의 지리적 위치가 본 고(稿)의 추정대로 동일하천의 상류쪽 "금마천"과 하류인 "사읍천" 즉, 삽교천의 유역(내포지방)에 소재하였을 경우에만 비로소 해명이 된다는 사실을 추구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진번과 목지국"의 위치는 이로서도 고증이 된다 하겠다.

9) 몇가지 추측을 더 하고자 한다.

아마추어인 처지라서 백제사에 관하여 통설과 크게 다른 견해를 개진(開陳)할 바 못되지만, 본 고(稿)에서 [진번과 목지국의 고지는 내포지방]이고, [금강유역지방은 진국권]이라고 추정을 한 입장임으로 다음 세기(世紀)에 이곳 백제영역에서 전개된 웅진천도로 인한 영향 등을 살펴보려 한다.

a) "남사(南史)"에 의하면 『其(新羅)는 나라가 작아서, 독자적으로 사빙(使聘)을 통할 수가 없다. 양(梁)나라 보통(普通) 2년, 王姓金(법흥왕)이 처음으로 백제에 수행(隨行)하여 방물(方物)을 봉헌(奉獻)시켰다.…어언 백제의 통역이 있어야 비로서 통한다.』 하였다.

이는 신라가 백제에 얹쳐서 처음으로 중국대륙의 중추부(中樞部)인 양(梁)에 사신을 보낸 기록인데, 당시의 백제는 신라보다 월등한 선진국이요, 해양국(海洋國)이었음을 말한다.

대치관계이던 고구려가 육로를 장악(掌握)하고, 북조와 교류를 하고있는 마당에 백제로서는 남조와의 친교가 절실하였을 것이다. 이에는 한군이래의 교통망, 즉진번과 목지의 항해술이 그 바탕이 됐을 것이다.

또 황룡사 구층탑을 건립할제, 보백(宝帛)을 백제에 바치고 아비지(阿非知)를 모셔야 했음에서도 백제문물의 선진성을 엿볼 수 있다.

충청도지방을 지배하게 된 후래자(後來者)인 백제가 내포문화와

그 항해술을 수용함으로서 급속한 문화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음은 당연하다.

b) 백제는 고구려나 신라의 개국설화와는 달리 졸본부여로부터 이동한 것이고, 처음 정착한 곳이(근초고왕 A.D 371) 한강유역이었다. 웅진(공주)으로 천도를 한 것은 문주왕(A.D 475)이고, 부여로 재천도(再遷都)한 것이 성왕(A.D 538)이며 나당군에 의하여 패망한 것이 A.D 660년이라면 그 지배층은 부여족이지만 백성은 마한인이다.

백제사는 주로 후래 지배족(부여족)에 관한 기록임으로 원주 한족에 관한 것은 소외되어 버렸다. 더구나 웅진천도와 더불어 내포지방의 존재 자체가 망각되어 버렸다. 오늘날 까지도.

그러나 웅진천도 이전의 한강유역에 남긴 그 문화가 뛰어난 것이 아니건만 웅진 63년간에 남긴 찬란(燦爛)한 자취는 그들이 천도를 함으로서 수용하게 된 원주한족인 금강유역의 『진국』과 해양선진국인 내포지방의 『진번·번국과 이를 계승한 목지국』의 선진문화의 바탕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유업(遺業)들이다.

c) 한편 소수후래족인 백제의 통치자가 그 영역인 내포지방에 왕권의 위세를 직접 떨친 것은 의자왕 2년이니, 이는 백제멸망 불과 10여년전 일이다. 이로 미루어 진번의 전통은 부여족의 치하에서도 지속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d) 남사(南史)에 나타난 신라와 백제간의 항해술의 격차로 미루어 일본과 한반도의 초기교류의 대부분은 진한계(신라계)이기 보다는 해양진출(중국진출과 일본진출)에 선진하였던 진번과 진왕의 마한계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백제의 지배층(부여족)과 일본과의 교류는 그들이 내포지방의 발달된 항해술을 이용할 수 있었던 웅진천도 이후래야 가능하였을 것이다.

신라불교는 백제로부터 전파된 것인데, 초기불교의 유적은 주로 내포지방에 남아 있다. 태안의 마애삼존불, 서산군 운산면의 국보 "백제의 미소", 예산군 봉산면의 4면 석불, 예산 향천사의 "3천불" 등을 들 수 있는데, 내포지방이 선진 해양국이었던 자취는 아산만(삽교천의 하구)에 "한진포", "당진포", "공소리" 등과 안흥항 등 옛 항구가 남아있다.

e) 백제는 나·당에 의하여 패망되었건만 그 全彊域中 유독 내포지방에서만 임존성을 중심으로 4년간의 항전이 계속되었다.

전백제인이 몰아서 항전을 한 것이라면 그 중심이 백제를 후원하던 일본에 보다 가까운 전라지방일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렇지 않하였음은 최후까지의 항전은 내륙지방인(부여족인 지배족)에 의한 것이 아니고, 내포지방인(해양인)에 의하여 지탱되었음이 분명하다.

그 항전의 주장 흑치상지 장군도 내포출신이었고 상잠장군 또한 예당호반에서 올려다 보이는 대흥·임존성 아래 대련사의 주지스님이었다.

부여족의 치하의 내포인.

그 내포인들이 통치자는 사라졌는데도 4년간이나 신라와 대당국을 상대로 치열한 항전을 계속한 사유는 무엇일까?

우선은 내포지방인 자체의 의식이 존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은 된다.

그러나 한편, 일본세가 먼 항해를 무릅쓰고, 이 항전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바탕은 무엇인가?

혹시나 고구려와 백제가 위를 몰아내던 때(A.D 313) 그 팽창하는 백제세에 밀려, 내포지방을 떠나지 아니할 수 없었던 목지국의 지도층(진왕)이 그 발원한 항해술을 이용, 일본으로 다수 이주한 바 있어 그들과의 유대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더욱이 목지성지방(예산군 삽교읍)은 웅진(공주)으로 부터 40㎞ 거리에 불과하니 웅진천도 이후로는 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많다.

이 점은 장래의 연구대상이 된다.

또한 부흥군의 4년간에 걸친 항전의 중심지 임존성(대흥)은 나당연합군이 머물던 웅진으로 부터는 32㎞ 거리이고, 부여로부터도 불과 36㎞ 거리에 지나지 않건만 그 당군은 13만대군을 가지고도 군사적으로는 이를 격파하지 못하였음도 유의될 일이다.

여하튼 내포지방민의 호국의 슬기는 2,090년 전에도 한무제의 침략을 26년만에 물리쳤음에서 엿볼 수 있다.

10) 진한문제는 "진번군의 위치문제"와는 직접관련이 적은 것이니, 여기서는 다만 「진번군의 북부 7현」과 그 「남부 8현」사이의 공간지대에 관해서만 생각하겠다.

한강이남의 소위 「공지」에 머물던 후래족인 "진한"이 왕개지황연간(王莽地黃年間) (A.D 20~23)에 그들의 이유지(移留地) 부근에서 저질은 「벌목사화사건」 때문에 염사치를 앞세운 낙랑인에게 혹독한 배상을 치른 다음, 한인(漢人)의 세력권 가까이 정착함에 불안을 느끼고, 재차의 보복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이유지이던 한강유역으로부터 그 상류지방을 거쳐 경북 낙동강 상류지방으로 이동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니 그 시기는 A.D 23년 무렵이라고 추상된다.

필자로서는 한강이남의 공지에 머물던 것이 이병도박사가 주장하는『경기 진한』이고, 낙동강 상류에 정착한 다음 팽창발전을 한 것이 한백겸 以來의『경상도 진한』이었다고 보고자 한다.

이병도박사는 "벌목사화"의 발생지를 안성천(웅천)변으로 보았고, 이러한 해석을 방증(傍証)삼아 [진국과 목지국의 고지는 천안·직산지방]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지만

필자는 이를 한강이남의 인접지였다고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무렵은 남부도위의 관할로 편입된 북부 7현지방이 한인(漢人)의 세력권의 남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도처에 원시림이 존재하였을 그 당시, 한인(漢人) 1,500명이 벌목

을 위하여 그들의 세력권에서 멀리 떨어진 안성천변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으로《진번국과 목지국의 위치문제》를 중심으로 고대의 내포지방을 살펴 보았는데, 종래의 학설들과는 크게 다른 결론에 다다랐다.

이는 내포지방에 남아있는 지명·유물·유적 등으로서 우선「진번과 목지국」을 추구한 다음 그 가능성으로서 선학들의 연구성과와 대비하여 본 결과다.

필자의 고찰성과가 정곡(正鵠)을 期한 것이 못된다 할지라도 또한 한 아마추어의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생을 이 지방에서 살아온 사람의 고찰의 일부니 이것이 촉매가 되어 내포지방의 고대문화와 기타의 모든 가능성에 대한 관심있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홍주주류성과 백촌강 연구

홍주주류성과 백촌강 연구

— 백제부흥전사의 역사지리적 고찰 —

내포지방 고대문화 연구소 · 박성흥 지음

Ⅰ. 여는 장

1. 위치가 확실치 않은 백제 유적에 가까이 다가감
2. 주류성과 백촌강에 대한 필자의 기본 개념
3. 주류성 문제와 백촌강 문제

Ⅱ. 백제 옛땅의 지정학적 특징

1. 충남지방의 분수령 차령산맥
2. 충남 서해안의 조수
3. 웅진강(금강)과 〈삽내(삽교천)〉의 수운
4. 아산만

Ⅲ. 필자의 백제부흥전 유적 두루살핌

1. 고산자 김정호의 홍주주류성설
2. 당진의 〈차돌배기마을－백석촌－백촌강〉
3. 당진의 큰 옛무덤
4. 홍주 〈두루성－학성〉
5. 학(두루)성 〈사시랑성＝석성〉의 발굴조사

Ⅳ. 주류성고

1. 피성고증에 따른 주류성에 다가감
2. 면천(혜성)이 일본서기의 피성이다.
   A) 일본서기의 피성(ヘサシ－헤사시－혜성)
   B) 이께우찌 교수의 김제 피성설과 사평성

C) 면천지방의 백제때 지명은 〈혜성〉

D) 아유가이씨의 피성관과 필자의 주장

E) 면천 혜성이 일본서기의 〈피성 — へサシ — 혜성〉이다

3. 견상군의 "석성"방문과 복신굴

4. 제2차 신라군과 당나라군의 주류성 공략

5. 〈도솔성=자비성〉과 각산

Ⅴ. 백촌강고

1. 위치가 밝혀지지 않은 백촌강

2. 백강(백강구=백촌강)

3. 손량과 지벌포·장암

4. 대흥지방의 당산

5. 백촌강의 해전

a) 그 무대

b) 백촌강의 해전

c) 피해서 도망감

6. 당진군 고대면의 큰 옛무덤(대고분·막무덤)

Ⅵ. 백제유민의 일본망명

Ⅶ. 맺는말

Ⅰ. 여는장

1. 위치가 확실치 않은 백제유적에 가까이 다가감
2. 주류성과 백촌강에 대한 필자의 기본개념
3. 주류성 문제와 백촌강 문제

Ⅰ. 여는 장

1. 위치가 확실치 않은 백제유적에 가까이 다가감

a) 일본이 한국을침범한 직후인 1913년, 쓰다(津田左右吉. 와세다대학)교수는 〈주류성 한산설과 백촌강 웅진강(금강) 하류설〉을 폈다.

이는 한국침략의 합리화를 위한 한 내세우는 속임수였다.

이 학설은 그후 이병도 박사와 이께우찌(池內宏. 동경제대 1934) 교수의 지지를 받아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정설시 되고 있다.

정통파학자들의 대부분이 이를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쓰다설이 발표된 약 10년후, 쓰다의 논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오다(小田省吾. 조선총독부 역사편수관. 1924)와 이마니시(今西龍. 경성제대교수. 1934) 교수는 〈주류성 부안 위금암산성설과 백촌강 동진강설〉을 폈다.

이를 지리학자 노도양 박사와 원광대 전영래 교수가 지지함으로서 지나간 80년간 주류성과 백촌강의 위치논쟁의 두 큰 계파를 이루고 있다.

이 밖에도 한·일 양국 학자사이에 여러 다른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가운데 김재붕씨는 단제 신채호(申采浩) 선생의 연기설을 발전시켰고, 필자는 고산자 김정호 선생의 「홍주 주류성설」에 깨우침을 받아 이를 적극 연구하여 온 것이다.

b) 백제의 종말기 역사가 되는 백제부흥전사를 연구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할 일은 아직까지도 그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채로 있는 백제의 주요사적. 즉 두능윤성·〈주류성－두루성〉·〈백강·백촌·백촌강·백강지구〉·〈피성－ヘサシ－혜성〉등의 소재지를 규명하는 일이다.

확실하지 않은 역사의 자취를 기초로 하여 해석된 백제사에 많은 착오가 있게 됨은 필연적인 일이되기 때문이다.

삼국사기 편찬당시 이미 약 200곳이 「이름은 있으나 확실치 않은 곳(有名未詳地)」으로 분류한 상태인데 이들 백제유적을 1,300여년이 지난 오늘에 고증한다는 일은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사적지들은 서로 깊은 연관이 있으므로, 이제라도 어느 한 곳이 새로이 규명될 경우, 이를 참고삼아 다른 확실치 않은 곳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백제유적들은 패망국의 유적인데다, 오랜 세월 소홀히 다루어졌고, 그 있는 곳을 연구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문헌이 워낙 희소하니, 단편적인 관련된 일이나마 가려내어 이것들을 종합하거나 미루어 생각하는 수 밖에 다른 길이 없을 것 같다.

서로 다른 자료이지만 연구를 통해 얻어지는 결과가 서로 모순됨이 없이 부합된다면 이 또한 서로 보완되는 완벽한 고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주류성과 백촌강에 대한 필자의 기본개념

a) 필자가 고대사에 관심을 갖게된 것은 회갑 무렵이었으니 30여년이 지났다. 그 무렵 언론에서는 일본의 역사왜곡문제가 자주 심도있게 거론되고 있었다.

그 참모습을 알고 싶었던 필자는 이병도 선생의 저서라든가 일본학자들의 저서도 살피는 한편, 많은 유적들도 직접 찾아가 살펴보았다. 그러는 동안에 나름대로 나의 소견도 느끼게 되었다.

또한 백제부흥전사에 관심을 갖게된 것도 벌써 20여년이 넘었다.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지지」 홍주목조의 첫말에 「홍주목본 백제주류성 당개지심주」라는 구절을 접하였을 때였다.

당시 주류성의 위치를 한산지방이라고 인식함은 국정국사교과서를 위시하여 누구나 그러려니 믿고 있던 일이었다.

필자는 공주고등보통학교 1·2학년때의 일본어 담당교사이던 가루베(輕部) 박사의 저서 「백제유적의 연구」를 읽으면서, 〈주류성=주유성〉과 〈백촌강=백강구〉의 위치문제에 많은 논란이 있음을 대강 알

고 있던 터라서 고산자의 〈주류성 홍주설〉은 흥미를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무렵 필자의 주된 관심사는 마한사와 가야사 쪽이었기에 그저 고산자와 같은 위대한 지리학자가 백이삼십년전 이미 〈주류성 홍주설〉을 폈는데, 한일 양국의 사학계는 아직도 이 과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가?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었다.

그 후 곧 일본서기의 천지기에서 「풍왕이 〈왕성－부흥군의 지휘본부〉를 주류성으로 부터 〈피성－헤사시－혜성〉으로 옮겼다가(662년 12월), 사평성등이 신라군의 공격을 받게되자, 불안을 느끼고, 다음해 2월 다시 주류성으로 돌아왔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더 많은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고산자는 홍주목조의 〈성 있는 곳〉 항에서는 구체적으로 홍주목성이 주류성이라고 하였지만, 현재의 홍성읍 오관리의 평지 석축성인 홍주목성은 일본서기에 기록된 〈주유성〉으로 볼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필자는 홍주관내에서 고산자가 말하는 〈주류성〉이자 일본서기에 기록된 〈주유성〉이 되는 성을 찾아 보려고, 홍성관내의 40여개 성터를 답사하는 동시에 홍주의 해안선인 보령－대천에서 태안－만리포 사이에서 〈백강－백촌강〉 되는 곳을 찾아 보았다.

그러나 〈백강〉 혹은 〈백촌강〉이라는 지명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 (홍성군지 제8편 성지항 참조)

그러나 홍성관내의 성터중 특히 관심이 쏠리는 곳이 있었으니 장곡면 산성리와 대현리에 있는 두 곳의 석축 옛성이었다.

광천에서 청양쪽으로 통하는 큰 길가에 두 산성이 대부동마을의 수구계곡(水口溪谷)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음을 전부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처음 장곡면 산성리〈이조 때의 얼방면(孼方面) 학성리와 두리〉와 대현리의 옛 돌성을 답사하였을 때, 그 서쪽 성벽위에서 〈분명한 백제토기 조각〉을 5~6점 발견했다.

그래서 이 성은 〈분명한 백제유적〉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또한 성벽을 한번 돌면서, 그 서·북·동쪽 성벽은 모두 석축인데, 남쪽은 역단층(逆斷層)의 자연암맥이 그대로 성벽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았다.

그야말로 〈자연석성〉이라는 인상을 받았다.(표지의 사진 참조)

이에서 일본서기 천지(天智) 3년 5월조의 〈석성ーシセクサシーシャꞋサシ〉 기사를 머리에 떠오르게 된다.

간략하게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663년(천지 3년) 5월 일본의 견상군이 군사사절로 고구려에 갔다가 일본으로 돌아오는 도중, 〈석성〉에 들려, 〈풍장왕=クゲ〉을 만났다.

이때 풍왕이 복신의 모반하려는 마음을 의심하는 말을 하더라는 것이다.

드디어 깊어진 백제 부흥군의 내분. 복신장군은 그 한 달 후인 6월 질병을 가장하고, 굴속에 숨어 있으면서 풍왕이 문병을 오면, 그 기회에 왕을 없애려다가 도리어 이를 눈치챈 풍왕은 심복병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복신을 잡아다가 손바닥에 구멍을 뚫고 가죽으로 묶었다는 것이다.

복신은 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마침내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 〈석성〉이 있는 곳을 일본사학계는 물론 한국학계에서도 부여군 석성면 석성리에 있는 옛 석축산성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큰 잘못이다. 왜냐하면 대전지방까지 진출하여 웅진(공주)과 금성(경주) 사이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있던 복신군은 그 전해(662년) 7월에 이미 강동(공주ー부여)지방으로부터 패퇴하였기 때문이다.

그간 필자는 대흥 이수여사의 안내로 임존성의 동쪽 기슭에 있는 〈잡피굴〉을 답사하여 보았을 정도로 아쉬웠다.

그러나 장곡면 산성리의 〈학성ー석성〉과 대흥면 상중리의 임존성 동쪽 아래에 있는 동굴사이는 12㎞쯤 되니, 왕이 문병을 다니기에는 너무 멀 것 같아 단정하기 어려웠다.

다행히 지난(1997년) 초여름 장곡면 김갑현씨와 조환웅씨의 설명

으로 모든 가능성이 잘 갖추어진 석실을 오서산의 광성리쪽 중턱 백제사찰인 내원사에서 400m쯤 거리에 위치하는 〈쉬운길 바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는 이 지방의 무녀들이 기도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동굴이다.

장곡면 산성리는 아산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무한천(삽교천)의 상류에 해당하고, 아산만은 일본·고구려간 항로의 도중에 위치하니 〈견상군〉의 항로와 부합된다.

그러니 〈두루산의 두루성=학성〉과 일본서기의 〈석성=주유성〉이 중국사료와 삼국사기의 〈주류성=두루성〉이라는 추정이 가능해 진다.

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지방의 옛 지명관계를 조사하여 보았다.

b) 일제는 침략직후,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과 지명 변경을 단행한 바 있다.(1914년 대정 3년)

당시의 지명변천 실상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1924년(대정 13년) 펴낸 〈홍성군지〉의 산악편을 보면,

「오서산－(전략)－오서산 중턱에 정암사·내원사 등 사찰이 있고, 이곳으로 부터 동쪽으로는 홍성－청양사이 기러기 고개, 여기로부터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독고개, 북쪽으로 꺾어 장곡면 대현리에 이르면 탄현고개가 있고, 둘로 갈라지는데 한쪽이 산성리에 이르는데 학성산이라 하고 학성산은 장곡면 산성리에 있고, 산꼭대기에 옛성이 있고, 옛날 우물의 자취가 있다.」(鳥棲山－(前略)－鳥棲山之中腹有淨菴寺 內院寺等寺刹, 自是東?爲洪城靑陽間雁峴, 自是一支南?迤爲靑陽郡化城面水汀里独峴, 因北折至長谷面大峴里爲炭峴峴分二脈 一脈東?至山城里爲鶴城山이라 하고, 鶴城山 : 在 長谷面 山城里 山巓有古城廢井之跡이라 하였다.)

이로서 산꼭대기에 〈학성－두루(미)〉성이라는 성이 있기에 학성산이라 하였고, 이 학성산에 산성리라는 새 지명이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러종류의 구 읍지등을 참고하여 장곡면 산성리의 建置沿

革을 조사하였던 바, 조선조 말기까지의 이곳 행정구역 지명은 〈홍주군 얼방면(孼方面) 학성리〉였다.

「얼방면」이라는 「孼」자는 중국한자도 일본한자도 아닌 한국한자로서 충청지방의 지명을 가르키는 이름 「얼ㅡ孼」자인 것이다.

즉, 홍성군의 이곳 〈장곡면의 옛 고유지명〉을 표기하기 위하여 창조된 한국한자인 것이다.

〈북사〉 백제전에 따르면 〈왕의 성은 여씨, 이름은 어라가, 백성은 건길지〉「王姓餘氏 號於羅瑕 百姓呼爲 鞬吉支 夏言竝王也」라 불렀다.

그런즉, 〈孼方ㅡ얼방〉이라 함은 〈어라방〉, 즉 이곳 마한사로국의 〈왕궁성〉이 있던 지방임을 뜻한다.

이병도박사는 〈한국사〉(진단학회 p.286)에서 〈마한사로국은 홍성군 장곡면 일대로서 백제의 사시랑현에 비정된다. 사시랑은 사라라고도 하고, 라대의 「신랑」이다.〉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약간 내뜻을 추가하고자 한다.

마한의 사로국 즉 〈사시랑국·사라국〉의 초기토성은 장곡면과 가까이 붙어있어 10㎞ 떨어져 있는 현재의(홍성읍의 신성리) 쪽이었다고 본다.

〈신성토성〉에 관하여 처음 문제를 제기한 것은 홍동면에 소재하는 〈풀무농업고등학교〉 주옥로 교장이었다.

그분이 이 지역에서 수집한 유물에 관하여는 서울대 최몽룡 교수의 논문이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

필자가 보기로는 4세기말까지 마한의 이 지방의 모든 소부족들은 각자 소규모의 토성을 가지고 있었다. 부족장들이 사는 성이자 신에게 제사지내는 장소였다. 그러던 것이 4세기말, 내포지방에 위치하는 마한의 38개 부족국이 광개토대왕의 수군에게 의하여 침범을 당했다.(병신년 396)

이 남침을 당한 직후 외침의 쓰라림을 겪게된 마한의 여러나라에서는 몇개나라씩 결합하여 각처에 새로 석축산성을 구축한 것으로 필자는 추측한다.

즉, 고구려 호태왕의 병신년(396) 남침이 이 지방의 돌로 쌓은 산

성 만들기의 동기가 됐다고 본다.

이때, 사시랑국(사로국)에서도 영내에서는 가장 방어여건이 뛰어난 지형지세인 〈두루산〉에 새로 돌로쌓은 산성을 구축한 것으로 추측된다.

호태왕 비문의 병신년(396년)조:지금까지 내려온 그대로, 호태왕의 남침범위는 한강 이북으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이 범위가 충남지방까지 미쳤다고 처음으로 내세운 사람은 사까이(洒井)교수였다. (1955. 조선학보)

이 설에 동조하고 있는 이노우에(井上)교수(사까이여대), 박성봉교수(경희대), 김성호씨 등의 연구가 있다.

필자도 이들과 그 위치를 정하는데 대하여는 견해차이는 있지만 그 큰 줄거리에는 동조하고 있다.

c) 이에 장곡면 산성리에 있는 〈두루산과 두루성〉의 참모습을 살펴두려 한다.

충남의 서해안에 위치하는 오서산은 해발 799m에 달하는 산맥으로서 가야산으로 이어지며, 충남에서는 계룡산 다음가는 큰 산이다.

오서산의 동쪽으로 뻗은 맥이 기러기재, 독고개, 숫고개 등 산봉우리를 이루면서 4㎞를 달리다가, 무한천과 만나게 되는 반계마을 근처에서 높이 250m쯤 되는 봉우리를 이룬다.

이를 〈두루산〉이라고 한다.

이 봉우리의 꼭대기에는 둘레 1.5㎞쯤 되는 분지를 이루고 있다.

이 분지의 동편쪽은 직선형에 가가운 역단층의 바위절벽이고, 북·서·동남쪽은 급경사의 능선을 이룬다.

그래서, 이 분지의 둘레 능선은 고르지 못한 둥근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동쪽의 암벽사이를 물 흐르는 곳으로 하는 -낮은 지대로 하는- 산위의 분지가 산 봉우리에 의해 둥글게 둘러쌓인 산. 그야말로 〈두루산〉이다.

여기에 사시랑국의 〈왕궁성-얼방성〉이 축조된 것이다. 두루산에

축조되었으니 그 이름 〈두루성〉이었다.

이 산의 서남쪽 기슭에 위치하는 마을을 〈두리－杜里〉라고 한다.

〈상두·중두·하두〉라는 세개의 작은 마을로 이루어 졌다.

따라서 필자는 이 산의 이름은 옛날부터 〈두루산〉이었다고 단정하게 되었다.

살피건데,

여기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에 옛 석축산성이 있고, 이곳의 이조말기 행정지역 이름은 〈홍주군 얼방면 학성리〉였다.

얼방이라 함은 마한 〈사로국－사시랑국〉의 왕궁성이던 곳임을 말한다.

병신년(A.D 396) 광개토대왕의 남침이 있은 뒤 5세기초 이곳 두리의 〈두루산〉에 석축산성이 구축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그 이름은 처음부터 〈두루성〉이었다.

A.D 475년의 고구려 장수왕의 한성 침공. 이로 인한 개로왕의 전사, 다음 문주왕의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이후, 현재의 대현리쪽 두루산과 이어져 있는 봉우리에 또 하나의 산성 〈백제사시랑현의 치소성〉이 축조되었다. 〈골마을〉쪽이다.

그 이름도 〈두루성〉이었다.

후세에 이를 우리 글자로 표기하면서 홍주지방에서는 우아하고 고상한 〈학－두루미〉자로 대신 하였으니, 1,300년전 옛 이름을 오늘에 간직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기에 성이 있는 곳 산이름을 〈학성산〉이라 하였고, 그 곳 마을 이름을 〈두리－상두·중두·하두〉라 하였다.

d) 〈주류성〉이라는 기록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백제 멸망후인, 백제유민들의 항전을 토벌한 당의 사서에서다. 중국사료와 이를 인용한 삼국사기에서는 〈두루성〉을 〈주류성〉이라 하였다.

〈주〉자의 훈 또한 〈두루·주〉이니 우리말로는 〈두루성〉이 역시 〈두리－杜里〉와 〈두루성－학성〉의 두루를 음을 빌려 쓴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일본서기에서는 〈주유성－州柔城〉이라 쓰고 〈쓰누사시－tsu-nu－シヌサシ〉라고 읽는다.

〈사시－サシ〉는 성(城)을 말한다.

일본의 저명한 백제사 연구가 〈가루베－經部慈恩〉교수는, 일본서기에서의 〈쓰루－tsuru－シル〉로서, 한국어에서의 〈두루－ture－학〉을 일본음식으로 옮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백제유적의 연구」 p. 147〉. [가루베〈일본대〉 교수의 논문 사본 참조]

이상의 추론을 하고 보면

장곡면 〈두리와 학성리〉에 있는 돌로 쌓은 산성은 본래 〈두루성〉이고, 이를 한자식으로 옮겨쓰면서,

a) 홍성지방에서는 〈학성〉,

b) 중국사료와

c) 이를 전사한 삼국사기에서는 〈주류성〉,

d) 일본서기에서는 〈주유성－쓰누사시〉라고 기술한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이 확신을 딛고 〈홍주주류성〉 고증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3. 주류성 문제와 백촌강 문제

이에 필자는 사료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추정을 하여 본다.

a) 주류성 문제

A.D 475년 고구려 장수왕의 한성 공격으로 백제 개로왕이 전사하자, 다음 문주왕은 도읍을 웅진(공주)로 옮겼다.

백제의 핵심 통치 세력권이 남쪽으로 확장되자, 내포지방의 토호세력들도 이에 순응하게 되었다.

마한의 〈사로국＝사시랑국〉 지방도 백제의 군현제로 개편이 된 것이다.

따라서 현의 치소가 문제가 된 것이다.

지금까지 내려온 사로국의왕궁성이던 얼방성 즉, 〈두루성=사시랑성〉은 지세가 너무나 험준하여 불편하기만 하다. 평화시대의 현의 치소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그때까지의 〈왕궁성－얼방성〉쪽을 버리고 가까운 곳에 있는 대부동 수구계곡(水口溪谷)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산봉우리－산 위에 대지도 넓고, 다니는 길도 순하고, 물도 풍부하고, 산세도 두리성보다 얕은 봉우리－즉, 대현리 쪽 봉우리에 또 하나의 두번째의 석축성이 구축되었다.

이것이 사시랑현의 행정하는 성인 것이다.

위 치	지 명	용 도	산높이	성둘레	비고
산성리	1) 제1학성(두루성) (두리성－杜里城) 2) 중국사료의 주류성 3) 일본서기의 주유성 (シスサシ) 석성(シヤクサシ)	(사로국) 사시랑국의 왕궁성 (얼방성)	255m	1,350m	양성중학교 뒷 산
대현리	제2학성(두루성)	사시랑현의 치소	210m	1,174m	조한웅씨댁 뒷 산

이리하여 웅진시대와 사비시대라는 안정된 세월이 백여년간 흘렀다.

신라는 7세기초까지도 문화면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백제의 압박을 받아 오다가 무열왕 김춘추의 책략으로 당나라의 세력을 끌어들여 660년 7월 신라의 5만병력과 당나라의 13만 대군이 연합하여 백제의 도성을 갑작스레 덮치니, 백제 678년 사직은 그 끝을 맞았고, 당나라 장수 소정방은 의자왕 이하 1만 2천명의 포로를 끌고 9월 3일 개선하였다.

수도권에서 감행된 1만 2천명에 달하는 포로의 강제 연행은 백제의 통치세력이 뿌리 뽑힘을 뜻한다.

그러나 이로서 백제인들의 완전복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백제 유민들은 나라를 다시 찾으려는 전쟁에 기꺼이 참여한 것이다.

임존성에서는 소정방이 개선하기전, 이미 풍달군장, 흑치상지, 무왕의 조카 귀실복신과, 스님 도침 등이 의병을 일으키니 10여일 사이에 3만여 장정들이 모여 들었다.

이에 놀란 소정방은 많은 병사들을 보내 이를 진압하려 했지만, 〈병사는 많고, 지형은 험하여〉, 소책(小柵 대흥중학교 옆 "관록재")을 공격하였을 뿐, 8월 26일 철수하고 말았다.

아마도 9월 3일에 시작된 당나라 군사의 귀국 일정 때문일 것이다.

신라와 당나라의 주력부대가 철수하고, 유인원의 1만 당군과 김인문(무열왕의 둘째 아들)의 7천 신라군만이 사비와 웅진지방에 남아있게 되자, 백제인들의 항전은 백제전역으로 번져 나갔다.

그 중심은 여전히 백제의 서북부인 임존성이었다.

따라서 부흥군의 주력은 끝내 임존성의 3만여명이 주류를 이룬다.

임존성은 해발 484m의 심한 경사진 바위산의 약간의 분지에 축조된 길이 2,540m에 달하는 석축산성이다.

게다가 홀산이어서 3만 병력이 장기간 진을 치고 주둔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이에 새로운 성이 꼭 필요했다. 총지휘본부 이전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그래서 복신과 도침등은 소정방군이 귀국하자 곧 주류성으로 옮기는 것을 감행하였고, 상지장군은 임존성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주류성은 어디에 있는 성이며, 어떠한 성인가?

필자가 추측하고, 답사하고, 검토하고, 확신하는 바 앞서 이들 임존성의 남쪽 약 12㎞지점에 위치한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와 대현리에 있는 두 곳의 산성과 이 두곳의 석축산성의 배후를 이루는 옛 행정구역 지명으로는 얼방면 학성리 즉 〈대부동분지〉까지를 싸잡은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두리와 학성리)=산성리〉 쪽에 있는 석축성은 광개토대왕의 병신년(A.D 396년) 침공이 있었던 직후인 5세기초, 두루산 꼭대기에 (사로국=사시랑국)의 (왕궁성=얼방성)으로 축조된 것이고, 대현리 쪽에 2차적으로 축조된 성은 6세기 중엽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 사시랑현의 다스리는 성으로 축조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대부동 분지〉는 보통 때 병사들의 주둔지 구실을 하였을 것이다.

쇠를 다루던 터와 일제때까지도 채광을 한 철광터가 남아있다.

백제 부흥전은 A.D 660년 7월 신라와 당나라의 18만 대군이 사비성(부여)을 공략한 직후부터 각지에서 백제유민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그 중심은 백제의 서북부였으며, A.D 663년 초겨울 당나라 군사에 항복한 흑치상지의 군병이 임존성에서 마지막까지 항전을 벌이고 있던 지수신군병을 공격함으로서 끝나버리고 말았다.

지수신은 어제까지의 전우이었던 흑치상지의 공격을 받게되자, 처자식도 거두지 못하고 고구려로 망명하였으니, 임존성의 항전도 필연적으로 끝이난 것이다.

A.D 663년 11월의 눈보라속의 일이었다.

주류성은 이 3년반동안 백제부흥군의 총지휘본부의 성이었고, A.D 661년 9월 의자왕의 왕자인 부여풍장이 오랫동안 머물고 있던 일본으로 부터 귀국하여 이 성에 들자, 복신을 비롯한 백제 유민들은 그를 왕으로 받들고 치열한 항전을 감행하였으니, 백제 최후의 왕궁성이기도 하다.

풍왕이 귀국하던 때 그를 호위하고 온 5천 일본병도 그들의 장수(에찌노다푸스ー エチノタクシ·사이노무라지ーサイノムラジ)와 더불어 이 성에서 최후까지 머물고 항전에 가세하였다.

김부식은 백제부흥전이 끝난뒤 약 500년후(A.D 1145) 〈삼국사기〉를 편찬하면서 주류성을 「이름은 전하여 지고 있지만 위치를 알 수 없는 성」(有明未詳地)이라고 하였다.

일본서기와 중국사료 역시 〈주유성〉 혹은 〈주류성〉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역사적 사건기록은 자세히 기록하여 전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위치를 전하는 기록은 없다.

웅진(공주)과 사비(부여)에 주둔하고 있던 1만 7천명의 신라와 당나라군은 명색이 점령군이지, 소정방이 개선한 이후 3년반 동안 계속되는 부흥군의 위협적인 공격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662년 7월

웅진 도독 유인궤가 신라와 웅진(공주)사이의 보급로를 회복하고서, 본국으로 구원병력의 증파를 요청하니, 당 고종의 명을 받은 자위위장군 손인사는 663년 5~6월에 이를 구원하기 위하여 산동반도 지방의 4개주에서 징집한 7천명의 육군을 수군장 두상의 170척의 전함에 싣고 내주(來州)에서 출발 도중 덕적(물)도에 기항하였다가 〈백강〉에 상륙하였다.

〈이 강의 위치 또한 주류성의 경우처럼 「확실하지 아니해서」 여러 견해가 나타나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손인사는 7천 육군을 상륙지 〈백강〉에 주둔시켜 둔채, 자신과 지휘부만이 도독부가 있는 웅진으로 가서 도독 유인궤나 낭장 유인원과 작전모의를 갖고 신라측의 출병을 요구하니, 문무왕은 이에 응하여 5만 병력을 거느리고 7월 1일 금성(경주)를 출발 8월 5일경 웅진으로 합세하였다.

이리하여 부흥군을 무찌르기 위하여 제2차 신라의 당나라연합군은 웅진(공주)로 집결하였다.

신라의 문무왕과 김유신은 당의 손인사와 유인원이 통솔하는 주력부대는 8월 10일경 웅진을 출발 작전목표인 주류성으로 진격했다.

13일 문무왕이 두솔성 아래를 지나자 이에 머물던 왜병과 백제병이 모두나와 항복하였다.

이에 문무왕은 크게 자비를 베풀어 용서함으로서 일본병은 모두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

17일에는 주류성을 둘러싸고 공격하였고, 9월 7일에 함락시켰다.

b) 백촌강 문제

이에 문제거리로 등장하는 〈백강〉은 A.D 663년 6월의 손인사 군이 상륙한 〈백강〉이자, 8월에 170척 당나라 수군과 일본군선 1천척이 싸움을 벌린 〈백강구－백촌강〉의 위치문제인 것이다.

① 손인사는 A.D 663년 6월초, 자기가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온 육군 7천명을 상륙지점인 〈백강〉에 주둔시켜 둔 채, 지휘부만을 거느

리고, 도독부가 있는 웅진으로 합류하였다.

이는 애당초 이번 출병의 공격목표인 주류성 및 임존성과 근접한 해역을 상륙지점으로 택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웅진으로 집결한 신라와 당나라군이 8월 10일 본격적으로 작전을 개시하면서, 문관 출신인 웅진도독 유인궤는 7천 증원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온 손인사 대신 두상의 수군과 부여 융의 양식실은 배들을 이끌고, 웅진강으로 부터 백강으로 가서 손인사가 거느리고 온 7천 육군을 만나, 이 부대에게 양선단을 인계함으로서 군량미를 실은 배들과 7천 육군이 같이 只今 문무왕과 손인사의 6만주력 육군이 8월 17일부터 공격중인 주류성 전선쪽으로 가게 하였음을(同趨周留城) 추측할 수 있는 일이다.

27~28일의 해전전황에 170척의 배들은 등장하지만, 도독 유인궤가 거느리고 온 웅진을 출발한 부여 융의 군량미 실은 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다.

② 제2차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참가한 신라군이 웅진에 도착한 것이 8월 5일경이라 하였음은, 뒤에 10월 21일 부터 임존성을 공격하다 말고 11월 3일 철군한 문무왕 신라군이 환도한 것이 11월 21일 이었으니 18일간이 소요된 셈이다. 이를 근거로 미루어 추측한 것이다.

③ 웅진에서의 출정일을 8월 10일경으로 추측하였음은 문무왕이 8월 13일 두솔성[청양군 적곡면(現 장평면) 적곡리 칠갑산]을 통과하자, 왜병과 부흥군이 모두 성에서 나와 투항하였다.

이것이 이번 출정의 첫 전과였다.

공주와 칠갑산 간은 금강건너 약 30㎞(6~70리) 거리이다.

이를 감안한 것이다.

이렇듯 중요한 백제부흥군의 지휘본부인 주류성의 위치 결정문제가 아직껏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있다.

일제침략이후 쓰다(津田, 와세다 대학교수)의 한산설이 제기되자

(1913년), 이에 오다(小田, 조선총독부 편수관. 1924년)씨와 이마니씨(今西, 경상제대 교수. 1934년) 교수등이 반론으로 〈전북부안설〉이 발표되는 등 80년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고산자 김정호는 두솔성은 청양 칠갑산에 있다하고, 일명 자비성이라 한다 하면서, 주류성에 관하여는 대동지지(권 5) 홍주목조의 서두에서 〈홍주목 본 백제주류성〉이라 하였다.

이 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인 것이다.

④ 주력육군이 웅진을 출발한 같은 날 도독 유인궤는 두상의 수군과 부여 융의 군량미를 실은 배를 이끌고 웅진을 출발(偕進), 웅진강으로 부터 백강으로 가서, 자기(유인궤)가 거느리고 온 군량미 선단을 손인사가 거느리고 와서 백강에 상륙한 채, 전쟁을 기다리고 있던 〈7천 당나라 육군〉에게 인계함으로서 지금 문무왕과 손인사의 주력부대가 8월 17일부터 포위 공격중인 주류성 전선쪽으로 같이 떠나보낸 다음 자기(유인궤)는 수군장 두상의 170척 전함만을 거느리고, 후방－백강구－의 정박지로 물러섰다.

후방 정박지로 물러섰다 함은 공주로부터 인솔하고 간 군량미를 실은 배에 관한 기록이 없음에서 알 수 있다.

이때 주력 육군은 직접 차령산맥을 넘어 단거리로 진격하였고, 유인궤의 보급부대는 수운을 이용 대흥지방까지 올라온 것이다.

⑤ 한편, 주류성의 백제진영에서는 일본의 구원군 만여명이 〈백촌－ハスキ－하구스키〉로 도착한다는 사전통보를 받고, 풍왕은 이를 영접한다면서 〈주유성＝주류성〉에 같이 머물고 있던 일본 장군들을 대동하고 8월 13일 〈주류성＝주유성〉을 출발, 일본 지원군의 도착예정지인 백촌에 와 있었다.

마침내, 8월 27일 미리 연락을 받은대로 구원선단 일천척의 병선이 〈백사〉에 도착하였다.

도착하고 보니 당나라의 전함 170척이 〈백촌강＝백석촌의 포구＝만＝입강＝바다가 육지속으로 들어온 곳〉에 진을 치고 있었다.

여기서 장차 동양사에 큰 영향을 미친 당나라와 일본수군 사이의 운명의 부닥친 싸움이 벌어졌다.

이것이 동양에서 처음인 국제해전인 〈백촌강의 해전〉이다.

일본의 장수들과 풍왕은 당나라의 수군을 약세라 깔보고,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하면 저들은 도망을 갈 것이다.〉 하면서 물때와 기상도 살피지 않고, 전열도 가다듬지 않은, 지금 막 바다를 건너온 수군을 거느리고 선제공격을 감행하였다가 도리어 중국전통의 화공작전에 말려들어 병선 400척이 불타고 장정 1만여명이 희생당하는 참패를 당했다.

당나라의 수군을 통솔하고, 이 해전을 치른 웅진 도독 유인궤는 일본장정들의 시신을 수렴하여 묻어주고, 그 원혼을 제사지내 주었다는 것이다.

〈백촌강=백강구〉의 해전은 이렇듯 큰 사건인데도 그 위치문제 또한 주류성의 경우처럼 아직까지도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자기나라의 장정 만여명이 희생된 사건임으로 그 장소를 규명하려는 노력과 이 해전이 미친 역사적 영향을 추구하는 연구가 활발하다.

이 문제에는 흥미있는 의문이 내포되어 있다.

백제가 신라와 당나라군의 침공에 의하여 멸망당한 것은 660년 7월이다.

그러하거늘 천지천왕은 그 3년후인 663년 3월 2만 7천명의 장정을 파견하였다가 400척의 병선과 1만명의 장정을 희생당한 것이다.

당시 당나라는 세계 최대 최강의 제국이었다.

이를 상대로 한 일본의 이해가기 어려운 행동의 연유는 무엇인가?

일본의 연구가들은 나름대로, 각양각색의 해명을 시도하고 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논지들인 것이다.

아마도 일본의 국가기원문제 혹은 지배층－천황가－의 출발문제와 관련시켜 연구해 볼 일이 아닐까 한다.

Ⅱ. 백제 옛 땅의 지정학적 특징

1. 충남지방의 분수령 차령산맥
2. 충남 서해안의 조수
3. 웅진강(금강)과 삽교천(삽내)의 수운
4. 아산만

Ⅱ. 백제 옛 땅의 지정학적 특징

1. 충남지방의 분수령 차령산맥

높이 500~600m 정도인 차령의 첩첩 산봉우리들은 충청남도의 북동부인 안성, 천안지방으로 부터 중앙부인 청양지방을 지나 서남부인 보령지방 해안까지 이어지는 분수령으로서 충남지방을 둘로 나눈다.

이 분수령의 동남부인 웅진강(금강) 유역이 백제의 중추부지역이고, 서북부가 삽교천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내포지방〉이다.

실학자 이중환은 그의 저서 택리지에서 〈차령산맥의 서쪽 가야산을 중심으로 하는 10개현을 「내포」라고 한다〉 하였고, 이규태씨에 의하면 원효대사는 〈원효결〉에 〈이 지방이 우리나라의 내장부와도 같은 지라 「내포」라고 한다〉 하였다는 것이다.

차령산맥을 분계로 그 양쪽에 서로 다른 문화권이 형성되었다. A. D 475년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의 한성을 공격하여 개로왕이 전사하니 다음 문주왕은 웅진(공주)로 천도하였고, 538년 성왕은 다시 사비성(부여)으로 천도하였다.

이렇듯 백제의 실세가 금강유역으로 천도하여 오기 이전에는 내포지방에는 강력한 지방세력(백제 8호족중의 1부인 진씨등으로 추상)이 있었으며, 그들이 형성한 〈내포지방 문화〉는 금강유역권보다 우수한 것이었다. 〈예:대흥 동서리 출토 청동기 유물과 신창면 남성리 출토 청동기 유물〉

2. 충남 서해안의 조수

이곳 조수의 6~7m에 달하는 간만의 차는 동양 최고로서 금강의 밀물은 부여의 약 10리 하류인 〈맏바위－장암면〉 부근까지 역류한다.

군산이나 장항 해상의 목선이 이 조수만을 타고도 5시간 뒤에는 강경 상류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말이 된다.

하물며, 이 지방에 흔히 불고있는 편서북풍을 탈 수 있는 범선임에야.

이렇듯 선박운항의 용이함과 논산·강경 넓은 평야의 물산 덕분에 〈강경 장터〉는 50년전까지만도 전국의 3대시장 중의 하나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A.D 660년 7월 10일 소정방의 13만 대군도 징·북을 요란하게 울리면서 부여앞까지 밀어닥칠 수 있었던 것이다.[遇潮且上, 連舳入江, 定方於岸上 擁陣, 水陸薺進, 飛楫鼓譟, 直趣眞都, 去城二十里, 賊傾國來拒, 大戰破之, 殺虐萬餘人, 追奔入郭] (舊唐書 卷83 列傳 33, 蘇定方)

또한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금강하류 지방에서는 겨울철이 되면 흐르는 얼음 때문에 하루 두차례의 밀물과 썰물때 흙탕물이 된다.

그러니 금강하류 유역은 검은빛 충적토일 수 밖에 없고, 지질에 바탕한 直說的인 지명, 예컨대 백강, 백촌강은 형성될 수 없다.

그러므로 금강하류를 〈백강, 백촌강〉이라고 추정하는 〈A부류설〉 논자인 가루베 박사 혹은 심정보 교수, 도수희 교수 등이 〈백강·백촌〉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언어학적 추론을 원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삽교천(삽천－삽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수물이 삽교천에서는 〈삽교:현 충의대교〉 1㎞인 하류인 〈서내－배다리〉까지 역류하고, 무한천에서는 예산읍 산성리 무한산성 아래 창소리(예산현의 해창이 있었던 곳)까지 역류한다.

삽교천의 약 50㎞ 상류에 위치하는 홍성읍 부근은 해발 약 20m인즉, 1㎞당 경사도가 약 40㎝가량이고, 임존성의 동쪽 기슭인 대흥앞들도 비슷하니, 내포지방의 대체적인 지형·지세는 짐작될 것이다.

또한 옛날 홍성앞까지 배가 다녔고, 대흥앞까지 배가 닿았다는 전설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3. 웅진강(금강)과 삽교천(삽내)의 수운

금강의 공주나 부여부근의 현재의 물깊이로 미루어서는 옛날의 웅진강의 역할이 납득되지 않는다.

그러나 1930년대 초까지도 금강물은 깊었다.

공주 혹은 그 상류 지방산 쌀을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적재량 2~300팔(叭) 규모의 쌍돛대 범선이 군산까지 오르내렸고, 서해의 어획물을 실은 어선이 직접 공주까지 올라오기도 하였다.

이로 미루어, 당나라의 침공로 또는 교역로로서의 웅진강의 역할이 이해될 것이다.

필자도 공주고보 2학년때 돗단배를 타고, 공주에서 부여까지 수학여행을 한 일을 기억한다.

삽교천과 무한천의 수심도 약 6천년 사이에 토사가 밀려 약 3m가량 얕아져 있다.

이는 삽교천의 상류인 홍성부근 금마천변에서 출토되는 다량의 침향의 매몰 위치가 현재의 흐르는 물의 약 3m 깊이 임에서 알 수 있는 일이다.

오서산의 북쪽 기슭에서 흐르기 시작하여 홍성(목)과 삽교(덕산현), 합덕(당진현)을 지나 북쪽으로 흐르는 것이 삽교천이고, 무한천은 오서산의 남쪽 기슭에서 흐르기 시작하여 대흥(현)과 예산(현)을 지나 북쪽으로 흐르다가 선장항(신창현) 바로 앞에서 삽교천과 합류하여 아산만으로 흘러들어 간다.

그러니, 삽교천과 무한천은 나란히 흐르면서 동쪽 차령산맥과 서쪽 가야산맥사이, 남쪽 오서산에서 북쪽 아산만(서해)에 이르는 길이 약 150리, 폭 60~70리에 달하는 예당평야(내포평야)의 젖줄을 이룬다.

이 옥토지대에 어찌 고대문화의 발전이 없었겠는가!

이것이 마한족에 의한 내포문화였다.

약 2천백년전, 이곳 금마천(삽교천의 상류)유역 (홍성군 장곡면—얼라가—얼방지방)을 중심으로 진번국이 있었다.

고려때의 여양지방이다.

B.C 3~2세기경인, 중국대륙의 전국시대 〈연〉과 〈진번〉사이에는 이미 교역이 있었다. 이는 물론 수운에 의한 것이었다.

기씨조선의 준왕때, 중국의 전화를 피하여 위만이 평양지방으로 망명하여 왔다.(B.C 195)

준왕은 위만을 중용하였건만, 만은 준왕을 배반하고 중국 피난민들을 규합하여 구테타를 일으켰다.

이로서 기씨조선국은 멸망하고, 위씨조선국이 성립됐다.

사학계의 일부에서는 준왕의 마한 망명의 영향을 큰 것으로 생각하지만 필자의 견해는 이와 다르다.

궁인의 일부만을 거느리고 배편으로 망명한 곳이 마한의 해중지방(海中地方)이었다 할지라도 안락한 망명지를 얻었을 뿐, 그로서 끝이났다 함은 중국사료가 밝히는 바와 같고, 마한 땅에 큰 정치적 영향을 끼쳤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충남의 내포지방에는 이미 〈북방의 조선문화〉에 대응하는 〈진번의 문화－내포문화〉가 발달되어 있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B.C 2세기초에 이르러, 위씨조선의 국력이 강화되자, 만의 손자 우거가 한(漢)제국과의 복속협약을 어기고 불손한 태도를 보이자, 한무제는 이를 핑게삼아 수군을 이용 5만 병력을 동원, 2년간에 걸친 공격끝에 평양성을 공략하고는 직할령 낙랑군을 설치하였다.

이때 한(漢)의 원정군은 수군의 일부를 파견, 아산만과 삽교천을 통하여 내포지방에 위치하는 진번국도 정복하여 B.C 108년 직할령 진번군을 설치하고 다스리는 곳을 〈삽현〉에 두었다.

이것이 소위 한사군중의 하나인 진번군이다. 〈진번군치 삽현 거장안 7,640리 15현－무능서〉(眞番郡治霅縣去長安 7,640里 15縣－「茂陵書」)

유형원은 「동국여지지」에서 현 삽교천을 〈삽천－霅川〉이라 하였다.

진번군의 다스리는 곳 〈삽현〉과 낙랑간의 연락은 육로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편리한 수운이 주가될 수 밖에 없었다.

26년후 진번군의 북부 7현은 낙랑군의 남부도위의 직할로 편입되고, 나머지 남부 8현을 다스리던 곳 〈삽현의 삽양장〉은 현 삽교읍 성리 목지부락 조수물 드나들던 삽교천 가까운 곳에 있었다.

30여년전까지 높은 토성지가 엄연히 남아 있었으나, 삽교천 방수뚝(防水堤) 축조때 반출·훼손되고 말았다.

낙랑군이 한과 위의 직할령으로서 400년간(B.C 108~A.D 313) 명맥이 유지되었음에 대하여, 한반도 침략의 기지이던 낙랑으로 부터도 멀리 떨어진 전초기지 진번군은 설치 26년 만인 B.C 82년에 물러가고 말았다.

그런 다음, 그 지방에 재건된 한족(韓族)의 나라가 충성을 맹세한 나라 〈반국〉이다.

A.D 121년에 저술된 허신의 〈설문해자〉에 보이는 나라인 것이다.

이병도박사가 진번군의 위치를 고증하는 사료로 인용한 그 반국인 것이다.(한국고대사 연구 P.129)

현 삽교읍 수촌리 〈반챙이-원반챙이〉 부락으로서 〈골뜸-능미〉 등 지명과 선돌, 고인돌, 토성이 남아있다.

이를 〈위서〉 동이전의 월지국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A.D 2~3세기경 큰 홍수가 있어 금마천변의 반국 〈월지국〉의 큰 도읍이 무너져 버리자(홍성지방의 전설) 이 지방의 주도권이 〈반챙이〉의 15리쯤 하류인 〈목지국〉쪽으로 옮겨졌다고 본다.

현 삽교읍 성리 목지부락으로서 옛 진번군의 삽양장이 있던 마을이다.

거대한 선돌(입석-立石)과 지석묘 3기, 인근부락에서 청동기가 출토된다.

두개의 성이 있던 하천변의 평지토성은 훼손되었다.

한(漢)에 이어, 직할령 낙랑군을 계승하게 된 위는 삼한을 지배함에 있어 마한 여러나라의 중심이던 목지국의 수장을 진족(중국사료의 남한족의 총칭)의 왕, 〈진왕〉이라 부르면서 이에게 조공을 받아들이는 일, 외교의 전권등 통제권을 위촉·대행토록 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어서 〈목지국의 목지왕〉이 아닌 〈목지국의 진왕〉이 삼한을 주도 하였다는 기록이 나오게 된다.

〈진번국에서 진번군→반국→월지국→목지의 진왕으로 이어지는 500년간의 역사공백 기간의 내포지방 역사연구는 별도 발표하기로 한다.〉

B.C 108년 진번국이 한(漢)무제의 침공을 당한 것은 내포지방이 중국대륙의 중추부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데다가 이미 중국에 널리 알려진 문화국이었고, 아산만과 삽교천의 수운이 편리하였기 때문이다.

4. 아산만

김재붕씨의 지론인 〈백강·백촌강 아산만 백석포설〉에 동조를 보이는 고바야시게이꼬(小林惠子)씨는 그녀의 저서 〈백촌강의 전투와 임신년의 난리, P.75〉에서 나름대로의 사유를 들어 〈백강=아산만〉이라고 추정하면서 〈당나라군이 산동반도로부터 황해를 횡단하는 가장 짧은 코스로 아산만 밖 덕적도에 도착, 덕적도로부터 아산만 남쪽의 당진근처에 상륙하는 것이 얼마쯤의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백제로 침입하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였는데,

필자는 〈663년 8월 제2차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의 출정목적이 주류성과 임존성을 치는데 있고, 그 소재지가 홍성과 대흥지방일 경우, 손인사의 증원군의 도래지가 작전 목표지방의 물길인 아산만과 삽교천이 합류하는 지점 부근일 것임은 필연적인 일〉 이라고 첨가하고 싶다.

고바야시는 또 〈현재의 아산만의 바다빛깔은 어찌된 일인지 휩스럼하게 보여 「백강」이라는 이름에 걸맞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였는데, 이는 여류작가로서의 날카로운 관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인즉 금강하류지방이 짙은 진흙지대임과는 대조적으로 아산만 연안지방에는 규사 혹은 장석지대가 많아서 그 결과 당진군의 아산만 입구쪽. 즉 〈백강의 들어가는 곳〉의 해안을 차로 달려보면

고바야시의 말처럼 〈힌 바다〉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아산만은 언제나 움직인다. 전문해양 학자에 의하면 9월의 〈백중사리〉때의 아산만의 간만의 차이는 8.5m에 달하고 이는 동양최고라고 한다.

참고로 살펴보면 인천 8.1m, 군산 6.2m, 목포 3.1m, 부산 1.2m이고 동해안쪽은 0.2~0.5m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7~8m에 달하는 극심한 조수의 차 때문에 하루 네차례 역·순이 바뀌면서 빠른속도로 흐른다.

게다가 중국인이 보기에 아산만의 폭은 중국의 양자강이나 황하에 비하면 작은 하천에 지나지 않는다.

660년 당시의 〈웅진강〉은 중국에 널리 알려진 강이름 이지만, 663년 6월의 손인사군의 도래 상륙지이자, 그 2~3개월뒤 〈백강지구=백촌강〉에서 당나라와 일본간에 펼쳐진 바다의 전쟁인 경우, 그 아산만의 지명을 구체적으로 아는 중국역사가는 없었을 것이다.

이에 중국사료가 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강(아산만과 삽교천·안성천이 만나는 곳)의 이름을 아산만에서 받게되는 인상대로 〈백강〉이라고 기술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중국사료(660~663)에서는 웅진강 하류를 〈웅진구(熊津口) 혹은 웅진강구〉라 하였지 〈백강〉이라고 쓴 기록은 없다.

Ⅲ. 필자의 백제부흥전 유적 두루 살핌

1. 고산자 김정호의 홍주 주류성설
2. 당진의 〈차돌배기마을－白(石)村－白村江〉
3. 당진의 큰 옛무덤
4. 홍주 〈두루성－학성〉
5. 학(두루)성〈사시랑성＝석성〉 발굴조사

Ⅲ. 필자의 백제부흥전 유적 두루 살핌.

1. 고산자 김정호의 홍주 주류성설

필자가 상고사 문제에 관심을 갖게된 지도 30여년이 지났다.

일본사학계의 한일관계사 왜곡문제가 자주 언론에 등장하고 있었기에 그 실상을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주류성 문제에 관심을 갖게된 것은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지지〉 홍주목조의 첫머리에서 〈홍주목 본 백제주류성 당개지침주〉라는 구절을 대했을 때였다.

당시 〈주류성은 한산의 건지산성〉이라는 인식이 보편화 되어 있던 터였으니, 고산자의 이 기술은 홍성지방인으로서는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고산자는 성지(城池) 항목에서 홍주목성이 주류성이라고 적고 있다.

그 후 일본서기에서 〈주유성=주류성〉의 景況(경황)을

a) 논과 밭이 멀리 떨어져 있고,

b) 토지가 척박하여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못하고,

c) 산은 험준하고 계곡은 깊어

d) 성을 지키기는 쉬웁지만, 적이 공격하기는 어렵다.

라고 기술하고 있음을 참조할 때, 평지 석축성인 현재의 홍주목성이 주류성일 수 없음은 자명하다.

백제 부흥전사를 살펴보면 주류성과 〈백촌강－백강구〉는 분명 동일지역 권내에 존재할 것임을 알게 된다.

지나간 80여년간 일본인 학자들에 의하여 그 연구가 활성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백제부흥전사 연구에 있어서의 〈주류성의 위치 문제 논쟁〉과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 〈백강과 백촌강〉이 홍성과 인접한 지방에 존재한다면 사정은 달라질 수도 있겠기에 홍주지방의 가까운 바다인 〈보령－대

천〉으로부터 〈태안－만리포〉사이에서 주류성과 순치(입술과 이)관계인 〈백강－백촌강〉 뿐아니라, 삼국사기의 기록인 〈왜선 1천척이 도착하였다는－백사〉. 중국사료의 〈백강－백강구－백강지구〉. 일본서기의 〈백촌－백촌강〉. 삼국유사의 〈지벌포·장암·손량〉 등의 존재도 조사하여 보았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

이래서야 아무리 청구도와 대동여지도를 작성한 대 지리학자 고산자의 발설이라 할지라도 홍주 주류성설이 고증될 가망은 없을 것이어서 연구를 단념할 수 밖에 없었다.

2. 당진의 〈차돌베기마을－백석촌－백촌강〉

광개토대왕 능비문의 병신년(396)조에 왕이 친히 수군을 이끌고 남쪽땅을 정복하여 38개성을 공략한 대목이 있다.

종래 그 침략 범위는 한강이북이라는 견해가 주도적이었는데, 근년 사까이(酒井)교수는 이를 충남지방까지 확대하는 견해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뜻을 함께하는 이로는 이노우에(井上)교수와 박성봉교수, 김성호씨가 있고, 필자도 이에 동조한다.(조선학보. 1955)

또한 광개토대왕이 침공한 지명중 종래 〈엄문지성－嚴門旨城〉으로 읽어오던 성이 있는데, 근년 중국의 고고학자 왕건군씨는 이를 〈암문종성－岩門岕城〉으로 고쳐 판독한 바 있다. 「岕(종)」자는 〈巖門－岩門－石門〉이니, 석문종성〈石門岕城〉인 것이다.

그런데 대동지지의 당진군 산수(山水)조에 〈삼봉산 서북쪽 30리 서쪽에 석문유지가 있다〉가 보인다.

필자는 그 답사를 나갔다가 당진군 석문면 삼봉리에서 옛 성터에 둘러쌓인 〈차돌배기마을 즉, 백석촌〉을 발견하고는 그순간 이곳이 663년 8월 백제부흥전의 최후를 마무리하게 된 일본의 바다 건너온 후원군 1천척과 당나라 수군 170척이 〈백촌강＝백강구〉에서 서로 만나서 해전을 벌인 〈백촌강〉이 아니냐는 직감이 들었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1) 차돌은 힌돌(白石)인즉, 차돌배기마을 〈백석촌〉이고, 이를 간략하게 말하면 〈백촌〉이 된다.

2) 풍왕이 부흥군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다를 건너오는 1만(일본서기의 기록) 일본군을 몸소 영접하기 위하여 663년 8월 13일 〈주류성=주유성ーシヌサシー쓰누사시〉를 출발하는 장면의 기사를 보면 일본구원군은 〈백촌ーハクヌキ〉으로 도착하기로 미리 연락이 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니, 그 착륙 예정지는 백제·일본 양측이 서로 잘 아는 해변이어야 하는데, 이곳 해안에는 약 20m의 높이, 폭이 약 50m의 백석암벽이 노출되어 있어 해상 멀리에서 바라보이고, 또한 이곳에 유명한 〈석문〉이 있어 10여년전 필자가 이 해안을 탐방하였을 때까지도 그 모습이 서 있었다. 근년 파괴되어 반출되었다.

3) 일본에서는 보통 〈냇물〉을 표기할 때 〈하ー河〉자 혹은 〈천ー川〉자를 사용한다.

그런데 일본서기에서 〈백촌강은 유달리 (ハクスキのエーハ구스끼노에)〉라고 토를 단다.

그래서 필자는 이 〈강ー江〉을 한강·금강의 〈강ー江〉이 아니라 일본말의 〈イリエー이리에ー入江〉, 즉 우리말의 〈만ー개포〉를 말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당진군 석문면 삼봉리를 살필 때 〈차돌배기마을〉에는 힌빛의 큰바위 ー〈白〉과 마을〈村〉과 동서 1.7㎞, 남북 1.7㎞에 달하는 〈곰개ー웅포〉만. 즉, 〈개포ーイリエー이리에ー入江〉의 〈江〉이 있고 게다가 옛 성터에 둘러쌓인 신석기시대 이래의 유물까지 출토되는 옛 유적까지 갖추었으니, 여기가 〈백촌강〉이 아니겠느냐는 느낌을 강하게 받은 것이다.(이곳 토성안에서 채집한 많은 유물이 석문중학교에 전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정도의 여건으로만 80여년간이나 백강, 백촌강의 위치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학계가 이 지방이 〈백촌강〉이라고 선뜻 인정할 리 없다. 더 완벽한 방증이 필요할 것이다.

이어서 주변지방을 탐사한 결과

1) 삼국사기에서 일본군선 1천척이 착륙하였다는 〈백사〉는 〈차돌배기마을－백석촌〉의 바깥 바다쪽 2㎞쯤 거리에 위치하는 석문면 장고항리의 3㎞ 이상에 달하는 그 지방에서 흔히들 부르는 지명 〈백사장〉 어항을 말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곳 백사장은 해수욕을 할 수 있는 모래사장이 아니고 장석(長石－백석)의 작은 돌부스러기로 이루어진 해변이다.

2) 삼국유사의 〈장암－長岩〉은 이곳 〈힌빛절벽－白色絶壁〉으로부터 바닷속으로 연속된 폭 10～20m, 길이 약 100m에 달하는 힌빛 암맥을 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 〈곰개－熊浦〉 염전가에 사는 70여세 되는 김노인의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힌빛암맥이 바닷속으로 뻗어 있었는데, 60여년전 〈곰개－熊浦〉 염전을 개발하던 때 이 암벽을 발파하여 방조제를 축조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 후로는 퇴조때면 그 잔맥이 노출 되었는데, 현재는 〈석문지구〉의 거대한 방조제 공사 완료로 육지화 되었다.

끝부분을 〈황새바위〉라고 한다.

가장 애를 먹은 것이 〈지벌포와 손량(孫梁)〉의 확인이었다.

3. 당진의 큰 옛무덤

그후 〈당진〉이라는 지명의 뿌리가 된 고대면 당진포리의 수군 만호의 유적을 답사하러 나섰다가 40년간을 당진·서산 연해에서 어부생활을 한 바 있는 강진선씨의 설명으로 〈손량과 지벌포〉가 고대면의 옛 장항만의 현재 장항교 근처에 실존함을 알게 되었다.

옛날 갯골 선착장이던 곳이 지금은 간척지속의 농토와 염전으로 변하여 버린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계기가 되어 석문면과 고대면 일대에서 길이 3㎞에 달하는 〈뱃사장 어항〉과 〈차돌배기마을－白石村〉을 만날 수 있었고, 석문중학교 이사장 신이균옹의 가르쳐 주심으로 〈막무덤〉과

〈졸(卒)무덤〉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가 당진군 고대면에 있는 〈막무덤－조잡하게 매장한 묘〉에 유의하는 이유는 국립박물관의 지건길박사의 배려로 입수한 1916년 조선총독부 발행 〈조선보물고적 조사자료〉에 〈옛무덤:당진군 고대면 서쪽 산위에 있고, 둥글게 흙으로 쌓아올린 높이 약 2m, 둘레 약 140m〉라는 기록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1965년 1월 간행된 〈충청남도지〉에서 고 홍사준 선생은 〈옛무덤－고대면 대촌리〉 이곳 분묘는 높이 6척 묘둘레 80간의 고분으로서 한 사람의 분묘라기 보다는 전쟁에 의한 무명용사의 외로운 묘가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이렇다 할 전설도 없으니 생각할 수도 없다.

혹시나 장래에 이 지방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기록하여 둔다 하였다.

이어서 구당서 유인궤전의 〈초백제경복신지난 합경조잔, 강시상속 인궤시령수렴해골 예매조제지…「初 百濟經福信之亂 合境凋殘, 彊屍相屬 仁軌始令收斂骸骨 瘞埋弔祭之…」〉와의 連繼가 推想 되기 때문이다.

필자가 추정하는 바 〈백강구＝백촌강〉의 위치가 당진군 석문면과 고대면의 이어진 바다였다면, 8월 27～28일 양일사이의 당나라와 일본 해전에서 당나라 수군의 총사령관이던 웅진 도독 유인궤가 자기의 작전으로 인하여 원통하게 전사한 1만여 일본 장정들의 유골을 수렴하여 묻어주고, 그 원혼을 풀게하는 제사를 올린 현장 또한 해전이 벌어졌던 그 주변의 해안선 근처였을 것이다.

주류성과 임존성을 토벌하기 위하여 663년 8월 10일 웅진(공주)으로 부터 출정하는 제2차 신라와 당나라연합군, 그 당나라 군대의 수군 170척 수군과 백제부흥군을 구원하기 위하여 1천척(삼국사기의 기록)의 병선에 대략 1만 8천명의 군대를 태우고(663년 3월에 천지왕은 2만 7천명을 징집. 이를 3개 군단으로 편성한 중의 사령부와 중군이 와서), 길이 약 3km에 달하는 석문면의 〈백사장 어항〉에 도착한 일본수군 사이에 부닥친 싸움이 벌어졌다.

일본수군은 그 수의 우세에 지나치게 안심하고, 선제공격을 감행

하였다가 도리어 일본병선 400척이 불타고, 일본장정 1만여명이 전사한 동양 처음 있던 국제해전의 희생자의 무덤이 아산만의 해안인 당진군 석문면과 고대면에 있는 것이라면, 일본 병선은 이곳 아산만까지 온 것이니, 일본군이 구원하려던 대상인 주류성 또한 아산만으로 흘러들어가는 무한천(삽교천)의 유역지방에 있었을 가능성이 확인되어지는 것이다.

필자는 이에서 본장 1절에서 언급한 고산자가 제기한 〈홍주주류성설〉의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다.

4. 홍주〈두루성＝鶴城＝周留城〉

필자는 위와 같은 경위를 바탕으로 국립도서관과 규장각을 찾아 여러종류의 홍주목 읍지와 고지도 등을 참조하여 보았다.

현.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 둘레(一圓)의 이조말 행정지명은 〈홍주군 얼방면 학성리〉였음을 알게 되었다.

얼방(孼方)의 얼(孼)자는 중국한자도, 일본한자도 아닌 한국한자로서 〈홍주지방의 지명이름 「－얼」〉자인 것이다.

〈북사〉에서 〈백제에서는 왕을 「얼라하－孼羅瑕」라고 한다〉 하였으니 〈얼방－孼方〉이라 하였음은 마한 〈사로국－사라국〉의 왕궁성, 백제 〈사시라현〉의 다스리던 성이던 곳임을 말한다.

현. 장곡면 산성리를 〈학성리〉라 하였으니, 〈두리－杜里〉 뒷산 두루산 산위 분지에 있는 석축고성을 〈학성〉이라고 불렀음이 확인된 것이다.

중국사료는 백제부흥군의 총사령부이던 이 성을 〈주류성〉이라고 기록하였는데 〈주－周〉는 〈두루주〉니 이를 〈두루성〉으로 읽는다면 홍성군지에서는 우아한 멋으로 고상한 글자인 〈두루미－학〉자를 대신 써서 성(城)이름으로 한 것이다.

1300년전 옛이름을 오늘에 간직하고 있는 셈이다.

그 뿐아니라 필자가 이 성을 처음 직접가서 살펴 보았을 때, 그 서남쪽 성벽위에서 분명한 백제 토기조각 5~6점을 채집할 수 있었

음으로 그 후로는 이 성을 백제성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연구해 왔다.

5. 학〈두루〉성 〈사시랑성=석성〉의 발굴조사

1995년 5월부터 1997년 10월 사이에 상명여대 박물관팀을 중심으로 홍성군 장곡면 일대의 역사 유적에 대한 지표조사와 〈학성-두루성-주류성〉에 대한 발굴조사가 있었다.

넓고 큰 건물터(폭 13m, 길이 30m, 119평)와 〈사시라-沙尸良〉와 〈사라-沙羅〉라는 글자가 써있는 옛기와 등이 많이 나왔다.

이에 대하여 이화여대 신형식교수, 단국대학 이호영교수, 상명여대의 최규성교수와 국사편찬위원회 최근영박사등의 학계 여러분의 심의가 있었다.

필자는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의 〈두루산〉의 〈두루성-학성〉이 백제 사시라현의 다스리는 성(城)임이 확인됨으로서 80여년을 끌어온 주류성의 위치문제논쟁은 끝이 난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는 지나간 30여년간 주류성 문제와 백촌강 문제를 연구하면서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와 대현리에 있는 〈대부동 분지-대현리 마을〉의 물있는 곳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두 곳의 석축고성과 그 배후를 이루는 대현리 마을을 〈주류성〉이라고 주장해 왔다.

제2차 신라와 당나라연합군이 부흥군을 공략한 663년 8월 시점에서의 부흥군의 병력은 임존산의 큰우리로 모였던 3만여명의 의병과 일본으로부터 풍장을 호위하고 와 〈주유성=주류성〉에 머물던 5천명의 왜병이 주류였다고 생각된다.

660년 8월, 부흥군이 임존산으로 집결하던 당시 〈보 임존산 결책이자고〉라 하였으니, 이때까지도 임존성의 석축은 완성된 것이 아니였다.

이만한 병력이 진을 치고 싸우자면 학성으로 부터 북쪽 12㎞ 거리에 있는 임존성 사이에 있는 세개의(천태산 석성등) 나성과 그 일직선상의 산지의 바로 아래를 흐르는 깊은 무한천이 물로 막고

있는 역할을 하는 지역의 배후지방을 〈광역주류성〉으로 인식함이 마땅할 것이다.

〈사시라－沙尸良〉 지방에 대하여 처음 관심을 제기한 것은 홍성군 홍동면에 있는 〈풀무농업고등학교 주옥로 교장〉 이었다.

주교장이 이 지방에서 수집한 고대유물에 대해서는 서울대 최몽룡 교수의 논문에 실려있다.

필자도 그 이전부터 이 지방의 고대상을 연구한 일이 있기에 고찰한 바를 적어둔다.

마한 〈사로국－駟盧國〉의 초기유적은 주교장이 언급한 홍성군 홍동면 신성리의 〈사시라 토성〉쪽이라고 생각된다.

장항선 〈신성역〉 부근이다.

상당히 높은 언덕위에는 토성이 있고, 분명한 신석기유물까지 채집된다. 또한 성의 아래 기슭에는 4~5기의 지석묘가 남아있다.

사로국은 5세기 초가 되면서 장곡면 산성리 〈두루산〉에 석축산성을 축조하고 이전을 한다.

그 동기는 A.D 396년(병신년) 광개토대왕이 수군을 이끌고 충남의 서해안 일대를 침공한 직후의 일일 것이다.

외침의 쓰라림을 겪고 나서 이에 대한 자구책이었다.

이에 〈충남 서북해안－내포지방〉 각처에서 대략 3~4곳 토성을 중심으로 하는 소부족국들이 연합하여 그들 영역중에서 가장 방어성으로서 적절한 장소에 석축성을 축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장곡면 지방에서는 〈사로국의 왕성－얼방성〉이었던 것이다.

이 가상은 문헌기록에 따른 것은 아니다. 필자가 지나간 30여년간 내포지방 5~6개군의 최소 150곳 이상의 토성과 석성을 답사하면서 느낀 감이다.

475년 9월 고구려의 한성 공격으로 개로왕이 전사하고,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를 한 후 부여족의 지배력이 충남지방을 제압하게 되자, 마한의 소국들은 백제의 현체제의 책임자로 변신한다. 그리고 〈담로－부여족〉의 지배를 받게된다.

풍달군장 달솔, 흑치상지, 무왕장의 종자 귀실복신, 홍성역전의

〈고모루성=고마누리성〉에서 군사를 일으킨 달솔 여자진과 유령사 탁상여등이 모두 이것이다.

머리속에 한번 더 상상해 본다.

홍주 두루산의 학성은 너무 험준하여 평화시의 사시랑현의 다스리는 곳으로서는 불편하기 그지없다. 이에 대부동의 물 흐르는 계곡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산도 얕고 진입로도 순탄한 대현리 쪽 산위에(조한웅씨 집 뒤) 또 하나의 (제2의) 〈학성〉을 축조하였다.

그러니 먼저 축조한 〈두루산〉쪽 학성은 일시 폐성이 된다.

A.D 660년 7월 신라와 당나라군의 침공으로 나라가 패망하자, 조국 부흥을 갈망하는 3만여 의병이 임존산 큰우리(울) 一大柵쪽으로 모이게 되자 소정방은 대군을 보내 이를 공격하였지만 산세는 험하고, 병력은 많아 이기지 못하고, 대흥중학교 앞 구릉에 있는 작은 울(우리) 一小柵ㅡ〈관록재〉ㅡ를 파하였을 뿐 9월 3일로 예정된 당나라로 돌아갈 일정 때문에 8월 28일 철군하고 말았다.

13만 당나라군사 주력이 귀국하자, 복신과 도침장군에 예속된 병력은 임존성의 남쪽 12㎞ 거리에 있는 양쪽 〈학성ㅡ두루성〉으로 이동 부흥군의 총사령부로 활용하게 되었고, 일본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던 백제왕자 부여풍이 귀국하자 왕으로 추대되어 이성 〈두루성ㅡ주류성〉에 함께 머물게 되었다.

신라와 당나라 군사의 사비성 공격이 시작된 660년 7월초 〈남천정ㅡ경기도 이천〉에 머물던 무열왕 김춘추는 병선편으로 홍성군 광천쪽으로 내려와 사비성의 승전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료는 그곳을 〈사라정〉이라 하였다.

필자가 보기로는 이미 무열왕은 〈사시랑현성=사라성=두루성〉까지 들어가 머물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비성으로 입성 소정방과 합류하자면 역시 병선편으로 웅진강을 통하여 「乘湖帆以進」함이 가장 편한 것이기 때문에 무열왕은 그 수일간을 〈오천항에서 광천 독배사이 지역〉에서 머물었을 것이다.

이곳도 〈사시라현ㅡ沙尸良縣ㅡ沙羅縣〉의 다스리는 성에서 가까운 영역이기 때문에 〈사라정ㅡ沙羅停〉이라 한 것이다.

Ⅳ. 주류성고

1. 피성고증에 따른 주류성에의 다가감
2. 면천 〈혜성〉이 일본서기의 피성이다.
   A) 일본서기의 피성(へサシ－혜성－혜사시)
   B) 이께우지교수의 김제피성설과 사평성
   C) 면천지방의 백제때 지명은 〈혜성〉
   D) 아유가이씨의 피성관과 필자의 주장
   E) 면천－혜성이 일본서기의
      〈피성 へサシ－혜성〉이다.
3. 견상군의 "석성"방문과 복신굴
4. 제2차 신라군과 당나라군의 주류성 공략
5. "두솔성＝자비성"과 각산

Ⅳ. 주류성고

1. "피성" 고증에 따른 주류성에의 다가감
— 면천 혜성 —

1986년 필자의 백제부흥전사 연구는 큰 전기를 맞게된다. 이해 가을 충남대학교에서 개최한 백제사 관련 학술회의를 방청하러 간 일이 있었다.

일본학자들도 여러분 참석하고 있었는데, 경도(도쿄)의 입명관대학의 야마오(山尾幸久) 교수를 만나 내가 쓴 백제부흥전 관련논문이 있는데 검토하여 주겠느냐고 부탁을 했더니 선뜻 응락을 하였다.

겨울방학 무렵 회신이 왔다. 그 요지는 〈피성을 김제지방으로 인식함은 일본사학계의 정설이다. 귀하의 견해대로 주류성이 홍성지방이라고 한다면, 그 곳과 김제지방간의 거리감각을 어찌 해명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드러운 어투였지만 내게는 목에 칼을 대는 그런 비평이었다.

사실 이 두 지방사이는 직선 80㎞가 넘을 뿐 아니라, 금강과 만경강, 동진강이라는 간만차 6~7m에 달하는 큰강이 가로놓여 있으니 〈ヘサシー혜사시ー피성〉의 위치가 통설대로 전북 김제지방이라면 풍왕이 662년 12월 홍성지방으로 부터 그 곳으로 도읍을 옮겼다가 70일도 못되어 다시 홍성주류성으로 귀환을 하였다 함은 사리에 맞지 않으니, 필자의 「주류성설」은 고사하고 〈한산주류성설〉까지도 그 존립이 애매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순간 논쟁의 승리는 내것이라고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야마오교수의 비평은 필자에게 백제종말기사의 촛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우쳐 준 것이었다.

그러나 논리전개의 방향을 바꾸면 될 것 아닌가!

사실인즉 필자가 야마오(山尾)교수에게 건네준 논문에서는 일본

서기 662년 12월 기사인 〈풍왕과 복신이 주류성에 함께 머물고 있던 일본 장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왕 있는 곳을 피성으로 옮겼으나 곧 신라병의 공격으로 사평성 등 4개 성이 점령당하자, 불안을 느낀 풍왕은 70일도 안되는 다음해 2월 주류성으로 되돌아온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는 한구절의 말도 하지 아니했던 것이다.

이는 필자의 의도적인 배제였다.

왜냐하면 천지기에 있어서 피성관련기술은 상당히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잇는 중요사건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한국이나 중국의 어느 사료에서도 이 〈피성〉과 관련된 기사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야마오교수에게 보낸 원고에서는 [백촌강=백강구를 당진군 석문면과 고대면의 연안]이라고 추정하는 필자 자신의 견해만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야마오 교수는 이 피성의 위치 여하가 주류성의 소재를 확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깨우쳐 준 셈이다.

야마오(山尾)교수의 지적은 옳다.

필자가 이 부분을 처음 읽던 때, 일본에서는 피성을 〈ヘサシー혜사시〉라고 읽고 있음을 보고, 풍왕이 〈피접-피란〉간 곳이 〈ヘサシー혜성〉이었다면 〈면천지방이었구나〉하고 직감적으로 생각을 편 적이 있었다.

당진군 면천지방은 필자가 살고있는 예산군 덕산으로 부터 30리(12km) 거리에 불과한 지방이니 〈ヘサシー혜사시-혜성〉이라 말할 때 그 곳의 백제 혹은 통일신라당시 지명인 〈혜성〉이 연상되었음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어서 이를 배제하고 말았던 것이다.

필자는 야마오교수의 서신을 받은 다음날 면천으로 달려가 이 지방의 실상을 다시 조사한 다음 이께우찌〈池內〉박사가 제기한 소위 〈김제피성설〉의 논거부터 검토해 보았다.

김제로 달려가 벽골제 연구를 한 정진형씨의 안내로 현지조사를 한 것도 이때였고, 전주박물관으로 전영래씨를 방문, 그분의 논거를 살펴본 것도 이때였다.

다음절에서 이께우찌 박사의 피성김제설의 약점을 지적한 아유가이(鮎具)씨의 논지를 검토하겠지만, 이로서 이께우지 박사가 김제지방이 〈피성ーヘサシー혜성〉일 가능성의 고증자료로 활용한 일본서기의 기록과의 대조에 있어 〈면천지방의 혜성〉쪽이 우위에 있음을 자신할 수 있었다.

따라서 「662년 12월 풍왕이 왕성을 옮긴 〈피성〉은 전북 김제지방」이라는 이께우지교수의 뿌리깊은 통설에 대하여 이를 부정하고, 필자 나름대로, 애초 추상하였던 「면천지방이 일본서기의 〈피성〉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는

① 이께우찌 박사 자신이 그의 논문 중에서 스스로 해명을 포기한 바 있는 〈사평성〉의 위치문제와

② 아유까이씨가 지적한바 있는 이께우찌 박사의 논문중에서 논급이 빠져있는 〈고련단경수(古連旦涇水)〉의 존재를 중요한 판단여건으로 활용하였다.

아울러 두릉윤성(豆陵尹城)의 실황도 재검토하였다.

이리하여 백제종말기사 관련 유적의 고증은 필히 661년 3월의 무대 두릉윤성과 피성의 소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필수성을 알게되었다.

야마오(山尾)교수에 감사드린다.

2. 면천 〈혜성〉이 일본서기의 피성이다.

A) 일본서기의 〈피성ーヘサシー혜사시ー혜성〉

일본서기(권27) 천지원년(662) 12월조에 따르면, 풍왕과 복신은 왕성을 주류성으로 부터 피성으로 옮겼다가 다음해 2월 2일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이 있다.

그 대략을 살펴보면 풍왕과 복신은 같이 주류성에 머물던 일본 구원군 장군 세바이(狹井連) 장군, 보꾸이찌(朴市田末津)장군과 상의 하기를 「이곳 〈주유(ツヌ=쓰루-주류〉는 밭과 논이 멀리 떨어져 있고 토지는 메마르다. 농사짓고 누에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다.

이곳은 싸움터일뿐, 여기 오래 있다가는 백성 〈병사〉들은 굶주릴 것이다. 이제 〈피성-ヘサシ-혜사시-혜성〉으로 도읍을 옮기려 한다.

피성은 서북방면으로 「고련단경의 냇물」이 흐르고, 동남방면으로 진흙수렁의 큰 뚝이 있어 적군을 막아내는 데에 도움이 되고, 그 둘레에는 논과 밭이어서 똘을 파서 물을 댄다. -(중략)- 「그 지대가 얕다 할지라도 어찌 안 옮길소냐?」 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꾸이찌 일본구원군 장군이 혼자 진심으로 옮기지 말기를 전하니, 「피성과 적이 있는 곳 사이는 하루밤만 걸으면 되는 거리이니, 만약 뜻밖의 일이 벌어진다면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굶주림이란 다음 일이고, 패망이 더 시급한 일입니다.

지금 적이 감히 공격을 못하는 것은 〈주유=주류〉는 산이 험준함을 이용하여 방어진을 치고 산은 험하고 높고 골짜기는 좁아 지키기는 쉬웁고 공격하기는 어려웁기 때문입니다.

만약 낮은 곳에 있었다면 어찌 오늘까지 버텨올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러나 풍왕은 그 권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피성〉으로 도읍을 옮겼다.

그런데 다음해 2월 신라가 백제의 거열성, 거물성, 덕안성, 사평성 등 네고을을 쳐서 빼앗고 2천여명을 죽였다.

이때문에 피성과 적과의 거리가 가까와져 더 머물수가 없어 주류성으로 되돌아 왔다는 것이다.

이 기록에서 우리는

a) 피성과 주류성의 위치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두성의 지형과 환경을 뚜렷하게 전하고 있는 귀중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

b) 〈피성〉이란 고유지명 이라기 보다는「피난간 성, 피접간 성」이란 뜻을 나타낸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

c) 피성의 배후지방은 농산물이 풍부하고, 둘레의 가까운 지대엔 낮고 땅이 물기가 많아 방어에 도움이 됨에 대하여, 주류성은 산이 높고 골짜기가 좁은 곳에 위치하고, 평지에 세운 것이 아니라는 점. 그런 즉, 현재 홍성읍성과 같은 평지축성일 수 없다는 사실.

d) 부흥전 2년째인 전쟁사정이 급박한 시기에 도읍을 옮겼다가, 3개월 후 다시 돌아 왔음으로 미루어 이 두성사이는 가까운 거리였거나, 같은 지역권내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한 성의 위치가 가려진다면 다른 연관 유적들도 그 둘레지역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는 점 등을 느껴 알 수 있다.

이로서 피성자리가 확인된다면 주류성의 위치결정은 쉬울 것이다.

이에 이께우찌 교수는 일본서기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하고 있는 피성의 확인요건을 활용, 피성고증을 시도한 것이다.

그 성과가 〈김제＝辟骨＝피성〉설이다.

B) 이께우찌 교수의 김제피성설과 사평성

일본의 석학인 이께우찌 박사의 김제피성설이 한일 양국에서 아무런 이론없이 정설화 되자, 양국의 많은 백제사 연구가들이 이를 유력한 방증으로 인용하면서 백촌강과 주류성의 위치문제에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백촌강과 주류성이 있는 곳을 전북지방이라고 주장하는 〈B부류설〉 논자들은 이에 절대 의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피성은 과연 김제지방인가?

이께우지 교수는「피성」을 〈ヘサシー헤사시(성)〉라 읽은 점에 우선 착안한 것 같다.

그리하여 〈ヘサシー혜성〉이라고 읽을 수 있으면서 앞서 말한 바

있는 지형·지세등 여건을 구비한 옛날지명을 물색한 결과가 전북 김제지방이었던 모양이다.

이리하여 이께우지 박사의 〈만선지리역사 연구보고 p14〉와 이와나미(岩波)출판 〈일본서기〉의 주해 〈하권 p356〉은 한결같이 전북 김제지방이 〈피성〉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이께우찌설의 논거를 요약하면

「피성」은 삼국사기(권 37) 지리지에서 〈벽성현 본 벽골〉이라고 한 벽성과 통하며, 벽골은 지리지 권 36에 〈김제군 본 백제벽골현이라한 벽골과 통하니까 그 땅은 지금의 전라북도 김제에 비정할 수 있다.〉하고 그 실증으로서 〈오만분의 일:실측도의 김제호를 보면 이 읍의 부근의 지형은 피성에 관한 일본서기의 지리적 기재에 접합한다.〉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를 증명하고 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논술을 밀고나가, 용삭 3년(663년) 2월 풍장·복신등이 피성으로 부터 주류성으로 귀환한 사정에 대하여 「일본서기」에 〈신라인소번 백제남쪽의 안덕등 네 요지를 취했음(新羅人燒燔 百濟 南畔四州幷取安德等要地)〉이 보이는데, 신라본기의 본문(문무왕 3년) 2월조에 〈흠순·천존 병사가 백제거열성을 쳐서 빼앗고 칠백명의 머리를 자르고, 다시 거물성을 공격, 사평성을 쳐서 항복받고, 또 덕안성을 쳐서 1천7백명의 목을 자르다.「欽純·天存 領兵攻取百濟居烈城 斬首七百級, 又攻居勿城 沙平城降之, 又攻德 安城斬首一千七十級」〉하였음을 이에 응하는 기사일 것이다. 라고 논술하였고, 거열성, 거물성, 덕안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언급하면서

「사평성」에 관하여는 「사평성은 잘 모르겠고, 지리지(권 37)에 보이는 백제의 〈혜군〉의 사평현은 이것이 아닐 것이다.

이현은 신라시대에는 신평현이라 하여 여지승람(권 19. 홍주건치연혁) 및 대동여지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위치는, 앞의 두 성과는 전혀 방향을 달리하는 충청남도 당진의 동쪽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중략)― 「그런데 이들 여러성이 신라군에게 공략당하자 풍

장과 복신은 금강서쪽의 주류성으로 달아났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께우지 박사가 「앞의 두 성(거열성과 거물성)과 전혀 방향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부정한 〈혜군의 사평성〉을 신라의 공격을 받은 〈사평성〉이라고 생각한다.

거열성과 거물성과 덕안성은 신라와의 접경쪽에 있음으로 신라의 공격을 받음은 당연한 일이다.

한편 〈혜군의 사평성〉 즉, 당진군 신평면 운정리의 〈성재〉는 현재 삽교천 방조제의 당진쪽 기점 해안 「휴게소」로부터 불과 2㎞쯤 떨어진 해안 20m 언덕위에 위치하는 옛 사평성현이니 당시 당과 신라의 군선병력이 이를 공격함은 용이하였을 것이고, 필자의 주장과 같이 사평성으로부터 16㎞ 거리인 혜성〈면천면 성상리 잿골－성곡〉으로 풍왕이 도읍을 옮겼을 경우, 신라 수군의 공격을 받았다는 사평성은 응당 혜군의 영현이자, 이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사평현이 관리하는 성〉이었을 것이다.

그 후 신라는 이를 신평현이라 고쳤고, 현. 당진군 신평면이다.

지명 변천에 있어 〈사〉는 흔히 〈신(新)－새〉로 변함을 볼 수 있다.

살피건데, 일본서기에서 피성을 〈혜사시〉라고 읽는 것은

a) 풍왕이 주류성으로 부터 자리를 옮긴 것이니 글자 뜻대로 〈피난간 성〉이라고 기술한 것이다.

b) 도읍을 옮긴것이 〈혜성〉이었기 때문에 피성을 〈ヘサシ－혜사시〉라고 읽는것이 아닐까도 생각된다.

이께우찌 박사는 〈벽골〉을 〈피성－ヘサシ－혜사시〉라고 지목하였지만 필자로서는 백제당시의 벽골현 (현재의 김제군)만이 일본어로 〈ヘサシ－혜사시〉라고 읽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碧·辟·僻·避 자는 모두 일본어로 〈ヘ－혜〉라고 읽을 소지는 있다.

고로 이께우지 박사와 같은 견해가 도출될 수는 있다.

그러나 필자로서는 직설적으로 이께우찌 박사가 사평성과 관련시

켜 이야기한 〈혜성〉이 〈피성ー へサシー혜성〉이라고 생각한다.

C) 면천지방의 백제때 지명은 〈혜성〉

전북 김제지방의 백제때 지명이 〈벽골〉 혹은 〈벼골ー稻谷〉(홍사준씨의 견해) 이었음에 대하여, 충남 당진군 면천지방의 백제와 신라때 지명은 혜군 또는 혜성군이었다.

그리고 이 군은 사평·당진·여미인 3현을 관할하고 있었다.

"槥"자의 한국음은 "혜"이고, 일본음은 〈セイ·エイ·ケイ·エ〉지만, 중국음은 "훼"니까, 한국음이 "혜" 일본음의 "へ"와 같다.

이에 〈へサシー혜성〉이라 읽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필자는 백제당시의 〈혜성ー へ성〉 이야말로 일본서기의 〈へサシー혜사시ー피성〉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혜성지방(면천지방)의 실태를 살펴본다.

[연혁] 본 백제혜군 신라경덕왕 16년 혜성군으로 고치다. (소속된 현은 당진, 여읍, 사평 등 3현), 웅주에 속하였고, 고려현종 9년 홍주에 속해졌고, 충렬왕 19년에 면주로 승격 시켰고, 이조 태종 13년 면천군으로 개명하다.(대동지지 권5).

〈읍성〉 석축둘레 3천2천, 높이 15척, 우물 2(여지승람 권19)

〈몽산고성〉 몽산은 군 북쪽 약 2㎞ 둘레 1천 3백 14척(여지승람)

〈벽골지〉 군의 동쪽(여지승람)

〈합덕지〉 합덕고현(옛현) 동쪽 뚝길이 500여보, 둘레 20리(약 8㎞), 물이 가득차면 큰 호수가 됨. 남쪽에는 넓은 평야, 땅은 매우 기름지고, 물 대는 면적이 매우 넓다.(대동지지 권5)

[沿革] 本 百濟槥郡 新羅景德王 十六年 改槥城郡(領縣 三 唐津·餘邑·沙平) 隷熊州 高麗顯宗九年屬洪州 忠烈王 十九年陞知沔州事 李朝太宗十三年改沔川郡〈大東地志 卷 5〉

[邑城] 石築周三千二尺高十五尺井二〈與地勝覽 卷 19〉

[蒙山古城] 蒙山在郡北四里(約 二km) 周千三百十四尺井二今廢〈與

地勝覽〉

[碧骨池] 在郡東〈與地勝覽〉

[合德池] 在合德古縣東 堤長五百餘步周二十里(約 八km) 水滿則爲臣湖 南有廣野 土 肥沃 灌漑甚廣〈大東地志 卷 5〉

충남 당진군 면천면 옛 면천군의 읍에는 성터가 두 곳 있다.

그 하나는 지금의 면천시가를 둘러싼 석축인 고려시대 이래의 읍성지이고, 또 하나는 읍성의 북쪽에 있는 〈몽산〉(높이는 300m)의 남쪽 기슭인 (잿골－성곡)계곡의 동－서의 산등성이에 축조된 몽산 옛 성터이다.

고대산성인 〈몽산＝혜성〉은 지금 〈몽산, 몽산고성〉이라한다.

백제 풍왕이 난리를 피해 옮긴데에서 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 성의 동쪽은 토성이고, 서쪽 성터는 석축이다.

〈잿골－성곡〉계곡의 동쪽 산등은 돌덩이가 섞여있는 것이 전혀없는 지질이고, 서쪽 산등은 편마암 석질이어서 그 돌들을 이용한 것이다.

D) 아유가이씨의 「피성」관과 필자의 주장〈두솔성, 두릉윤성, 고사비성과 각산〉

웅진(공주)과 사비(부여)에 머물러 있는 신라와 당나라군은 명색이 싸움에 이긴 점령군이지 백제부흥군의 항전에 시달려 왔다.

제2차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은 663년 8월초 백제부흥군의 총사령부이자 풍왕이 살고 있는 성인 주류성과 중요활동무대인 임존성을 토벌하기 위하여 도독부가 있는 웅진(공주)로 집결하였다.

이때 신라와 당나라군의 군사의 힘은 유인원의 군사 1만, 문무왕의 동생인 김인문의 7천 신라군, 당나라 장군들의 요청을 받고 7월 17일 경주를 출발 8월초 공주로 합류한 문무왕의 5만 대군과 위기에 몰려있는 당나라 군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산동지방에서 7천명을 징집 6월초 서해를 건너와, 「백강」에 상륙 아직 그곳에 주둔하고 있

는 손인사의 7천 육군과 이를 호위 수송하고 온 170척의 군대수송선이었다.

가령, 주류성이 전북 부안지방의 「위금암산성」이었다고 한다면 공주로 집결한 7만대군이 작전을 시작하면서,

a) 도중에서 서해안의 6~7m에 달하는 조수의 간만차로 인한 늪지대가 있는 금강과 만경강과 동진강이라는 큰 강을 건너야만 한다.

b) 8월 10일경 공주로 부터 진격을 개시한 문무왕이 13일 청양 칠갑산의 두솔성을 지나자, 이 성을 주둔하고 있던 왜병과 백제병이 모두나와 항복하였다.

이것이 첫 전과였다.

이때 문무왕은 크게 자비를 베풀어 용서하고, 특히 왜병에 대하여는 관용을 베풀면서 「백제여왜인개강 대왕위왜인왈 유아여이격해분강 미상교구 단결호강화 빙문교통 하고금일여백제동악 이모아국 금이군졸재아장악지중 불인살지 이기귀고이 왕임기소지(百濟與倭人皆降 大王謂倭人曰 惟我與爾國隔海分彊 未嘗交搆 但結好講和 聘問交通 何故今日與百濟同惡 以謀我國 今爾軍卒在我掌握之中 不忍殺之爾其歸告爾王任其所之)」(三國史記 金庾信傳)이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산자는 「… 그래서 두솔성을 일명 자비성이라 한다.」 하면서, 두솔성은 칠갑산에 있고, 각산은 칠갑산이고, 두릉윤성은 청양군 정산면 백곡리의 계봉산성이라고 하였다.

두릉윤성의 위치결정은 주류성의 위치를 바로 아는데에 결정적 구실을 한다.

두릉윤성은 청양군 정산면 백곡리의 계봉산성으로 봄이 옳다.

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하여 김정호의 대동지지, 청양군지, 그리고 지리학자 노도양 박사와 심정보 교수, 아유가이씨, 문정창씨등의 연구도 그러하다.

필자 역시 이에 동조한다. 수차의 답사결과

a) 두릉성은 정산면 백곡리의 금반양토성

b) 윤성은 백곡리의 계봉산성

c) 고사비성은 정산면 문성리의 「초막골 토성」이라고 추정한다.

① 문무왕과 김유신 장군의 신라군이 칠갑산의 서남끝에 있는 두솔성 아래를 행군하자 이 성에 파견되어 있던 왜병과 백제군이 항복한 것은 8월 13일이다.

풍왕은 왕성인 주류성에 같이 머물던 5천 왜군의 장수들을 함께 이끌고, 8월 13일 왕성인 주류성을 나섰다.

몸소 바다를 건너오는 일본군을 맞이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 공주에서 출발한 신라와 당나라군의 주력 육군이, 풍왕이 부재중인 주류성을 둘러싸고 친 것은 그 4일뒤인 8월 17일이었다.

이 5일 사이에 공주로 부터 직선거리 110㎞인 부안 위금암성의 7만대군의 동원이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주류성 부안설은 성립이 아니된다.

② 신라와 당나라군은 남쪽 주류성을 공략한 다음 북쪽으로 군사를 돌려 임존성을 공격하였는데, 금강과 만경강과 동진강을 다시 건너는 250리가 넘는 대이동의 되풀이가 따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힘든 군사작전은 있을 수 없다.

총지휘관은 김유신장군이었다.

③ 이러할 바에야 5만육군은 경주에서 떠나온 것이니, 애당초 공주집결이 아니라, 전북 부안 방향길을 따라 동원되었을 것이다.

이상의 판단만으로도 「주류성 부안설」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부안설이 의지하고 있는 근거는 이께우찌 박사의 [〈피성ーヘサシー혜성〉ー전북김제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아유가이씨만이 「일본서기 조선지명고」(하권 p199)에서

a) 이께우찌 박사는 일본서기의 기술인 〈피성ー헤사시ー혜성〉을 김제지방이라고 하였는데, 이곳이 「피성」임이 고증되려면 「고연단경수」의 존재가 확인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김제지방을 흐르고 있는 동진강과 만경강에서는 이 필수 구비여건인 「고연단경수에 해당하는 혹은 이와 인연을 가진 지명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고,

b) 또 「동남쪽 진흙의 깊고 큰 뚝 거대한 못에 해당하는 거대한 못으로 벽골제를 말하였는데 〈벽골〉이라는 지명의 뚝 이름은 유독 김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충남 면천에도 있다.」 함으로써 이께우찌 박사의 「김제설」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위에서 말했듯이 일본 역사학계와 야마오교수가 인정하고 있는 「피성」의 위치에 관한 정설 ―「김제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견해로 이는 필자의 「홍주설」을 소생시켜 주는 원군이라 하겠다.

필자의 검토에 의하면, 이께우찌 박사는 〈사평성〉의 소재에 관한 해명을 스스로 포기한 바 있다.

필자는 이께우찌 교수의 〈피성김제설〉에 들어있는 위에서 말한 바 있는 두가지의 결함은 아래와 같이 보완한다.

결과는 『피성ー면천설』인 것이다.

① 이께우지 박사는 지금의 전북 김제지방인 옛 〈벽골ー벽골현ー벽골제〉를 〈へサシー혜성〉의 어원으로 생각한 것인데, 충남의 면천, 백제 당시의 〈혜〉군에도 〈벽골지〉가 있다.

여지승람(권 19) 면천군조에 보이는 벽골지가 그것이다.

후일의 〈합덕지〉로서 (홍사준설)이는 충남지방 제일가는 거대한 방죽 뚝이었다.

물대는 구역이 〈소들강문ー우강평야ー예당평야〉의 중추부임은 세상이 다 아는 바이다.

② 면천시가의 배후를 이루는 몽산(해발 300m)이 서북쪽으로 3㎞

쯤 뻗은 곳, 사기소리에 〈승전목〉이라는 유명한 좁은 골짜기, 경치 좋은 곳이 있다.

이 일대의 산수를 「고련단경수」로 보아 적합하지 않다고 볼 이유가 조금도 없다.

「승전목」을 빠져나간 냇물은 2㎞가량의 구룡리에 이르면, 가야산의 북쪽 기슭 〈고랑골〉, 여미현의 넓고 맑은 냇물인 「역천」과 합류 당진평야 뒷들 평야속을 12㎞쯤 흘러가 아산만으로 흘러 들어간다.

또 구룡리에서 〈역천〉을 건너 북방의 얕은 구릉을 넘어 5㎞쯤에 하천 상태인 가로림 만의 좁은 지만이 있다.

이곳을 통한다면 〈혜성－피성〉과 일본과의 연락편의 또한 좋다.

동남방 또한 「진흙의 깊고 큰뚝과 주위의 전답」 즉 기름진 예당평야가 펼쳐진다.

조수의 간만차가 7m에 다다르는 이 지방의 깊은 진흙의 쌓여진 지대는 지금은 간척사업으로 옥토화 되었지만, 약 7~80년 전까지도 넓고 넓은 낮은 습기 많은 땅이었다.

이상으로 당진군 면천지방인 혜성의 모습이 일본서기의 〈피성－ヘサシ－혜성〉의 지형묘사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께우찌 박사의 〈김제설〉보다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잘 살필일은 서로간의 거리관계다.

필자가 주류성이라고 추리하여 결정한 홍성군 장곡면 〈대현리·산성리·광성리일 때〉를 기준으로 할 때, 〈혜성－피성〉까지는 약 40㎞ 〈피성〉에서 사평성까지는 16㎞ 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로서 전시임에도 왕성을 옮길 수 있는 거리임과 신라군이 수군으로 사평성을 공격한 의도를 납득할 수 있다.

E) 면천－혜성이 일본서기의 〈피성－ヘサシ－혜성〉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를 정리하면,

① 서기 662년 12월 풍왕과 복신은 부흥전을 주도하던 주류성으로 부터 40㎞쯤 떨어진 현재 당진군 면천면 성상리 〈잿골〉인 〈혜

성－몽산고성＝피성－ヘサシ－혜성〉으로 도읍을 옮겼다.

이는 군량보급에 대한 불안 때문이었다.

현재 홍성군 장곡면 대현리 산성리·광성리 일대인「주류성」즉, 〈학성산－두루(미)성－얼방성－왕성－석성〉과 대부동 분지 일대로부터, 면천으로의 천도길 40㎞사이에는 높이 50m짜리 산등성이 하나, 폭 50m짜리 시냇물 하나 없는 노정(路程)이 된다.

② 다음해 2월 사평성이 신라의 수군에게 의해 침략당했다. 사평성은 혜군에 속한 사평현이 다스리는 성으로써, 풍왕이 피난온 〈피성－ヘサシ－혜성〉으로부터 16㎞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 아산만 입구 해안에 있는 토성이다.

현재 삽교천호 방조제 당진쪽 휴게소에서 2㎞쯤 떨어진 곳, 해발 20m가량의 언덕이 사평성이다.

이를 공격한 것은 신라의 수군 병력이었을 것이다.

피성에서 16㎞거리에 있는 사평성이 점령당하자, 이에 놀란 풍왕이 주류성으로 다시 돌아갔음은 당연한 일이다.

③ 이께우찌박사가 이「사평성」을, 663년 2월 신라군으로부터 침략당한 〈4개주〉중의 하나로 인정하기를 주저한 나머지,「사평성은 잘 모르겠다」하면서 〈그 위치가 거열성, 거물성과 전혀 방향을 달리하는 충남 당진의 동쪽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지만, 이는《백촌강을 금강하류로 주류성을 금강하류의 서쪽지방 〈서천군 길산천 부근의 언덕지대〉으로 생각한》그분의 강한 선입관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④ 이께우찌교수는「보고 14」p72에서 663년 6월의 손인사의 증원군의 상륙지점을「아산만」으로 추정한 단계에 이르렀으면서도, 이를 이끌고 나가지 못하였음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다.

손인사의 7천 육군이 상륙한 곳이 중국사료의 663년의「백강」이다.

그뒤 3개월 후 펼쳐진 백촌강＝백강구의 해전은 이 백강의 입구부위인 〈백강구＝백강지구＝백촌강〉에서 벌어진 당나라와 일본 수군사이에 벌어진 싸움이었으니, 그 〈백강구＝백촌강〉의 위치를 아산만에서 따라 잡았어야 옳았다.

⑤ 여기서 생각나는 것이 노도양 박사의 「〈660년〉의 백강·지벌포·백강구를 지금의 금강하류로 보는데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일본서기의 〈663년〉의 《백강》 및 《백촌강》과는 확실히 다름을 주장한다.」라고 한 구절이다.

⑥ 이께우지 교수의 논문 「백제멸망후의 동란 및 당나라·신라·일본 세나라의 관계」〈만선지리사 연구보고 제14〉 (p60~61)를 살펴보면, 그는 《주류성·두릉윤성·두솔성·소류성》등을 모두 동일한 성으로 생각하는 기조위에서 그 논술을 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데 이는 큰 잘못이다.

또한 그는 한국과 중국사료의 여러부분을 부인, 소위 사료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끌어 낸 권위자의 잘못된 판단이 지나간 60년간 백제말기사 연구를 그릇된 방향으로 이끈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서

a) 피성(ヘサシー혜성)을 당진군 면천면 혜성으로

b) 사평성을 당진군 신평면 운정리로,

c) 주류성을 홍성군 장곡면의 대현리와 산성리의 학성과 〈얼방산성=왕궁성=석성〉으로,

d) 석성을 부여군의 석성이 아닌, 장곡면의 주류성으로,

e) 두릉윤성을 청양군의 정산으로 상정하고, 이를 위치가 확실치 않은 주류성과 백촌강의 사료와 부합시켜 본다면 이께우찌 교수가 보여준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점은 틀림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⑦ 혜성의 성내에서는 백제식 토기류가 출토된다.

또 흙으로 쌓은 성벽에는 다른 지방에는 분포가 거의 없는 〈스므날(20일)가시〉라는 독성이 있고 단단하고, 굵은 가시가 발달한 관목이 분포되어 옛날 토성벽에 목책으로, 일부러 번식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필자는 한국·일본 양국의 사학계에서 통설화 된 일본서기의 기사인, [《피성ーヘサシー혜성》은 전북의 《벽골지방ー김제지방》이

다.]라는 정해진 학설을 부인하면서, [충남 당진군 면천지방은 백제와 통일신라 당시의 〈혜성〉으로서, 이것이 일본서기의 〈피성ー헤사시ー혜성〉에 해당한다.]고 추정한다.

이러할 경우 〈백촌강·백강〉을 금강하류에 추정하고, 주류성의 소재를 금강하류의 북쪽 강가에 비정하는 "A부류"뿐 아니라, 〈백촌강ー백강〉을 전북의 동진강 혹은 줄포의 내포 또는 두포천 등이라고 추정하고, 주류성의 소재를 부안지방에 추정하는 "B부류"설 또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백제당시의 혜성, 즉 현재의 당진군 면천면 성상리 잿골의 몽산고성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므로 필자는 문헌에 의한 반론 말고도 이상 여섯항을 들어 부안설도 부정한다.

3. 견상군의 "석성" 방문과 복신굴

일본서기에 따르면 663년 5월 견상군이 고구려 연락의 길에서 일본으로 돌아가던 중 〈석성ーシヤクサシ〉에 들려 풍왕을 만났다.

이때 풍왕은 견상군에게 복신이 반역하려는 마음을 의심하는 말을 하였다 한다.

급기야 6월, 풍왕이 복신을 죽이는 같은 일족사이의 싸움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 "석성"을 한·일 양국의 사학계에서는 다함께 부여군 석성면에 있는 옛 성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이다.

복신이 지휘하던 군대는 前年인 (662년 7월), 강동쪽(공주 부여)에서 이미 싸움에 패하여 물러났으니 이러한 견해는 성립이 안된다.

「용삭 2년(662년) 7월, 인원·인궤등 솔유진지병. 대파복신여중어웅진지동 ー(중략)ー 인궤인신라지병·승야 박성·비명이입 포기성참수 8백급 축통신라 운조지로 인궤내 진청익병(龍朔 二年(六六二年) 七月, 仁願·仁軌等率留鎭之兵. 大破福信餘衆於熊津只東ー(中略)ー仁軌引新羅之兵. 乘夜薄城. 比明而入 抛其城 斬首八百級 逐通新羅

運糟之路　仁願乃秦請益兵)」 (구당서·동이전·백제－舊唐書·東夷傳·百濟)

또한 「손인사가 바다를 건너 웅진에 온 무렵(6월초), 이미 도침장군을 죽인 복신은 풍왕이 문병을 오면, 이를 죽일 계획을 꾸몄다.

이를 눈치챈 풍왕은 심복병사를 데리고 문병을 한다고 동굴로 찾아가서 복신을 잡아다 죽였다.」하였고, 일본서기에 의하면 「복신을 잡아온 풍왕은 복신의 손바닥에 구멍을 뚫고 가죽 끈으로 묶으니 복신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드디어 목을 베어 식초에 담그어 썩지않게 한 다음 목을 길거리에 걸어놓게 하였다.」 하였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내편과 적에게 알려졌다.

부흥군쪽은 귀신같은 용병을 한다고 국민의 신뢰를 받던 명장을 잃었으니 모든 군사들이 사우겠다는 사기가 떨어졌고, 신라와 당나라 군사들 쪽은 하늘이 도운 기회로 잡았으니, 유인궤의 제의에 따라 곧 부흥군의 총 사령부이자 풍왕의 거성인 주류성 공략에 나선 것이다.

백제가 망하자 소정방이 당으로 귀국하기도 전부터 백제 유민을 이끌고 망한 나라를 다시 찾으려는 의병을 일으킨 복신장군은 이렇게 죽어갔다.

이에서 우리는 〈주류성－주유성－ツヌサシ－스누사시－석성〉의 부근에서, 복신이 숨어있던 동굴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역으로 동굴의 근처에 있는 이 〈석성－シヤクサシ－샤꾸사시〉을 주류성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견상군이 고구려 사신길을 바다길 아산만을 지나게 된다.

그 돌아오는 길, 아산만으로 흘러드는 무한천(삽교천)의 상류쪽에 위치하는 〈석성－주유성〉에 들려 풍왕을 만난 것이다.

풍왕은 의자왕의 왕자로서, 오랜세월 일본에 머물다가 신라와 당나라군에 의하여 본국이 패망한 뒤, 661년 9월에 돌아와 왕으로 추대되어 〈주류성－두루성－학성〉을 〈거성－왕성〉으로 하고 있었는데,

일본서기의 견상군이 풍왕을 심방한 곳을 "석성"이라 하였으니, 이 석성이 〈주류성－주유성〉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된다.

장곡면 산성리의 서쪽에 상두·중두·하두부락, 즉 〈두리〉가 있다.

그러니 이 곳 산이름은 처음부터 「두루산」이었다.

그 산꼭대기에 둘레 1,500m쯤 되는 분지가 있고, 이 분지의 〈둘레－능선〉을 따라 돌로 성을 쌓았으니 그 이름 〈두루성〉.

이를 글자를 빌려 표기하면서, 홍성군에서는 〈두루미를 빌려와서－학성〉이라 하였고, 중국사료는 〈두루주자〉를 빌려다가 〈주류성〉이라 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왜 〈석성〉 혹은 〈주유성－シヌ－쓰누〉라고 하였을까?

〈두루산〉의 한 둘레 성벽중 〈수구〉가 되는 동남쪽 성벽은 역탄층에 가가운 직선상태의 자연암벽을 그대로 성벽으로 활용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천연석성〉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서기에서 견상군이 풍왕을 심방한 〈주류성＝주유성〉을 〈석성〉이라고 기술한 것이다.

1995년 5월부터 1997년 10월사이에 상명여대 최규성 교수를 중심으로 신형식, 이효영, 최근영 박사등 여러분이 이곳 〈두루성－학성－주유성〉의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한 적이 있다.

〈사시랑〉명의 기와조각이 많이 나왔다.

사시랑현의 다스리는 성의 소재임이 확인된 것이다.

그 보고서의 표제가 「홍성 석성산성」이었다.

1336년전(서기 663년 5월) 견상군이 〈두루성－학성〉에서 받은 인상을 오늘에 최규성 교수가 지명으로 이름을 붙인 꼴이 됐다.

견상군이 풍왕을 만나느라 찾아간 〈석성〉이 주류성이라면, 필연적으로 그 가까운 곳에 〈복신굴〉이 있을 것이다.

이러할 진대, 어찌 필자가 그 조사를 소홀히 하였겠는가?

그러나 가까운 곳에서 여건이 충족되는 동굴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마침내 3년전에서야 장곡면 출신 향토사 연구가 김갑현씨와 조환

웅씨가 오서산 중턱에 바위굴이 있음을 알아냈다.

같은 장곡면 관내이지만 〈석성=주류성=학성〉으로부터 서쪽으로 4㎞쯤 떨어진 위치가 된다.

오서산은 충남에서 계룡산 다음가는 큰 산이다.

그 동쪽 기슭의 중턱에 내원사가 있다.

일본의 불교서적인 〈원형석서(原亨釈書)〉에 따르면, 백제시절 일본을 여러차례 오가며 불교도 전하고, 의술에도 능하였던 여승 법명 대사가 창건한 절이다.

이 절에서 직선거리 300m쯤 떨어진 큰 암벽밑에 동굴이 있다.

높이 m, 넓이 m, 길이 m쯤 되는 바위굴이다.

현재는 광천읍에 사는 무당여인의 기도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이 바위굴에서 동쪽 직선 1.5㎞쯤 거리인 광성리에 필자가 〈참뱅이ーシムブクギ성-침복기성〉이라고 주장하는 토성이 내려다 보인다.

내원사와의 거리로 보아 복신은 꾀병을 하고 이 굴에 누워 있으면서, 절 스님들의 간호와 입을 것과 먹을 것 등 생활편의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류성은 일본서기에서 〈ツヌサシー쓰누사시ー주유성〉이라고 한 까닭은 무엇인가?

저명한 백제사 연구가 가루베 박사는 그의 저서,

「백제유적연구」 p147의 〈주류성의 훈독과 그 의의〉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4. 제2차 신라군과 당나라군의 주류성 공략(663년 8월)

663년 6월 170척의 수군과 7천 육군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온 손인사는 〈백강ー아산만〉의 남쪽, 무한천과 삽교천의 하구 부근에 상륙. 그곳에 7천 육군을 주둔시켜 둔채, 사령부의 소수병력만을 거느리고 웅진으로 가서 합류한 다음 작전모의를 갖고 신라군의 출정을 요청하였다.

이에 응하여 문무왕은 김법민과 김유신 이하 28장군이 이끄는 5

만병력을 거느리고 663년 7월 17일 경주를 출발, 8월초 웅진으로 와서 당나라 군사와 합세하였다.

이 제2차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주류성과 임존성의 백제부흥군을 치기 위하여 8월 10일경 웅진을 출발함에 있어 신라 문무왕과 총관 손인사와 유진랑장 유인원은 주력부대인 6만 육군을 거느리고 차령산맥을 넘어 진격하였고, 웅진 도독 유인궤는 두상의 170척 수군의 호위를 받으며, 660년 7월 당에 항복한 후 당의 정략으로 다시 등용된 백제왕자 부여 융이 거느린 양곡을 실은 배를 통솔하고, 육군이 출동하던 같은 날 웅진강따라 백강(아산만)으로 갔다.

웅진을 출발한 육군주력군은 8월 13일 청양 칠갑산에 있는 두솔성을 함락시켰다.

두솔성에 주둔하고 있던 부흥군과 일본병이 모두 나와 항복하니 문무왕은 크게 자비를 베풀어 용서하였고, 특히 일본병에 대해 관용을 베풀었다.(김유신전)

8월 17일에는 풍왕이 성에 있지 않을 때 주류성을 둘러싸고 공격하였다.

드디어 9월 7일 이를 함락시켰다.

이로서 백제 유민들의 조국부흥을 위한 3년반의 항전은 끝이났다.

고산자 김정호는 〈대동지지〉에서 〈두릉윤성은 청양군 정산면 백곡리의 계봉산성이라 하고, 두솔성은 청양 칠갑산 산꼭대기에 있고, 일명 자비성이라고 한다.〉 하였고, 〈각산〉도 칠갑산(정산)이라 하였다.

또한 한산의 〈건지산성은 백제의 우두성〉이라 하였다.

두릉윤성의 위치가 공주와 부여로부터 각각 서남쪽과 서북쪽 50리 거리인 청양군 정산면 백곡리의 계봉산성이라 할 때, 주류성을 공략하기 위하여 공주로 부터 출정한 제2차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663년 8월 13일 중도에서 이 두릉윤성과 두솔성을 항복시킨 다음, 17일에는 풍왕이 없는 동안 주류성을 둘러싸고 공격하였고, 9월 7일 이를 함락시켰다는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류성의 위치고증에 절대적인 확실성을 보여준다.

5. 〈두솔성=자비성〉과 각산

위와 같은 필자의 견해를 직설적으로 말해주는 기록이 〈자치통감〉의 〈자웅진입백강·이회육군, 동추주류성〉이다.

이에 유인궤가 거느리는 수군과 양곡선단은 웅진을 출발, 분명 웅진강으로 부터 나와 백강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지, 공주를 출발 금강의 하류쪽으로 가서 공주로 부터 동시에 출정한 문무왕과 손인사 등의 주력육군을 금강하류쪽에서 만난 다음 같이 주류성으로 갔다는 느낌은 안든다.

가사 부안설의 경우, 이러자면 6만대군이 금강과 만경강·동진강을 건너는 문제가 생겼을 터인데, 사료에 나타나지 않으며 한산설의 경우 부여와 한산이 너무 가까워(25km에 지나지 않음.) 그 작전의 현실성이 의아스럽다.

그러면 이때(663년 8월)의 〈백강에 들어가다〉의 백강이 문제인데, 금강구를 나온 다음 〈남쪽 동진강으로 갔다〉는 견해가 오다(小田)씨와 이마니시(今西) 교수의 〈부안설〉이고, 〈북쪽 태안·당진반도를 돌아서 아산만으로 들어갔다〉는 견해가 필자의 「당진 백촌강설」이자 「홍주 주류성설」인 것이다.

이는 이번(663년 8월) 출병대상인 주류성의 위치가 아산만의 남쪽 상류, 무한천변에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정산·청양지방을 4~5차 답사한 바 있다.

정산읍지를 깊이 연구한 정선구 교장, 현지 장수덕 면장, 이영준씨 높고 깊은 산의 현장 —〈각산=두솔산〉—을 두번이나 안내하여준 강영순씨, 청년시절 장곡사 계곡 —〈까치내—가소천〉— 냇가에 살면서 매일 칠갑산 재를 넘어 청양보통학교에 다닌 임원재씨 등의 조언을 참조하며 두릉윤성과 〈두솔성과 각산〉을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1) 두릉(량)윤성

661년 3월 신라대군은 〈고사비성〉 밖에 진을 치고 36일간 〈두릉(량)윤성〉을 공격했지만 실패하고 4월 19일 철군하였다.

이를 고산자는 대동지지의 정산·전고조에서 〈백곡리의 계봉산성〉이라 하였다.

동국여지승람·청양군지·심정보교수·노도양박사·문정창씨·아유가이(鮎貝)씨등의 연구도 그러하다.

2) 이때 패퇴하던 신라군의 후미부대가 〈각산〉에서 백제병을 만나 산중의 진지까지 쳐들어가 2천명의 목을 베었다고 하였는데, 고산자는 그 〈각산〉을 정산이라 하였다.(정산~전고조)

현재 청양군 적곡면(장평면) 적곡리인 것이다.

부흥군 2천명이 피로 물든 땅의 지명이니 어울리는 지명이라 하겠다.

3) 그러니 661년 4월 〈각산〉과 663년 8월의 〈두솔성〉은 동일한 곳이다.

고산자는 이를 칠갑산에 있다 하였다.(정산·성, 연못조, 옛성)

4) 장곡사 계곡, 까치내의 남쪽 암벽을 이루는 칠갑산맥의 동남이 〈각산〉이고, 〈두솔성〉은 이 〈각산〉위에 있다.

매일 칠갑산 재를 넘어 학교에 다닌 임원재씨는 663년 8월 문무왕의 주류성 토벌군이 〈두솔성〉 아래를 지났다면, 그때 진군로는 〈소금챙이 고개〉로 차령을 넘은 것이 아니고, 장곡사 계곡쪽의 고개를 넘은 행군이었을 것이라 하였다.

칠갑산을 넘는 재는 두 통로가 있다.

그러니 차령산맥 넘어의 홍성군 장곡면, 옛 마한 사로국의 왕성이자 백제 사시랑현의 다스리는 성이던 〈두루성－학성〉을 사령부－거성으로 부흥전쟁을 계속하면서, 칠갑산 깊은 산중의 중간 싸움터인

두솔성에 많은 군사를 숨겨두고 여기서 40리 거리인 정산 백곡리의 두릉윤성을 전초기지로 하여 이로부터 50리 거리인 웅진성과 사비성에 주둔하고 있던 신라와 당나라의 지키는 군사들을 수시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글은 1서장 2절 〈주류성과 백촌강에 대한 필자의 기본개념〉에서 주류성에 관한 기초자료를 자세히 쓴 것이다.

Ⅴ. 백촌강고

1. 위치가 밝혀지지 않은 백촌강
2. 백강(백강구=백촌강)
3. 손량과 지벌포·장암
4. 대흥지방의 당산
5. 백촌강의 해전
   a) 그 무대
   b) 백촌강의 해전
   c) 피해서 도망감
6. 당진군 고대면의 큰 옛무덤(대고분·막무덤)

Ⅴ. 백촌강고

1. 위치가 밝혀지지 않은 백촌강

당나라 점령군의 책임장군 유인원이 군사를 더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당나라 고종은 손인사 장군에게 출정을 명하였다.

그는 산동지방에서 징집한 7천육군과 170척의 싸우는 배를 거느리고 663년 5월말 산동지방에서 출발 도중 아산만의 밖의 덕적도에 들렸다가 6월초 7천 육군과 더불어 「백강」에 상륙했다.

필자는 총 책임자 손인사는 상륙하자, 자기가 이끌고 온 육군 7천명을 상륙지 「백강」에 주둔시켜 둔채 사령부만이 도독부가 있는 웅진(공주)으로 가서 도독 유인궤와 유인원등과 합류한 것으로 추정한다.(이거 관군 손인사 중로 영격파지 수여인원지중상합) ㅡ(以拒官軍 孫仁師 中路迎擊破之 遂與仁願之衆相合)

왜냐하면 공주로 집결한 제2차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주류성과 임존성을 쳐부수기 위하여 8월 10일경 본격 출정함에 있어 손인사와 유인원과 문무왕은 육군을 거느리고 출발하였고, 유인궤가 통솔한 두상의 수군과 부여 융의 양곡배들도 같은 날 웅진강을 따라 백강으로 가서 주둔중인 7천 육군과 합류하고, ㅡ(유인궤 및 별수 두상·부여융·솔수군 및 양선·자웅진강 왕백강·이회육군) ㅡ(劉仁軌及別帥杜爽·扶餘隆·率水軍及糧船·自熊津江往白江·以會陸軍)

손인사등의 주력육군이 17일부터 공격중인 주류성 전선쪽으로 같이 가게한 다음 유인궤는 두상의 170척 수군만을 거느리고 후방의 정박지인 백강구로 물러섰다.

그곳에서, 때마침 백제군 원군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본으로 부터 도착한 1천척의 병선단과부닥쳐 해전이 벌어졌는데 일본군이 크게 패해서 장정 1만여명이 희생되었다.

그 해전 장소를 중국사료는 「백촌강」 혹은 「백강지구」라 하고 일본서기에서는 「백촌강ーハクスキノエ」라 하였으니 이는 6월초 손인

사의 바다 건너온 증원군이 상륙한 그 "백강"의 입구에 해당되는 곳일 것이다.

그러니 〈백강〉과 〈백촌강=백강구〉는 동일지역 일지언정 동일지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중요한 유적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신라와 당나라의 역사사료는 물론 일본의 사료에도 전해짐이 없다.

주류성의 경우와 흡사하다.

2. 백강(백강구=백촌강)

살피건데, 백제사와 연관된 (백강)은 5곳이 있다.

1) 무열왕때(AD 501) 장군 백가의 반란이 있었다. 왕이 우두성(김정호는 이 성이 한산의 건지산성이라 함)까지 나가, 장군 해명으로 하여금 이를 평정하고, 그 목을 베어 〈백강〉에 던졌다. 이때의 〈백강〉은 임천가림성 앞 웅진강(금강)을 말한다.

2) 부여읍 맞은편 규암면에 〈백강〉부락이 있다. 백강 이씨 이경여의 옛 집터가 있는 곳이다. "구두레나루" 부근이 된다. 이는 660년 7월 소정방이 강을 건너면서 심한 바람과 물결을 달래기 위해서 흰 말(백마)로 입밥을 삼아 강속의 용을 낚아 올렸다는 전설. 즉, "백마강"에 연유한다.

백마강은 웅진강(금강)중에 부여 부근의 강만을 말한다.

3) 소정방은 덕적도까지 영접나온 신라 태자 김법민과의 약속 날짜인 660년 7월 8~9일경, 〈지벌포〉에 상륙하여 육상에서 선단을 호위하였고, 선단은 부여의 하류쪽 30리쯤까지 조수물을 타고 올라왔다. 이때 강 언덕이 매우 질어서 버들자리를 깔고서야 상륙할 수 있었다 하는데, 이 곳을 삼국유사에서 일명 「백강」이라 하였다.

이는 임천에서 한산사이의 금강을 말한 것이다.

4) 손인사는 663년 5~6월 사이 증원군과 170척의 군사를 거느리고 서해를 건너와 「백강」에 상륙하고 자신은 웅진으로 합류하였다.

5) 백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바다를 건너온 일본병선 1천척과 후방의 정박지로 물러선 당나라의 170척의 군선은 8월 27~28일 양일 〈백강구=백촌강〉에서 부딪쳐 대해전이 벌어졌다.

위 5곳의 「백강」중 4)와 5)의 〈백강〉과 〈백촌강=백강구〉의 위치가 오늘까지 그 위치가 확실치 못하여 지나간 80여년간 논쟁의 대상이 되어있는 문제거리 과제가 되는 〈백강과 백촌강〉인 것이다.

3. 손량과 지벌포·장암

가장 애를 먹은 것이 지벌포와 손량의 확인이었다.

필자는 여기서 〈손량〉 이야기로 흥미를 끌어보려 한다.

당진포, 수군만호의 기지성을 확인하러 가는 버스속에서 강노인을 만났다.

40년간 당진연해에서 작은 어선을 탔다는 강진선 노인이 도중에서 내리려는 것을 종점까지 모시고 가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손량"은 고대면의 옛 장항만, 현 장항교 하류쪽 500m쯤에 있는 옛 선착장이고 "지벌포"는 역시 장항만 안 , 보덕포에 가까운 옛 선창자리라 한다.

이로서 필자가 홍주의 서쪽 해안인, 보령·대천과 태안 만리포 사이에서 추구하던 유적들이 모두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로부터 고대면 장항만 사이의 8㎞ 거리의 연안에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백강:백제부흥전사와 관련된 「백강」이 다섯곳 있음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그중 663년의 역사적 자취에 해당되는 곳을 다시한번 살펴보면

1) 663년 6월 손인사의 바다 건너온 당나라 증원군 7천명이 상륙한 「백강」은 삽교천이 아산만으로 흘러들어가는 부근, 즉 아산군 인주면 밀두리 부근 해안으로 부터 선장항 사이로 추정된다.

삽교천과 그 지류인 무한천을 거슬러 올라가면 35㎞거리에 임존성이 있고, 그 상류남쪽 약 12㎞ 거리에 주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곳 "내포지방"은 공주·부여의 서북방, 차령산맥 너머인 것이다.

2) 일본사료의 「백촌강」과 중국사료의 「백강구·백강지구」는 동일지점임으로, 위 4)의 「백강ㅡ아산만」의 입구쪽의 남쪽일 것으로 추측된다.

660년 7월 10일 소정방이 버들자리를 깔고 상륙한 지점인 지벌포, 즉 삼국유사의 「일명 백강」과 663년의 손인사의 7천 원군이 상륙한 "백강"과 당나라 일본간에 해전이 벌어진 「백강구」의 경우, 두 「백강」과 「백강구」는 확실히 다른 곳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를 당진군 석문면 삼봉리 〈차돌배기마을ㅡ백석촌〉의 〈만ㅡ入江ㅡイリエ〉 즉, 〈곰개ㅡ웅포〉로 추정한다.

동서 1.7㎞, 남북 1.7㎞에 달하는 만이다.

다시 말하겠지만, 이께우지(池內宏)박사도 663년의 손인사군의 상륙지를 아산만으로 추리한 바 있다.(이께우지 「보고 14」 p72)

그렇다면 그는 663년의 「백강」을 아산만으로 본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착안점을 전개시키지 못하고 결국 금강하류로 되돌아 왔음은 애석한 일이다.

필자는 그 후의 답사에서 "지섬"은 지금도 강노인 말대로 이씨 소유지만, 지주는 그 곳을 "선창"이라는 이름만 알고 있음과, 고대면 장항리의 여러자연 부락중 "손량"과 가장 가까운 자연부락 이름이 지금도 "손량"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대면 대촌리와 장항리 사이의 「장항만」은 보덕포 바로 옆에 방조제를 축조 개척되어, 그 넓은 면적의 절반은 농토, 절반은 염전으로 이용되고 있다.

일본 장정들의 원혼의 지명 「손량」은 농경지속에 묻혀 버렸고, 「지벌포」는 염전속에 묻혀있다. 지벌포의 배후에 성산리라는 지명이

있는 것을 미루어 지벌포의 「지(只)」자는 「성(城)」과 통하는 지명으로 생각된다.

《고대면 대촌리의 큰 옛무덤(막무덤. 大古墳)에 관한 연구는 백촌강 당진 석문면·고대면설」의 방증이 될 수 있다.》

4. 대흥지방의 당산

— 임존성은 백강에서 주류성으로 진격하는 도중에 있다. —

예산군 광시의 전면장 박영신씨가 채집한 이 지방의 전설에 따르면 〈당나라 군사가 이 지방을 행군하던 때 무한천 동쪽 냇가로 와서 현 대흥면 손지리와 광시면 서초정리 마을의 야산에서 야영을 하였다.

그래서 이 두 곳 언덕을 모두 「당산」이라고 한다.

그런다음 다시 행군을 하면서도, 동쪽 시냇가 길을 따라 상류쪽(남쪽)으로 가서 「광시살묵이—광시면 시목리」 현 광시면사무소 소재인 장터 앞에서 시내를 건너 서쪽 시냇가 길을 따라 남행하였다〉 한다.

이에서 아래 몇가지를 살필 수 있다.

a) 대흥 앞을 흐르는 하천(현재는 예당저수지)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무한천이다.

b) 무한천은 신례원·합덕간 도로인 구양도교 아래서 삽교천과 합류되어 아산만의 상류인 선장항으로 흘러들어 간다.

c) 이 부대는 예산읍 방면(북쪽)으로부터 와서 광시면 방향(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무한천 동쪽길을 걸었다. 대흥구읍과 임존성은 무한천의 서쪽(현. 예당호의 서안)에 위치한다.

d) 당나라 군사가 무한천을 따라 남진한 것이라면, 그 출발한

곳은 이 하천이 흘러들어가는 곳인 아산만 방향임이 분명하다.

그런즉 이 부대는 5월에 손인사가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온 후, 상륙지점인「백강」에서 대기중이던 당나라의 7천 육군임이 분명하다.

삼국사기에서는 이 때의 병력을 40만이라 하였으나, 중국사료에서는 이러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으며, 4년전 완벽한 백제병력을 상대로 침입하던 때의 소정방의 바다건너온 병력이 13만이었고, 무열왕의 가세병력이 5만이었으므로 미루어 부흥군의 남은 병력을 감안할 때, 중국사료의 7,000명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e) 당나라 군사는 무한천의 동쪽에 머물면서, 그 서쪽에 위치하는 임존성을 무시한 채 상류쪽인 남방으로 진군했다.

이로 미루어, 주류성은 임존성의 남방에 위치하며 당나라 군사는 임존성보다 먼저 주류성을 공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南方已定廻軍北伐]

그러니 손인사의 증원육군 7천명의 상륙지인「백강」은 아산만이고, 유인궤가 웅진으로 부터 호송하고 온 양식 실은 배들은 이곳「백강」에서 바다건너온 육군에게 인계함으로서 그 호위를 받으면서, 8월 17일 이래 문무왕과 손인사등의 주력 육군이 작전중인 주류성 전선 쪽으로 동반 진격한 것임을 알게 된다.

임존성은 〈아산만－백강〉에서 주류성으로 진격하는 도중에 있고 주류성은 그 남쪽에 있다.

필자는 6월초 손인사의 7천 증원군이 상륙한 지점「백강」을 아산군 인주면 밀두리 부근으로 부터 선장항 사이로 추정하였다.

이는 무한천(삽교천)이 아산만으로 유입되는지점, 즉 선장만의 동안이 되는 것이다.

만약 선장만의 서안쪽(당진군쪽)에 상륙하였다면, 주류성으로 합세하기 위하여 본항의 전설과 같은 동원. 즉, 무한천의 동안을 따라 행동할 수가 없다.

삽교천의 서안을 따라 행군하자면 넓은 늪지대와 지류가 많아서 지극히 불편·부당하다.

663년 5~6월경, 손인사의 도래증원군이 상륙한 「백강」이 아산만 일진대, 그 2~3개월 후인 8월 27~28일 양일 당나라와 일본사이에 해전이 벌어진 〈백강구=백촌강〉은 아산만의 입구쪽의 남부연해일 것이고, 제2차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의 작전목표인 주류성 또한 내포지방에 있어야 할 것임은 필연적일 것이다.

5. 백촌강의 해전

A) 그 무대

백촌강 해전이 터진 것은 그 전년(662년)부터 싹이 텄다. 간략하게 다시 살펴본다.

복신군이 웅진(공주)의 동쪽인 대전지방까지 나아가서 경주-웅진 사이의 보급로를 차단하니, 신라와 당나라군 들은 최대의 위기를 맞게되었다. 이에 웅진도독 유인궤가 신라병을 이끌고, 복신군의 진지를 밤에 습격하여, 800여명을 죽임으로서 드디어 양곡 나르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고, 부흥군은 패해서 물러나고 말았다.

유인궤와 낭장 유인원은 위기는 모면하였지만, 백제유민의 3년간의 거센 항전에 불안을 느끼고, 본국으로 구원병을 요청하였다.

당 고종은 좌위위 장군 손인사를 웅진도행군 총관에 임명하고 출병을 명하였다.

그는 산동지방의 유·청·내·해 4주에서 육군 7천명을 징집. 이들을 663년 6월 수군장 두상의 170척의 싸우는 배에 실고 황해를 건너와 "백강"에 상륙하였다.

필자는 이때의 "백강"을 내포지방을 흐르는 무한천이 아산만으로 흘러들어가는 지대, 즉 아산만의 남쪽인 아산군 인주면 밀두리에서 선장항 사이로 생각한다.

손인사의 바다건너온 육군이 위와같은 위치에 상륙하였음은 이번 출정의 공격목표인 주류성과 임존성이 무한천의 상류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총관 손인사는 자기가 거느리고 온 7천육군은 상륙지 「백강」에 머물러 있게하고 자신은 사령부의 소수병력만을 거느리고 도독부가 있는 웅진(공주)로 가서 합류했다.

군사회의를 거쳐 신라군의 출정을 요청하니, 문무왕은 5만 육군을 거느리고 7월 17일 경주를 출발 8월초 웅진으로 합류했다.

이리하여 골치거리 백제부흥군을 격멸하기 위하여 짜여진 제2차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은 웅진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일본의 천지천왕은 663년 3월 백제부흥군을 구원하기 위해 2만 7천명의 장정을 징집, 이를 앞·가운데·뒤(前·中·後) 3군단으로 편성하였다.

6월에는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이중의 일부를 신라의 후방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8월하순. 태풍의 계절도 지나가자 500척(필자추측) 병선으로 1만여명을 보내면서, 「백촌ー ハクスキ」에 상륙할 것을 미리 알려왔다.

일본서기에서 「풍왕이 모든 장군에게 말하기를 "지금 들으니, 일본의 장군이 힘센 장정 만여명을 거느리고 곧 바다를 건너온다 하니..... (중략) 나는 스스로 「백촌ー ハクスキー하구스끼」으로 가서 기다리다가 접대를 하려한다."」하며 주류성에 같이 머물고 있던 일본 장군들을 이끌고 8월 13일 「주유성=주류성」을 출발하였다.

삼국사기(권7, 문무왕. 하)는 이때 모습을 〈이때 외국배를 탄 군사가 백제를 도우러 왔다. 왜나라 배 천척이 백사에 머무르다〉라 하였다.

필자는 이 「백사」를 현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백사장 어항"마을의 해안이라고 생각해 본다.

일본서기에 따르면 8월 27일 일본병선단이 백사해안에 도착하고 보니, 대당의 군장들이 전쟁배 170척을 거느리고 「〈백촌강ー ハクスキノエ〉에 정박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멀고도 거친 항해를 마치고 "백사장 어항마을"의 해안에 도착한 일본군의 정찰대가 마을 뒤 언덕에 올라가 바라보니, 언덕 뒷쪽 바

로 아래가 〈차돌배기마을－백석촌〉의 〈포구－만＝イリエ－入江〉였고 언덕에서 2,000m도 아니되는 위치인 〈백(석)촌의 만, 즉 곰개포구－웅진〉안에 당나라 전함 170척이 정박하고 있었던 것이다.

필자는 일본서기의 〈백촌－ハクスキ〉를 현 당진군 석문면 삼봉리인 〈차돌배기마을－백(석)촌〉으로 생각하고, 〈백촌강－ハクスキノエ〉은 이 차돌배기마을－백석촌〉의 〈포구＝만－(곰개－웅포)＝일본어로 〈이리에－イリエ－入江〉로 판단한다.

그런즉 〈백사－백촌－백촌강〉이라는 유적은 그 지명이 다른 것처럼, 각각 그 확실한 위치는 다르고, 그 성격도 다르지만 역사적으로는 깊은 관련이 있고 매우 가까운 동일지역에 위치한다.

다시한번 논하게 되지만, 백촌강의 위치문제는 일제의 침략이 있은 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90여년간, 양국의 역사학계가 양설로 나뉘어져 논쟁을 벌여온 해결되지 못한 과제이다.

이러한 성격의 과제에 대하여 한 마아추어가 지난 날의 석학 여러분의 연구 경향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견해를 주장하는 논거는 무엇인가?

1) 고산자 김정호는 「대동지지」 권5, 홍성목조에서－〈홍성목본 백제주유성 당개지심주〉라 하였다.

2) 백촌강 전투의 기록을 살펴보면 강물 혹은 호수에서 싸운전쟁은 아니다. 바다에서 싸운 해전이었음이 분명하다.

3) 〈백촌강－ハクスキノエ－하꾸스끼노에〉라는 해전장은 일본인이 써낸 역사서인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지명이다. 중국사서에는 〈백강구 혹은 백강지구〉라 하였다.

4) 일본서기에서는 〈백촌강〉을 예로부터 〈ハクスキノエ－하구스끼노에〉라고 읽어왔다.

일본에서는 냇물이름에 〈강－エ〉을 쓰지 않는다.

금강·양자강의 〈강〉자를 쓰지 않고 〈천－川〉 혹은 〈하－河〉자를 쓴다.

그런즉 〈에－エ－江〉라고 읽음은 〈イリエ－이리에－입강－만〉을 말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일본학계에서는 백촌강의 강은 〈エー에〉라고 읽으면서도 흐르는 강 즉, 금강하류 혹은 동진강등으로 짐작하고 있다.

백촌강의 강(江)자의 성격이 여전히 확실하지 않게 되자 최근에 와서는 수백년간 써내려 오던 전래의 〈토〉「ハクスキノエ」의 〈ノ〉를 떼어버리고「ハクソンコウ」라고 음독을 하는 학자까지 나타나고 있다.(예:도우야마 미도오(遠山美都男)씨의 〈백촌강〉)

5) 주류성과 백촌강은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인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A) 주류성의 위치를 서천군 한산의 건지산성이라고 생각하는 〈A부류설〉 논자들은 한결같이 백촌강의 위치를 금강하류에 두면서 백촌강 전쟁의 무대는 이를 금강하류지방에 구성하고 있다.

"예"를 들면

㉠ 쓰다(津田)교수(와세다대학)는 〈주류성은 서천군 한산지방〉이라 하면서 〈백촌강은 금강하류〉라 하였다.

㉡ 한국 역사학계의 대선배 이병도 박사는 〈한산건지산성이 주류성이고, 백촌강은 금강하류〉라 하였다.

㉢ 이께우찌(池內宏)교수(도쿄 제대)는 쓰다교수의 한산설은 부정하는 듯 〈서천군의 고산천 부근의 언덕지대를 찾아보면 주류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도 〈백촌강〉은 금강하류라고 하였다.

㉣ 가루베교수(일본대학)는 〈한산건지산성은 백제성이 아니고 고려성〉이라고 단언하면서 주류성은 〈부여군 충화면 주봉산성〉으로 정하고, 백촌강은 이를 금강하류라고 보았다.

㉤ 우리 국정교과서도 〈한산건지산성설과 금강하류설〉을 채택하고 있다.

㉥ 충청남도에서 발간한 〈백제의 역사〉에서도 이 설을 채택하고 있다.

㉦ 스스기(鈴木治)· 귀두(鬼頭)·도ー야마(遠山)등 3씨도 각기 백제부흥전사를 주제로 한 단행본을 발표하면서 그 무대를 한산건지산성과 금강하류에 구성하고 있다.

(B) 주류성을 부안 변산반도에 있는 위금암 산성이라고 생각하는 (B부류설) 논자들 중

㉠ 이설의 제기자인 오다(小田－조선총독부 역사편수관)는 〈백촌강은 동진강〉이라 하고,

㉡ 이마니시(今西)교수(경성제대)는 「백촌강은 줄포의 내포」라 하고

㉢ 지리학자 노도양 교수는 「두포천」이라 하였다.

㉣ 오다씨설을 계승한 전영래 교수(원광대)는 이 설을 보완하기 위하여 30년간 노력하였고,

㉤ 부안출신 고(故) 강성채씨는 이 설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여년간 진력한 바 있다.

㉥ 변인석 교수와 이도학 교수도 이 설을 지지하고 있다.

(C) 20여년간 단제 신채호 선생의 연기설을 계승한 김재붕씨가 〈전의설〉 (C부류설)을 발표한 바 있으나 무리한 듯 하다. 고바야시(小林惠子)씨가 이 설을 채용하고 있으나 모순이 많다.

(D) 필자(박성흥)는 고산자 김정호 선생의 「홍주주류성」설에 일깨움을 받아 주류성을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홍성군 얼방면 학성리〉에 있는 마한때의 「사로국의 얼방성－왕궁성」이자, 백제때의 〈사시랑현의 다스리는 성〉이 중국사료에서의 〈주류성〉이고, 홍성군지에서의 〈두루성－학성〉이라고 주장하였다. (D부류설)

근년까지 이상 네부류설이 각기 자기 주장을 되풀이하여 왔는바 최근 대이변이 돌발한 것이다.

1) 서천군 당국이 한일 양국에서 주류성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산 건지산성을 백제역사유적으로 보존개발하기 위하여 98, 99 두해동안 학술조사를 실시한 결과 뜻밖에도 백제성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건지산성 발굴조사 보고서)

이는 이미 가루베교수가(백제유적연구 p.147)에서 지적한 문제였다.

이리되고 보니 1913년 쓰다교수가 〈금강하류설〉을 제기한 이래 90여년간 이어져 온 "A"부류설은 필연적으로 자연히 말라버려 죽게 된 상태가 되고 만 것이다.

2) 오다씨가 제시한 "B"부류설(부안주류성설)이 문제인데, 필자는 이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 학설이라고 단정한다.

그 까닭은 위에서 말한바 있어 요약하면

ⓐ 백제부흥군(주류성과 임존성)을 격멸하기 위하여 짜여진 제2차 신라와 당나라연합군의 집결지가 웅진이었다는 사실(663년 8월초)

ⓑ 8월 10일경 웅진에서 출격한 7만 주력 육군이 13일 두솔성(청양 칠갑산) 아래를 행군하자 이 성에 머물고 있던 왜군과 부흥군이 모두 나와 항복하니 문무왕은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용서함으로서 왜병들이 모두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는데 이 주력 육군이 4일후인 17일 주류성을 공격하였으니「무술(17일) 적장지어주유, 요기왕성[戊戌(17日) 賊將至於州柔, 繞其王城]」

이 기록 하나만으로도 주유성의 위치비정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다.

3) 웅진에서 변산반도에 있는 위금암 산성까지는 직선 110km 거리가 된다. 8월 13일에 청양 칠갑산 아래를 행군한 문무왕과 손인사의 주력 육군이, 4일후인 17일에 변산반도에 있는 위금암산성(주류성)을 공격할 수 있겠는가?

또한 7만 병력이 웅진에서 변산반도로 이동하자면 도중에 조수의 간만차가 6~7m에 달하는 대하(大河), 즉 금강과 만경강과 동진강의 늪지대를 건너야만 한다.

강건너는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서는 가는 길이 멀어도 논산지방으로 우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위에서 말한바 대로 역사기록에

따르면 문무왕등 연합군의 주력 육군은 8월 13일에 청양 칠갑산의 동남 기슭에 위치한 두솔성 아래를 행군하였음이 분명하다.

하물며 역사는「남쪽(주류성)을 평정하고, 군사를 돌려 북쪽 임존성을 쳤다 하였으니 110㎞ 거리를 거듭 중복동원 하였단 말인가?

이러한 용병은 있을리 없다.

주류성이 부안지방에 위치하는 것이라면 문무왕의 5만 육군은 애당초 변산반도에 가까운 지방으로 동원이 됐을 것이다.

이 작전의 총사령관은 김유신 장군이었다.

4) 필자는 고산자가「대동지지」홍주목조에서 언급한「홍주주류성」은

ⓐ 평지 석축성인 현 홍주읍성이 아니고

ⓑ 이조때는〈홍주군 얼방면 학성리〉였고,

ⓒ 현재는〈홍성군 장곡면 산성리〉의〈두루(周)산=학성산〉의 산꼭대기에 있는 석축산성으로

ⓓ 마한때의〈사로국의 왕궁성 (얼방성)〉이고

ⓔ 백제후기에는〈사시랑현의 다스리는 성〉이었고

ⓕ 홍주군지에서는〈두루성-학성〉이라 하였고

ⓖ 중국사료에서는〈주류성-두루성〉이라 하였는데 주류성이라는 기록이 나타나는 것은 부흥전 이후의 일로서,〈두루산〉의 산꼭대기에 있는〈두루성〉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 일본서기에서는〈주유성-シツスサシ〉또는〈석성-シヤクサシ-샤꾸사시〉라고 기록하였다.

주류성과〈백촌강=백강지구〉는 동일지역권내에 함께있는 것이 분명한 즉, 홍주 주류성설이 성립되는 것이라면 당진백촌강설 또한 틀림없을 것이다.

B) 백촌강의 해전-3전인가, 4전인가?

당진군 석문면 삼봉리. 여기에〈차돌배기 마을의 개포-백석촌의

만〉이 있다.

"만"을 일본어로 〈イリエ－入江〉라 하고, "백촌강"은 전통적으로 〈하구스끼노예－ハクスキノエ〉라고 읽는다.

백제부흥군과 주류성에 파견되어 있는 5천명의 일본병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본으로 부터 먼 바다길을 건너온 구원군 선단이 663년 8월 27일 〈백사해안〉에 당도하고 보니, 남쪽 얕은 등성이 넘어 (현.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불과 2㎞쯤 거리인 〈백석촌의 만－백촌강〉속에 당나라의 170척 전투배가 정박하고 있었다.

〈왜나라 배 천척 백사에 머물러 있었다.(삼국사기·신라기 문무왕 11년) [倭船千艘 停在白沙(三國史記·新羅紀 文武王 11年]〉

〈당나라 군장이 전쟁하는 배 170척을 거느리고 백촌에 진치고 있다.(일본서기·천지기 2년 8월) [大唐軍將 卒戰船一百七十艘 陣烈於白村江(日本書紀·天智紀 二年 八月〉

일본장군들과 풍왕은 당나라의 이 170척의 전선단을 약세라고 깔보았다.

이때 일본측 총 병력은 병선이 500척(필자의 추측) 이상인데다, 육군도 1만명이상이니 우월감과 교만심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이 군세는 아직 도착중이었다.

한편 당나라의수군은 적벽강 이래의 중국전통의 전투함이니, 대형함선인데 대하여, 일본측은 그 대부분이 1만 육군병력을 수송하기 위한 소형수송선이었다.

배에 탄 선원중 20~30명은 주류성으로 파견되는 육군 병사이고, 해양훈련을 받은 선원 10여명도 항해요원이지 전투요원이 아니었다.

일본장수들은 경솔하고 무모하였다. 자만심과 공명심에 들떠 있었다.

27일 무모한 선제공격이 감행된 것이다. 먼저 도착한 총사령관 〈이오하라(盧原將軍)〉이 앞장서서 일본으로 부터의 멀고도 힘든 항해를 마치고 막 도착한 지친 자기 부하의 병선들을 당나라 군대 공격에 내몰았다.

제1차 공격이었다. 결과는 뻔했다. 한척도 돌아오지 못했다.

[일본선사초지자 여대당선합전 일본불리이퇴(日本船師初至者 與大唐船合戰 日本不利而退)]

〈백촌강-백석촌의 만〉에서는 생명을 무릎쓰고, 벌떼같이 덤벼드는 일본식 집단공격은 통하지 않게 되어 있다.

만(灣)의 안쪽은 동서가 약 1.7㎞, 남북이 약 1.7㎞ 쯤 되니 상당히 넓지만, 출입구 수로가 200여m에 불과하고 드나드는 바다가운데 100여m쯤 되는 긴 백석 암맥이 외해쪽으로 뻗어있어(삼국유사의 기록엔 긴바위) 출입에 많은 제약이 될 뿐아니라, 밀물·썰물때 바다물 흐름도 또한 매우 빠르다.

따라서 이로인하여 일시에 수십척의 배가 나아가 공격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그날 도착한 처지니, 일본군의 지휘본부는 이지방의 지리뿐 아니라 조수물의 특징도 몰랐다. (Ⅱ·4·아산만 참조)

백촌강 해전은 8월 27~28일 있었던 사건이니 〈"그믐사리"〉때에 해당한다.

그 조수의 차는 6~7m에 달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만 안에서의 해전은 하루 두차례 밀물때만 이루어 졌을 것이다.

어제(27일) 일본수군의 끈질긴 공격을 받은 당나라 진영은 피해없이 싸움에 이겼지만, 밤새워 진영을 방어태세로 탄탄하게 바꾸고 있었다.(대당견진이수ー大唐 堅陣而守)

28일 아침이 됐다. 일본의 여러 장군들과 풍왕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다. 조수물 때와 바람부는 방향등도 가리지 않고, 서로 하는 말이 「우리가 적극 먼저 공격을 감행하면 저들은 후퇴할 것이다」하면서 어제 늦게 도착하여 아직 대오도 정비하지 못한 고세(巨勢)장군과 미와(三輪) 장군에 속한 〈중군〉의 병선을 투입하였다.

일본 병선들은 군대의 명령이니 하는 수 없이 수십척씩 여러차례 나아가 공격하였지만 모두 순식간에 침몰당하고 말았다.[日本 諸將, 與百濟王, 不觀氣家, 而相謂之曰, 我等爭先, 彼應自退. 更卒日本亂伍

中軍之卒 進打大唐堅陣之軍. 大唐便自左右 來船繞戰. 須臾之際 官軍敗績] (일본서기－日本書記)

이리하여 2일째인 28일 공격도 완전히 실패로 끝났고 많은 희생이 있었다.

이상을 살펴보면 27·28일 양일간 일본군은 3차에 걸쳐 적극 공세를 취하였지만 완패를 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사료는 한결같이 4차의 전투에서 모두 이겼고, 일본병선 400여척을 불살랐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 기록상의 한번 싸움의 차는(一戰差) 패주하는 일본 병선에 대한 8월 29일의 추격전으로 보려한다.

C) 피해서 도망감

일본장군들은 2일째의 공격에서도 실패하고서야 정신을 차렸다. 후회도 하였을 것이다.

군사회의가 있었다. 전쟁하고난 대책이다. 일본으로 되돌아 갈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출병은 주류성에 와 있는 5천 일본군과 부흥군을 구원하기 위함이니 그리로 가야한다. 그러자면 「백강」으로 가야한다.

이 「백강」은 6월초 당나라 장군 손인사가 산동지방에서 징집한 7천 육군을 거느리고 와서 상륙한 곳이고, 수일전 웅진도독이 두상의 170척의 전쟁하는 배의 호위를 받으며 부여 융의 양곡 실은 배들을 웅진으로부터 인솔하고 와서 이곳 〈백강〉에 주둔하고 있던 손인사의 바다 건너온 육군에게 인계하여 준 다음 지금 여기 〈백강지구－백촌강〉에 정박하고 있는 그 「백강」이다.

일본 병선단이 직접 무한천의 하구지방인 〈백강〉까지 가지않고, 도중에서 〈백사－백촌〉에서 상륙하였음은, 먼 항해끝의 배들의 진열도 가다듬고, 병사들도 휴식시키기 위함이었는데, 패전을 한 처지이니 빨리 떠남이 좋은 방법이다.

주류성은 무한천의 상류연안에 있고, 〈백사해안〉으로부터 무한천이 아산만으로 들어가는 지점인 〈백강〉까지는 약 40㎞거리가 된다.

해전이 벌어진 지 3일째인 8월 29일.

일본진영은 아침부터 이동준비를 서둘렀다. 당나라군 쪽은 오늘도 일본군의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일본병선들은 〈백석촌의 만－백촌강〉으로 침공하여 오지 않고 백석촌 앞을 스쳐 동쪽으로 항해한다.

당나라군은 일본병선단이 도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곧 추격전에 나섰다.

백강으로의 이동을 시작한 일본의 수송선단과 이를 추격하는 당나라의 전함들.

처음 주고 받은 싸움은 〈차돌배기마을의 개포＝백석촌의 만＝백촌の入江＝백촌강〉 앞 연안(현. 당진군 석문면 삼봉리)에서 시작되었다. 차츰 고대면 연해로 번져나갔다.

물론, 처음에는 맞서는 싸움을 벌였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군은 양일간의 패전으로 위축된 기세였고, 당나라 군사는 싸움에 이겨 기세가 당당하였다. 게다가 당나라군은 적벽강 이래의 중국전통의 전함이니 거대한 싸움배였고, 일본측은 1만 육군을 실어 나르기 위한 배였으니 상대가 아니되었다.

현재 당진군 석문면과 고대면 연해의 해전에서 몰리기 시작한 일본병선들은 밀물을 타고 가까운 장항만(고대면 장항리·지벌포·손량·대촌리)으로 피하였다.

당의 전함들도 이를 뒤쫓아 장항만으로 들어갔다.

이는 이 지방의 지형·지세 그리고 조수의 특성으로 미루어 필연적인 결과다.

뒤섞인 싸움이 거듭되는 사이 썰물때가 다가왔다.

밀물의 만수는 느리지만 썰물은 급히 빠져나간다. 7m에 달하던 바닷물이 삽시간에 빠져나가니 뱃머리를 돌릴 수도 없다.

배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같지만 당나라배는 매우 크고 일본배는 소형 수송선이다.

당군은 그 높은 배 위에서 둘레의 정지상태에 있는 일본배를 향하여 수없이 불이 달린 화살을 쏘아댔다.

당나라 군은 전함이라 화공장비를 갖추고 있었고, 일본측은 그 대부분이 수송선이니 꼼작 못하고 당할 뿐이었다.

수많은 배가 불타기 시작하였다.(焚其舟四百艘 煙焰漲天 海水皆赤)

일본병사들은 물로 뛰어들었다. 조수물이 빠져나가 물은 깊지 아니했지만 바닥이 수렁인데다 병사들은 중무장하고 있으니 그 무게 때문에 육지가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기어 나갈수도 없었을 것이다.

당나라 배에서는 화살이 날아오고, 이러는 사이에 3~4시간이 지나자 다시 밀물이 밀려온다.

갯속(만, 뻘)으로 뛰어 내렸던 일본 병사들은 일시에 모두 물에 빠져죽고 말았다.(彊屍相屬)

그 죽은 누에처럼 허옇게 물에 부푼 시체는 잠시후 7m의 밀물에 밀려, 갯가로 밀려나갔다.(僵尸滿野)

당나라로서는 이 해전을 총지휘한 것은 문관출신인 웅진도독 유인궤였다.

9월 1일이 되었다. 그 전날의 추격전 즉, 4차 대접전의 결과는 너무나 처절하였다.

유인궤는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인간적으로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는 지방민과 당나라 군사 그리고 일본병 포로를 풀어 시신들을 수렴하여 묻어주고, 제사를 지내 일본장정들의 원혼을 달래주었다.(仁軌始令 收斂骸骨 瘞埋弔祭之)

그 자리가 바로 당진군 고대면 대촌리의 「막무덤」인 것이다.

고산자 김정호가 대동지지에서 말한 「홍주주류성」을 《홍주군 얼방면 학성리=홍성군 장곡면 산성리》-두루(周)산의 두루(학)성으로 정(定)하려는 필자의 견해가 성립되는 것이라면, 〈백촌강=백강지구〉 또한 내포지방인 당진지방에 위치할 것이고, 백촌강 해전의 무대가 된 해역 또한 아산만의 해안인 당진군 연안이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이에 당나라와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 기록과 이 지방의 지리, 이 지방의 조류의 특성을 감안하면서 663년 8월 27~28일,

〈백촌강=백(석)촌의 만·〈入江ー이리에ーイリエ〉에서 펼쳐진 당나라와 일본군 사이의 해전의 모습을 다시 구성해 본 것이다.(Ⅲ·3·당진의 대고분(大古墳) 참조)

6. 당진군 고대면의 큰 옛무덤(대고분, 막무덤)

663년 8월 하순 백제부흥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백사:석문면 장고항리」에 도착한 일본군선 1천척과 약 1만이상의 병력이 〈주류성:홍성군 장곡면 대현리·산성리〉과 〈임존성:대흥과 금마사이〉 부흥군과 합류하기 직전인 8월 27~28일 〈백촌강=백강구:석문면 삼봉리 차돌배기 마을의 연해〉에서 당나라의 수군 170척과 우연히 만나 싸움을 벌여 참패를 당한 결과는, 필연적으로 그 10일후의 주류성 함락, 즉 백제의 종말로 이어진다.

이리하여 일본의 국운을 건 천지천왕의 백제구원도 마지막을 고(告)했다.

1916년 조선총독부 발행 「조선보물고적 조사자료」에 「옛무덤:당진군 고대면 서방 산상에 있다. 둥근모양의 높이가 약 2m(1간), 둘레가 약 140m(80간)라는 기록이 있음은 Ⅲ장 3절에서 말한바 있다. 「막무덤」이란 조잡하게 매장한 분묘를 뜻한다. 그 위치는 당진군 고대면 대촌리의 서쪽 큰길에서 가까운 언덕의 경사된 밭이름이 〈막무덤이 밭〉이고, 이 밭 자체가 「막무덤」이다.

이는 삼국유사의 기록인 당시의 옛 전쟁터인 위에서 말한 바 있는 〈손량〉의 상류쪽 약 1.5㎞ 지점으로, 옛 해안선 「분(墳)나루」에서 300m쯤 떨어진 곳이다.

이 분묘에 관하여 주목할 전설이 있다.

"옛날 일본군대가 이 지방의 땅의 정기를 끊을 목적으로 깊은 구덩이를 파고 녹인 쇳물을 지맥속에 흘려 넣었다는 자리"라는 것이다.

이는 풍수지리설과 연관되는 것이지만, 보통 일본병이라 할 때는 풍신수길의 임진왜란을 말함인데 당시 일본군이 이 지방에서 특별

한 작전을 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지방에서 일본병과 연관이 있었다고 한다면, 임진왜란보다도 옛날인 백제말기 당나라와 백제사이의 〈백촌강－백강지구〉에서의 해전이 예상되며, 이 고분은 천지 2년(663년) "백촌강 작전" 당시의 일본장정들의 〈외로운 혼들이 묻힌 분묘〉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일본과 당나라 사이의 큰 바다 전장이었던 〈백촌강＝백강지구〉. 그 아산만의 초입부위에 해당하는 〈손량〉 부근에 있는 이 고분은 구당서(권 84) 유인궤전에 「초 백제 경복신지난, 합경주잔, 강시상속, 인궤시령 수렴해골, 예매조제지....(初 百濟 經福信之亂, 合境凋殘, 殭屍相屬, 仁軌始令 收斂骸骨, 瘞埋弔祭之....」와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전운이 절박한 663년 8월 「1천척의 도착지점이 당진군 석문면의 〈백사－장고항리 어항〉이었다면 그 구원 대상인 부흥군의 핵심지점 주류성과 임존성은 당진지방의 가까운 곳이거나 적어도 당진지방과 동일 지역권내 소재함이 마땅한 것인즉,

종래 연구 발표되어 온 「A부류설」 즉, 금강하류지방인 한산〈건지산성〉, 혹은 「B부류설」 즉, 변산반도의 〈위금암산성〉일 수 없음은 자명하다.

Ⅵ. 백제유민의 일본망명

Ⅵ. 백제유민의 일본망명

1. 침복기성과 데레성(弖禮城)의 위치

주류성이 함락되었음에 대하여 일본서기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때 나라 사람들은 서로 말하기를 「두류성(주유성)」은 항복되고 말았구나. 무어라 할말이 없도다. 백제라는 이름도 오늘로 끝났구나. 조상님의 묘소를 어이 또다시 와 볼 수가 있겠는가. 오직 〈テレサシ(데레성)－弖禮城〉으로 가서 일본의 장군들을 만나 중요한 일들을 상의하여 볼 수 있을 뿐이로다〉 하였다.

드디어 처음부터 〈シムブキサシ－심부구기성－침복기성〉에 머물고 있는 처자들에게 나라를 떠날 것임을 알렸다.

11일 〈ムテ(무데)－牟弖〉로 떠났다.

13일 〈テレ(데레)－弖禮〉에 도착했다.

24일 일본의 군선과 좌평여자진, 달솔목소귀자, 곡나진수, 덕례복류와 국민들도 〈テレサシ－弖禮城〉으로 왔다.

다음날(25일) 「배가 떠나, 비로소 일본으로 향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위와같은 주류성 함락후의 결말에 대하여 이와나미출판(岩波刊) 〈일본고전문학대계의 일본서기의 주해 「하. p360」〉는 침복기성, 데레성, 무데에 관하여 이를 모두 〈자세히 모르겠다〉라고 했다.

패망한 주류성으로부터 망명길을 떠나는 처지라면 주류성의 위치문제가 뚜렷하지 못한 오늘날의 사정이고 보면, 이들 유적이 〈확실하지 않음〉은 필연적인 일이다.

살피건대, 부흥전 최후의 싸움의 성이었고, 풍왕이 거쳐하던 성이던, 이성이 함락되고, 망명길에 오르려는 마당에 〈ムテのテレサシ－무데노데레성〉까지 가면 일본군장들과일본군선을 만날 수 있으리라 하였음은 그 곳이 평소부터 일본구원군이 쓰고 있던 일본배의 항로중의 안전한 중간기지였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께우지 교수도〈데레성은 백강의 해전에 참가한 일본군의 근거지였던 것 같다〉「보고 14. p81」 하였는데, 이러한 추상을 가능케 하는 일본서기의 위 대목이다.

또한 망명길에 떠오르는 이들 유적중

ⓐ 백제부흥군의 간부의 가족이 머물고 있던 〈シムブクギサシ－심부구기성－침복기성〉은 주류성에서 인접한 지방에 있을 것이고,

ⓑ 일본군선을 만날 수 있는 〈ムテのテレサシ－무데의 데레성〉은 침복기성으로 부터 보행으로 3일이내 거리에 위치할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필자는 고산자 김정호가 대동지지에서 말한 〈홍주 주류성〉을 홍성군 장곡면 대현리의 〈학성〉과 산성리의 〈얼방성(왕성)＝석성〉 그리고 이 두 산성의 배후를 이루는 〈대부동 분지〉의 총칭이라고 미루어 짐작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침복기성을 홍성주류성 주변에서 찾아봄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평소 기억하던 이 지방 유적중에서 그 가능성이 떠오르는 곳이 장곡면 광성리의 〈참뱅이의 남성재〉였다.

〈サシ－사시〉는 〈성〉을 말함이고, 〈참뱅이〉를 일본어로 말하고 옮겨 쓸 때 〈シムブクギ－심부구기〉이상 가까웁게 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참뱅이〉는 장곡면 대현리와 산성리의 주류성으로 부터 4~5㎞ 거리인 광성리에 있다.

또한 〈참뱅이〉는 5세기경 지방호족 진씨의 본거지이던 곳이고, 마한 때의 사로국에 속하며 광성리의 중앙부인 〈곰뜸〉은 고려때의 여양현의 다스리는 곳이다.

〈참뱅이〉에서 올려다 보이는 오서산의 동쪽 중간쪽에 내원사가 있다.

〈원형석서〉에 따르면 그 창건이 의자왕때 일본과 연락이 있었던 여승 法明尼(법명니)에 의한 것이라 함도 부흥군과 연고가 있음직하다.

이곳 〈침복기성－참뱅이－シムブクギ〉에서 백제부흥군의 지도층의 가족이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추측한 것이다.

그렇다면 A.D 663년 9월 11일 이곳(장곡면 광성리)를 출발한 망명집단이 13일에 도착할 수 있는 해안. 그 해안에 있는 〈데레성－テレサシ－데레사시－弓禮城〉은 어디인가?

필자는 이를 당진군의 〈틀무시〉 지방에서 찾아보기로 하였다.

주류성의 소재가 홍성군 장곡면 지방일진대, 〈데레성－テレサシ〉의 위치 또한 내포지방일 것이고, 내포지방에서 〈데레사시〉라는 지명과 가장 가까운 것이 당진군의 〈틀무시〉라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줄다리기 행사로 유명한 당진군 기지시 지방인 것이다.

필자는 전에 〈틀무시〉라는 지방에 흥미를 느껴 추구하여 본 일이 있었다. 물론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다만 〈틀못－기지〉라는 저수지, 혹은 연못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전해 내려온 지명이 〈틀무시〉인 것을 일제 침략이후 행정편의상 한문글자 지명으로 옮겨쓰면서 〈틀못－機池〉이라 쓴 것뿐임을 알고 있었다.

2. 무터지방

〈뭍－ムテ〉이라 함은 보통 섬사람 혹은 배타는 사람이 건너쪽의 육지를 말할 때 쓰는 말이다.

당진지방 방언으로는 〈무티〉라고 한다. 〈ムテ(무데)－牟弖〉와 아주 비슷하다.

일본서기의 표현 양상으로 보아, 내포지방에 백제부흥군을 도웁던 일본군 배가 언제나 배를 대던 연락기지가 있었던 그 곳에 돌로 쌓은 보루가 있어, 이를 언제나 〈무티－ムテ에 있는 돌무지－석성－돌성〉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이 지방에서 〈ムテ성－데레성〉을 찾아 나섰다.

(이께우지 교수도 보고 14. p81)에서 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당진은 〈낙지발〉 같은 작은 반도가 많은 리아스식 지형이다.

그 사이를 메우는 간척사업이 발달하여 많은 간척지가 조성되었다. 그 여러 반도의 중심을 이루는 지방에 장사들이 집중되는 시장마을이 형성되게 마련이다.

그중의 하나가 〈틀무시〉라는 상업중심의 마을이었다.

그러나 이곳 송악면 기지시리 부근에는 토성도, 저수지도, 돌성도 없다.

〈백사와 백촌강〉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와 삼봉리〉의 동방 약 20km, 주류성의 북쪽 약 60km 거리에 위치하는 이 시장마을은 1970년 삽교천 방조제가 축조되기 전까지 아산만 해안지방의 어업과 상권의 중심지였다.

살피건데 〈낙지발〉형상의 당진군 여러반도의 중추부인 이 지방의 역사지리적 조건은 옛날 아산만 항로중 일본수군의 연락기지 혹은 중간정박지로 가장 적합한 곳이었을 것이다.

① 〈틀무시－기지시〉의 북동방 14km 쯤에 〈한나루－한진〉이라는 옛부터 유명했던 어항이 있다.

이곳 부근에 송악산성이 있지만 해발 150m나 되는 산꼭대기이고 항구와도 많이 떨어져 있어 이 성을 〈ムテのテレ성－무데의 데레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필자는 오랜 답사끝에 송악면의 해변가 해발 50m가량의 넓은 언덕위에 옛 성터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산주인이었던 홍영희, 지방인사 유지섭, 이민열씨 등의 도움되는 말을 참고하여 이를 정리해 본다.

a) 이곳 산에는 돌이 없는 지질이다.

b) 아산만의 입구부위 당진군쪽 남쪽에 〈안섬－내도〉라는 작은 섬이 있다.

이를 중심으로 좌우의 돌출부를 연결하면 〈일차포구－(만)〉가 성립된다.

〈안섬－내도〉를 배후로 하는 훌륭한 정박지가 된다.

일차포구안에 〈구지도(九芝島)〉가 있다. 이와 그 좌우를 연결하면 2차 포구가 형성된다. 이것이 〈틀무시 포구〉인 것이다.

c) 이 〈틀무시포구(만)〉안에 〈석포리의 갯개(海濱)와 〈명산리의 서원포〉가 있어 약 30년전까지 선박이 들어옴이 많아 지방산 어물이 틀무시 장터(기지시 시장)로의 양륙과 인천으로부터의 물자가 들어오고, 지방산 물자가 활발하게 뭉치고 흩어지는 포구였다. 〈틀무시시장〉의 외항인 것이다.〉

지금은 30년전에 시공된 간척사업으로 〈틀무시포구(만)〉자체가 염전과 농경지로 변해 버렸다.

d) 2차 포구인 〈틀무시 포구(만)〉의 입구부위에 〈배울〉이라는 3차 포구가 있다. 훌륭하고 안전한 좋은 항구이다.

8. 15 해방후인 1945~1950년경 시국이 불안하던 때 중국대륙과 밀무역이 성행하던 어항으로서 상당히 큰 동력선과 대형장크선이 드나들던 좋은 항구다.

e) 이 어항이 이 근해지방의 어민들이 누구나가(무티)라고 부르던 곳이었다고 한다. 〈틀무시포구(만)의 중추였기 때문이다. 즉, 지방어민들이 서로 잘 통하는 〈무티〉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를 일본서기의 〈ムテ-무데〉라고 본다.

f) 〈배울항〉의 배후에 한쪽이 급경사진 해발 50m 가량의 얕은 산이 있다.

꼭대기 부분은 넓은 펑퍼짐한 대지를 이루고 부드러운 경사된 언덕을 이루고 있다.

이 대지위에 5~6백평 가량의 석축성이 있고, 4~5기의 작은 적석총이 있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새마을운동 당시 쌓여있던 돌들은 완전히 반출되고 말았다.

돌이 매우 귀한 지방인데다, 간척공사에 돌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살피건데, 석성도 〈돌무지〉이고, 돌무덤〈돌무지〉인 것이다.

〈틀무시 포구(만)〉라는 지명은 이곳〈돌무지(석성)어항〉에서 나온 것이며 〈줄다리기〉로 이름난 〈틀무시-기지시〉라는 장터마을 이름도 옛날 이 지방의 대표적 포구이던 〈돌무지(석포)항〉에서 온 것으로 추측된다.

백제가 멸망하자 적극적인 구원에 나선 일본, 그 군선이 오고가던

〈배울 항구〉의 뒷산에는 이 항구를 지키는 작은 〈돌로 쌓은 보루－돌무지〉가 있었다.

그래서 이 항구를 〈돌무지포구〉라하였고, 이것이 변천하여 〈틀무시포구〉로 불리우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산꼭대기의 돌성터(石城) 옆 3~400평 밭에는 돌무덤이 4~5기가 있었으니 이곳 지명은 이래저래 〈돌무지〉인 것이다.

663년 9월 7일 주류성〈홍성군 장곡면 대현리와 산성리〉이 함락되자 백제의 지도층은 일본으로의 망명을 결의, 가족들이 머물고 있던 〈참뱅이－침복기성〉(장곡면 광성리)으로 내려와 처자식을 데리고 9월 11일 일본군선과 연결이 될 것으로 믿어지는 〈ムテのテレ성－무데노데레성〉(당진군 송악면 정곡리)을 향하여 떠났다.

홍성 광성리에서 당진 정곡리 사이는 험한 길도, 넓은 하천도 없는 60㎞의 길이다.

사흘걸려 13일에 도착하였다. 9월 24일 일본군선이 〈テレ성－돌무지항〉으로 들어왔고 같이 떠날 사람들도 모두 모였음으로, 25일 항구를 떠나 일본이라는 신천지를 향하여 망명길에 올랐다.

일본서기에는 〈신유, 발도어무데(辛酉, 發途於牟弖)〉라 하였다.

이를 〈무데(牟弖)를 떠났다〉라고 읽는 연구가도 있다.(예:도우야마미또오(遠山美都男－백촌강, 전영래－백촌강에서 대야성까지...)〉

그런데 〈일본고전문학대계 일본서기 권하 p360〉에서는 〈무데를 향하여 떠났다〉라고 하였다. 필자는 이를 따른다.

요다(依田豊)씨는 〈백제멸망후 그 유민이 와서 일본의 문운(文運)에 기여, 일대 새모습을 나타냈음을 볼 수 있다〉 하고는 [〈주류성이 함락되자〉 〈데레성〉으로부터 발선, 이때 인원은 잘 모른다〉]라 하고, 〈전후 합하여 5천 5백명이 된다. 역사에 누락된 것을 가산한다면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키 어렵지 않다〉하였다.(역사지리 16권 6호)

이러한 사후 사태는 한 작전이 끝난 다음 1만 2천명의 포로를 데려갔다던가, 700명~2천명의 목을 베었다던가 하는 전례와는 큰 변화인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8월 13일 두솔성(청양군 칠갑산)의 일본병과 백제병이 항복하였을 때, 문무왕이 관용을 베품으로서 고산자가 〈일명 자비성이라고 칭한다〉하였고, 9월 7일 주류성이 함락된 다음 백제일 일본의 지도층이 무사히 일본으로 망명할 수 있었음과 당나라의 문관출신 도독 유인궤가 백촌강(백강구) 해전의 전사 장정들의 시신을 수렴하여 묻어주고 조문제사를 지내주었다 함에서 엿볼 수 있는 변화 조짐인 것이다.

이후 일본 국내 정치사정은 큰 변화를 겪게 된다.

Ⅶ. 맺는 말

Ⅶ. 맺는 말

주류성의 위치문제에 관한 필자의 인식은 20년전까지 〈한산설과 변산반도설이 있는데 가루베박사(필자의 공주고보시절 은사. 일본인)는 이 두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오늘에는 김정호 선생이 대동지지에서 내린 〈홍주설〉을 내 스스로 검토하여 보고, 답사해 보고 역사적으로 확신하기에 이르렀다.

전국을 두루 몇번이고 답사하였을 고산자는 130년전 〈대동지지〉에서 〈홍주목 본 백제주류성 당개지심주〉라 하였다.

그러나 주류성의 모습을 〈원격전묘 토지교각 산준고이계애 수이이공난「遠隔田畝 土地磽角 山峻高而谿隘 守易而攻難」〉이라고 한 일본서기의 구절은 참조하면 평지석충성인 홍주목성이 주류성일 수 없음은 분명하다.

고산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그 위치를 지적하지는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홍주지방에 지목하였음은 그 분이 충실히 고찰을 한 결과일 것이다.

고산자의 〈홍주설〉에 관하여 80년간의 일본사학계는 그렇다 치고 우리 사학계에서도 이제까지 일본학계의 흐름에 매달려 이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였음은 놀랍고도 서글픈 일이다.

고산자의 뛰어난 견해에 접하게 된 이후 필자의 백제 부흥전에 대한 관심은 더 깊어져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본 것이다.

그 결과는 선배 여러분들의 연구결과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1) 백제라는 역사무대를 웅진·사비의 좁은 범위로 한정하여 온 선입관념이 시야를 흐려 놓은 것같다.

공주·부여 금강권은 백제강역이던 전라도는 고사하고, 충남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절반은 내포지방이 차지한다.

2) 문헌사료 위주의 고증에 너무 치중한 결과인 것 같다. 애당초

1300년전의 패망국의 역사인데 납득할 만한 직접적인 자료가 있는 것이라면 김부식이 〈이름은 있으나 확실치 않다(有名未詳)〉라 하였을리 만무하다.

3) 현지답사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현지를 밟아보면 자기의 견해가 옳고 그름을 직감할 수 있을 터이다.

필자는 주류성과 백촌강을 논술한 근 40편의 연구문헌을 읽었다.

이 글을 쓴 사람중 내포지방을 다녀간 것이 확실한 것은 오직 〈고바야시게이꼬－小林惠子〉씨 뿐인것 같다.

그녀는 말한다. 〈백강(아산만)의 물은 그 이름에 어울리게, 무언지 모르게 허옇게 느껴졌다〉라고 이는 여류사가다운 예리하고도 정확한 관찰이다.

아산만의 남쪽 해안지방은 규석과 장석지대인 것이다. 그러니 물바닥이 희다. 금강하류의 검은 진흙과는 대조적이다.

그래서 당나라의 역사들은 이 강－아산만－을 〈백강〉이라 불렀을 것 같다.

살피건데, 백제부흥전 관련 유적으로서 그 소재가 분명한 곳은 오직 웅진·사비·웅진강·임존성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위치가 확실하지 않은 나머지 다른 유적의 확인은 이 4개 지방이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이것 만으로 불충분함은 누구나 느끼는 사실인 것이다.

이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새로운 기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필자는 이러한 시각에서 부흥전기간중 역사발전의 계기로 작용한 중대한 사건 즉,

a) 661년 3월의 두릉윤성 공격작전

b) 〈석성〉의 위치문제와 직결되는 662년 7월의 〈강동〉으로 부터의 패퇴

c) 662년 12월~663년 2월의 피성 천도

d) 663년 8월 주류성과 임존성을 공략하기 위하여 편성한 손인사와 유인원, 문무왕과 김유신이 지휘한, 제2차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의 집결지가 웅진이었다는 사실

e) 663년의 6월 손인사의 바다 건너온 곳 〈백강〉과, 8월의 〈백강지구=백강구=백촌강 해전〉의 경과등 다섯 건을 중점적으로 깊이 연구하였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웠던 연구는 〈피성-ヘサシ-혜성〉의 위치 고증이었다.

이 논문은 이 새로 규명한 다섯가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구성한 고증이다.

이 하나 하나의 역사적 사실고증에 착오가 없는 것이라면 본 논문의 견해 또한 정확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풍왕이 일본으로부터 백제땅으로 돌아온 시기에 대하여는 견해가 있으나 661년 9월설이 유력하다.

이때 풍왕을 호위하고 온 5천 병력중의 대부분이 그들의 장수인 박시전래진(보꾸이찌)과 협정연(세마이)을 따라 이 성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중 일부가 662년 8월에는 〈ソルサシ-소류성-송성(-연기군 전의)〉에 파견도 되고 663년 8월에는 두솔성(청양 칠갑산)에도 나가 있다가 8월 13일 문무왕군에 항복하고, 문무왕의 특별한 관용을 받은 그 일본병일 것이다.

백촌강의 위치문제 또한 80년전 일본학자가 제기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과제이다.

백가의 목을 베어던진 〈백강〉과 부여부근의 〈백마강〉등으로 인한 선입관념 때문에 금강하류지방에서 80년간 찾아헤맨 대상이 된 것이다.

A.D 663년 8월 27~28일 〈백강지구〉에서 전개된 당나라와 일본간의 해전은 동양초유의 국제해전이었다.

이와 관련된 지명인 삼국사기의 〈백사〉, 삼국유사의 〈장암·지벌

포·손량〉등이 아산만의 입구부위에 해당되는 당진군 석문면과 고대면 일원에 집중되어 실지로 있음은 중국사료의 〈백강·백강지구〉와 일본서기의 〈백촌·백촌강〉도 아산만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역으로 말한다면, 〈백강〉이 아산만 일진대 주류성과 침복기성, 백촌강·무데의 데례성(牟弖의 弖禮城)은 아산만 권역 즉, 내포지방에 실지로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자의 머리속에 그린 생각에 대하여 현장을 답사하고, 그 가능성을 확인하여 주신 석문중학교 신양웅 교장과 신평중학교 홍석표 선생, 그리고 당진군의 연구회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린다.

그 고증자료를 탐구하던 때, 수많은 유적과 유물을 교시하여 주신 신이균 석문중학교 이사장은 벌써 고인이 되셨다.

문관 출신 도독인 유인궤가 해전에서 원혼이 된 일본장정들의 시신을 수렴하여 묻어주고 조문의 제사를 지내주었다는 구당서의 기록을 뒷받침하는 둘레 140m, 높이 2m가 되는 큰 고분을 해전이 전개된 옛 싸움터 〈손량〉의 서남방 1.5㎞쯤인 고대면 대촌리의 서쪽 언덕에서 발견할 수 있었음은 큰 보람이다.

간척사업 전의 〈분(무덤·墳)나루〉해안에서 200m쯤 남쪽이 되는 곳 〈막무덤〉인 것이다.

이는 1916년 조선총독부 발행 〈보물고적조사자료 「당진군조」〉와 충청남도지의 기록과도 합치되는 것이어서 특기할 만한 성과라 하겠다.

일본장정 1만여명의 외로운 혼이 여기 잠들어 있는 것이다.

장차 한·일 양국의 뜻있는 인사들에 의하여 위령탑이라도 세워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문관출신 도독 유인궤의 인품도 이에 의하여 재평가 되어야 할 것이다.

주류성과 백촌강의 위치가 확증 됨으로서

1. 백제유민의 뜨거운 애국심이 확인된다.

임존성에서 주류성(학성과 얼방성) 사이는 12㎞쯤 된다.

이 사이에 나성이 네곳이나 있다. 이 일직선상에 배치된 여섯성의

동쪽을 주류성쪽으로 부터 임존성 방향으로 무한천이 북쪽으로 흐른다. 그러니 임존성과 주류성은 한 권역을 이룰 뿐 아니라 무한천 또한 강력한 방어선이 된다.

여러사료를 개관할 때 백제부흥전의 주요무대는 백제의 서북부 지방 즉, 내포지방이었음이 분명하다.

혹자는 임존성과 주류성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통신수단이 발달이 안된 시대에 전쟁에 이긴 신라와 당나라를 상대로 3년반 동안이나 효율적인 항전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주류성과 임존성과 두릉윤성이 한 지역권내에 있어 유기적으로 연결이 가능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660년 9월 3일, 당나라군에 의하여 1만2천명의 백제 지도층이 끌려간 후 이 임존·주류 두 성을 거점으로 항전을 벌인 것이 귀실복신·흑치상지·승 도침·사탁상여·지수신 등을 중심으로한 3만지방민이었고, 여기에 일본으로부터 귀국한 풍왕과 이를 호위하고 온 5천 일본병이 가세하였다.

한편 임존성의 서쪽 11㎞ 거리에 〈장성리산성(당성)〉 이 있고, 또 그 서쪽 4㎞에 〈고무랭이성〉이 있다.

광개토대왕·비문 병신년조의 〈고무루성〉이 이것이고, 일본서기의 〈고마노리성〉이 이것이다.

660년 7월 백제가 멸망하자 좌평여자진은 여기서 의병을 일으켰다. 홍성역에서 바라보이는 성이다.

그는 663년 9월 주류성 함락후 〈ムテのテレ성－무데의 데레성－무데 데예성〉으로 부터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2. 당시의 백제와 일본과의 깊은 유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1330년전 패망한 조국을 재건하려는 백제인을 적극 지원한 것이 제명여제와 그의 아들 천지왕이었음을 아는 이는 드물다.

특히 663년 3월 2만7천명의 장정을 징집, 당시 세계 최대·최강의 대당나라를 상대로 국운을 걸고, 백제를 구원하려다, 백촌강 해전에서 자기나라 장정 1만여명의 희생자를 내고, 물러선 천지왕의 처사

로, 한일 양국간에 이럴 정도의 깊은 유대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류성 함락이후 일본으로의 망명자가 5천 5백명 이상에 달하였다는 배경과 더불어, 그 연유하는 바에 관하여 일본학계의 해명을 듣고 싶다.

3. 앞으로의 한·일관계는 이 홍주주류성의 확인과 당진군 고대면 대촌리의 일본원군 전몰자의 무덤확인 등으로 뜻있는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이나 선량한 양국민 사이에 새로운 전기를 이룩할 것이라 기대된다.

2001. 10 박성흥



■ 著者略歷

朴　性　興

· 1917年 8月 26日 生
· 公州公立高等普通學校 卒業(10回)
· 溫陽溫泉 神井小學校 教員
· 東京 理科大學(東京物理學校) 修學《太平洋 戰爭 勃發로 歸家》
· 禮山郡 勤務
· 禮山面長
· 回甲무렵부터 馬韓史와 百濟史 等을 硏究
· 全國文化院聯合會 公募 歷史論文 最優秀賞 受賞
· 「禮山의 얼」(禮山郡 發行) 執筆 參與
· 禮山郡誌 執筆 參與
· 禮山郡 文化賞 受賞(第2回)
· 洪城郡誌 執筆 參與
· 秋史 김정희선생의 鄕里와 그분의 雅號 발간
· 홍주 주류성과 당진 백촌강 연구(증보판) 발간
· 연　락　처　041)337－4154

인쇄처 : 조양인쇄사　041)632－2363(代)

고 침 표

쪽	줄	틀 림	고 침
7	16	심복기사서	침복기사시
8	3	침향	돌도끼
9	1	석도	돌도끼
9	1	석촉	석도
9	1	광시면	대흥면
9	3	오가면 원천리	신암면 종경리
11	17	진번국	진번군
15	1	전	경(頃)
15	19	갖아	가져
16	14	석관묘(石棺墓)	석곽묘(石槨墓)
17	8	현	현(現
17	11	(廣川) 대흥	(廣川) →대흥
18	13	俗秤地名	俗稱地名
18	27	이미니시	이마니시
19	3	121경	121년경(頃)
21	15	七千六百四十里五縣	七千六百四十里十五縣
23	14	고정	고증
30	5	말머리	말머리 토성
33	11	산모습	산(山) 모습
36	5	석관묘(石棺墓)	석곽묘(石槨墓)
37	7	번(藩) 챙이성	반(藩) 챙이성
38	2	이두검	이두령
38	3	이두검	이두령
38	10	석관묘(石棺墓)	석곽묘(石槨墓)
38	19	철마(鐵馬)	청동마(靑銅馬)
39	20	끌	끈
44	17	삽	삽(揷)
47	9	진번국	진번군
49	22	여	면
52	11	변한	변(變) 한

쪽	줄	틀 림	고 침
60	29	있으리니	있으려니
61	21	원주한족	원주한족이
64	19	2050년후	2050년전
66	1	交界었다고	交界였다고
81	9	(合德邑) 순성면	(合德邑)과 순성면
81	16	철마(鐵馬)	청동마(靑銅馬)
81	18	석관묘(石棺墓)	석곽묘(石槨墓)
82	21	제4편 3장	제4편 4장
85	8	진왕(辰王)	진국(辰國)
91	5	재두르미	재두루미
95	10	주래(子來)	자래(子來)
100	1	그 마탕으로	그 바탕으로
103	9	제3장	제4장
103	16	제3장	제4장
107	4	眞國	辰國
127	9	흐흐는	흐르는
132	23	於城	五城
134	6	제6절	제6편
134	14	대	때
137	17	족	쪽
144	23	보(步)로	보(步),
148	3	명리(明里)	한리(韓里)
151	20	내	내(川)
151	21	내	내(川)
156	3	침입한군	침입 한군
164	17	야마토지바	야마도지방
167	6	구야왕	구누왕
167	6	기내지방	기내(야마도)지방
169	25	B.D	B.C
171	16	우두성	우두산

쪽	줄	틀 림	고 침
171	19	구(귀=龜)旨峰	구(귀)지봉(龜旨峰)
172	2	목리	성리
184	27	목지성 지방	목지 지방
193	5	위한 한 내세우는	위한 내세우는
199	22	가가운	가까운
221	8	침주	심주
236	8	구원군 장군	구원군인
237	9	3개월	2개월
237	25	혜사시(성)	혜사시(혜성)
238	24	것이다.	것이다.」 하였다
240	17	3천2천	3천2백
259	6	아산만의	아산만
268	27	도ㅡ야마	도야마
272	26	(盧原將軍)〉	(盧原)將軍〉
281	4	두류성	주류성
284	17	ムテのテレ성	ムテのテレサシ
285	25	돌무덤	돌무덤도
286	10	ムテのテレ성	ムテのテレサシ
286	14	テレ성	テレサシー데례성
291	12	평지석충성인	평지석축성인
293	8	송성	송(솔)성
297	8	禮山面長	德山面長